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27nB193

隱元禪師語錄

清 隆琦說 海寧等編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隱元禪師語錄序](#)
 - [黃檗隱元禪師語](#)
 - [隱元禪師語錄序](#)
 - [隱元禪師全錄序](#)
 - [隱元禪師語錄目次](#)
 - [住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住嘉興府崇德縣福嚴禪寺語錄](#)
 - [住福州府長樂縣龍泉寺語錄](#)
 - [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小參](#)
 - [源流頌](#)
 - [頌古](#)
 - [拈古](#)
 - [行實](#)
 - [入室](#)
 - [問答機緣](#)
 - [法語](#)
 - [專使送法衣至](#)
 - [為守勤龔居士薦嚴](#)
 - [示三尼](#)
 - [清漳淨塵上人求薦乃師樵雲公](#)
 - [示公奎丘居士](#)
 - [信童國錡乞壽乃尊甫宅洪居十七秩](#)
 - [示九龍寺良箴諸禪人](#)
 - [示陳道人](#)
 - [信士儒萃儒\[茫-亡+\(姬-女\)\]薦拔乃尊公進丘居士](#)
 - [答垂語](#)
 - [答高峰垂語](#)
 - [答青山依舊白雲中](#)

- [答分身兩處看](#)
- [答惟吾獨尊](#)
- [答拈得鼻孔失卻眼睛](#)
- [答騎牛覓牛](#)
- [答高峰出來也未](#)
- [啟](#)
 - [請本師和尚啟](#)
 - [請鳳巢瓦信法弟啟](#)
 - [復儀部閔公請啟\(諱及申\)](#)
 - [復侍御曹公請啟\(諱谷\)](#)
 - [復崇德縣呂侯解公請啟\(諱學問\)](#)
 - [復銓部錢公請啟\(諱元熬\)](#)
 - [復方伯顧公請啟\(諱玄鏡\)](#)
 - [復通政馬公請啟\(諱思理\)](#)
 - [與瓦信法弟啟](#)
 - [復長崎諸居士啟](#)
- [書問](#)
 - [與壁山諸禪德](#)
 - [復海澄文長曾居士\(諱紹燈\)](#)
 - [復鼓思王居士](#)
 - [與鏡汭凌居士](#)
 - [答齊甫楊居士](#)
 - [答天日龔居士](#)
 - [復密因上人](#)
 - [復惺一莊居士](#)
 - [復丁官徐居士](#)
 - [復鹽官子穀蔡居士](#)
 - [復不凋池居士\(字直夫\)](#)
 - [與羅山法弟](#)
 - [復刑部沈公請\(諱戩穀\)](#)
 - [復天水禪師](#)
 - [復起南張居士](#)
 - [答心盤禪人](#)
 - [復莆田陳孝廉得先書\(諱遂捷\)](#)
 - [復長崎禪人書](#)
 - [復本仁呂居士](#)
 - [復觀周徐孝廉](#)
 - [復子穀蔡老居士](#)

○ 詩偈

- 金粟解制
- 訪青雲巖關主不遇
- 宿潮州草葢
- 寄中台林檀越
- 回山有感
- 次林秀才韻
- 狂風
- 輓印初禪友(歸寂金陵)
- 輓龍吟卓居士
- 復社友
- 和潔道人韻
- 巖中偶成
- 贈恒默二兄進關
- 次十禮林居士
- 佛誕日贈居士林恬生
- 執中林居士求偈薦室
- 似月樵林居士
- 輓曇域耆舊
- 輓中台林緣首
- 化齋糧
- 月樵林居士求薦母
- 除夜示眾
- 丙戌年回山作
- 游龍峰示碧居禪人
- 暮春禱雨
- 答江居士
- 輓守心禪人
- 寄懷禪友
- 贈別蒼霞法弟省觀 本師
- 陳無葢居士入山求薦母孝節莊孺人偈
- 修造四眾塔
- 示青山道人
- 薦葉子暄居士
- 壽乾葢陳居士六十
- 贈允寧陳居士放生會
- 樹下宿
- 元旦

- [掃祝髮師塔](#)
- [詠筍](#)
- [巖中自敘](#)
- [關團瓢小徑](#)
- [化千觔銅鐘](#)
- [位中林居士求薦母](#)
- [化齋糧](#)
- [溫陵弘靜秦居士乞偈壽親](#)
- [仲春訪羅山瓦信法弟](#)
- [別羅山法弟](#)
- [懷羅山法弟](#)
- [示爾浪林居士](#)
- [丙戌孟冬苦雨有感](#)
- [示滋石禪人](#)
- [題遼天居](#)
- [過石門寺](#)
- [寓西石巖](#)
- [人日喜晴應君袖林居士齋](#)
- [詠瓶梅](#)
- [示五雲侍者](#)
- [海口鎮作水陸普度](#)
- [輓栖雲耆舊](#)
- [寄妙法化主](#)
- [玄樞玉樞宋居士乞偈壽親](#)
- [詠橋梅](#)
- [中秋夜詠](#)
- [壁蘭](#)
- [回獅巖遼天居](#)
- [題上田院西閣](#)
- [示越宗禪人](#)
- [次李居士韻](#)
- [示徽州學菴程居士](#)
- [示長樂念佛優婆夷](#)
- [示尊九陳居士](#)
- [示蠢餘禪人](#)
- [示道原菴主](#)
- [示良範禪人](#)
- [示鷺門林居士](#)

- [良智禪人乞偈薦親師乃其宗支似難卻筆因敘數言](#)
- [無上侍者乞偈壽母](#)
- [輓夔友龔居士](#)
- [示燦宇吳居士](#)
- [壽能監寺六旬](#)
- [游光巖寺](#)
- [示憐初柯居士](#)
- [佛師萬象先乞偈薦母](#)
- [訥夫程居士請題父行略](#)
- [宿盤谷](#)
- [示性溫庵主](#)
- [寂仁禪人求偈壽乃師常清六旬](#)
- [古鏡禪人乞偈壽乃師未雕五旬](#)
- [贈大悲院主復初](#)
- [挽林文若居士](#)
- [壽海山常熙耆舊七旬](#)
- [金粟辭老和尚歸闈](#)
- [客堂白警](#)
- [和儕字韻](#)
- [寄某禪師](#)
- [南行募化](#)
- [贈芝山樵雲公](#)
- [宿南坑](#)
- [秋懷](#)
- [回山見法席寂寞有感](#)
- [壽圓初耆舊](#)
- [住獅子庵](#)
- [贈天童禪師化木](#)
- [偶成](#)
- [巖中除夕示徒](#)
- [巖梅](#)
- [溪梅](#)
- [藏閣梅](#)
- [次鴛湖師韻](#)
- [偶成](#)
- [示徒](#)
- [寄諸禪德](#)
- [重陽同諸禪人登寶峰](#)

- [送子春兄出家](#)
- [輓叔派初](#)
- [游無患溪](#)
- [寶峰](#)
- [屏嶂](#)
- [紫薇](#)
- [獅子](#)
- [香爐](#)
- [佛座](#)
- [羅漢](#)
- [鉢盂](#)
- [天柱](#)
- [五雲](#)
- [報雨](#)
- [吉祥](#)
- [掛月峰](#)
- [象王嶠](#)
- [觀母林](#)
- [梯雲橋](#)
- [大螺池](#)
- [雞籠山](#)
- [獅子峰](#)
- [嬾雲阿](#)
- [觀流亭](#)
- [靈應潭](#)
- [五峰塔](#)
- [龍泉井](#)
- [白雲洞](#)
- [鳳巢林](#)
- [清明寓羅山](#)
- [開元雙桂堂](#)
- [答楊齊甫居士](#)
- [示李道人超直](#)
- [邑侯請禱雨以偈答之](#)
- [化齋僧田](#)
- [營金粟大和尚壽塔](#)
- [示弘靜秦居士](#)
- [壽中台林檀越七秩](#)

- [因事似縣主凌公](#)
- [又似外護諸居士](#)
- [暨中天師祖塔院](#)
- [示化米禪人](#)
- [為顯鏡寺懷雲禪人薦母](#)
- [潛子龔居士求薦室](#)
- [示化茶禪人](#)
- [為茂昇禪人化圍頭](#)
- [示募田禪人](#)
- [送無念侍者住獅子巖](#)
- [訪雪菴勤舊](#)
- [未一石居士求薦子](#)
- [送無念之楚](#)
- [示眾](#)
- [薦應陞石居士](#)
- [示蓮胎張居士](#)
- [示解天禪人](#)
- [次二水張先生](#)
- [示香公鄭太澍](#)
- [翻藏經](#)
- [閱天童判語](#)
- [燈夜](#)
- [示非日侍者](#)
- [子穀蔡居士請住](#)
- [化羅漢](#)
- [戒點燈](#)
- [為友石石居士普度](#)
- [即事有懷](#)
- [次無價趙居士醉歸吟](#)
- [般若臺](#)
- [別西山耆舊](#)
- [示良然禪人](#)
- [祈雨](#)
- [示洞提禪人](#)
- [為薦九昌乃母林氏](#)
- [因事似外護乾庵陳公](#)
- [示僧智印](#)
- [示良矣禪人省母](#)

- [贈鴈湖葉居士任廉州太守\(諱益蓀\)](#)
- [贈總戎徐居士\(諱永泰\)](#)
- [除夕示眾](#)
- [示牧牛禪者](#)
- [示清流爾兼禪人](#)
- [示妙乘陳道人](#)
- [贈萬石山常清禪人](#)
- [贈貴吾鄭居士](#)
- [眠牛山](#)
- [偶還故里](#)
- [志宏林居士乞壽乃尊五旬](#)
- [復史仙四絕](#)
- [說法臺](#)
- [貴品峰](#)
- [寓如是菴](#)
- [過連江淨雲菴](#)
- [祈雨](#)
- [示恒春王醫士](#)
- [示亨吾張居士](#)
- [示良範禪人省親](#)
- [示心谷林居士](#)
- [福嚴寺化齋糧](#)
- [殘臘賦白雲歸](#)
- [聞山中有事似外護諸居士](#)
- [舟中偶成](#)
- [掃塔哭天童老和尚](#)
- [過小白嶺遇兇逆有感](#)
- [雞冠花](#)
- [中秋寓西林禪院](#)
- [示賣油僧\(冒稱得法\)](#)
- [時僧誇文章為勝義故示之](#)
- [折江梅](#)
- [掃瑞天祖塔](#)
- [壽道山印天耆舊](#)
- [覺予禪人乞偈重興顯鏡寺](#)
- [示達禪人](#)
- [示南山禪德](#)
- [化香燈田](#)

- [修普同塔](#)
- [募香燈田](#)
- [示以乾楊居士回潮](#)
- [隔牆梅](#)
- [示超塵善人](#)
- [示王性德優婆夷](#)
- [龍江修水陸普度夜懷五首](#)
- [為雪臺曾居士薦母](#)
- [中天祖開光偶占](#)
- [禪人送菴菊戲占三絕](#)
- [戊子中元夜夢游龍潭](#)
- [復位中居士](#)
- [次十龍鄭居士韻](#)
- [募萬安福善堂中天始祖香燈](#)
- [示江洲妙融禪人](#)
- [送無得首座住萬安](#)
- [送良冶西堂住旛山](#)
- [送也懶西堂住高峰](#)
- [示連江縣維祥張居士](#)
- [示聯壁丘居士](#)
- [寄示良者禪人化糧](#)
- [示碓房行者](#)
- [示化園頭僧](#)
- [示化禪帳僧](#)
- [次無價趙居士游石門韻](#)
- [示良守禪人禁步](#)
- [募漆大殿柱](#)
- [示古木禪人](#)
- [示化紙禪人](#)
- [示行童性派](#)
- [別十荃林居士](#)
- [送玄牛西堂](#)
- [山居閒詠](#)
- [示雪立禪人](#)
- [寄懷姚居士](#)
- [道中吟](#)
- [仰天巖](#)
- [龍華寺](#)

- [文榕](#)
- [南林寺](#)
- [登金剛頂](#)
- [贈若石禪人住山](#)
- [游九鯉湖二首](#)
- [贈天壺巖朗玄山主](#)
- [留題南山](#)
- [贈獅岩慧門首座](#)
- [贈斂石木菴首座](#)
- [贈後堂心盤公](#)
- [贈廣超堂主](#)
- [示太鏡禪人](#)
- [嘆鳳山也懶首座](#)
- [示龍峰巖正可禪人](#)
- [贈明祥褚居士](#)
- [小溪十詠](#)
- [燈夜](#)
- [化鐘樓](#)
- [示良矣禪人求刻語錄](#)
- [示尼日照](#)
- [山房十詠](#)
- [龍峰六詠似裏劉諸居士](#)
- [小溪又詠](#)
- [贈允超陳居士](#)
- [普惠寺](#)
- [香潭八詠](#)
- [題龜山四首](#)
- [金粟偶成](#)
- [訪鄰虛禪友](#)
- [示非日侍者](#)
- [重興大殿](#)
- [示福泉我登柯居士](#)
- [化豆](#)
- [秋夜](#)
- [游龍鳳寺](#)
- [游鳳凰寺](#)
- [開放牛池](#)
- [化階級](#)

- [登師巖](#)
- [詠梅](#)
- [警醉客](#)
- [化齋糧](#)
- [游福廬示彬廷薛居士](#)
- [示燦我旆居士](#)
- [示省言禪人](#)
- [示允武翁居士](#)
- [示靜宇林居士](#)
- [示與頤建宸周居士](#)
- [示十夫陳居士](#)
- [示隆聰陳居士](#)
- [示玉樞宋居士](#)
- [示性剛楊道人](#)
- [游海山三十六湖](#)
- [馬峰院](#)
- [江郎石](#)
- [題書鵲](#)
- [詠茶](#)
- [示未徹禪者](#)
- [詠雞冠花](#)
- [示連江諸居士](#)
- [次無價趙居士韻](#)
- [示幼峰何居士](#)
- [參禪偈五首](#)
- [示自敏禪人之大灣](#)
- [移榻鐘樓次韻](#)
- [募鋪路](#)
- [觀音堂](#)
- [李園](#)
- [題孤山](#)
- [化穀](#)
- [普惠寺](#)
- [行住坐臥](#)
- [拄杖子](#)
- [應黃巖請臨行示徒](#)
- [慈聖菴尼傳貞乞偈為乃師覺源入塔\(其師省中請佛回菴合什三拜即歸寂\)](#)

- [憶獅巖](#)
- [詠梅](#)
- [送止止禪人參方](#)
- [香爐](#)
- [為寂朗禪人募戒衣](#)
- [示行祉行祥二道人](#)
- [示通證優婆夷](#)
- [化鹽](#)
- [示覺隱禪人](#)
- [化齋](#)
- [示化茶僧](#)
- [示化豆僧](#)
- [示化齋僧](#)
- [示化薯僧](#)
- [示白田鄭居士](#)
- [示鑑先禪人](#)
- [示心悟禪人](#)
- [示野麟上人](#)
- [朗牛禪人乞偈重修寒山室](#)
- [讚](#)
 - [開山正幹禪師](#)
 - [希運禪師](#)
 - [懶安禪師](#)
 - [鴻休禪師](#)
 - [月輪禪師](#)
 - [大休禪師](#)
 - [中天師祖](#)
 - [天童密師翁](#)
 - [本師費和尚](#)
 - [接引彌陀\(清亮禪人請\)](#)
 - [題迎薰薛居士小像](#)
 - [題母龔氏直](#)
 - [白贊\(潛子龔居士請\)](#)
 - [白贊\(茶頭妙彰禪人請\)](#)
 - [題無所耆舊](#)
 - [題鑑源落髮師直](#)
 - [達磨祖師\(宗月禪人請\)](#)
 - [觀音\(立像\)](#)

- [普賢](#)
- [童子拜觀音](#)
- [宮繡達磨](#)
- [蓮池大師](#)
- [天童老和尚](#)
- [柴立法弟\(怕一禪人請\)](#)
- [月光禪德](#)
- [景西禪友](#)
- [白讚](#)
- [題鏡源師叔\(請藏賜紫\)](#)
- [普賢](#)
- [達磨](#)
- [釋迦](#)
- [琪園唐居士乞題乃尊存憶居十行樂](#)
- [題起龍游居士像\(五雲侍者請\)](#)
- [題覺一耆舊像](#)
- [龍峰碧居禪人乞偈](#)
- [題龍峰三賢祠卷後\(碧居禪人請\)](#)
- [密聲禪人求題乃師一兩像](#)
- [題十深翁居十行樂](#)
- [白贊\(玄生西堂請\)](#)
- [白贊\(虛白西堂請\)](#)
- [題龍華寺心月耆宿像贊](#)
- [無依禪人求贊二親圖](#)
- [題貞烈吳氏贊](#)
- [題潔公耆舊像](#)
- [題碧居禪人乃堂小影](#)
- [碧居禪人求贊母](#)
- [白贊\(首座慧門請\)](#)
- [記](#)
 - [中天祖福善堂香燈碑記](#)
 - [報恩塔記](#)
- [雜著](#)
 - [山志引](#)
 - [寺引](#)
 - [僧引](#)
 - [法引](#)
 - [齋單引](#)

- [伽藍殿燈油引](#)
- [為龍鳳寺募緣引](#)
- [為資福寺募齋僧田引](#)
- [為岱山募齋僧田引](#)
- [師與客會干拱橋](#)
- [能得監院乞規文以警僧眾](#)
- [臣農即事篇後序](#)
- [重刻禪林寶訓序](#)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隱元禪師語錄序

不慧默，仔細披閱，隱元禪師三會開堂語錄，出入始終黃蘗山者，什九應請福嚴龍泉者，不過什一。自前丁丑，以迄後辛卯結制解制，大開鑪鞞二十四番，多在黃蘗。至如運水擔柴搬磚弄瓦建殿，閱藏百堵俱興了。中天老人四十年法席種種未了之事者，亦多在黃蘗具見所說行。實中當年黃蘗運禪師本產閩中，而於福清山名未著自斷際，始著黃蘗名，又以其名名所住山，迄費和尚，乃興斷際，以闡黃蘗，而隱禪師復為丕承，丕顯肯構肯。堂一黃蘗現出多多黃蘗，豈非世出世間一大奇特因緣乎？又行實中所說，初參密老人時，幾經痛棒熱喝便已大徹，源底早被五峰覷破，更有火叉公案頌古首肯為密老人出格看待者非一日矣。乃究竟秉拂，傳衣屬之費和尚，不忝為隱之座元正如玉泉、曇懿久依佛果，自謂不疑，眾皆許可究為妙喜榜，告復來遠謁入室，得印為徑山弟子。今之天童即昔之佛果，昔之徑山，即今之徑山翻舊棒痕，提新正令，又豈非世出世間一大奇特因緣乎？直指門頭，威音那畔，能嘲風弄月，展演神通，揭地掀天，全彰機用，不受人天籠絡，不被凡聖蓋纏，如許浩浩落落，吞吐八萬四千法界，於一毫毛端，使千秋黃蘗動地放光，非尋常循行數墨汗牛充棟者，可方軌而並馳也。辛卯冬一番末後句，福善堂一番勾當話，有偈云：龜毛拂子重千斤，掛在虛空待個人。磕著無情真鐵漢，不妨拈起再尖新。讀至此，使人太息引領，倘恍莫測，真如洶洶鯨濤，層層蜃闕，泥牛鬥入雲翼，圖南逍遙乎無何有之鄉，廣漠之野，始終一潮音。洞茶頭，執事因緣始終一，黃蘗山自平石，曹溪滴水因緣，百川灌之，不知何時去而不盈尾閭洩之不知何時來而不虛的的世出世間始終一大奇特。不思議因緣，在隱師分上，不過一頓家常茶飯耳埽道人為次原偈韻贊歎一絕云：慣運成風匠石斤，天涯海角泣珠人，杖頭挑取雙丸弄，線斷收場曲調新。是為序。

順治丙申仲春大士誕日

欽命，國子監司業兼掌祭酒事。前戊辰二甲進士，工部郎中大理左寺副曹溪受法弟子紫霄飛仙裔孫道一，居士福徵譚貞默梁生父槃談謹書。

黃蘗隱元禪師語

人有傑，地有靈，交重也，亦交待也。夫人知之重，然後因緣著待，然後時節顯。時哉時哉！跣足引領日幾幾於寂默灰冷之場，幾

何歲月？而其人乃始一旦起，乘之豈偶哉？吾讀黃檗隱大師語錄，而知人地與時之合之非易也。斷際以前已有黃檗，而名未著斷際，著黃檗名，又以其名名所居。於是一黃檗現多黃檗，而開堂說法，非絳節之麓也。嗣居聲實，並茂者不乏，又非斷際之傳，歷千餘年。今天童老人暨費大師父子接踵，迭興斷際之道，乃始大闡，而隱大師繼之。堂構再新，黑白奔湊，續父祖之緒於斷際有光，蓋絳節之麓山君樹神以及萬靈，八部懸企，久如始有今日殊勝耳。地耶？人耶？時耶三者，闕一即勝，亦不殊，因緣會合在今日，其致之，豈自今日哉？茲其語具在大都，掃除知解，直示根源，如吹毛之劍，點雪之爐，而又句意俱到，如摩尼珠，隨現五色，自非牢關穩密，途路坦平，踞佛祖頂[寧*頁]，翻衲僧巴鼻者，安有如是輝天鑑地，活潑縱橫也。嗚呼！斷際以雄峰為父，以滄沱為子，故能掀揭宇宙，久而益昌。今大師父子祖孫，媲美前哲，而又同時闡化，消息互通，更不待重加尋繹，始知胡亂後不曾少鹽醬也，此豈獨一時一地為希有哉？屈指古今，丁斯盛者，蓋不數數源遠流長，吾於斯錄一見決矣。

崇禎壬午夏仲晉昌唐世濟撰

隱元禪師語錄序

金粟費隱老人，為臨濟三十一傳，起未墜之緒，續方焰之輝。十餘年來，說法為人，純用本分鉗鎚，不落玄妙窠臼。單傳直指之道，乃大著于天下。後之接武者，雖未可限量。然而承紹其宗，擊揚開廓，使單傳直指之道，愈益彰顯于當世，蓋亦難其人矣。隱元禪師首入老人之室，即觀體承當，全身擔荷，掃去支離，絕無依倚，室中得人師為翹楚矣。玄生上人一日，持師開堂語錄示余。余受而讀之，見其機用宏達，言句光新，騰踏當機，掀翻義路，摠從正脈中，發揚展拓，所謂單傳直指之道，愈益彰顯者，當于師乎賴之，豈有殊絕難繼之嘆哉？玄生上人，以余推重于師也，遂囑余序。余聞稱人之善者，必本其父師之德厚之至也。矧余亦出老人之門，忝師之昆季者乎？故取茲義而述之，使世之向斯道者，知師為老人之嫡子，且識余言之非佞也。是為序。

崇禎壬午季夏同門法弟山陰王谷稽首和南撰

隱元禪師全錄序

昔人有言：智過於師，方堪傳授。初師在纏，披緇脫素。及乎行腳水綠山青法戰諸方陣前，錚錚戈甲。死心先老。棒下筍筍。芥針橫

行。直撞百千人倒弄顛。拈三十頌。爾時白鷗火頭發焰。豈讓黃梅碓嘴生花。予驚而嘆曰：一枝聖箭九重城，萬里神光半邊鼻。蓋敬畏俱矣。越七年，先老所應黃檗，即師脫白處也。相依山川弗辭濫縷，滿地黃金渾不顧。又拈白紙告青天。師智如此。而且遲其授受。直待費翁闡法向前領話。打著昔時舊痛處。於今猶恨棒頭輕。可謂冤深徹骨而未也。遲之又遲時節。已至吐舌公案。矢口拈提三寸舌伸安國劍。千秋凜凜白如霜。有不鳴一鳴驚。人至是費翁榜示人天吾師折衝龍象啐啄機緣。豈偶然哉。向後養獅巖牙爪龍神送不竭之泉。煨黃檗[卸-尸+(共-八+冉)]爐曉鐘報自平之石。俯仰二十年間，金粟秉拂。福嚴開山龍泉正令惟黃檗住久。其應緣也，無固無必，其接物也有實有權。有時驅耕奪食，有時換斗移星。有時矢鏃加尖。有時瘡痕著艾。有時拍浪覆舟。有時颶風縱火，有時敲空作響，有時點鐵成金。大要實曝曝棒打石人似拂蒿先老之骨髓。兼得圓陀陀盤走玄珠如掣電，費翁之機用雙彰。承前啟後，臨濟家風。喝去棒來。曹溪的派源遠流長良有以也。香飄果熟，亶其然乎？偈曰：

砥柱狂瀾末劫中，滹沱正脈已流通，得來喫盡鹹酸苦，用處掣顛雷電風。幾度冰霜髮慘白，廿年爐炭火鮮紅。金湯子臂螳螂怒，領袖師昆龍象雄。

時壬辰小春月之吉菩薩戒弟子蔡聯璧拜序

隱元禪師語錄目次

- 序
- 卷第一
 - 住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卷第二
 -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卷第三
 -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卷第四
 -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浙江嘉興府崇德縣福嚴禪寺語錄
- 卷第五
 - 福建福州府長樂縣龍泉禪寺語錄
- 卷第六
 -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卷第七

-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 卷第八
 - 小參
- 卷第九
 - 源流頌
- 卷第十
 - 頌古
 - 拈古
 - 行實
- 卷第十一
 - 入室
 - 機緣
 - 法語
 - 答垂語
- 卷第十二
 - 啟
 - 書
- 卷第十三
 - 詩偈
- 卷第十四
 - 詩偈
- 卷第十五
 - 詩偈
- 卷第十六
 - 贊
 - 記
 - 雜著

隱元禪師語錄目次終
 隱元禪師語錄卷第一

嗣法門人海寧編

住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崇禎十年五月十四日，侍御林公、同鄉紳林宗賑林朝、龍文學林景、台林守穩林伯、春林正立、夏春暉、龔士龍、吳承啟林茂、輝

林士龍林鼎、新林茂枝、林廷棟等，暨及僧俗請師住黃檗山萬福禪寺，於十月初一日入院至。

山門云：從上已來，閑門破戶，一時八字打開了也。且道關捩子在甚麼處？喝一喝，便入。

佛殿云：巍巍堂堂，坐斷十方，正當與麼時，好與三十拄杖。何故？不見道：斫卻月中桂，清光應更多。

伽藍堂云：城塹三寶即不無，重振家風如何著力？舉香云：一番提起一番新。

祖師堂云：西天四七眼橫鼻直，東土二三寐語喃喃惑亂天下人無了時。今日不肖兒孫活捉將來一爐燒卻。

方丈云。掩室杜口浪籍不少。古今天下老和尚。潑天潑地。蝦跳不出斗。琦上座到這裏又作麼生。驀拈拄杖畫一畫云。破也破也。擲下拄杖云。放出一隊老古錐。未證據者看看。

即日眾請上堂，師至座前拈侍御心弘林，公請啟云：只者箇爍破重關，徹法源底，逼得山僧無藏隱處，今日不免對眾舉揚。煩維那宣讀宣畢，指法座云：寶華王座，流露真宗，我今更踏向上一著，千聖俱立下風。遂陞告香云：者一瓣香，爇向爐中，端為祝延。

今上皇帝聖壽萬安。伏願龍圖鞏固。鳳曆長春。齊壽考於芥子之城。扇真風於拂石之劫者。一瓣香。奉為滿朝文武功勳暨及郡縣尊官。伏願祿位高遷。德風遠播者。一瓣香。奉為本山大檀越。并外護諸居士。伏願同明般若之正因。共證金剛之固體者。一瓣香。大眾會麼。昔年在這裏落節。今日向這裏拔本爇向爐中。專為現住。浙江溫州府永嘉縣法通禪寺。傳曹溪正脈。三十五世費隱容和尚。用酬法乳之恩。遂斂衣就座。上首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第一義諦。三世諸佛無著眼處。汝等諸人作麼生觀。試出[跳-兆+孛]跳看。僧禮拜。師云。敕點飛龍馬。跛鱉出頭來。問祇園繇來古法席至于今請問。和尚還有亙古亙今底麼。師云。坐斷乾坤。僧禮拜。師便打。問黃檗家風舊。今朝令轉新。如何是新令句。師豎拂子云。會麼。僧喝。師云。再喝看。僧又喝。師便打。問陽春初臨。法席三開。和尚即今將甚麼示眾。師拈拂子左一拂。進云。者個便是和尚為人處麼。師右一拂。僧禮拜云。謝和尚指示。師云。指示個甚麼。僧一喝。師云。且喜沒干涉。問言前薦得屈辱宗風。句後承當。埋沒家寶。正當與麼時。教學人向甚麼處摸索。師云。鐵牛橫古路。進云。不是特來呈舊面。隨流一句事如何。師擲拂子。進云。好女不著嫁時衣便轉身。師便打。乃云。棒頭未點。遍界全彰。鼻孔下垂。通身布露。脫體承當得去。直下頓超佛祖。脫若未能。山僧第二杓惡水潑汝諸人去也。豎拂子云。向者裏撥一線道。不妨輝天鑿地。耀古騰今。這邊那畔。七通八達。

便能運大鉗鎚。施大機用。搗碎佛祖頂[寧*頁]。掀翻衲僧巴鼻。有時孤峰頂上獨立。有時百草頭邊[跳-兆+孛]跳。在此非此於彼非彼。一道平懷泯然無寄。蕩蕩廓周沙界。歷歷遍滿十虛。正當與麼時。共樂昇平。如何話會。野老不知堯舜力。鑿鑿打鼓祭江神。復舉。二祖阿難問迦葉云。世尊傳金襴外。復傳何物。迦葉召阿難。阿難應諾。迦葉云。倒卻門前剎竿著。阿難有省。師云。迦葉盡力提攜。只倒箇門前剎竿。且道阿難又悟甚麼。山僧今日不用如何若何。眾兄弟個個倒卻門前剎竿。然放倒且易。扶起猶難。還有扶起者麼。如無。山僧自扶去也。卓拄杖云。扶起倒剎竿。不用纖毫力。依舊豎門前。千古明歷歷。卓拄杖。下座。

立知事頭首上堂，問：如何是全提？師豎拳云：是全提半提。僧喝。師打云：棒喝交馳即不無，如何是端的意？僧又喝。師直打出法堂，乃云：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建法幢，立宗旨，直須徹骨，弟兄互為肘臂，通方作者，共相證明。謀道終不謀食，為法必也忘軀，一言相契，千古不易。如空合空，似水投水。本無異色，豈有異名？若能個個如是，敢保事事成辦。街坊塵中作主，知客接引來賓，典座善調眾口，庫司出納分明，監寺總柄綱律，長老截鐵斬釘，更有無位真人領覽箇甚麼？會麼？把手將他行不去，惟人自肯乃方親。下座。

開爐結制上堂。師云。十方同聚會。個個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還有心空及第者麼。請出相見。僧纔禮拜。師云。早知汝也。問大鵬展翼天衢遠。選佛選官應祖席。今日及第場開。還許我傳臚首唱也無。師云。點額蝦蟆。進云。龍門九重。慶遭點額去也。師云。死水裏浸殺。僧喝。師便打。問打板坐禪搥鼓上堂。無非者箇何謂。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師云。看腳下。進云。磕著撞著去也。師云。向甚麼處去。僧噓一聲。師擲退。乃云。新長老乍開爐。烈焰烜天孰敢摸。擬欲進前身已喪。那堪回首更躊躇。草鞋拄杖丟過一邊。禪板蒲團錯用工夫。拈卻西來大意。放下東壁葫蘆。掀翻是非窠臼。坐斷報化佛顛。無端打失娘生鼻。天上人間不可摸。正當與麼時。還有為人處也無。剪碎白雲飛片片。打翻明月落家家。復云。把住布袋口。須彌丁倒走。日午打三更。面南看北斗。更擬問如何。白棒劈脊搗。直下解翻身。已落渠儂後。且不落人後作麼生道。驀豎拂云。惟有這著子。古今無蓋覆。喝一喝。下座。

上堂。問：語不是默，亦非非語非默請道一句。師云：塞卻咽喉。僧擬議，師打云：是語是默？僧無語。師便啐，乃云：今朝十一月初一個個鼻孔條直百千無量法門。卓拄杖云：總在者裏頓入，會則信手拈來，填溝塞壑不會，且搭在九郎田畔，一任風吹日炙。復

舉：水潦和尚問馬祖：如何是西來大意？祖一踏踏倒，起來呵呵大笑云：百千法門，無量妙義，總向一毫頭上識得根源去。俊哉！俊哉！非但水潦如是，乃至千賢萬聖都向此一毫頭上親證實悟，方敢為人覲面提持現前。大眾還曾實證也無？若有二六時中，步步有分身之意，著著有出身之路。如無，更有異方便，助汝證入。卓拄杖云：會麼？若非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下座。

冬至上堂。問：銀山鐵壁，如何推倒？師擲云：推倒了也。進云：急浪灘頭如何跳過？師打一棒。進云：百尺竿頭，如何進步？師云：退去。進云：千峰頂上如何轉身？師云：汝試轉身看。僧轉身，師便打。典座問：出聲念佛，不為正念；默念彌陀，不為正念。如何為正念？師云：破木杓。僧禮拜。師云：還我木杓來。僧無語，師便打，乃云：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且道即今是甚麼時節？莫是山僧因地時節麼？莫是一陽來復時節麼？總與麼會，未脫尋常見解；不與麼會，未免墮坑落塹；不涉二邊，中間挨將一句來，許汝入黃檗門，慶讚黃檗有分。有麼？有麼？一僧云：猛虎當路踞。師云：猶是門外漢。復云：聖名凡號，總是虛聲，殊相劣形，無非幻色。若論當人，最初本命元辰一著子，直須向父母未生以前，陰陽未判之先，一截截斷祖佛慶讚，不及天人瞻仰無門，求其生死名目，無有時節因緣，何處得來？若知有者，聞與麼道，徹骨徹髓；不知有者，猶恐業識茫茫。雖然，官不容針，何妨私通車馬？驀呈拄杖云：赤骨[骨*歷]，露堂堂，洗清天地一林霜。有意氣時添意氣，不風光處卻風光。卓拄杖，下座。

延生請上堂。問龐公云。大家團圞頭。共說無生話。如何是無生話。師云。放汝三十棒。進云。看破龐公了也。師云。看破在什麼處。僧以手掩面云。蒼天蒼天。師打云。放汝不過。問如何是金剛不壞身。師翹足云。者箇壞不壞。乃云。豁開正法眼。四方八面洞明。突出本來身。天上人間。獨露奇特處。奇特弓弦走。馬殊勝中殊。勝錦上添花。須是奇特人。方明殊勝事。須是殊勝事。方顯奇特人。正當此際以何為驗。以拂子擊香几左邊云。豈不是奇特人。復擊香几右邊云。豈不是殊勝事。若向箇裏信得及。作得主。把得住放得開。便與三世諸佛同一鼻孔。出氣與天地萬物同一根生。與山河大地同一體現。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如是則不求殊勝而殊勝自至。不預津梁而津梁現前。以此營福。何福不臻。以此延生何生不慶。即今因齋慶讚一句作麼生道。峭壁峻嶒千古峻。林巒蒼翠萬年春。卓拄杖。下座。

上堂。問。昔日藥山謂高沙彌云。大有人不受戒亦不作佛。未審是甚麼人。師拈拄杖。左邊卓一卓。進云。只如沙彌具甚麼眼便道。

佛戒奚用。師右邊卓一卓。進云。今日學人不恁麼道。師云。汝又作麼生。進云。正好持戒。正好修行。師打云。我只要抹殺。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野渡無人舟自橫。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踏斷長江月一輪。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放下拄杖。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得魚沽酒大家醉。進云。人境已蒙師指示人忘境寂是如何。師云。自家薦取。乃云。萬福堂前峰巒突兀。九龍樹畔澗水潺湲。天際日上月下。林間雲去雲來。乃至恒沙世界草木叢林。一一為汝諸人。印破面門了也。諸禪德。還摸著鼻孔也未。如摸著直下。孤迥迥峭巍巍。圓陀陀活潑潑。如龍得水似虎靠山。便能歸山河大地作自己散自己為大地山河。於一毫端現寶王刹。坐微塵裏轉大法輪。即當人自證境界。非假於他術。且自證境界一句作麼生道。撲落非他物。縱橫不是塵。喝一喝。下座。

上堂。問。單刀直入。不容擬議是如何。師打云。正要行此。令僧喝。師又打。僧云。象王行處絕狐蹤。師直打退乃云。昔是貧家子。今為象外人。頭頭俱坐斷。處處已通津。黃檗涼心腑。梅花入眼新。聖凡無定相。弄假卻成真。山僧今日無端在三家村裏撒屎撒尿了也。子細簡點將來。也是熟處難忘。眾中有覺臭者。不妨抓屎相潑。向屎橛裏轉大法輪。作大佛事。令天下人知些氣味。豈不美哉。如無又向孤峰頂上倒屙去也。黃檗橫吹玉笛。東林野老謳歌一段。高山流水。路上行人。奈何呵呵呵會也無。座中若有江南客。不向樽前唱鷓鴣。下座。

臘八上堂。問。佛佛授受。祖祖相承。且道無形相人來。又作麼生傳授。師云。喚他向前來。進云。某甲去也。師云。什麼處去。進云。他家自有通霄路。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乃云。釋迦老子午夜睹星。悟云。奇哉奇哉。一切眾生俱有如來智慧德相。皆因妄想執著不能證得。也是憐兒不覺醜。未免話作兩截。黃檗午夜豎刹竿。大家在裏許。無有智慧德相可證。亦無有妄想執著可得。且道。與釋迦老子相去多少。有具擇法眼者。出來判斷看。眾下語不契。復云。昔日世尊昇忉利天。為母說法。說甚麼法。驀豎拂云。也只是這箇今日。山僧不動本際。為諸父老談禪談。甚麼禪也只是這箇。這箇又是箇什麼。上士一決一切了。中下多聞多不信。若論箇事。正如八十翁翁入場屋。真誠不是小兒戲。今日幸逢家裏人。說家裏話。拈家中物。示家中人。喚作拂子則觸。不喚作拂子則背。不得無語。不得有言。不得下喝。不得拂袖便行。向箇裏消息得恰好去。許汝入黃檗門。見黃檗人。與黃檗同條合命。共氣連枝。不然盡是門外之遶漢。要見黃檗毫毛也大難。大丈夫兒。莫受人謾。擬涉思惟遲八刻。回頭轉腦白雲關。喝一喝。下座。

上堂。問如何是賓中主。師云。歷歷有可據。如何是主中賓。師云。攜杖探西鄰。如何是賓中賓。師云。青山之外起煙塵。如何是主中主。師拈拄杖。僧禮拜。師云。賓主在那裏去了。僧喝。師便打。乃云。諸方談禪說道。黃檗苦口叮嚀不得。如何若何。自然海晏河清。切忌死水裏浸殺。那堪浩渺處追尋。且總不與麼。畢竟作麼生。曹溪波浪如相似。無限平人被陸沉。復舉。古德云。汝有拄杖子。我與汝拄杖子。汝無拄杖子。我奪卻汝拄杖子。既有拄杖子。要他作甚麼。既無拄杖子。又作麼生奪。若端的得去。一任丹霄獨步。天下橫行。然猶未也。且聽山僧註腳。若不同床睡。焉知被裏穿。頌云。沒來繇沒來繇。白雲舒卷碧峰頭。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卻風流。卓拄杖下座。

春日上堂。俊初居士問。如何是春。師云。一枝突出粉牆頭。進云。如何是無影樹上一枝花。師拈拄杖云。是第幾枝。士提坐具云。恁麼則某甲提將去也。師云。少賣弄。乃云。山堂兀坐。無聊錯把虛空亂敲。且喜孟春信到。忽然瓦解冰消。輾出一團。和氣放開。兩岸逍遙踏翠佳人。賣弄春色風流。和尚不打自招。大眾且道招箇甚麼。良久云。渾身在裏許。三十年後敢保有人證據。下座。元旦上堂。祝聖畢，乃云：佛祖家風舊，人間歲月新，擊碎蟠桃核，露出舊時仁。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所以道：一處真，處處真，塵塵盡是本來人。真實說時聲不現，覲面堂堂沒卻身。且道覲面堂堂為甚麼沒卻身？有人道得，山僧拄杖子兩手分付。僧云：祇為分明極。師云：不親切，自道去也。能隨萬物變，不逐四時新。拈起也，宇宙風光，森羅顯煥；放下也，家國安恬，河海晏清。不拈不放，畢竟如何？道泰不傳天子令，時清休唱太平歌。下座。

解制上堂。問雲水盡從今日去。重樓傑閣鎖何人。師云。無毛鷄子潑天飛。進云。某甲卻不與麼道。師云。汝作麼生。僧云瞎。師便打。乃云。打破琉璃殼。迸出鳳凰兒。遍體彰文彩。何天不可飛。堪嘆赤尾梢。淹人齧甕裏。臨濟白拈賊。至今思未已。眾兄弟到來。黃檗山中。眉毛廝結鼻孔相拄。還曾迸出一回也未。如迸出羅籠不肯住。呼喚不回頭。七通八達。東去西去。縱橫無礙殺活自繇。吾家種草猶來別。到處逢人驀面欺。更須知有轉身一路始得。如何是轉身一路。汝行荒草裏。我又入深村。下座。

開藏檀越請上堂。師豎拂云。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總在這裏流出。且道。這裏從甚麼處流出。脫若會去。翻藏已竟。皇恩祖德一時酬畢。若猶未然，山僧向第二門頭展演去也。大聖無名，美流萬世，大功不宰，勳業湛然。所以大人具大見，大智得大用，一言含萬有，一句逗群機。廣羅法界以無遺，細入微塵而靡

間，生民共沐恩光，草野均沾利樂，浩浩蕩蕩，民莫名焉。茲逢吉日良晨，慶雲繚繞，有大檀那，運普利心，命山僧登臨此座，開大寶藏，敷演真乘，言言見諦，句句朝宗，杲日昭回，山川顯煥中天祖，丹心畢，露葉相國，洪護儼然。了二十年前，未了之公案，翻五千餘卷，爛熳之葛藤，以酬祖德，用報皇恩。且道正當此際，如何著力？等閑舒出娘生手，撥轉如來正法輪。下座。

重興黃檗送諸化士，上堂云：龍樓寶閣半傾欹，搖拽雲中能幾時？特地掀翻重鼎建，大家出手要撐持。急著力，莫遲疑，事難方表丈夫兒。拈來莖草千金重，不是苦心人不知。呈拄杖云：會麼？蓋覆乾坤只這箇，頂天立地更繇誰？下座。

清明上堂問。突出眼睛看。滿目盡般若。和尚上堂。以何相為。師拈拄杖云。會麼。進云。恁麼則控佛祖大機。廓人天正眼。師云。閒言語。僧豎拳云。將此報答和尚深恩去也。師云。不知羞。乃云。杜宇喚聲聲。歸家罷問程。殘雲消散盡。突出數峰青。若向箇裏定奪得去。頭頭布露。物物現成。何待山僧開兩片皮。掉三寸舌。說青道黃。而後為得哉。然雖如是。且即今應時應節一句作麼生道。荒草堆邊明歷歷。棺材頭哭有親兒。下座。

佛誕日，恬生林居士等為縣主凌公祝讚請上堂，問曇花：自天降偉人，此日生為瑞？為祥即不問，如何是不即不離？師良久云：會麼？進云：恁麼則當陽普露，遍界全彰去也。師云：如何是當陽意？僧頓足。師打云：亂發作麼？問：九龍方吐水，萬象盡聞香，降誕右脅下，求師大闡揚。師云：銀蟾初出海，何處不分明？乃云：性海波澄，光吞群象，桂輪孤朗，影現娑婆。經云：應以宰官身得度者，即現宰官身而為說法；應以菩薩身得度者，即現菩薩身而為說法。茲乃

文佛降生之日，正是賢侯華誕之晨，且道現甚麼身而為說法？遂豎拂子云：會麼？一點水墨，兩處成龍；五日一雨，十日一風。德澤溢乎四海，仁壽卓立千峰。若論衲僧，向上一著，未離兜率，猶較些子突出娘胎，堪作甚麼？那更一手指天，一手指地，口喃喃道箇天上天下，唯吾獨尊，敗露不少。怪道雲門一棒打殺餵狗子喫，貴圖天下太平。雲門雖握闔外威權，未免渾身泥水。到黃檗門下，一點也用不著。且黃檗尋常用箇甚麼？只有一雙窮相手，未曾低揖等閑人。復說偈云：拋家散業已多年，偶爾歸山業又牽。祇恐龍樓煙鎖盡，空餘一竅對青天。下座。

端午上堂。問：今日正是五月五，聖人出世萬物睹，信手拈來百草頭，甜者甜兮苦者苦。甜苦即不問，如何是一莖草？師豎拄杖。進云：三世諸佛被這一莖瞎卻眼睛了也。師云：獨瞎汝不得。僧拂坐具云：柳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師云：不須門外畫蜘蛛

蛛。乃云：今朝五月端陽，人間安樂節屆；黃檗長老顛預問著，不打便罵。惹得一隊閑神野鬼，三頭六臂，努目叱吒，正當此時，如何驅遣？以拂子向空點云：祇此一點，遍行天下赤口白舌，消除百怪，千妖遁化。擲拂子云：於今擲向堂前，一任諸人酬價解酬價，拈來放去無縫罅。倘未能，不如收拾歸去來，免落諸方成話杷。下座。

解夏上堂。師舉。洞山解夏云。夏末秋初兄弟家。東去西去。須向萬里無寸草處去。良久云。祇如萬里無寸草。又作麼去。師云。蒼天蒼天。石霜云。出門便是草。師云。蒼天蒼天明安道。直得不出門。亦是草漫漫地。師云。蒼天蒼天諸兄弟。古人與麼提持。山僧與麼著語。畢竟意旨如何。倘若會去。對眾吐露看。吐露得出。歷劫宗親。當下超拔現前海眾即時解脫。山僧有箇護身符子。與汝東去西去。脫若未然。不得動著。動著打折汝驢腰。有僧便喝。師云。蒼天蒼天。復云。金風體露萬木凋殘。行腳高人急著眼看。明月灘頭休著腳。蘆花影裏出頭難。諸兄弟。畢竟向甚麼處去。驀拈拄杖卓一卓云。且把一聲歸去笛。夜深吹過汨羅灣。下座。

求懺悔請上堂，師舉：僧問雲門：殺父殺母，佛前懺悔。殺佛殺祖，向甚麼處懺悔？門云：露。師云：雲門道露，日輪當午，趁隊瞎驢，不知其數脫。有問山僧：殺佛殺祖，甚麼處求懺悔向他道收。復云：著甚來繇？諸禪德！試定奪看。若定奪得出，身口意業，瓦解冰消，智慧德相，脫體圓明。若定奪不得，山僧一發抖擻屎腸與汝說破。雲門解放，黃檗能收；一挨一拶，徹骨風流，擬議將來，休休！休休！還有一句又作麼生？待君時節至，各各自昂頭。下座。

結制上堂。問。九旬禁足。三月護生。未審護箇甚麼生。師云。案山點頭向汝道。進云。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未審殺箇甚麼生。師打云。殺汝一箇。進云。恁麼則泥牛撞入海。波斯沒處藏也。師連棒打退。問今日結制之期。請問和尚離情絕見一句。作麼生道。師翹腳示之。進云。恁麼則石人舞掌。笑呵呵去也。師便打。問和尚上堂。鐘聲鼓響。鐘鼓響後。聲落何處。師云。山僧耳聾。乃豎拂子云。三世諸佛歷代祖師天下老和尚。都向山僧拂子頭上結制。猶如寶網交羅。互攝互入。雖然如是。更有一人呵呵大笑。且道笑個甚麼。若人拂袖便行。敢保坐斷。報化佛頭。掀翻是非窠臼。日消萬兩黃金。不為分外。脫或躊躇。未免作死馬醫。十方高人聚會。正值聖制之日。黃檗不循舊例。貴在單刀直入磕碎。露柱燈籠。打翻銀山鐵壁。安南塞北。並收萬境千機頓息。得到與麼田地。速來方丈通箇消息。喝一喝云。也是糊餅裏捏汁。下座。

上堂。問。不落凡聖二邊。不落有無諸數。正當恁麼時。獨脫一句作麼生道。師云。截斷舌頭。進云。恁麼則行行草裏步步深村。師云。如何是步步深村。僧一喝。師云。未夢見在。乃云。十五日以前。山僧頂門在汝腳跟下。十五日以後。汝等諸人。鼻孔在山僧輪掌中。正當十五日。人人面門光個個鬚鬚。赤風急幡。呼嚕雨來簷滴歷汝有八兩還汝半觔。汝有一丈。還汝十尺。且道。總不與麼來時如何相見。瞎子逢盲人。兩兩不相識。雖然如是。好與伊三十柳栗。何故。打開頂門。正眼迸出。青天白日。下座。

冬至上堂。問：冬至一陽春已發，石頭土塊盡翻身則且置，冬未至春。未發一句，請和尚道。師云：山僧亦不知。僧一喝。師云：著忙作麼？僧擬議。師打云：話頭也不識。問：和尚道：一線陽春曲，繇來和者稀，今日與和尚慶賀去也。師云：山僧無喜亦無憂，賀箇甚麼？僧禮拜。云：恁麼則普禮去也。師云：弄泥團漢。乃云：把住洪鈞，驪龍頷下，明月珠，分文不值，放開線道，糞埽堆頭破苔帚，價倍千金，不是壓良為賤，亦非補短截長。若是吾家種草，便知這箇來脈，脫或弄泥團漢，切莫接響承虛。且道不把不放，畢竟如何？日南長至，勘破張三李四，有利無利，不離行市。以拄杖卓一卓，云：吾無隱乎爾。下座。

僧純如請上堂，問：如何是佛？師云：圓陀陀。如何是法？師云：活潑潑。如何是僧？師云：任騰騰。進云：佛法僧，蒙師指示。如何是衲僧分上事？師打云：且道是甚麼事？僧擬拜，師又打。乃云：臘月一好消息，雪襯梅花太浪籍，大地渾成銀，世界摩訶般若波羅蜜，一互晴空；普賢賣俏，千機頓現，妙德風騷，黃面老子，寶花臺上爛翻葛藤；碧眼胡僧荊棘林中斬釘截鐵。看來這一隊老凍儂，胡言漢語，惑亂天下人，不為不少。且喜今日築遇寒風，輒作一團，不分皂白。大眾還有為他雪屈者麼？眾無語。師云：識得純如真境界，分明一塊玉乾坤。下座。

臘八上堂。問。年年此日臘月八。盡說釋迦悟奇特。奇特即不問。如何是星前的意。師云。早晨下雨。進云。元來是這賊。師云。曾打濕眉毛也未。僧一喝。師云。拖出晒朗去。僧又喝。師連棒打退。乃云。雪花堆裏密追尋。滴水冰生未為真。一刺明星雙眼脫。大千無處可藏身。若會得山僧頌的意旨。便明釋迦老子睹星悟的時節。既明釋迦老子悟的時節。便知自己上與三世諸佛共一鼻孔出氣。下與五道眾生同一體現。遠與恒沙世界。若凡若聖。若僧若俗。若男若女。若草若木大小纖洪。盡是吾人放身命處。所謂一處透脫。百處千處該通。一機洞明。千機萬機圓轉。如盤走珠如珠走盤。圓陀陀活潑潑。出沒舒卷無可不可。還有不涉斯美者。出來與

黃檗相見。僧云。憐兒不覺醜。師云。假雞聲韻難謾我。未肯糝糊放過關。下座。

戒子請上堂。問。聲聲穿鼻孔。句句映眉端。今日被某甲看破去也。師云。看破箇甚麼。進云。少林面壁。眼橫鼻直。師便打。乃云。眾生受佛戒。即入諸佛位。位同大覺已。諸大德若信得及。通身荷負。覲面承當。正好黃檗門下。朝打三千暮打八百。何故不合向大覺海裏汨沒。無有出身之路。大丈夫漢。直須坐斷報化佛頭。掀翻是非窠臼。裂破衲僧巴鼻。返轉本來面目。天人讚頌。不及魔外。窺覷無門。然後向一毫端上作大佛事。廣度有情接佛慧命。方稱丈夫之本懷。諸大德且道。承誰恩力。有如是殊勝。有如是奇特。莫怪從前多意氣。他家曾謁聖明君。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一終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元旦上堂。祝聖畢，師云：掀翻舊歲窠臼，突出無位真人，兩道眉毛剔起，頭頭法法咸新。鶯啼鳥語非他物，柳綠花紅不是塵。既不是塵，是個甚麼？若人識得，滿面風光，一團和氣；脫或未然，祇恐春寒料峭凍，殺年少巴歌，雪曲本非同調，毘婆尸佛早留心，直至於今，不得妙新年頭之事。且止元旦祝聖一句作麼生道？驀豎拂云：全憑這點無私力，仰祝皇圖億萬春。下座。

春日上堂。僧問：如何是山中境？師云：青山蓋白雲。如何是境中人？師云：僧老白雲中。進云：人境且置，向上一竅又作麼生？師拈棒，僧喝，師便打。乃云：兩兩三三陌上行，春雲踏盡一天青。雖然各立風光處，又較農家半月程。下座。

解制上堂。師云。打開閑門破戶。放出一群猛虎。百草頭邊[跳-兆+孛]跳。個個超佛越祖。若是烜赫兒孫。便能猛虎口裏拔舌。不妨好手。倘鬼窟裏把住死蛇頭。有甚用處。更於驢前馬後認奴作郎。這邊那畔捕風捉影。以當平生者。向黃檗門下。打殺千千萬萬。有甚麼過。我此現前。一眾盡是俊鷹快鷄。必不作這般去就。且道。今日功成果滿。各各分身向甚麼處去。突出虛空搏妙翅。踏翻滄海起游龍。下座。

上元上堂。師云。天上月圓人間月半。燈月交輝吾道一貫。是以一燈傳百千燈。燈燈不昧一月現。無量月月全彰。一為無量無量為一。小中現大大中現小。於一毫端現寶王刹。坐微塵裏轉大法輪。仔細簡點。將來。猶是建化門中事於衲僧。向上一著。了無交涉。所以道。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山僧盡情告報脫。若上根利智。撒手歸家。慶無不吉。更若如何若何。未免渾身泥水。是事且置。今日懺經祈福。應時納祐一句作麼生道。剔起心燈懸巨刹。千門萬戶盡光輝。下座。

浴佛上堂，僧問：未離兜率，已降王宮即不問，如何是未出母胎？度人已畢一句。師云：六耳不同謀。進云：與麼則度人已畢。師便打，乃云：指天指地，赤條條，那更喃喃？據款招怪，不當初活打殺，免教歲歲驀頭澆。所以道：釋迦不出世，達磨不西來，佛法遍天下，談玄口不開。如是則塵說、刹說、熾然說，無間歇，何待敲鐘播鼓，陞堂入室，立主立賓，興問酬答，而後為說哉？仔細簡點將來，正是塗污諸人心田。汝們還信得及麼？如信得及，聊許黃檗

門下從容話會。不然，盡是噏酒糟漢，有甚麼用處？雖然如是，且今日慶誕為人一句作麼生道？新出紅爐金彈子，箠破闍黎鐵面皮。卓拄杖，下座。

追薦請上堂。僧問。生從何來。師打云。從這裏來。進云。死從何去。師打云。從這裏去。進云。不生不死事如何。師云。速禮三拜。進云。雲有出山勢。水無投澗聲。師云。緊捎草鞋。僧禮拜。師復打。乃云。今日蓋為心空曾居士敦請山僧登臨此座。舉揚箇事以薦嚴慈。若論個事。當陽一句坐斷要津。祇緣不薦喪卻家親。所以無生死中妄計生死沒輪迴處。枉受輪迴。汨沒四生昇沉三有。如汲井輪無有休息。我今為汝點破。直令父子交接兩得相見。且作麼生說箇點破的道理。若見諸相非相。即見本有爺娘。若見諸相是相。即見本有爺娘。何故即今天下太平。各各衣錦還鄉。諸上座還會麼？現成茶飯。伏惟尚饗。下座。

薦親請上堂。僧出禮拜。師劈脊便打起問。久坐潭邊。如何釣竿不動。師云。適纔答汝了也。問百骸潰散即不問。一物長靈意若何。師云。正是死漢。進云。恁麼則超佛越祖去也。師云。非汝境界。僧拂坐具。師云。蝦蟆[跳-兆+孛]跳。乃豎拄杖云。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祇明得這箇祖師西來。單傳直指。祇指得這箇天下老和尚。橫說豎說。祇說得這箇現前大眾。朝禮暮參。祇參得這箇。前街後巷驢鳴犬吠。祇吠得這箇。萬壑千江水流。風動祇動得這箇。放下拄杖云。會麼。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明不得。這箇祖師西來。單傳直指指不得。這箇天下老和尚。橫說豎說說不得。這箇現前大眾朝禮暮參參不得這箇前街後巷。驢鳴犬吠。不得這箇。萬壑千江水流風動動不得。這箇且道。明得這箇。者是明不得。這箇者是向箇裏覷得破。見得徹。便知當人自己著落處。若知自己著落處。便知柯氏父母著落處。若知柯氏父母著落處。便知三藏十二部著落處。若知三藏十二部著落處。便知祖師西來著落處。若知祖師西來著落處。便知天下老和尚著落處。若知天下老和尚著落處。便知現前大眾著落處。若知現前大眾著落處。便知驢鳴犬吠著落處。若知驢鳴犬吠著落處。便知水流風動著落處。所謂無二無別。非如非異。圓陀陀活潑潑。左之右之無可不可。以此酬恩無恩不酬。以此報德何德不報。曩劫冤親一時解脫。多生父母當處超拔。諸禪德會麼如未。山僧重說一偈。為汝註破。善來乞法薦爺娘。撲面秋風徹骨涼。會得途中受用處。驢前馬後一齊彰。下座。師患瀉病草菴僧解天固請上堂，園頭問：如何是本分事？師云：鑿頭下。進云：除了鑿頭下，還有麼？師便棒。進云：去！了棒又如何？師云：還我鑿頭來。僧擬議，師直打出，乃云：昨日固請陞座，逼得一肚齷齪，夜間屙淨條腸，今朝方始安樂。既安樂，也不

可再撒，熏汝諸人鼻孔。雖然事無一向，聊敘數言，以塞來命。秋林蕭索，秋谷寂寞，秋月孤圓，秋空寥廓，風飄桂子正芬芳，水漾蓮臺半零落。迴脫見聞的左右，逢源尚留觀聽者，舉措皆錯，寶所不宜，久居草菴，詎可棲泊？離此二途，畢竟作麼生？擲下拄杖云：急著眼，休卜度，萬里青天飛一鶚。下座。

潮州陳妙乘請上堂。師云。父母未生前。腳跟紅線尚纏綿。父母已生後。頭上青灰三五斗。等閑坐斷兩頭關。突出剛剛八月九。打鼓三通普請看。萬福堂前誰知有。諸上座會麼。正當與麼時。潮州海底翻籌。黃檗山頭點首釋迦。彌勒歸降。文殊普賢拱手。且道琦上座到者裏又作麼生。愧無一法可當情。聊拈柳栗祝君壽。復云。溫州有個陳婆子。遍扣諸方明本據。解道山花映水紅。淡粧濃抹不相似。我願妙乘陳佛子。腳跟不動嘗如此。一刀截斷老婆禪。三世如來為走使。喝一喝云。若不喝住。幾被老婆禪去。下座。

上堂。師云：覲面相呈，了無餘事。若也會去，歷歷可據；若也不會，山僧謾汝諸人去也。道本無，言言多，與道轉遠，道非無言，言所不能及耳。所謂承言者喪，滯語者迷脫。或語言道斷、心行處滅。一回則二六時中動轉施為，顯發莫大，威光全彰，無作妙用，便能敲空作響，擊木無聲，捩人鼻孔換人眼睛，擒獅子為泥狗，弄死蛇作活龍。若有與麼人，正是吾家種草。山僧祇得退身三步。何故？出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下座。

結制上堂。師云。畫地為牢。妙在腳跟穩實剋期取證。貴圖鼻孔通風。鼻孔通風。便知自家消息。腳跟穩實。不落他人窠臼。諸大德。盡大地是腳跟鼻孔。向甚麼處著。盡大地是鼻孔。腳跟。向甚麼處著。恐孤。諸人不敢說破。汝等也須著些精彩。向箇裏窺破毫芒。買鐵得金。一場富貴脫。或莽鹵承當。黃檗作驢楸。始知苦在後。卓拄杖下座。

上堂。師豎拂子云：釋迦老子來也，在山僧拂子頭上道箇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大眾！信得及，各各歸家穩坐，無事不辦。脫或未然，山僧打葛藤，絆汝諸人去也。以拂子畫一畫，云：一二三四五，突出一群虎，五四三二一，回鸞無等匹；一五二四三，龍象兩交參，三一五二四，各各展巴鼻。從上諸佛諸祖種種神通妙用，一時漏逗了也。且道承誰恩力有如是奇特？良久，云：少年曾決龍蛇陣，潦倒還聽稚子歌。下座。

上堂。師云：禾黍不陽艷，競栽桃李春，返令力耕者，半作賣花人。黃檗冬行春令去也，還有移時換節與黃檗爭輝者出來酬價看。眾無對。良久，云：可憐不遇攀花手，浪籍枝頭多少香。下座。

上堂。師云：大驚小怪，達磨攜來東土，承虛接響，六祖提過嶺南。將謂度人已竟，多少師僧不甘，爭如黃檗當土開泥平高就下要

提便提，要放便放。汝等諸人還甘否？如甘終日忙忙那事無妨擔荷，一任擔荷休歇，一任休歇如未，祇恐梆聲又入耳，回頭轉腦百千番。下座。

獅巖夏居士請上堂。師云。寒巖戲約幾經秋。此日光臨信有繇。嶽面回容山骨煖。頂門迸出凍雲流。諸上座。胸中還覺熱麼。如覺熱通身慶快。東廊西舍煖烘烘。溪北溪南隨分足。如未再看。明年三月裏。馬蹄重踏滿山川。脫有人出來道。黃檗長老尋嘗壁立萬仞。祖佛構不著。今日春元到山。渾身泥水。卻似三家村裏流俗阿師相似。道也不妨被汝道著。要構黃檗腳跟太遠在。何故？岸頭卓立人無數。誰解隨波逐浪遊。下座。

求懺悔請上堂。師云。喫官酒臥官街。當地死當地埋。有甚麼罪過。又來黃檗求懺悔。然山僧舌頭短。不能為汝道煩勞。拄杖子為汝說破。驀拈拄杖卓一卓云。會麼。拄杖子朝遊西域。暮歸東土。擲翻三十三天天王鼻孔。卓破一十八獄。獄主腳跟橫該豎抹。絕廉纖北討南征。俱解脫。向者裏委悉去。業障報障頓消。自冤他冤永息。如未助汝一點神力去也。擲下拄杖云。遍尋罪性無何有。試看紅爐點雪飛。下座。

上堂。師云：衲僧家舉一明三，目機銖兩。與麼不與麼卻，又與麼一串穿過。如是不如是，仍舊如是，和底掀翻，果然者裏，見得徹，把得住，放得開，便有衲僧氣分。若終日推爺出戶，牽牛八欄，徒費精神，無端無端，更於將勤補拙，以短就長者，總未夢見衲僧汗臭氣在。如何得夢見衲僧汗臭氣？以拄杖嗅一嗅，便擲下座。

臘八上堂。師云。入得吾門事事奇。開單展鉢不思議。自從今日沾唇吻。百劫千生飽不飢。諸兄弟無嘗迅速。時不待人。未入門者急須入門。已入門者。急須出路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難。中有易易中有難。難中易背手摸著。自家底易中難。從前知己沒相干。且道。不難不易一句作麼生道。眼空四海渾無物。一飽橫眠天地間。下座。

上堂。僧問。上無片瓦。下無卓錫。意旨如何。師云。草裏蝦蟆。進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師云。莫亂跳。乃云。滴水滴凍。實法難為人。全心全佛。重言不當喫。觀世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卻是饅頭好言語。千古之下無人動著元字腳。黃檗長老。無錢沽酒喫。盡日醉醺醺。拈棒趁顛狗。飛劍斬獰龍。且道。有為人處也無。良久云。披胸露膽無人會。鬼面神頭若個知。下座。

元旦上堂。舉香云：一念無私祝聖朝，宮壺草野盡逍遙。莫言山谷風光少，也有黃鶯下柳條。諸上座聖已祝也，時已應也。更要山僧

說箇甚麼？良久，云：真箇可憐生。動著便飛去。下座。

上元上堂。師云。一花現大地咸春。一月明普天朗耀。眉底風光。十二峰頭齊拱秀。腳跟穎脫。三千剎海盡朝宗。所謂動遍動震遍震湧遍湧吼遍吼。南瞻部洲走馬北瞿盧洲著跌乾闥婆。王奏樂迦葉起舞。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若能證悟一回便知者箇消息。山僧有一條拄杖子。與汝護身。免使東倒西歪。如未諸人腳索。盡在山僧手裏。切不得動著。動著則喪身失命。下座。

上堂。師云：山河大地是眼中塵。動著翳卻眼睛。山河大地是掌中珠。棄之徹骨貧窮。自少遲鈍。今已老。偶然記得兩行書。豎拂子云。且道是珠耶塵耶。復按拂子云。穿過了也。休擬議。莫思量。這回拈起更風光。正值洛陽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下座。

佛誕上堂，僧問：世尊未出母胎，度人已竟如何？師云：略較些子。進云：一番提起一番新。師云：漏逗不少。乃云：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竟。夜半日頭紅，突出頭來，天上天下，唯我獨尊。日午打三更，若也薦得，堪與佛祖為師，堪與人天為師，少涉遲疑，盡是自救不了漢子。所以臨濟大師云：有一人論劫在途中，不離家舍；有一人離家舍，不在途中。那個合受人天供養？諸上座！山僧舉已舉了，註已註破脫有撩起便行，不唯透漏釋迦老子頂門亦乃穿過臨濟大師骨髓。不然，雲門大師來也，莫怪性躁便打，散歸方丈。

端午上堂。師云：胸中流出，蓋天蓋地；沒遮欄，時節到來，亙古亙今，全體現。諸上座！且道即今是甚麼時節？正值五月五，山僧打退鼓，撞破勝負關，踏翻諸佛祖。下座。

彌陀會請上堂，師云：一念不生，全體剖露；坐立儼然，不墮諸數。於此薦得，各各清淨，各各具足，各各現成，各各圓滿，曷用山僧簸個驢唇東語西話，成得甚麼邊事？雖然如是，權敘數言以慰來意。無位真人乾屎橛，蓮臺古佛爛冬瓜，和盤托出無人委，回首躊躇眼倍花。今日無端盡將西方此土殊相劣形，束作一團，拋向諸人面前了也。汝等諸人還會麼？良久，云：錯腳踏翻淨穢土，縱橫何處不風光？下座。

上堂。師舉：傅大士云：有物先天地，眼花作麼？無形本寂寥。舉拂云：這箇是甚麼？能為萬象主。話作兩截不逐四時凋，元來膽小。若論山僧，見處有物，奚曾有無形卻有形？要凋即便凋，要榮即便榮。山僧與麼道，且與傅大士相去多少。有具眼者，試決擇看。如一向矮子觀場，隨人上下有甚了期？是事姑置。且今居士進山請法，賓主相見一句作麼生道？青山不昧舊知己，幾處雲堆也出頭。下座。

上堂。僧問：松風昨夜吼雷音，黃葉凋落滿山林。漏洩無限祖師意，師旨如何分付人？師云：日暖向陽坐。進云：恁麼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色長威獰。師云：天寒謾舉頭。僧禮拜。云：謝師指示。師便打。乃云：舌頭無骨，言滿天下。非口過腳跟有據，踏遍諸方沒行蹤。所謂善言言者，言所不能言；善跡跡者，跡所不能跡。跡所不能跡，趁隊瞎驢何處尋覓？言所不能言。承虛接響。徒勞側耳。碧眼黃頭。到者裏也須結舌。汝等諸人作麼生會？良久，云：無孔鐵鎚當面擲，草鞋[跳-兆+孛]跳吼如雷。下座。

結制上堂。西堂無得問。弘開爐鞴陶鑄聖凡。格外玄機。請師展演。師云。棒頭明如日。進云。一句了然超百億。師云。且謾念詩篇。乃云。廣啟解脫門人人赤灑灑。弘開大爐鞴。個個焰騰騰。藥汞銀禪一煨便漏。逗金剛種子。百鍊愈光輝。向箇裏搆得一星兒。不妨恢廓。烜赫門風。勦絕老胡種子。成辦大丈夫之事業。展演沒量人之境界。成人成己。自利利他。靡所不備。且今結制之晨。還有當爐不避火者。請出相見。堂便喝。師云。知君不是金牙作。爭解彎弓射尉遲。下座。

上堂。師云。茲因子長薛居士。特特進山。慇懃請法。與眾兄弟。結般若緣。山僧不免枝上生枝。蔓中引蔓。為汝諸人徹困去也。今朝十月二十三。黃檗繇來懶出菴。出菴盡是兒孫事。何必區區強指南。雖不出菴。謾他一點不得。何故。盡大地人路頭都在黃檗手裏。放開線道。一任七縱八橫。若不放過。不消一捏。直得大地平沉。釋迦老子飲氣吞聲。德山臨濟目瞪口呆。汝等諸人到這裏又作麼生。驀拈拄杖卓一卓云。會麼。千峰勢到嶽邊止。萬派聲歸海上消。下座。

上堂。僧問。兩箇泥牛撞入海。直至于今無消息。如何是即今消息。師云。風動塵起。進云。如何是賓中主。師云。猛虎當路踞。進云。如何是主中賓。師云。逢人眼轉青。進云。如何是賓中賓。師云。路貧愁殺人。進云。如何是主中主。師云。寶劍當頭截。進云。賓主相去幾何。師云。汝試斷看。進云。除此之外。還有向上事也無。師打云。是向上向下。僧禮拜。師云。義學沙門。乃云。言中啐啄貴副來機。格外提持。唯求知己。諸兄弟結制己來。十有餘日。未曾見箇響動。恐埋自己靈光有幸參學之志。山僧特特陞座。為汝決擇。莫有瞌睡。虎護宅龍。向髑髏裏掠些腥臊。便乃取足以當平生者。急須吐卻。然後向黃檗拄杖下。一一與汝按過始得。如總未夢見。山僧開箇方便。令汝證入。豎拄杖云。喚作拄杖子。頭上安頭。不喚作拄杖子。離頭覓活。畢竟喚作什麼。卓拄杖云。擲瞎眼睛光宇宙。踏翻世界露全身。下座。

披剃佛子請上堂。師云。家住東林最小村。偶除鬚髮作沙門。一聲哮吼乾坤震。惡毒流行遺子孫。毒既流行。一任獅子象王吒沙奮迅。驢兒馬子。踢踏縱橫。跛鱉盲龜。東湧西沒。夜叉羅剎。努目揚眉。正當此際鬧熱門庭。不無觀聽。切不可向箇裏屙屎放尿酌水獻花。塗污沒面目和尚。喝一喝云。自屎不覺臭。下座。

冬至上堂。僧問：凜凜霜風徹骨寒，神頭鬼面轉顛顛，陽升陰伏渾閒事，試問吾師一句看。師卓拄杖云：會麼？進云：這又是平嘗的，別斬新條作麼生？師打云：又嫌少？問：仲冬嚴寒，灰心土面，枝頭漏洩，陽春一線。且道如何是陽春一線？師云：青雲捧足下。進云：恁麼則穿過諸人鼻孔了也。師云：面皮厚多少？僧喝，師便打。乃云：久沉死水得人憎，掇轉乾坤醒未曾，時節到來難忍俊，放開一線任騰騰。正當與麼時，山河大地，草芥人畜，各各舒暢，物物含輝。美則美矣，善則甚善，忽遇個沒面目漢子攔腮把拄云：還我公驗來，作麼生抵對他？若對有據，透網金鱗沖碧漢，回途石馬，走紗籠脫。或未能拽轉驢唇歸舊塢，明年此際復重伸。下座。

上堂。師云：尋梅踏雪徹，骨風騷航海觀光撩天，俊俏祇如山門前一片閒田地，為甚麼踏不著禪床角一面大圓鏡為甚麼覷不見？設或覷見，明如杲日，闊若虛空，胡來胡現，漢來漢現。便知禪床角覷的正是山門前踏的山門前踏的，正是禪床角覷的。這頭踏著那頭翫那邊動著這邊搖劈破三玄。作兩邊倒腹為君註破了。雖然如是。切不可向山門前著腳禪床角躲跟。何故？平地上死人無數。鬼窟裏陷人不少。大眾會麼？分明月在梅花上。看到梅花又不同。下座。

上堂。新剃度僧問：昨日嚴家居士，今朝黃檗弟子普現百億化身，頭頭皆合本據。普現化身即不問，頭頭本據是如何？師云：新出牛兒不怕虎。進云：某甲卻不恁麼。師云：汝作麼生？師云：據本去也。師云：切莫假虎威。乃云：隆冬嚴寒，滴水滴凍。脫體無依者，冰凌上走馬羅纏綿裏的，煖閣中藏身。冷冰冰時，七花八裂，煖烘烘處，百匝千重。等是一般時節，為甚麼受用？各各不同？諸上座！且道此兩種人還有優劣也無？良久，云：戶底門頭俱踢脫，寒冰爐炭各稱尊。卓拄杖，下座。

臘八上堂。云：今朝釋迦老子悟道之晨，又值諸人圓戒之期，有梅軒柯居士，直入勝會，虔備清供，請山僧陞座，舉揚殊勝佛事，發明殊勝因緣，圓滿殊勝功德，直令人人圓明智慧德相而後已。若論殊勝佛事，居士未出大田城，舉揚了也；已涉僊遊境舉揚了也；再進玉融界，舉揚了也；山門頭舉揚了也，方丈前舉揚了也。至於殷勤啟請，鐘鼓喧轟、龍象濟濟，主賓互換，一一舉揚了也。更要山

僧舉箇甚麼？諸大德會麼？本來殊勝風光事，拄杖挑來個個圓。下座。

戒子請上堂，師云：舍偏就圓，回小向大，入方廣之妙門，證普賢之境界，頭頭洞明，事事無礙，通身遍身，靡在不在，似地普擊，如天普蓋。十字街頭打開布袋；撈攬眾生還菩薩債。霜花落盡兩眉春，贏得腥風歸滿載。果到與麼時，黃檗項上有百二十斤鐵枷。望汝諸人替代，不須久立。珍重！下座。

上堂。師云。三十年來尋。劍客勞而無功。幾番落葉又抽枝。甚麼處出來。自從一見桃花後。眼中著屑。直至于今更不疑。更參三十年諦當。甚諦當。泥裏有刺。敢保老兄未徹在。玄沙徹也未。靈雲寰中獨步。怎奈落在玄沙手裏。玄沙雖有格外威權。未免落在黃檗手裏。且道。黃檗落在甚麼人手裏。喝一喝云。一聲哮吼虛空碎。攪亂三千海嶽昏。下座。

元旦上堂。祝！聖畢，西堂無得。問：元正啟祚，歲序更新；村歌社舞，共樂昇平。昇平則不問，歲序更新事如何？師云：祥雲遶寶座。進云：恁麼則九九八十一，還歸有道君。師云：紫氣貫山門。乃云：無邊刹境頒王令，率土生民祝聖恩，一塢臥雲猶未醒，斬新日月耀乾坤。此中有權有實，有炤有用，能縱能奪，能殺能活。若也一一明得，堪入黃檗之室，不妨各垂隻手，共扶法幢，獨露丹心，以酬至德。人情佛事，兩得周足，濟物資恩，一時畢備。若也未明，再垂方便，令汝證入。擲下拂子云：會麼？條垂新雨露，瀾漫舊山川。下座。

解制上堂。西堂無得問：閱藏三年滿禪期百日，終箇中事則不問，如何是第一玄？師云：鼻孔尚遼天。如何是第二玄？師云：動著去半邊。如何是第三玄？師云：舉似闍黎不值錢。如何是第一要？師云：拄杖無孔竅。如何是第二要？師云：踏著兩頭翫。如何是第三要？師云：毘婆尸佛早留心，直至而今不得妙。三玄三要蒙指示，末後一著，請師證據。師云：急須禮拜。乃云：結制已來，九十日中間把住咽喉，不許諸人出氣，直欲發明人人腳跟下一段大事，上與三世諸佛同一鼻孔，不隔毫芒。今日打開布袋，放行一路，任汝諸人東跳西跳，下與六道眾生驢腳、馬腳，無二無別。大眾！且道放行者是？把住者是？若也緇素得明。

皇恩已報，祖德已酬，公案已完，葛藤已斷，不妨隨處建立法幢，發明宗旨，接引後昆，同證佛道。如未前途，更有鹽鐵判官，把汝咽喉、牛頭、馬面捋汝面孔，汝作麼生抵敵他？良久，喝一喝，云：百雜碎。復云：此一期佛事，有煩諸上人佐助，徹頭徹尾，全始全終，今日各各分手，山僧豈吝一言？為助希冀禪人各各採聽個

個師僧，擺錫遊行藏，豈可混常流？臨機不用頻頻舉，自有春風起杖頭。下座。

師至南安縣羅山棲隱寺互信法弟請，上堂，僧問：賓主相見即不問，且道羅山一句作麼生？師云：目富千峰翠。僧喝。師云：再喝看。僧連兩喝。師云：亂喝作麼？僧拂具歸位。問：離黃檗到羅山一句作麼生道？師打云：截斷兩頭。進云：恁麼則龍得水時添意氣。師云：未在。僧喝。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乃云：不耐折腰應世問，輕風扶我上羅山。高高峰頂平如掌。同氣連枝盡破顏。諸禪人還信得及麼？正當此際。靈山一會儼然未散。鳳巢片席，特地重光。個個壁立萬仞。人人展翅摩霄。且道黃檗直入箇裏，主賓相見，合談何事？諸人會麼？作家不啐啄，啐啄同時失。大用不揚眉。揚眉正眼瞎。到底還他丫髻好。柳花不插滿頭春。下座。

居士龔天目請上堂。僧問。應以此身得度者。即現此身而為說法。今日居士到來。且作麼生相見。師云。青雲生闌外。進云。雲月雖同。怎奈溪山各異。師云。瑞氣現眉端。僧禮拜。師云。還我雲月溪山來。僧喝。師云。未見得。乃云。挂月峰前步影未當風騷。象王嶠裏。尋牙不為好漢。直須穿過覲母林。踏斷梯雲橋。吸乾螺池水。推倒雞籠山。然後獅子峰頭坐臥。亦得懶雲阿裏打鞦。亦得觀流亭畔吟詠亦得。靈應潭邊隱顯亦得。五峰塔下望空啟告。亦得龍泉井底撈攏魚蝦亦得。所謂得底人。與麼也得。不與麼也得。與麼不與麼。總得現前。大眾。還有得的。不妨出眾共相證明。如無黃檗羅山共出隻手。重新舉揚去也。豎拄杖云。會麼？一片白雲收谷口。幾多鳳鳥盡歸巢。下座。

龍池巖僧請，上堂云：法無定相，遇緣即宗；心不住著，觸處皆通；心法雙忘，事事圓融。豎拂子云：且道是法耶？心耶？穿過諸人鼻孔，透漏三藏玄文，有甚麼定相？祇如諸善人遠離龍池，驀過同安，直上羅山，步步踏實地，處處沒蹤跡。全身與麼來，全身與麼去，有甚麼住著？既無住著，又無定相，與釋迦老子、天下老和尚相去多少。會麼？踏破草鞋赤腳走，撞頭磕額露全容。下座。

師到報親寺請上堂，師云：田不耕，書不讀，一字入胸多損福。本無金玉累兒孫，豈有溪山懸半幅？試問閻浮未醒人，誰能於此大開目？若也與麼薦去，直下坐斷天下人舌頭；苟若未能，山僧別開隻眼，與汝說夢田可耕書可讀，永言配命自多福。時來滿眼是文章，信手縱橫千百幅。大似龍蛇競海山，人天一見驚心目。適纔不與麼，于今卻與麼。且道與麼者是？不與麼者是？會麼？午夜疏鐘催客夢，金雞橋上有人行。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二終

福建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上堂。僧問。今日和尚親到圭峰。如何是圭峰境。師云。四野青黃。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兩兩三三舊路行。進云。人境且置。向上一竅又作麼生。師云。腦後掛金鎚。僧一喝便拜。師云。再喝看。僧無語。師云。莫弄虛。乃云。諸方今日結夏安居。平等性智。黃檗不循舊例。隨處作浪興波。等是釋迦兒孫。為甚麼各各施設不同。不見道。世人住處我不住。世人行處我不行。不是與人難共住。大都緇素要分明。若向這裏構著毫芒。出得諸方保社。亦乃抓著山僧癢處。如未權立數條。與眾兄弟共相履踐。第一不得孤峰獨宿。第二不得平地穩坐。第三不得拖人落水。第四不得腳踏兩船。第五不得虛空中釘橛。第六不得鬼窟裏作活。不墮六種圈績。便是超群種草。可謂獅子兒眾隨後。三歲便能大哮吼。若是野干逐法王。百年妖怪休開口。下座。

求懺悔請。上堂。僧問。如何是觸目菩提。師云。山花開似錦。進云。畢竟作麼生是縱橫無礙處。師云。滿地是殘紅。僧禮拜。師云。花在甚麼處。僧無語。師便打。問覓心懺罪了不可得。和尚集眾。陞堂福慧作麼生道。師云。燈籠懸露柱。進云。恁麼月到天心。白波歸海上清。師云。少逢穿耳客。乃云。十五日巳前。片雲捧九日。十五日巳後。一水瀉千江。正當十五日。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古佛舌頭短。衲僧鼻孔長。若向箇裏瞥地。邁古超今。耀後光先。業障報障瓦解冰消。自冤他冤豁然永息。且道承誰功能。如是靈驗。夢裏明明有六趣。覺後空空無大千。下座。

師到延福寺請上堂，僧問：不問九日山頂人，如何是金雞橋上客？師云：去去！來來。進云：恁麼滿溪流水洪。師云：未在，更道看。僧喝。師云：祇得一橛。問：今日堂開延，福龍象雲集。且道西來祖意如何示人？師云：門前大案山。進云：恁麼則頭頭顯露，物物全彰。師打云：更須一棒。乃云：昨日在圭峰寺裏有一則夢話未圓，今到延福，不可別作生涯。不妨與眾兄弟圓卻免使三十年後向山僧頭上安頭。沒。田耕沒書讀，也無業累也無福。倦時倒臥仰蒼蒼，突出虛空一大幅。黃頭碧眼無摩娑，魔外人天休側目。有時井底風雷鳴，倏爾山頭九日曝。雨濛濛，花簇簇，道存奚用黃金屋？寥寥四壁沒周遮，天上人間惟我獨。且道山僧與麼道，還圓得夢話也未？喝一喝，下座。

過泉州平山寺主人請上堂。僧問：春日融融瑞氣濃，滿懷佳興上平峰。人天四眾慇懃請，不吝慈悲闡正宗。如何是正宗底意？師打云：棒頭有眼明如日。進云：還有向上事也無？師云：要識真金火裏看。進云：松風昨夜連聲吼，吹落桃花滿院紅。師云：閑言語。問：天地同根，萬物一體。如何是同根一體？師豎拄杖云：總被拄杖吞卻了也。進云：離卻同根一體事如何？師云：汝須速拜。僧禮拜。師云：自倒還自起。乃云：大機不器，圓應無方，總三界以為家，羅，四生為一子。有時高高峰頂立平之有餘；有時深深海底行觀之不足。在天非天，在人非人，在聖非聖，在凡非凡，能天能人，能凡能聖，非天人凡聖之所能哉！今日狹路相逢，卻被平山主人一撈，直得無言可說，無理可伸。豎拂云：祇得流露這些。大眾還會麼？若會，不妨途中受用；如未山僧與汝點破。平山一座彌今古，八面威風總不干。下座。

佛誕上堂。師云。釋迦老子纔出娘胎。便云。天上天下唯吾獨尊。汝等諸人三十五十。髮白齒黃。不明獨尊之旨。忝其苗裔。得無愧乎。諸禪人會麼。釋迦老子即今在汝諸人面門出入。同一眼見。同一耳聞。同一心覺。同一智知。所謂天下無二道。古今沒兩人。若能如是會。萬物自平沉。且道。雲門一棒打殺餵狗子喫。又作麼生。一僧便出。師云。好手手中誇好手。紅蓮心裏中紅蓮。下座。結制上堂。師云。遼空橫劍戟。誑唬蒼天平。地畫牢關明瞞赤子。說玄說要污己心田。行棒行喝。損人鼻孔。長期短制繫驢橛。怪語異言爛葛藤。驀地打開寶藏。掀翻滯貨。到這裏總用不著。且道今日開期結制以何法為人。良久云。洗清天地渾無物。一曲陽春隔塢聞。下座。

上堂。云：祥雲圍繞處。日午正三更。會得箇中意。金烏徹夜明。正當與麼時。君臣合道。賓主同途。岸上蹄踏蹄。水中嘴對嘴。兩角無欄柵。縱橫沒欠虧。以此壽人壽不可量。以此福人福滿恒沙。山僧與麼舉揚。大似官馬相駁。惡水廝澆。未免旁觀者哂。大眾哂則不無。祇如麗寰上人推一座。羅山以壽黃檗。且道合當何物以為酬謝。試問諸人代一轉語看。僧便喝。又僧云。一人有慶。又云。一家有事百家忙。師云。各得一半。良久豎拂子云。會麼。相知不用多杯酒。一盞清茶也醉人。下座。

上堂。問：天上天下，唯我獨尊。即不問，目顧四方，周行七步，請師說破。師云：流露半邊鼻孔。進云：相逢盡說相知話，誰人心與佛心同？師云：切忌再昂藏。問：因地一聲則不問，未出母胎時如何？師云：壁立萬仞。進云：出胎後如何？師云：七花八裂。進云：一段靈光亙古今，通身不掛一莖紗。師打云：截作兩段。僧擬議，師云：和擔擔去。乃云：祖師西來，祇求一個不惑的接佛，慧

命現前。大眾還有不惑的麼？請出與黃檗拄杖子相見。僧云：早已七花八裂去也。師云：一釣便上更有麼？如無，山僧打草去也。萬福堂前，一池風月，五雲峰畔，半幅溪山，拈弄一任，拈弄擎展，一任擎展。然不得作境會，亦不得作心知，畢竟作麼生會？若是猛利獅子，一咬便斷，更不周繇者也。脫或如何若何，鷄子過新羅。山僧三十年前錯為境會，三十年後誤作心知。正當今日，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祇可自怡悅，那堪持贈君？未審現前大眾分上又作麼生？良久，云：不須更誦南山語，展向堂前仔細看。下座。師誕上堂，師云：五十年來，半夕之頃，東拋西擲，百無所成，錯腳踏翻泥水，萬別千差坦平。倦則橫眠竹榻，夢回一枕；溪聲毛頭逗漏些子。迸出滿座文星，爍破魔外肝膽光輝；佛祖門庭正當此際，慶快平生則不無，祇如人天共本凡聖。同元一句作麼生道？心地不生閒草木，滿林荊棘放蓮花。下座。

顯密戒子請上堂云：善射者，箭不虛發；善言者，語無偏枯。箭不虛發，箭箭中的；語無偏枯，句句歸宗。所謂言行相顧，乃稱君子；福慧圓明，名之曰佛。若能心心如是，念念如是塵塵，如是法，法如是，便與佛祖不別，奚用三祇鍊心，百劫鍊性而後為得哉？茲顯密禪人親余數年總領殿事，今將告成，窺其行門，無忝古人。惜乎！慧眼未圓，不能洞徹，今古未免借余光明，爍破諸人面門去也。驀豎拂云：不喚拂子，喚作甚麼？若識得這一毫頭，便能用得一毫頭，用得一毫頭，便能拈卻一毫頭；拈卻一毫頭，則不被一毫頭所礙。如是祝君親，則天長地久。如是壽師友，則海闊天高。放下拂子云：即今又向甚處去？也能顯能密能仁子當收當，放在當人。下座。

上堂。云：古人道。佛之一字，吾不喜聞。大似洗清寰宇。潔己賣俏。要且無人著價。仔細看來。元是膽小。莫道佛之一字。乃至山，字水字草字。木字牛字馬字，雞字犬字。日日聞時時聞。有甚麼過。大小祖師今日被不肖分身碎副懸在三家村裏萬木梢頭賤賣了也。還有買者進前商量看。西堂云：不值半文錢。師云。多半太過。堂便喝。師云：少分不及。不如山僧自買去也。東家賣貴，西家賣賤。八兩猶來半斤。千賒不如一現。下座。

冬至上堂云：格外家風別，寰中氣象奇，橫拈鐵柳栗，直下一貫之。諸人還會麼？時節到來，葉葉枝枝皆挺秀。因緣出現頭頭法法露全彰。祇這拄杖子，自古至今，未曾增一些子，未曾減一些子，穿過千佛鼻孔，透漏萬物根源則不無。祇如不涉陰陽，寒暑不落，凡聖窠臼又作麼生？良久，云：今日懶倦不能向汝道，且待明朝。下座。

上堂。云：聞聲悟道，見色明心。觀世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卻是饅頭，正抓著山僧癢處。未審諸人分上又作麼生？眾無語。師云：千說不如一見，千言不如一悟。見悟透徹，當下了然；言說多端，展轉逗漏。所以道：在悟而不在言，言多與道轉遠。且道即今見者是誰？悟者是誰？言者是誰？說者是誰？祇如不言不說不見不悟者又是誰？良久，云：若不聽流水，還應過別山。下座。

佛成道日，上堂云：雲收午夜星燦長天，坐斷今古一會儼然悟明眾生俱皆德相，洞達父母未生根元，情與無情，俱成正覺，法及非法，咸證真嘗。釋迦老子若不棄萬乘之尊榮，受六年之飢凍，焉有這一段風光耶？雖然，悟則不無，爭奈落第二門頭。若論第一門頭，三世諸佛口掛壁上，歷代祖師鑽刺不入。且道作麼生判斷去？時有僧便出堂。師云：即今休去便休去，若覓了時無了時。下座。薦師請上堂云。智明白不惑。能守師道存義斷情忘處。是名真報恩。祇此一偈。有權有實。有頓有漸。事上也合。理上也合。若也會得。報恩已竟。薦拔已竟。脫或未然。再潑惡水污瀆恒公面門去也。然公生平操履。端若泰山。潔如冰雪。扇起仁慈之風。挽回淳朴之道。轉請三代知識而不倦。輔弼千古叢林以無虞。其德也重。其願也深。其心也大。其利也普。若非夙植德本。安能如是耶。且道。葉落歸根。來時無口。又作麼生。僧云。鐵蛇橫古路。師云。紅輪出沒元依舊。無限青山空對愁。下座。

元旦上堂。云：王言如絲，其出如綸。等閒拈一毫頭，家隆國泰；信口道一句子，草偃風行。人間天上，共沐恩光；此界他方，均錫至化。是以在天天中之聖，在人人中之尊，在物物中之貴，在法法中之王。且道在衲僧分上成得甚麼？豎拂子云：會麼？為瑞為祥彌法界，如雲如雨覆三千。下座。

解制上堂。師云。山谷家風雖節儉。禪林禮樂恣優游。放開線道通霄漢。把住源頭不放流。此乃是山僧尋嘗用的。未審諸禪人分上又作麼生。若也會得。推不出戶。拽不入門。人人腳跟下自有一段風光可樂。決不向他家齷齪裏淹殺。如未須向這裏決擇。切忌東去西去。游游漾漾。如水流破布。處處掛著。敢保驢年。未有自繇獨脫分客冬諸禪人不遠千里而來相從。今日解開眉毛。處處分身。山僧聊伸一言奉送。唯冀禪人各各諦聽。胸留一法水難消。珍重闍黎莫亂描。空手而來空手去。橫行直撞赤條條。下座。

為永安無所曇域，三、耆舊入塔。上堂云：三身藏一處，直下明明有可據；一處現三身，鼎立何曾隔一塵？三即一兮一即三，主伴重重為指南。拈卻三兮去卻一，上下四維無等匹。若人於此悟端倪，摩訶般若波羅蜜。山僧與麼舉揚，還薦得三位耆舊也無？若也薦得，毘盧頂上橫行，癩狗腳下翻身，凡聖收他不得，人天豈可名

模？是為超生越死，自繇自在，入淨入染，無可不可。如未山僧，掇轉耆舊半邊鼻孔，汝等諸人急須著眼。驀豎拂子云：且道是三是一？僧便喝。師云：半是思君半恨君。下座。

師至福廬請上堂，問：諸佛出世，為一大事因緣，和尚出世，為著甚麼？師云：日富千峰翠。進云：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擱瞎眼睛光宇宙。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踏翻世界露全身。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燒卻花街三百里，無限風流一旦灰。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且喜今朝天色暖，山南山北樂高歌。僧禮拜。師云：人境向上，何不再問？僧擬進，師云：且退。乃云：一入天門事事奇，瓊樓玉殿映靈芝，玲瓏怪石雲鑽急，窈窕懸崖客上遲。念念歸根無別法，頭頭普露阿誰知？自從識得娘生面，豈肯隨人向外馳？諸禪德！既不向外馳，祇如山僧離黃檗入福廬訪靈巖，遊西山，於中林巒間錯，人境交參，一一歷遍，無不了然。且道是向外馳？不是向外馳？若道是向外馳，本來無一物，安有可觀之相？若道不是向外馳心，包太虛空，無有能包之者。到這裏有箇洩訛處，請問諸人定奪看。如定奪得，許汝觀山翫水，不為分外，定奪不得，盡是向外之邊，未免山靈所笑。眾無語。師云：難難！踏斷千峰歸去也，白雲仍舊占青山。下座。

結制上堂。問：等閒瞎卻娘生眼，萬里雲關一睹通。今朝結制開爐冶，還有加功處也無？師打云：迸出一輪紅。進云：當陽踢破灰烈燄，翻身慶讚法中王。師云：再道看。進云：黃檗花開香遍界，不動巍巍自久長。師云：閒言語。乃云：今朝因地，大開爐鞴，凡來聖來，千差一致。苟明一致，則江上君子、林間野人、白牯狸奴、泥豬癩狗，一一圓明，一一具足，不費鉗鎚，便與從上老古錐，無別無異。為甚如此？祇為識得一，萬事畢，歷代聖賢從此出，等閒拋在糞堆頭，信手拈來無不吉。雖然如是，祇明其一，不明其二，殊不知一有多種，二無兩般。苟執一太浪籍，百怪千妖從此入。急須當道打桃符，吾奉老君。如今敕諸上座：且道適纔為人好？即今為人好。良久，云：偶爾草頭垂雨露，倏然山頂起風雷。下座。

上堂。問：諸祖門庭即不問，如何是臨濟家風？師打云：一棒一條痕。進云：如何是一喝金剛王寶劍？師云：斬斷闍黎。進云：如何是一喝踞地獅子？師云：逼塞乾坤。進云：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師云：一任疑著。進云：如何是一喝探竿影草？師云：知汝是行腳僧。進云：四喝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云：放汝三十棒。乃云：未舉先知，省得許多鹽醬；頻敲不會，徒勞一片熱心。那許興問酬答，驢事未去，馬事到來眼睛被人換了舌頭，被人翻卻，猶自不知。諸禪人！佛法無多子，久長難得人，經行及坐臥，嘗在於其中。更無第二人，亦無第二法。為甚麼不會？大千沙

界海中漚，一切聖賢如電拂。先知箇甚麼衲僧行履？霜天皎月，獨露丹心；雪嶺孤松，全彰妙體，正眼看來，猶滯半途。且道如何是歸家一句？良久，云：真不會時無不會，果先知處有何知？下座。上堂。師云。都緣幻化虛生滅。誰諳靈明亙古今？點破霜花成慧果。一輪杲日正天心。正當恁麼時。若凡若聖。若僧若俗。若淨若染。都盧是個清淨大圓覺相。於中覓其業性。如芥子許了不可得。苟能於此覷破懺悔。已竟是為赫日消冰。紅爐點雪。罪花永謝。福德圓融。有時瓊樓玉殿裏安身。有時瑞草靈苗上著腳。在彼在此無不自繇。於國於家。莫非慶快。然則慶快一任慶快受用。不妨受用。且道。即今懺罪延生一句作麼生道。青山高古長蒼翠。慧性圓明燭太虛。下座。

上堂。云：茲因純如禪人，為鼓思王檀越請山僧陞座，舉揚佛事，用作追修薦拔之功，以酬四事供養之德。若論佛事，禪人未舉，念時舉揚了也，薦拔了也。若信得及，知恩有地；其或未然，不免放一線道，應箇時節去也。豎拂子云：陽昇陰降，不離者箇風光；死去生來，不離者箇面目。天地以此為根本，萬物以此為發生。佛祖以此流傳慧命衲僧以此卓立乾坤，過往先亡，以此超昇蓮界，現存眷屬，以此福蔭兒孫，乃至四生六道，殊相劣形，莫不以此安身立命。雖然如是，祇舉得一半，那一半又作麼生？放下拂子云：一念回機，八萬塵勞頓息；剎那省覺，無量妙義全彰。非全彰莫顯頓息之力，非頓息安知全彰之旨？須知全彰處，正是頓息時候，頓息時候，正是全彰處所。元無二致，豈有兩般？如是則鼓思居士，昔日生未嘗生，即今死未嘗死，生未嘗生日午正三更，死未嘗死，夜半日頭紅。若能如是會，端坐碧蓮中，此乃是薦拔話略。且道應時超脫一句作麼生道？良久，拍禪床云：會麼？直指覺靈歸去路，天回地轉兩眉春。下座。

上堂。師舉：古德云：夫參學者，一人所在也須到，半人所在也須到，無人所在也須到，未免探頭太過。勞而無功，大似貪觀天上月，失卻掌中撓。黃檗則不然，一人所在也不到，半人所在也不到，無人所在也不到，不是黃檗不占地步，其奈盡乾坤大地，一切有情無情，都在黃檗一毛孔中流出，無勞再勘。汝等諸人還信得及麼？未出茅廬天下定南征北討太忙生。下座。

上堂。師云：茲者東金寺妙藏耆舊，為乃母陳氏，請山僧陞座說法，用作報恩薦拔之功。若論薦拔，父母未生已前薦拔已竟，那更山僧東語西話，用作薦拔，未免明眼者笑。雖然如是，又記得昔日那吒太子析肉還母，析骨還父，然後現本身，運大神力，為父母說法。大眾！骨肉既析，身口也無，現箇甚麼？又將甚麼說法於此薦得？罔極之恩可報，劬勞之德已酬。如或未然，山僧為伊點破，令

他子母兩得相見，骨肉依舊團。圓乃豎拂子云：會麼？急薦取！莫咨嗟，回光處處是娘家。一毛頭上翻身轉，一一毛頭渾不差。卓拄杖，下座。

上堂。師云。知解禪深坑。可畏鬼窟道。險隘莫行顛顛。說誤人休。聽擔板漢。扁小勿從。乃至消釋玄要。配合經書。種種俱是魔外生涯。汝等諸人好心出家。正因行腳。切不可隨邪逐惡。趁人者個群隊。甘為魔黨種族。永劫沉淪。甚可哀哉。殊不知到者裏無道可道。無禪可學。搬柴運石。磊磊落落。東去西去。無適無莫。會則直下慶快。不會切忌卜度。大眾會麼。尋嘗一味乾蘿蔔。疑殺閻浮幾萬人。下座。

上堂。問：指天指地即不問，雪嶺修行意若何？師云：凍殺闍黎。進云：恁麼則忽睹明星去也。師云：莫眼花。僧便喝。師云：熱碗鳴聲。乃云：黃閣重綸不住，甘為雪嶺埋頭，忽然眼中著屑敗闕，當作風流好。諸大德！山僧舉揚了也，還有見不平的，請出為者老子雪屈如無。山僧重新批判去，夜半睹星，悟則不無，正眼看來，元是自家滯貨，有甚麼奇特？惜乎山僧不與同時，若與同時，好與三十大棒令者，老子口也無開處。顧視大眾云：會麼？舉頭天外看，誰是報恩人？下座。

戒子請上堂。師云。善來佛子。大戒已圓。竭力弘持。是為菩薩。切不可有名而無實。多華而不果。以了故事。於戒何益乎。須知菩薩之智。明如杲日。無幽不燭。菩薩之心。厚如大地。靡所不載。菩薩之行。高如泰山。八方景仰。菩薩之願。深如滄海。百川普納。菩薩之戒。淨如滿月。內外明徹。菩薩之威。嚴如冰雪。表裏凝淨。菩薩之相潤如春膏無物。不被菩薩之性。量等虛空包羅萬象。無理不周。無事不備。無機不利。無法不圓。苟能如是信解。如是行持。如是證入。如是擴充。直下便與文殊普賢把手共行。毘盧遮那、同堂合座。真為大丈夫。能事已畢。真為最上乘之種草也。更有一事一發與諸人說破。豎拂子云：昨日忘卻的。今朝豎起時。且道是戒耶？非戒耶。還假修證也無。還曾污染也無。會麼。等閒拈出金剛眼個個毘盧頂上行。下座。

追薦請上堂，師云：十五日已前，眉開一線天；十五日已後，鼻孔漸漏逗。正當十五日，前後俱屏息，迸出一輪紅，洗面摸著鼻。雖然能太近，要且人難識，施為動靜總現成，堪笑茫茫向外覓。正當與麼時，是汝諸人安身立命處，是汝諸人喪身失命處；若也會得，殺活全彰，存亡兩益，歷劫冤親一坦平，多生父母俱超畢。山僧與麼道，還薦得劉氏慈嚴也未？昨夜霜風徹骨寒，枝頭逗漏真消息。下座。

大佛開光上堂。師云。清淨妙法身。能作大佛事。口放百千光，攝化善男女。感彼曾心空。金帶雙手與。能捨其難捨。真為轉物主。涵清同性善。復充如來使。錦上又添花。紫磨重金鏤。萬福相莊嚴。大家在裏許。大家既在裏許。則自作自受。自莊自嚴。不著佛法僧求。不圖人天勝報。如是莊嚴。是名無相莊嚴。如是作者。是名無作妙用。山僧與麼舉揚。也是因功慶賞。即事稱人。功不浪施。福歸有地。祇如今日開佛知見。點佛慧眼。又作麼生道。以拂子向空點一點云。會麼。苟明者箇。天真佛動轉施為。嘗放光下座。

歲旦上堂云：尊崇大道，兵氣漸消；克己歸仁，干戈永息。恩光臨於泉石，德澤布於塵寰，人人同樂明聖之天，個個共享太平之福。所以道：一念無為，十方坐斷；一人有慶，兆民賴之。而我林下野人如何報答？老來莽鹵無思算，托出乾坤一斬新。下座。

解制上堂。師云。腳下閒雲盡。天開十二峰。頭頭現瑞彩。面面展春容。聽法頑山石。投機活水龍。興波不作浪。在處振綱宗。若有與麼人。則佛祖命脈堪傳人天。福田有賴如無。山僧入泥入水。撈攬魚蝦去也。黃檗尋嘗把住漆桶。水泄不通。直饒德山臨濟當前。不許咳嗽一聲。今日打破牢關。放開線道。任汝諸人[跳-兆+孛]跳。大似三個驢兒殿上行。一群水牯漫山走。渾身流露沒遮藏。觸著個個如雷吼。若也直下承當。祇明半邊鼻孔。總未見得。切不可動著動著。未免犯人苗稼。損人田地。磕著沒面目。老漢仍舊。驀鼻將來。朝打八百。暮打三千。縱有萬倍酬償。亦不放伊。何故。這裏重犯即不可。諸人還會麼。一不作二不休。鼻頭繩斷始風流。可憐無限癡男子。儘日騎牛不識牛。下座。

佛誕上堂。一僧拂具便出。師云。少賣弄。問未出母胎度人畢。即今突出待何人。師云。通身是遍身是。乃云。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向這裏薦得。便與山僧拄杖子共條合命。同氣連枝。有時喚作丈六金身也得。有時喚作一條拄杖也得。所謂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如是壽聖人天長地久如是澤。咸生恒沙普被。其或未然。向毘藍園裏右脅降生。九龍吐水沐金軀。千葉寶蓮捧雙足。目顧四方。週行七步。指天指地云。天上天下唯吾獨尊。處薦得已落第二門了也。正眼看來。祇做得拄杖子通事舍人。所以雲門老漢一棒。打殺餵狗子喫。貴圖天下太平。雲門雖握肘後靈箭。大似賊過後張弓。未免勞而無功。仔細簡點將來。也祇是拄杖子的先鋒。乃至西天東土天下老和尚。年年此日。各各賣弄這一著子。以為報恩。殊不知。養子不及父。家門一世衰。縱有奇言妙語。也祇是拄杖子切腳。更有三家村裏流俗阿師。不知好惡。被這箇節目。使得七顛八倒。至於彌勒下生也無有休歇。帶累釋迦老子

不為不少。山僧今日與麼告報。現前大眾同音讚揚。且道。當得慶誕也未扶得拄杖子也未。大眾會麼。轟轟雷雨青山下。又與青山隔一溪。下座。

薦嚴請上堂，孝子問：劬勞未報痛難追，養送雖勤屬有為，格外報恩猶未薦，且將魂帛就鉗鎚。如何是親蒙煅煉？師云：脫下孝帛向汝道。進云：恁麼則息息相通無向背，去來生死不差移。還有格外事也無？師云：即今是甚麼？進云：某甲擔荷去也。師便打，乃云：時當自恣節_屈中元，僅有程氏昆仲，特特進山修齋，以資冥福請法而薦先嚴，入至善之堂，伸大孝之道。如是報恩，盡善盡美，更要山僧開兩片皮，當得甚麼？雖然，事無一向，聊敘數言，以慰來意之誠。家珍久秘在形山，驀爾相逢不等閒，閃爍電光輝宇內，縱橫劍氣現眉間。心存向背雲開合，道契真如日往還，一鉢和羅天外供，口門噉破未嘗關。諸禪人！口門既破，未免鼓粥飯氣，與大眾共相咬嚼。所謂一牛打欄，眾牛喫草，張三欠債，李四還錢。意在言外，妙乎機先，觸著毫釐，萬法俱全；悟者頭頭解脫，迷之，處處牽纏。以此追遠，塞乎天地；以此資冥，三途一致。以此自度，念念如意，以此度人，無往不利。山僧與麼舉薦，大似落水拖人，還有岸頭出手，共相扶持者麼？僧拂坐具云：騰騰信步超空去，鼻孔依然搭上唇。師云：蓮葉貯水。遂卓拄杖云：全憑者箇木上座，幽顯親疏一貫之。下座。

薦慈請上堂。師云。人生重大本。報德乃稱賢。不追本來處。子道亦徒然。萬類人最貴。百行孝為先。罔極恩難雪。反覆不成眠。直入壁山裏。匍匐老僧前。乞法薦慈氏。孝念塞乎天。止止不須說。我法妙難言。轉請木上座。殷勤為汝宣。卓立窮三際。橫該遍大千。渾身正法眼。一擊徹根源。放去頭頭現。挑來個個圓。頓悟根源者。觀體坐金蓮。不惟慈_已薦。恒沙母度完。山僧超拔_已竟。未知諸人助薦。何如維那。云惹得悲風動地生。師云。棺材頭哭有親兒。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三終

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結制上堂。云。諸方結制無繩自縛。黃檗開爐有屈丈夫。殊不知人人赤灑灑。個個峭巍巍盡大地。是箇沙門一隻眼紅爐向甚處安盡。大地是箇紅爐沙門。向甚處著。向這裏覷破毫芒。銀山鐵壁。靠倒千門。萬戶齊開了無長短。高下那有生死。去來少涉遲疑。火星落眼裏。無數金針撥不開。一物礙胸中烜天烈燄煨難化難化故生死岸頭。終不得力不開也。尋嘗任運。未免糲糊。衲僧家急須著眼。切不可。一日過一日。一月過一月。一期過一期。一年過一年。嗚呼老矣。是誰之愆。閻老師不是汝爹娘。牛頭阿旁不是汝弟兄飯錢。設若少負鐵棒。便臨汝身。那時莫怪黃檗不為汝說是事姑置。且今開爐徹骨。為人作麼生道。冷時添把火。熱時便撲滅。不是黃檗特地無端。要汝諸人皮下有血。下座。

慶誕請上堂。問。娘胎透脫一輪圓。箇中消息不用傳。今日強臨登寶座。如何特地落言詮。師打云。不得出頭。進云。恁麼則因地一聲普聞去也。師云。如何是因地一聲消息。進云。和尚甚麼不著眼。師便打。又一僧拂坐具便行。師云。遲鈍殺人。僧一喝。師云。好一喝欠主在。僧無語。師便喝。乃云。眠牛水草足。不計幾春秋。報道娘生日。翻身向上頭。十二峰頭增瑞彩。水晶宮裏正添籌。鎮海驪珠光燦爛。更嫌何處不風流。山僧今日因齋慶讚。大似錦上鋪花。若論父母未生前一著。諸人不後我亦非先。大家聚首古皇前。無影樹邊赤洒洒。沒陰陽地永綿綿。打翻浮世閒日月。萬古長空一大年。山僧慶讚了也。未審諸人異口同音一句作麼生道。良久云。一片德風流巖谷。祖山疊翠更稜層。下座。

上堂。云。靈鷲枝花。放出千紅萬紫。曹溪滴水。流傳四海五湖。無限鱗龍隨波作浪。幾多俊俏摘葉尋枝。正當此時掀翻世界。鬧熱門庭則不無。只如香飄氣散。雲盡水乾。且道。蝦蟆遊蜂向甚麼處鑽簇。於此個儻分明。不辜親見黃檗一面亦不昧行腳。衲僧隻眼如未。切不可打在無事甲裏空喪天日。汝等諸人。還知黃檗苦口為人麼。偶來花下探明月。不覺東風過院西。下座。

師誕上堂，師云：法身充宇宙，慧命等虛空。念別溪山異，心圓法界同。兩眸懸日月，一棒定蛇龍。者麼？祝余壽禹門正脈通，諸人還會麼？黃檗尋常如鐵橛子相似，要且斧劈不開，箭射不入。今朝偶逢彌陀禪者，獻一香齋，打濕唇皮，全身慶快，不覺示現，遍滿

虛空。有時怒吼，震動泉石，有時踊躍，顯煥山川。且道這個阿師有甚麼長處？堪受人天慶讚？我笑青山高突兀，青山嫌我瘦稜層。下座。

冬至上堂。問：祖意西來即不問，冬至消息是何如？師云：山山現瑞彩。進云：恁麼則鷓鴣啼處百花新。師打云：句句斷人腸。乃云：陰陽未判之先，連得便行，略較些子；寒暑迭遷之後，強作主宰，有甚用處？脫有與麼人，堪與佛祖為師。如無山僧，向人天界中放開線道，應箇時節去也。群陰剝盡，法法歸根無欠剩；一陽來復，頭頭仍舊風光足。南昇北降，東湧西沒，本自現成，何勞鑽簇？豁開戶牖，海闊天高，迴脫見聞，山青水綠。黃檗無端，分身遍野，明眼衲僧，含笑合哭。諸禪人！且道笑箇甚麼？哭箇甚麼？僧便喝。師云：解笑不解哭。良久，云：繇來一段陽春曲，今古誰人和得齊？下座。

彌陀會請上堂，問：六國進寶，王還納否？師云：是甚麼寶？僧無語。師云：死回回。進云：請師著眼。師云：不值半文錢。居士問：天上一輪月，大地盡光明；法王行遍處，覓跡影無蹤。未審和尚如何？師云：月落後與汝相見。士便行。乃云：茲者瑟江善信圓滿，彌陀勝會，請山僧陞座，舉揚箇事，以助預修西資之津梁。若論西資津梁，人人腳跟下七寶具足，取之不竭，用故無窮。乃豎拂子云：諸人還見麼？敲香几云：還聞麼？若也見得，彌陀時時出現；若也聞得，觀音念念全彰。水鳥雲林共譚般若，風柯月渚俱演摩訶，極樂一會，儼然未散。所謂一處真，處處真，頭頭盡是本來人。一處假處，處假法法無非之乎者，等閒坐斷兩頭關，千手大悲難描寫。山僧與麼道，還資助得彌陀勝會也無？良久，云：踏翻淨穢東西土，個個蓮花捧足行。下座。

羅山互和尚至，上堂，師云：進以禮，退以樂，暖日和風響；殿閣出則弟，入則孝，青山綠，水慶雲罩。兩相扣擊破砂盆，千古長空浩浩闊。若將耳聽終難會，眼處聞聲無不到。汝等諸人，各各有眼，必也堪聞。且道羅山、黃檗兩口無一舌撞頭磕額，所談何事？夜半太陽輝宇宙，天明黑漆布乾坤。下座。

戒子請上堂，師云：善來佛子戒源清，願大行深利有情。如月處空臨萬國，一人舉首一輪明。諸人還會麼？只者心地戒法，人人本具，個個圓成，本來清淨，本自具足，在聖未嘗增一毫毛，在凡未嘗減一毫毛。故我雪山老人夜半睹星。悟云：一切眾生皆有如來智慧德相，只因妄想執著，未能證得。雖然與麼道，悟則不無，似乎話作兩橛。殊不知離妄想執著，別無智慧德相，離智慧德相別無妄想執著，水漲船高，泥多佛大，一明一切明，一見一切見，一悟一切悟，一入一切入。苟能如是會，萬古無倫匹，不惟戒體圓，兼復

生死息。山僧今日真實告報，還有信得及麼？良久，云：一副肝腸懸瀑布，通身手眼露梅梢。下座。

元旦上堂。云：玉曆初頒物物新，金爐靄靄起香塵，山僧信手重挑剔，用祝明朝第一人。乃豎拂云：諸人還知麼？祇此一毫，天清地寧山高，水平如雷，猛如日明，爍破千邦，群邪之肝膽獨耀，吾皇一統之乾坤。山僧與麼舉揚，還祝得君親也未？良久，云：現前卓立如麻葦，刻骨知恩有幾人。下座。

解制上堂。問：雲水盡從今日解一句作麼生道？師云：眉毛八字開。進云：盡大地是箇圓覺期，未審和尚今日解作甚麼？師云：為闍黎不薦。進云：不解不結，還許學人毘盧頂上行麼？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進云：恁麼則草鞋獰似虎，拄杖活如龍。師云：知恩方解報恩乃云：茲者瑟江翁居士，奉母林氏之命，特特入山修懺設齋，請轉法輪，以慰慈親奉佛之誠用，固金剛不壞之體。蓋林氏稟佛遺訓，過午十載，漸積淨財，供佛及僧，雖處塵勞之中，不為塵勞所轉，而能卓立其間，正所謂應以婦女身得度者，即現婦女身而為說法了也，還要山僧說箇甚麼？雖然如是，今值元宵請福之日，又是衲僧解制之辰，偶占一偈，以壯行腳之美，伏惟靜聽，且喜良宵徹夜天，燈燈相續接先賢，聊拈柳栗窮三際，略展眉稜爍大千，本地風光添瑞彩，故園生意轉新鮮，豁開戶牖溪山碧。若個闍黎不悄然，偈已說了。若也會得，大制已解。大疑已釋，大悟已開，大事已畢，東去西去，無往不吉。然則吉慶不妨吉慶悄然，一任悄然脫。有人問：如何是父母未生前本來面目？汝等諸人將何抵對？眾俱喝。師云：陌頭一陣春風起，動著威音那半邊。下座。師到城山庵請上堂。師云。杖藜在處是生涯。撥盡春雲絕點瑕。獨露城山天漢表。萬村圍繞法王家。豁開淨眼看塵世。滿目青黃不是他。諸禪人會麼。既不是他。是箇甚麼。若也薦得。左之右之。古之今之。受用無涯。不妨法隨法行。法幢隨處建立。道繇人悟道風。普被恒沙普被恒沙則不無。且道直截為人一句作麼生道。僧喝。師云。獅子吼時芳草綠。象王行處落花紅。下座。

師到鎮海寺，請上堂云：乘槎渡海，為求格外知音；策杖登山，惟訪通方作者。遇知音聲價益重逢作者，大道愈彰，道彰普天普地，滿眼滿耳，通身遍身無處，囊藏聲重。於國於家若長若幼，聞名睹相，悉皆皈依，故能道滿天下，名垂百世，皆繇知音作者，遞相舉揚而然也。今日山僧海已渡也，山已登也，且道誰是知音？誰是作者？諸人還會麼？沒鼻眠，牛橫海島，不須繩索再勾牽。下座。

上堂。云：學無前後，達者為先；道絕彼此，明之為貴。學未至於達，所學奚益道未至於明，其道罔然。罔然，則業識茫茫，無本可據；奚益則被物所轉，誠難解脫。諸人還知麼？只如父母未生已前

一著子又作麼生？達死了，燒了之後，一著子又作麼生明？苟能直下坐斷兩頭歷落，生死不能籠罩，去住豈可遷移？所謂處生死流，驪珠獨耀于滄海；踞涅槃岸，桂輪孤朗于碧天。山僧今日偶到西院，北山諸善人虔請陞座，不覺逗漏如此，還有明眼衲僧共相證明者麼？如無，山僧自證去也。踏著南山動北山，洞明大事剎那間。善人不昧山僧旨，收拾春風自去還。下座。

師到茶林寺請上堂云。[颱-台+弗][颱-台+弗]春風二月天，特來此處訪高賢。一聲雷破三更夢，個個心開五葉蓮。殊勝偏逢殊勝事，希奇果感希奇緣。滿城羅列金仙子，向道西方豈不然。諸人還知麼？山僧今日所舉，不是因齋慶讚，亦非順水推舟，乃從自己無差別，胸中流出，與諸人共證平等性智。汝等還信得及否？若信自己及，便信得他人。若信得他人及，不惟信得。滿城盡是金仙，乃至山河大地，草芥人畜，無非恒沙諸佛之數。所以道：是法平等，無有高下。此便是釋迦老子三千年前從胸中流出，蓋覆諸人了也。脫有人出來道：黃檗如是提持，看風使舵順水推船則不無。只如陸地行舟，山頭起浪，施佛祖之爪牙，露衲僧之巴鼻，又未許在。山僧道：也知汝是隻眼衲僧。何故？我即與麼，汝即不與麼，汝即不與麼，我又卻與麼。大家扶起破沙盆，托出人前分外好。是事姑置茲者。山僧偶到茶林通城大德檀信虔誠之至，且道有何祥瑞感格如此？良久，云：杖藜到處皆清淨，家國閭閻盡太平。下座。

師到福善堂，上堂云：這個所在，乃是中天老人出身之處。山僧今日入祖之門，陞祖之堂，杲日當空，心花朗耀，看破老人赤心片片，脫體全彰，諸人還見麼？豎拂子云：老人即今在山僧拂子頭上放光動地，堅固一城福善之基，圓滿人人菩提之果。山僧聊舉毫端動著老人六十年前之本懷，始終一貫，首尾無異。所謂一念普觀無量劫，無去無來亦無住。如是了知三世事，超諸方便成十力。於此薦得，便能撐天拄地，作大獅吼，普度有情，到於一切智地，不惟老人之願已足，誠乃黃檗大事堪托如未，山僧抖搜屎腸，一任諸人怪笑老人自離福堂，入黃檗，到東嶽印峰荆田，處處建立梵剎，唯黃檗出入四十餘年，戀戀不捨者，為重法席故也。至於行年六十有五，叩闕請藏，已圖不朽，磨歷風霜，八有餘載。雖則身故，行願湛然，不無當初，焉有今日？山僧特特尋覓老人出處，仍設牌位，不忘其本。普願大眾年年此日爇炷名香，熏破老人鼻孔圓明自己心田，便是黃檗徹骨兒孫，然老人說不到處。山僧今日說到老人行不到處，山僧今日行到老人拈不出的，山僧今日拈出，老人用不著的。山僧今日用著，更有種種未了之事，山僧一一為其了卻，山僧亦有未了之事。請問大眾如何為我了卻？眾無語。師云：啼得血流

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復說偈云：龜毛拂子重千斤，掛在虛空待個人。磕著無情真鐵漢，不妨拈起更尖新。下座。

師到護國寺請上堂。乃舉。昔有僧問古德云。深山裏還有佛法也無。德云有。如何是深山裏佛法。德云。石頭大的大小的。師云。雖然與麼答話不失住山之本分。要且令人向大小裏搏量脫。有人問山僧。路途中還有佛法也無。山僧道有。如何是路途中佛法。山僧道。覲面春風彌八表。峰前怪石更稜層。諸人還知麼。觸事而真。體之即神。就路還家。在處相親。以此資身心。時時康泰。以此護家國年年太平。然身心家國。亦非他物。若無鐵漢。通身荷扶其間。則佛法世法那到如今。大眾且道。通身荷扶一句作麼生道。幾片水雲來。護國又飛杖。錫到東金。下座。

師到東金寺請上堂，師云：為訪相知遍處尋，天風送我上東金。到來坐斷千差路，不負殷勤一片心。諸人還知麼？只這處所，乃是四公應真涅槃之處。汝等諸人曾到這裏也未如未到，必須到著，免被岐路所惑。如到者急須尋箇出路，不宜坐久成勞。所謂百尺竿頭坐的人，雖然得人未為真，百尺竿頭須進步，十方世界現全身。若也進步一著，高高峰頂橫眠，深深海底優游，百草頭邊賣弄塵沙界內打鞦，無可不可，無得不得。只如山僧前日離黃檗寓城山，過西院遊萬安，訪護國上東金，到處之遶一遍，要且來無來跡，住無住相，去無去所，不妨如是來，如是住，如是去。我為法王，於法自在，我為法王，於法無礙。且道明日又向甚麼處去？青山踏遍誰知己？收拾春風歸去來。下座。

辭眾上堂。師云。八載住持受苦艱。呵風罵雨不安閒。今朝帶水拖泥去。十二峰頭展笑顏。大眾且道。笑箇甚麼。波裏橫行波裏睡。幸然不沒小江間。下座。

師到芙蓉，互法弟請上堂云：黃檗枝枝秀，芙蓉朵朵新，雖然舊面目，一見一番新。諸人如此會得，各各歸家穩坐，脫或未能，山僧一一為汝說破發明底人，可大可小，能方能圓重法忘軀，損己利物，舍我芙蓉。法弟者誰歟？山野丁丑歲，開法於黃檗法弟，特來佐助，仍令其徒董領院事。迄今雖未告成其功十有八九。茲者山野有天童掃塔之行，特造丈室，恭請主席，荷蒙許可，則祖席，必也重重光輝，魔外自然漸漸隱伏。所謂一來一往，掀翻臨濟家風，一語一默，開豁人天眼目，可謂盡善盡美，全始全終。汝等諸人於此會得，黃檗、芙蓉在汝腳跟下，如未莫怪，黃檗、芙蓉謾汝了也。幾片水雲彌宇宙，兩輪日月耀乾坤。下座。

金粟首座寮秉拂上堂。蔡居士問。當陽秉拂。隆紹徽猷。如何是克家句。師云。腦後一輪紅。進云。恁麼則金粟一燈。炤天炤地去也。師云。不勞重讚嘆。問到來不見渠塘險。唯有薰風叩座。涼宗

乘事且置。針芥相投是如何。師云。一合相不可得。進云。百匝千重鋪錦繡。祇園花噴襲衣香。師云。打開滿地紅。乃云。赤骨條條絕所依。生平莽鹵不思惟。一椎打殺人無數。路上茫茫若個知。倘有赤心弟兄聞與麼道。攔腮扯下亂椎一頓。以報不報之恩。共助無為之化。如無未免重新漏逗。一任諸方怪笑。琦上座。昔年向者裏打失眼睛。帶累十方虛空山河大地。情與無情悉皆消殞。不唯踏著佛祖正脈。要且人天瞻仰無門。末後無端。卻被堂頭老漢一拶。拶開面門。十方虛空。山河大地。情與無情。仍舊儼然。所謂開眼也合著。閉眼也合著。滿座薰風來殿閣語亦是默亦是。頭頭撞著自家底。渾身無處可遮藏。敗露家風從此始。今日秉拂上座。八字打開。滿盤托出。未審還愜諸兄。本懷也無沒來繇。沒來繇念年與佛結冤仇。一毫端上翻身轉。九十九峰齊點頭。下座。秉拂上堂。問。世尊未出世。祖師未西來。何人演唱宗風。師云。略較些子。進云。恁麼則山川草木無非佛法。鶯啼鵲噪盡是祖意。師云。卻不唧溜。乃云。吳江江上。雲未起時。金粟峰頭雨已下了。均沾沙界。普被大千。直令個個眉端堆雨露。人人舌上起風雷。盡道今年春。水足春花好。人人俱得護身寶。預收蠶豆疊如山。狼籍座前渾不掃。顆顆大似夜明珠。信手拈來無不可。飽食橫臥碧峰頭。者段風光何處討。多口文殊讚奚窮。令人嘗憶維摩老。好大哥法說了還信麼。脫有性燥衲僧。驀面喝云。將謂秉拂上座。有奪食驅耕之手。超群逸翮之談。及乎說來。好似三家村裏唱吧歌相似。有甚麼妙處。雖然被汝道著。要且覓秉拂上座妙處未夢見在。殊不知多虛不如少實。多言不如守中。任君弄到帝王家。也是一場乾打闕。還有一段吧歌一發舉似高明。塞外胡笳十八拍。城頭鼓角兩三聲。等閒聞到傷心處。莫若村歌樂太平。下座。

住嘉興府崇德縣福嚴禪寺語錄

崇禎甲申年。邑侯解學周同鄉紳等。請師於十月十七日入院。至山門云。無門是解脫之門。從上佛祖盡向者裏而入。且道琦上座到者裏又作麼生。別脫有無關捩子。腳跟在處便為家。

大殿基云：天為蓋，地為載，一道坦然平，四方無塞礙。此便是萬福莊嚴之基，釋迦老子畢竟在甚麼處？喝一喝，云：低聲。低聲至。

方丈云：據此丈室，千眼莫識，全提正令，雷轟電掣。一棒按下，惡虎獰龍。兩片打開，青天白日。

當日眾請上堂，師至座前拈疏云：只者便是邑侯解公筆尖頭上放大光明，爍破諸人面門了也。若也覺得，個個眉端增瑞彩，人人腳底

盡風光，如未煩表白，宣過好事，也要大家知。宣疏畢，師指法座云：向上一著，千聖不傳，我今一踏，透頂透底，汝等諸人急須高著眼始得。便陞座，拈香云：者一瓣香，爇向爐中，端為祝延。今上皇帝聖壽。萬歲萬萬歲。恭願帝德圓明燦破千邦。皈一統皇風浩蕩。遍充萬物各全彰。次拈香云。者一瓣香。奉為滿朝文武郡縣尊官。伏願。以德以威家國閭閻皆有賴。如雲如雨。山林草野盡沾恩者一瓣香。奉為本山大檀越併現前。請主諸居士等。伏願。福海長流。永作皇家柱石。壽山增翠長為佛法金湯。復拈香云。者一瓣香。明如日黑如漆。冤有頭債有主。第二次拈出。爇向爐中。專為現住海鹽縣金粟山廣慧禪寺傳曹溪正脈第三十五。世費隱容大和尚。用酬法乳之恩。遂斂衣就座。僧問。前賢古剎久荒涼。師錫已至放毫光錫至放光則不問。如何是普利群生一句。師云。杲日正當空。進云。恁麼則無一生可利。師打云。汝腳跟下作麼生。進云。舌頭點地。便禮拜。師劈脊一棒。乃云。莖草未拈建剎已竟。片言弗措。法說熾然。且道。正當恁麼時。誰是說者。誰是聽者。誰是建者。誰是住者。於此一一辯明。便見靈山一會儼然未散。福嚴古剎特地重光。人人卓立乾坤。更不周繇者也。設或未然。山僧簸箇驢脣。與汝諸人夢中說夢去也。一向與麼去。法堂前草深一丈。一向與麼來。淨地上塵堆三尺。一向與麼住。日炙風吹沒了期。一向總不與麼。業識茫茫無本據。所謂法無定相。遇緣即宗。事無一向貴在人弘。直須向百草頭邊插得隻腳。一微塵裏著得隻眼腳頭腳底撥開線道。有時踢踏奔蛇走虺。有時怒號驟雨旋風。有時顧鑒嘗光赫奕。有時噀唾珠玉滿盤。法法頭頭合轍。塵塵剎剎全彰。與麼也得。不與麼也得。與麼不與麼總得。大人做處不尋嘗。語默行藏莫可量。錯腳踏翻這片地。團圞瓦礫盡生光。雖然如是。舉揚也是衲僧家嘗茶飯。且道。今日開堂福國祐民一句作麼生道。日日門開崇聖德。時時渡口迎天恩。復云。山僧素志。本欲長棲巖谷。以遂平生。祇因夏間特來省覲。金粟老人。豈料傍觀覷破驢頭馬嘴。驀鼻將來在此荒草場中。打鞦一番不知日後如何結局。還有勞形苦骨。臥草眠霜者。請出與山僧鼻孔相拄。眾無語。良久云。喜有青天嘗蓋覆。更叨雨露濕全身。下座。

結制上堂。師云。撥草瞻風為求知己。轟雷掣電顯發大機。一棒趁不回頭。便是超群種草。百煉了無變色。真成剛骨衲僧。其住也端若泰山巨靈。撼而不動。其去也速。如川流良驥追之莫及。妙契寰中。意超物外。於此於彼無在。不在會中。脫有其人。福嚴拄杖可賴如無。山僧聊向冰凌上畫箇牢關。與徹骨漢子共相履踐。以拂子打圓相云。不得向者裏屙屎放尿亦不得。離卻者裏。別尋方便不得。向者裏齟齬寢語。驚群動眾。亦不得飲氣吞聲。默炤邪思。不

得潔白地上賣弄風月。亦不得暗裏藏身。埋沒己靈。不得東卜西卜。承虛接響。亦不得障蔽人天眼目。紊亂佛祖綱宗。不得論量他家杓柄長短。亦不得私販屋裏。楊州出得數種圈績。便是灑脫真人。雖然如是。好與三十拄杖出不得。也好與三十拄杖。且道。新福巖還有為人處也無。良久云。全提殺活吹毛炤。佛祖聞風也膽寒。下座。

元旦上堂。師云：天無私蓋，地無私載，山無私藏，海無私納，風雷無私發，雨露無私潤。以無私祝一人，天長地久；以無私應萬物，草偃風行，十方慕道，四海歸仁。凡有血氣，莫不尊親。而我格外衲僧，如何嵩祝豎拂子云：捧出無私新日月，大明千古耀乾坤。下座。

祝壽請上堂云。茲者本仁呂居士。請山僧陞於此座。舉揚向上一著。以慶不惑之誕。若論向上一著。千聖不傳。歷代祖師。描亦不成。畫亦不就。叫山僧如何舉揚。設若舉得。未免落二落三了也。然又不可無言。聊說伽陀。以遂誠意。伏惟大眾。各各靜聽。壽山歲歲青。語水年年綠。返炤本來人。法身備萬福。滿堂春爛熳。遍野花簇簇。幻化雖非真。悟為家裏物。大開胸臆包虛空。細入盆中一粒粟。百千諸佛現毫端。各為人天開眼目。同音共說妙伽陀。盡謂仁人壽堪祝。更願擴充大道心。一念遍禮無量佛。生生不離婆伽婆。世世嘗為法眷屬。我亦分身遍剎塵。塵塵已受供養足。仁者信受而奉行。自然響應。如空谷偈已說了誕已慶也。還有不惑者。請出共相證明。一僧拂袖而出。師云。大好不惑。良久云。春風來小院。何處不光輝。下座。

解制上堂。師云。本自解脫。阿誰縛汝。本自清淨。何物染汝。本自圓明。味汝不得。本自具足。缺少甚麼。是汝諸人自家底物。為甚麼不會。解結同源。縛脫無二。苟明無二。何往不利。山僧九十日前。向者裏畫箇牢關。直至今日無人跳出。猶恐遲鈍。汝等不如畫破。一任十字縱橫。以拂子畫一畫云。破也破也。一僧便出。師云。放出汝等如龍如虎如獅如象。吒吒吵吵轟轟烈烈。舉頭撞倒須彌動足。踏翻大地揚眉。爍破虛空。開口吸盡西江。直饒佛祖當前一棒按下。如是悟明。如是作略。如是痛快。堪為瞎驢種草。不辜親見福巖一面。且今日功圓果滿。各各分證則不無。只如覲面收功一句作麼生道。內外中間俱踢脫。大千沙界露全身。復云。山僧去歲纔入。崇德程氏。已獻最初之供。今日一期佛事周隆。仍備最後香齋。可為全始全終。盡善盡美。且道臨行轉身一句又作麼生道。泠泠語水催瓶鉢。[颱-台+弗][颱-台+弗]薰風起杖藜。下座。師到建寧淨慈菴，龍友陳居士誕日請上堂，僧問：萬象之中獨露身，三玄戈甲振叢林，三通金鼓四眾集，凡聖齊禮法王身。如何是

法王身？速道！速道！師云：金剛不壞。僧禮拜。師云：速道！速道！僧擬議，師便啐，乃云：一葉翩翩下建州，陳君此日正添籌。修齋普供金仙子，瑞氣盈門八百秋。諸人還會麼？山僧今日借路經過，未免因齋慶讚。若有就路還家，覲體歸元者，便知山僧拄杖子本命元辰落處。若知拄杖子本命元辰落處，便知山河大地，草介龍畜，本命元辰落處。若知山河大地、草介龍畜、本命元辰落處，便知今朝齋主、陳君本命元辰落處，所謂天地同根，萬物一體，如無山僧，一發與汝諸人說破。驀拈拄杖，卓一卓，云：會麼？一聲雷覺三春夢，仁壽蒼蒼莫可量。下座。

師到神光寺請上堂云。返炤妙峰誰與齊？三千剎海露端倪。何緣吹到神光裏，惹得薰風一杖藜。諸人還知麼？若也知得，別峰與汝諸人相見了也。不妨滿目凝祥，一團和氣。淨佛國土，成佛子住。靈山一會，儼然未散。如未山僧為汝諸人落草去也。神光不昧，萬古徽猷。入此門來，不存軌則。若順若逆，若佛若魔，物物圓淨，處處分輝。所謂天得此而高明地得此而悠久，山林得此而峻秀，河海得此而競流。日月得此而朗耀，風雷得此而猛烈，禽魚得此而飛潛，草木得此而敷實。志士得此，榮宗顯祖。衲僧得此，耀後光先。悟之者，直下神通妙用，不同小小。迷之者竟日業識茫茫，無有休息。迷悟且置。只如光未發時，無佛、無眾生，無天地等物，汝等諸人作麼生會？良久，云：拽轉驢脣歸去也，了無話柄落人間。下座。

師到天寧寺請上堂云。金剛寶劍。截斷生死根源。生銜蒺藜。搜空無明窠臼。無明窠臼既空。盡大地是廣大解脫之門。生死根源。既斷普世間。是金剛不壞之體。證其體入斯門。便能入地不動塵。入水不動波。入火不動燄。入風不動搖。通身是地。地不礙地。通身是水。水不濕水。通身是火。火不燒火。通身是風。風不飄風。到者裏須徹證一番。便知這箇三昧。所謂說到不如見到。見到不如行到。行到不如證到。證到不如用到。五者俱到。如龍得水。如虎靠山。如獅子吼。百獸潛藏。如迅雷發群靈咸覺。山僧如是舉揚。未審諸人還覺麼。非但我今獨達了。恒沙諸佛體皆同茲者。山僧偶到榕城天寧。耆舊虔請陞座。且道賓主互換人境交羅一句作麼生道。良久云。胸清一帶長流水。目富三山萬古春。下座。

薦嚴請上堂。問。未陞座已前覺靈度畢。陞座之後更作麼生。師云。未問已前答汝了也。進云。幾不問過。師拈棒。僧轉身云。一句了然超百億。師云。何須門外說三車。乃云。茲者伯登何。居士請山僧舉揚箇事。以薦令尊。若論薦拔。居士未動念時。一坐坐斷冤親坦平我人一致。了無生死之相。寧有去來之路。不惟一世二親已薦。至於無量劫來尊尊親親。俱已薦矣。何須遠涉榕城。直入壁

山。要山僧開兩片皮。說東道西以為薦拔。大似隔靴抓癢。有甚親切。雖然如是。不可有負孝念之誠。聊敘數言為慰。伏惟諦聽。百年如夢。誰知身世本來空。一念圓明炤徹死生無二路。逍遙如出岫之雲。赤灑似騰空之日。週法界以無遺。歷古今而不昧。雲歸只在青山裏。日落依然不離天。以此用薦何居士。一超直入如來前。山僧與麼舉揚。還當得薦拔也無。良久云。無限風光駒過隙。枝頭黃鳥為誰啼。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四終

住福州府長樂縣龍泉寺語錄

弘光元年，大贊國馬公、大虞卿劉公、同春、元林正昇、陳天錫、陳光震、文學李光、祖暨僧印虛等，請師於三月念二日進院，至山門云：大智門開，七通八達，一任諸人去來。且道進門一句作麼生道？門內有君子，門外君子至便入。

伽藍堂云：聰明正直，一寺之主，輔弼千古叢林，不負靈山之語。琦上座到這裏，如何佐助？舉香云：耀後光前在此舉。

祖師堂云：西天祖師聽事不真，東土師僧承虛接響，拈香云：不如此片塞卻諸祖鼻孔，免教流毒殃及兒孫。

佛殿云：佛之一字，吾不喜聞。今日到來，覲面全彰。如何迴避。舉香云。通身在裏許。通身不在裏許。

方丈云：據此座，行此令，坐斷天下人舌頭，截卻衲僧家性命，一任百怪千妖，直下一椎，便正便起。

即日齋主君迪林居士請上堂，師至座前拈請，啟云：此乃是大檀越胸中流出，蓋天蓋地，於中言言錦繡，句句珠璣，諸人會得便休。如未，也須對眾宣讀。宣畢，坐斷一任四眾卜度。遂陞座祝。

指法座云：寶華王座，高而無上，廣莫可測，我今當頭聖。拈香云：此一瓣香，爇向爐中專為？

當今皇帝聖壽無疆。恭願聖德巍巍。崇深海嶽。八紘之內咸歸至化。六合之外。俱享淳風。次拈香云。此一瓣香。奉為本府本縣尊官。併大檀越外護等。伏願。如金之堅如湯之沸。家國禪林有賴福祿壽算無窮。復拈香云。此一瓣香。從自信中第三次拈出。奉為現住。浙江嘉興府海鹽縣金粟山廣慧禪寺。傳曹溪正脈。三十五世費隱容大和尚。用酬法乳之恩。斂衣就座。上首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問繁不錄)乃云。若論箇事。山僧未到龍泉時。汝等撒手便行。省得許多鹽醬。至於山門前。一見便休。未免減師半德。乃至鐘鼓喧轟主賓濟濟。興問酬荅。彼此逗漏。有何交涉。倘於三處見徹。當人能事已畢。山僧更不周繇者也。如未為汝通箇消息。把住牢關。三千諸佛莫窺傍通。線道百萬人天景仰。景仰時壁立萬仞。覲體全彰莫窺處。綿綿密密了無縫罅。於此於彼何虧何欠。在暗在明。奚減奚增。苟能直下頓悟生死。二關透徹便知。前百丈本來面目無兩樣。後百丈腳跟下事豈異相。亙古亙今沒兩人。頓超人間與天上。山僧與麼告報。諸人還信麼。如信得及。便是大

用之機。亦見大機之用。正在山僧手裏。驅耕奪食。斬釘截鐵。展托西來大意。掀翻百丈家風。揭開吾祖當年事。放出龍泉四海流。下座。

互法弟請上堂云。出入同門作者機。利生濟物在臨時。一聲哮吼乾坤震。沙界何人不展眉。諸人還知麼。黃檗山頭起雲。龍泉寺裏下雨。龍泉寺裏掣電。黃檗山中起雷打濕。彼此半邊眉毛帶累。諸人拖泥帶水。豎拂子云。諸人還覺也無。一點水墨兩處成龍。五日一雨十日一風。頭角猶來。不異鼻孔。自古通同。看破門頭戶底事。大家共用利無窮。下座。

佛誕上堂。僧問。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和尚即今在人天座上合談何事。師云。已荅汝了也。進云。忽逢偃祖來時如何。師便打。僧禮拜云。渾身肝膽全大用。千古英靈作指南。師云。多華不如少實。乃云。麟不吠守。鳳不司晨。獅子遊行不求伴侶。象王顧盼野狐潛蹤。汝看我釋迦老子。纔出娘胎。便云。天上天下惟吾獨尊。眼空四海傍若無人。等閒豎一機蓋覆三千大千現前眾等各各具有金剛眼睛。人人本有生鐵骨頭。智慧德相與佛無二。慈悲喜捨與佛無二。妙用神通與佛無二。菩提涅槃與佛無二。為甚麼不肯承當。設若脫體承當。直下便與釋迦老子無二無別。只如雲門一棒打殺餵狗子喫。貴圖天下太平。又作麼生。到這裏要見釋迦老子則易。要見雲門則難。要知釋迦老子麼。豎拂子云。穿過鼻孔了也。要見雲門麼。擱瞎眼睛了也。要見釋迦雲門則易。要見琦上座則難。且道。琦上座有甚麼長處。僧云。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師云。未在。僧喝。師云。錯腳踏翻龍泉水。直教大地涌波濤。卓拄杖。下座。

結夏上堂。僧問。百丈家風舊。今朝令轉新。如何是新令句。師云。圍繞千山石。進云。恁麼亙古亙今去也。師云。獨我瘦峻層。僧喝。師打云。不得放過。乃云。眉毛廝結祖山中。特地雲開幾萬重。磕破本來舊。痛處成群踢踏起騷風。諸人會麼。山僧今日口門。不關吐膽傾腸。為汝了也。若也會得。反掌還拳。摸捋虎鬚不為分外。如未山僧重新落草。今朝諸方結夏。以大圓覺為我伽藍。安居平等性智。有三種人。根器狹劣。不能入得一種死了活。不得執持死話頭。水浸鵝卵石。千年沒爛期。一種活了死不得。雜毒當家珍。只將閒學解。埋沒祖師心。一種死不得活。不得年久月深。骨董袋裏算將去。那堪持論。更有一種死得活得。如日處空光明烜赫。死後再甦。欺君不得。子細看來。也是星中揀月。爭如山僧這裏結夏。海眾無多不得如何若何要行便行。要住便住。要坐便坐。要臥便臥。稍若遲疑杖臨汝身。大似把棒趁牛入欄。雖然大小差別。不妨箇箇蹄踏相似。所謂執法修行。如牛拽磨。以言取則展轉

失[厂@(-ム+人)]。撥著便轉。雷轟電卷。聊舉便知。神駿千里。這一隊吒吒吵吵[毯-炎+畏][毯-炎+畏][毯-炎+崔][毯-炎+崔]。都來這裏好與三十大棒。且道。是賞伊罰伊。良久云。三尺龍泉光透膽輝。天鑑地炤無私。下座。

光嚴寺請上堂，僧問：如何是龍泉境？師云：山山盡白雲。如何是境中人？師云：老僧獨踞孤峰頂。進云：人境俱蒙師指示，向上宗乘事如何？師云：腦後見腮。僧禮拜。師云：人境在甚麼處去？僧拂坐具。師便啐，乃云：虛空廣大，本無礙物之心；滄海汪洋，豈有障流之意？何況佛祖心包太虛，量周沙界者乎？吾人不明此事，倏然晦昧，根境兩立，無罣礙中，自成罣礙，沒遮障處，自生遮障，致令滿目塵埃，通身葛藤，輾到彌勒下生，無有出頭之分。故祖師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脫有斬釘截鐵漢子，聞與麼道，直下迴光一炤，百了千當，更有何物為障為礙者哉？所謂自見者明，自聞者聰，自知者，智自覺者，慧。然則見無所見，聞無所聞，知無所知，覺無所覺，無見無所，不見無聞，無所不聞，無知無所不知無覺，無所不覺。圓陀陀，赤洒洒，空蕩蕩沒可把，大千沙界海中漚，一切聖賢如電拂。茲者悟菴耆舊請陞此座，不覺逗漏如此，未免識者所哂。且道哂箇甚麼？無端笑哭家風振，千古令人作話傳。下座。

端午上堂。師云：時節到來難忍俊，因緣出現自相親。山前鼙鼓連天震，動著威音那畔人。諸人還會麼？若也會得，時時清泰，日日康安，何用艾旗招福，蒲劍驅災？所謂鯤鵬變化，海嶽夷平，衲子知歸，虛空粉碎。左之右之，惟我有之；右之左之，惟我好之。時屈則屈，反求多福；時伸則伸，應之即神。山僧與麼舉揚，還應得這箇時節也未？良久，云：空爭勝負無休歇，撥轉船頭第一贏。下座。

上堂。僧問。閻浮界內。獨坐大雄之峰。選佛場中。高掛毘盧之印。師還識否。師云。小官多念律。僧擬議。師云。敗將不斬。進云。某甲親到龍泉。師云。如何是龍泉境。進云。十二峰。師云。眼花不少。乃云。升堂入室。重振卷席之風。正按傍敲。再甦還拳之旨。苟悟佛法無多。一切都來剩語。所謂佛說一切法。為度一切心。若無一切心。何用一切法。山僧今日八字打開。和盤托出。倘有明眼衲僧。直下覷破。了無餘蘊。則見色不為色迷。聞聲不為聲惑。觸物不為物轉。觀身不為身累。根境歷落縱橫無礙。不妨卓筆峰頭。描寫天真。眠牛背上。橫吹玉笛。釣龍井底。直鉤虬兒。馬鞭石上浩歌太平。獅子峰頭。顧鑑嘖呻。仙冠頂上。頭上安頭。蓮花心裏端坐。貴品峰前卓立。盤桃石上。咬嚼無味之味。雲梯影裏。賣弄險崖之句。遊戲神通展演三昧。闊法海之波瀾。增祖燈之

熾燄。無可不可無得不得。如未切不可妄談般若紊亂綱宗。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妒君福。山僧今日徹骨相為。還有信得及者麼。不為亂統無根惑。始信龍泉正脈通。下座。

上堂。師云：拄地撐天，妙在純剛骨格；煉凡煉聖，貴乎惡辣鉗鎚。觸著佛祖爪牙，通身慶快，摸著衲僧巴鼻，知恩有地，跛鱉盲龜，得意為電為雷尿床，鬼子翻身如霖如雨。所謂投機一句，轉凡成聖；還丹一粒，點鐵成金。且道如何是投機一句？僧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師云：未在。僧擬議，師喝云：無賓主句輕拈出，萬派千江盡逆流。下座。

上堂。僧問：能種無根樹，任挑海底燈。如何是無根樹意旨？師云：太歲頭上不得動土。進云：恁麼則挑得海底燈去也。師云：禍事！禍事！乃云：茲者係遠祖、百丈老人脫白之處。然老人久侍江西，馬大師自一喝三日耳聾之後，韜隱洪州百丈山中不旬日，海眾雲臻，遂構禪林立清規分兩序，明賞罰井井，有條事事可法，廣羅天下之龍象，直欲個個成佛作祖而後已，可謂烜赫光明，道弘德備，源遠流長者矣。山僧今日踏著老人本來田地，豈可囊藏被蓋，默默無言，有負老人，未免借老人一段威光燦破，汝等面門去也。豎拂子云：還見麼？老人在拂子頭上驚天動地。復敲拂子云：還聞麼？老人在拂子頭上哮吼如雷，既見又聞如何不會？只為汝等尋常看作兩截，反被聲色，蓋卻不得出頭。苟能置之一處，無事不辦，便能迴脫見聞，頓超聲色，左逢右遇，無所不得。大眾！且道得又得箇甚麼？踏著這邊動那邊，閒行數武接先賢。看來只可自怡悅，舉似諸人不值錢。下座。

上堂。云：十箇五雙錯認本有爺娘，五雙十箇不知飯是米做。竟日茫茫，成群作隊，撞入五蘊山中，弄些鬼家活計，戕賊慧命，劫掠家寶。我今有箇方便，不妨將錯就錯。喝一喝，云：會麼？驀頭一喝雲開，迸出紅輪杲杲。良哉觀音大士全身輾入荒草，東西南北無他信手，拈來恰好。自茲世界坦平，憎愛是非一掃分明哥哥之妻，元來卻是嫂嫂。大家拍手呵呵快活，幾乎絕倒。靈山一會儼然，何曾離著爾我人人得座披衣，莫負龍泉長老。山僧舉已舉了，汝等諸人還信麼？早知燈是火，飯熟已多時。下座。

上堂。師云：茲者鄭居士設齋，請陞此座，舉揚佛法，以表財法二施，等無差別。若論佛法大有，只是牙痛，未免唱箇村歌濫充時。聽山青青石鱗鱗，磊落蒼黃絕點塵。得意急須頻放過，恐耽淨處又迷津。薰風動，火雲蒸，鬧熱門頭露半身。倏爾凝眸天地外，灼然誰是箇中人？歌已唱，也不妨無耳知音。無舌解和。更須透過荊棘林，斫倒旃檀樹，那畔不立這邊。勿住！圓陀陀沒可把。赤洒洒無回互。開口不得處道著。言言見諦抬。腳不起處行。得步步歸宗。

倘有與麼人，請出與龍泉相見。眾喝。師云：可是大雄真正脈，一槌擊碎萬重關。下座。

上堂。師云。智鑑圓明炤破本來無一物。心珠澄徹。大千剎境現其中。如天寶網重重無盡。似月臨川。處處全彰。無中現有。有中現無。眉稜掛劍。肘後懸符。截斷千差萬別。直指當下迷途。令汝腳跟盡淨。更不受人糊塗。山僧與麼舉揚。因齋慶讚則不無只如。心不是佛。智不是道。劍去久矣。汝方刻舟又作麼生。到這裏十影神駒。追之莫及。汝等諸人如何摸索。良久云。無端竟日敲風雨。落得清光滿載歸。下座。

上堂。師云：劈開金鎖玄關，突出三頭六臂，推倒銀山鐵壁，全彰無位真人。有時揚眉光風霽月有時努目電掣雷轟。知他聖耶？凡耶？佛耶？魔耶？要且凡聖，佛魔收他不得，有何生死去來而可名模？吾人於此薦得，參學事畢。其或未然，山僧矢上加尖去也。昔有南泉、歸宗、麻谷三人同禮南陽國師。至中途，泉畫一圓相，云：道得便去。師云：放出猶危，也是蕭何？制律宗於圓相中坐。師云：坐斷天下人路頭即不無，要出南泉窠臼猶未得。谷向前作女人拜。師云：奴見婢殷懃，未免傍觀者哂。泉云：恁麼則不去也。師云：收來太緩，不妨救得一半。這三個老古錐，各展神通，賣弄伎倆，將謂摸捋國師，面門未夢見在，殊不知前不構村，後不迭店，天似一畝之地，三蛇九鼠殘挫，南陽苗稼不少，山僧路見不平，一棒串卻撩向東洋海底，致令南陽苗稼重新，百穀豐登，人人樂明聖之天，個個享太平之福。山僧如是判斷，還有過人處也無？良久，云：劍為不平離寶匣，藥因療病出金瓶。下座。

甫宇洪居士請上堂。師云。當陽拶著便歸宗。烈燄星飛遍界紅。動轉施為光燦爛。何妨身在火爐中。諸人還會麼。三世諸佛在火燄中轉大法輪。歷代祖師在火燄中。露箇巴鼻。天下老和尚在火燄中。弄些爪牙現前。大眾在火燄中開隻眼睛。乃至四生六道。在火燄中安身立命。所謂。寒則普天寒。熱則普天熱。通身無向背。萬緣俱休歇。山僧一向閉門打睡。懶向光影門頭。開眼說夢疑。誤來學茲因。萬安諸居士。不遠二百里。破夏而來。請轉法輪。與諸兄弟結般若緣。用固自己。金剛種子未免露一片熱心。未知諸人還信得及麼。苟明日用事無別。始信蓮花火裏開。還有別行一路。請出與龍泉相見。僧便出。師云。又恁麼去也。生平懶散無繩墨。肯與諸人共路行。下座。

解制上堂。師云：空林落葉一天秋，衲子初開布袋頭。昔日來時乾曝曝，今朝去也赤條條。芒鞋剔起三千界，竹杖橫挑八萬洲。唯有山翁忘去住，也無歡喜也無愁。諸人還會麼？茲逢解夏之晨，又遇新秋之景。風清氣爽，海闊雲收，水天一色，物我同流。悟之者，

東去西去，各各自繇迷之者。撞頭磕額，還不知羞。所謂盡大地是清涼解脫之場，盡大地無非無明障礙之所，句中有出身之路，路中有陷人之句。只如猛虎前踞群賊，後追兩傍深坑。萬丈。汝等進前退後，未免喪身失命；不進不退，也是立地死漢。若透得此關，可稱無事衲僧；如未不惟有屈己靈，亦乃信施難消。還有不顧危亡者，請出跳看。僧喝。師云：未是猛漢。良久，云：坐斷千差無向背，虎頭虎尾一齊收。下座。

結冬上堂。慧門西堂問。就地開爐。妙在密契。只如上上機底人。以何相接。師云。無孔鐵鎚。進云。恁麼則平出去也。師云。夜深打殺街頭。鼠堂喝。師云。路上行人若個知堂云。和尚證明師不理也。懶書記問。一槌打就。八面生輝。似鐵牛機羅籠不住。敢問和尚今日作麼生結。師云。未舉槌時荅汝了也。進云。恁麼則亙古亙今活卓卓。大千無處可遮攔。師云。錦上謾添花。記轉身歸位。師乃云。荒草場中。展演埋沒。好漢良多。潔白地上提攜塗污。淨人不少。竟日禪道貼在額頭。未免善因而招惡果。一向撇在無事甲裏。往往事從無事而生。殊不知。向上一路千聖不傳。當陽一機。智者知希。末後一句佛難指註。脫有伶俐漢子。直下瞥去猶遲。八刻那更成群。作隊撞頭磕額。如瞎驢挨磨相似。挨到驢年。曷有盡期。不是山僧壓良為賤。都緣汝等未瞥。且作死馬而醫。只如古人道。置之一處。無事不辦。又云。去卻一上下。四維無等匹。又云。一有多種。二無兩般。者三轉語。其中有一轉語。有權有實。有炤有用。有玄有要。有殺有活。苟能一一緇素無差。不惟入得龍泉保社。亦乃刺破古人舌頭。一任直撞橫行。天下人無奈汝何。如未不得草草匆匆。直須行不知行。住不知住。坐不知坐。臥不知臥。忽然虛空粉碎。大地平沉。迸出一星兒。速來方丈。通箇消息。是事姑置。且道。今日開爐徹骨。為人一句作麼生道。堂一喝。師云。霜花錯落成三昧。天地為爐鑄一狂。下座。

上堂。師云：年年為我慶生辰，惟有今朝意轉親。好事衲僧陳妙供，通方作者賦陽春。巖前錯落空花異，格外掀翻貝葉新，自是本來舊面目，者回掇出更天真。諸人會麼？山僧今日自己慶讚，終不借地栽花，虛粧好漢，但只隨家豐儉拈出，不妨恰好。汝等諸人欲申其祝，也須識得當人本命元辰，而後慶誕功不浪施。不然盡日喃喃，有何所補？豎拂子云：還知本命元辰麼？祇這些兒上與三世諸佛慧命無二下，與一切眾生本元無別，無二無別，圓明烜赫於圓明烜赫之中，覓其諸佛眾生之相了不可得，乃至山河大地、草介龍畜、死生壽夭，種種諸相亦不可得。既都不可得，汝等祝箇甚麼？還會麼？不可得中者麼得，惟證乃知難可測。青山仍舊白雲中，隱隱隆隆無異色。下座。

師誕上堂，書記問：恭遇師初誕時，逢小至天，時逢小至，萬物回生。吾師初誕，有何祥瑞？師云：千年無影樹。進云：恁麼則坐斷報化佛頭，人人自慶去也。師云：今時沒底靴。進云：因齋慶讚，禮自常然。應時納祐，又且如何？師云：好事不如無。進云：巨壑滄溟連底凍，臥龍頭角待春雷。師打云：是賞汝？是罰汝記喝？師云：再喝看。記禮退，師便喝，乃云：法身壽量等虛空，證得虛空又不同，坐斷有無全體現，人天環遶在其中。於此薦得，慶讚已竟。其或未然，山僧放一線光明，一任人天取裁，世人所祝，無非多福，多壽多男子至矣盡矣。而我格外衲僧，要且不然，縱有文章山斗偈頌懸河，龜鶴滿庭，芝蘭盈室，珍饈百味列於前，玉帛千箱擁於後，以祝其壽，非吾所願也。然吾所願者，父母未生前一句子所受用者，即今當陽一句子所藏身者，末後一句子。若能一一悟明，一一透脫以獻其前，則吾願已足。當知其人可以卓立，可以撐持，可以續佛光明，必也無疑。否則山僧自祝去也。佛祖真命脈，一箭破三關者麼？祝余壽千秋不改顏。下座。

上堂。問：承師有言：向上一路，千聖不傳。如何是向上一路。師云：腦後看。進云：如何是當陽一機。師便打。進云：如何是末後一句？師云：速退！速退！進云：恁麼則勘破了也。師云：勘破箇甚麼？僧喝。師打云：不得放過。乃云：若論箇事奇特，真箇奇特，平常太煞平常。若向平常處，看卻又奇特；若向奇特處看，反更平常。日用事無別，千聖莫能窺。祇許老胡會，不許老胡知。茲乃一座當軒，萬靈景仰，林巒拱翠，草木呈祥。是奇特？是平常？若道平常，昔日無恁麼事，若道奇特元是舊，山川仍舊本來人。到者裏，須是異日種草一咬百雜碎，奇特平常撩向雲霄之外，然後進得龍泉門，入得龍泉室，見得龍泉人贊，歎龍泉也得，罵詈龍泉也得，顯奇顯特也得，說平說常也得。何故？為伊識得龍泉家法，透過從上門戶，或抑或揚，或毀或譽，無可不可。只如今朝慈聖庵主敦請陞座，覲面提攜一句作麼生道？一滴龍泉清四海，千山圍繞法中王。下座。

上堂。一僧問訊便出。師云。卻不唧溜。問當年一棒血淋淋痛處。未消每自珍。今欲承師傳正法。有何言句囑吾人。師云。渠儂得自繇。進云。恁麼手握龍泉當戶踞。從教來者喪身魂。師云。列在下風。僧喝。師云。蝦蟆叫。問拈起橫遍虛空。放下一塵不立。只如未拈未放時。一著在甚麼處。師豎拄杖云。是拈起放下。僧擬進語。師便打云。話頭也不識。僧云。恁麼則任運騰騰無罣礙。大千沙界露全身。師云。山僧卻不恁麼。乃云。箇裏明明絕點埃。臨機渾不假安排。茫茫宇宙人無數。誰肯迴光炤本來。諸人會麼。本來一著佛祖不傳。自肯承當。著著可據。覲破本來眼睛。光前耀後。

摸著本來巴鼻。貫古通今。動著本來舌頭。雷轟電卷。抓著本來癢處。慶快通身。踏著本來田地。處處全彰。只如古人道。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你等諸人又向甚麼處撈摸。到者裏。十箇五雙。盡打退鼓。殊不知。無撈摸處卻堪撈摸。沒奈何時正好奈何。忽然迸出些子。始知佛法無多迷去。百千萬劫悟來。祇一剎那坐斷。百丈巖前險崖之句。掀翻四海無風匝匝之波。毛孔含藏無量世界。眉稜倒掛萬億山河。可凡可聖能佛能魔。呵呵會也麼。碧眼老胡收不盡。至今狼籍滿娑婆。且道。狼籍箇甚麼。豎拂子云。凍骨活埋霜雪裏。陡然突出一枝香。下座。

上堂。問。輕身窮鳥道。重法到龍泉。透網金鱗現。請師向上傳。師云。我這裏一滴也無。進云。莫欺新婦子。曾透老婆禪。師云。不是苦心人不知。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活捉逆鱗清四海。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掃除煙氛得英靈。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天翻地覆無何有。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一樹花開萬國春。進云。人境已蒙師指示。覲面相呈作麼生。師驀頭一棒。進云。一棒分賓主。吐露太分明。師云。祇為分明極。反令所得遲。乃云。昔日浪走山川。偶然逗到漳浦。倏忽春去秋來。剛剛一十有五。如今老大無知。添得一肚莽鹵。抬頭撞破虛空。開口併吞佛祖。慈悲全沒些些。惡毒過於猛虎。慣解奪食。驅耕令人。無依無怙。龍象一見。忻懼跛驚心惶目努。掃開萬里閒雲。迸出紅輪正午。返觀一念未生大地。了無寸土離相離名離去來。超凡超聖。超今古箇樣沒面目。阿師覲他。禮他有何補。雖然如是。胸中不妨一點長處。且道。如何是他長處。相見又無事。不來還憶君。下座。

上堂。問：龍泉一滴味異眾流，畢竟是甚麼味？師云：千差俱不涉。進云：源長涓滴滴，永流不斷根。師云：萬派總歸源。進云：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捩始應知。師打云：還我一滴來。進云：精修則錯，放逸全乖。師喝云：且漫興波作浪。乃云：無位真人赤肉團，百千佛祖現毫端，圓明廣大青蓮日，瑞應興悲幾萬般。豎拂子云：喚作拂子，合喫三十棒；不喚作拂子，合喫三十棒；直饒下喝豎拳，拂袖便行，總合喫棒在。如何免得山僧手中棒？於此薦得，便與千手千眼大悲，同體同用，無二無別。設若些須連骨粘皮，處處廉纖不了。所作所為，擔雪填井，吹網欲滿，縱經塵劫，無有是處。惟許異日超宗，自然頭頭獨脫。無依如獅子遊戲，不求伴侶。如壯士展臂，不假他力，如野鶴沖霄，縱橫無礙。還有異日種草，請出與龍泉相見？西堂云：瞎。師云：竟日波濤轟海宇，了無一滴到龍泉。下座。

上堂。問開爐纔月半，誰肯自欺？問：法打遭三，不無奴使。但是恁麼人，和尚還接麼？師云：是甚麼人？進云：祇如豁開戶牖，大座當軒，又作麼生與他相見？師云：大家出隻手，共扶破砂盆。進云：鶴飛千尺雪，龍起一潭水。師云：半是思君半恨君。乃云：一念知非，八萬人天景仰；二時返炤，三千剎海朝宗。動靜同源，去來合轍，直接龍泉正脈，斷無惡水澆人，親承百丈家風，必也規繩可法。傳無傳之妙旨，報莫報之弘恩。頗有其人，斯道堪賴，不惟權衡佛祖，且亦陶鑄英靈。如大火聚，近之燎卻面門；如太阿鋒，擬之喪身失命。且道承誰之力有如是猛烈？僧喝。師云：一句臨機全殺活，普天匝地起真風。下座。

上堂。師云。善來個個學無學。那怕嘴頭壁上閣。不去荒村趁野狐。甘為者裏自摸索。諸方商略鬧哄哄。爭及斯堂風寂寞。可謂身貧道不貧。閉門愁見天花落。翻身踢脫黃龍關。驢腳馬腳齊伸縮。大家拍手笑呵呵。現成公案休卜度。逗到山窮水盡時。忽然突出祥麟角。豎起拂子云。會麼。只如庵主請陞此座。且道覲面受用一句作麼生道。呼童喚婢真三昧。動轉施為珠走盤。下座。

臘八請上堂。師云：埋頭雪嶺成何事？六載區區徹骨涼。偶觸本來真面目，通身星斗煥文章。諸人會麼？此際正是釋迦成道之日，又逢衲僧圓戒之時，三業冰清，六根迴脫，一念圓明，十方普炤。如寶鏡當臺，胡來胡現，漢來漢現？大心菩薩護念戒珠，亦復如是。虛空有盡，菩薩之願無窮；虛空可量，菩薩之行莫測；虛空可壞，菩薩度生之念無休。所以眾生貪心無有邊際，菩薩戒法亦無有邊際。眾生嗔心無有邊際，菩薩禪定亦無有邊際。眾生癡心，無有邊際，菩薩智慧，亦無有邊際。眾生有八萬四千無明煩惱，種種諸塵勞門無有邊際，菩薩亦有八萬四千觀炤般若種種諸解脫門，無有邊際。只此無邊際之心，即是菩薩金剛不壞之寶戒，亦是眾生清淨本源之佛性，過去菩薩所證證此現在菩薩所修修，此未來菩薩所學學此以此信受，以此奉行，便是現在肉身菩薩切不可言行相乖有名無實，有負丈夫之志。且道還有不假修證，不涉迷悟者麼？眾下語不契。師云：老僧自道去也。將來供在丹崖上，赫赫千秋作範模。下座。

元旦上堂。云：四海狼煙盡，金輪氣象新，鴻蒙垂玉露，鬢鬣起香塵。上苑初頒律，普天盡放春，吉人臨斯地，萬古福吾閩。諸人還會麼？正當此際，祥光赫奕，瑞氣氤氳，異口同音共祝。當今聖壽萬歲，丹心誠意，同延本府，睿算千秋。恭願淳風浩蕩於娑婆，至德汪洋於震旦。千邦歸正，萬國來朝。人人懷雨露之恩，個個樂無為之化。而我林下衲僧，又且如何？豎拂子云：全憑一滴曹溪水，為雨為霖潤國心。

解制上堂。云：真正衲僧，氣宇如王。一怒橫尸，萬里一喜。大地回春，一口吸盡。西江一喝，三日耳聾。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消殞。一腳踏翻水潦，百千無量妙義全彰。看這一隊老古錐。吒吒吵吵，轟轟烈烈，有賓有主，有權有實。能殺能活，能解能結。其結也，水泄不通。針筍不入。千聖萬賢，窺覷無門。其解也，一團和氣，滿面春風。東西南北十字縱橫，四五百條花柳巷，二三千處管絃樓。盡是諸人放身命處。諸人會麼？龍象蹴踏，非驢所堪。大人行處，莫可思議。踢脫關捩，豁開兩眉。騎聲蓋色，不掛寸絲。塵中作主。四眾來依杖挑日月，遶天上，人間不我欺。還有相隨來者麼？書記云：從教花柳放且作太平人非日。西堂云：牢關擊碎奔雲水，八萬門開也太奇。慧門西堂，拂袖便行。師云：相隨即不無，畢竟向甚麼處去？珍重龍泉泉上水，你歸滄海我歸山。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五終

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佛誕上堂，師云：聖跡未萌，那畔這邊渾一體；娘胎已出，人間天上獨稱尊。百福莊嚴清淨身，四緣和合黃金相，開萬字於胸前，躡千輪於足下，杲日輝煌，慶雲繚繞，天垂寶蓋，地湧金蓮，九龍吐水浴金軀，八萬人天嘗擁護。殊勝真個，殊勝奇特，果然奇特，正眼看來，又涉功勳，未超聖量。若論格外衲僧，佛之一字尚不喜聞，何況如許祥瑞耶？這個公案，自古迄今，舉揚者甚多，錯判者不少。惟有雲門大師行格外令，貴圖天下太平。殊不知也是掉棒打月勞而無功。惜乎！山僧不與同時，若與同時，不用如何。若何，待者老子指天指地時，祇云放下著，又道天上天下，惟吾獨尊。祇云：低聲低聲敢保者老子神和氣爽，海晏河清，豈不綽綽然有餘裕哉？山僧與麼舉揚，還得慶誕也未？良久，云：一堂圍遶申三祝，殿閣薰風起鳳苞。下座。

結夏上堂。西堂良也。問：黃檗開期，慣用本分鉗鎚，祇如逢著超宗，異日底人如何施設？師云：虎頭帶角出荒草。進云：恁麼則期牙本是舊知音，流水高山不用絃。師云：隱隱峰頭露一斑。進云：今日林府設齋，不比尋嘗茶飯，因齋慶讚一句作麼生道？師打云：是尋嘗？不是尋嘗？進云：直下分明。師云：祇為分明極。乃云：陷獸機關，妙乎毒手，活人眼目所貴，藏鋒鋒藏，忽然入眼重重，障翳淨盡，消除手毒，偶觸其機，一切生靈俱在坎內。然世間小小技術，亦有神妙不測之功，以利天下，何況佛祖鉗鎚，宗門牙爪，一棒一喝一錐，一拶一語一默一動，一靜之下，轉凡成聖者乎？故我臨濟見僧入門便喝，德山見僧入門便棒，又云：夫參學者，不避喪身失命。我在黃檗處，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蒙痛棒如蒿枝拂相似，而今再思一頓，無人下手。僧云：某甲下手。濟度棒與僧，僧擬接，濟便打。看這老漢機用如返風回火，奔流度刃，毒中之毒，鋒上加鋒，牙上生牙，角上生角，殺活自繇，互赫千古，苟承其宗，須明厥旨，豈可响响之仁，硜硜之德，詹詹之言，屑屑之行，混雜其間，以玷從上綱宗也。茲乃結夏之期，眾等請陞此座，欲山僧舉揚正法眼藏，於清淨大圓覺中一一點出，正知正見，與諸人共知。未審諸人還委悉麼？掃卻腥臊千萬里，惟餘正脈永流通。下座。

追薦請上堂，師云：超生越死證涅槃，須具金剛眼目。治國齊家振法席，全憑生鐵身心。有殺人不眨眼手段，方許立地成佛；有立地成佛漢子，便有殺人不眨眼手段會中，頗有如是作略，不妨各各撐天拄地，不惟四料揀三玄要直下了，然乃至千重鎖萬重關，即時透脫，灑灑落落，縱橫無礙烈烈轟轟與奪自繇幔天綱子羅籠此人不得匝地鋒芒錐，箇個漢猶難。為伊識破生死，去來猶如夢幻；了知菩提涅槃，等若空花。以此續正焰之光，燈燈不昧，以此作將來之眼，法法無差。以此薦已，往之靈步步蓮界，以此資現前，大眾福利無窮。山僧舉薦已竟，未審大眾助哀，又且如何？眾無語。師云：脫落皮膚一切空，隨時應節自歸宗。天壺水滿春光媚，兩岸花開片片紅。下座。

祝壽請上堂，問：夏日乍晴芳草綠，片雲斂盡百花香。玉融多少奇男子，特地請師為舉揚。請問：如何是舉揚一句？師云：雨後山山翠。進云：如何是本地風光？師云：天開日日新。進云：如何是截斷眾流？師驀頭一棒，僧便喝；師又打，僧又喝。師復打云：這一喝落在甚麼處？僧無語。師云：落處也不知。乃云：法身匪相，周沙界以無遺；慧性圓明，亙古今而不昧。三賢十聖，繇斯出現；九有四生，借此根源。頓悟毫端，千祥俱集，聊插隻腳，百福駢臻。不離有為而證無為，了明世諦，以見真諦。所謂治生一切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苟如是，則道不虛行，功無浪施。雖然，又是吾人日用尋嘗法身邊事。若論法身向上一著，千聖無啟口處，故山僧一向終不撒泥撒沙，以玷淨人眼目。茲因夏居士，特特進山供佛齋僧，請轉法輪，為祝令堂鄭氏耄壽，遂開線道，以為福海壽山之砥柱。唯冀諸人淨心諦聽養，不足以報父母；聖人以德報之德，不足以達父母；聖人以道達之，惟道達之，報恩酬德，至矣盡矣。且道如何是道？又作麼生？達豎拂子云：妙神明超生死貫，古今一賢愚。以此福其親，滄海焉可量？以此壽其親，巧曆莫能算。山僧祝延已竟，未審諸人讚嘆如何？一座壽山千古翠，佛燈長照萬斯年。下座。

解夏上堂。西堂良也。問聖制九旬今日滿。頂門突出一輪秋。如何是一輪秋。師便打。進云。好個一輪秋。若是某甲不與麼。師云。打破鳳雛卵。一任潑天飛。進云。與麼則驚天動地去也。師云。切忌撞破虛空堂。禮拜。師云。又在殼裏。乃云。眉毛折散各周游。雜踏東西幾百洲。緊捎芒鞋玄路滑。橫挑竹杖海天秋。大雄莫制無韁馬。好手難招不繫舟。八角磨盤空裏轉。額頭磕破自方休。還有磕破額頭者麼。如無不得動著。且看山僧細抹將來。九十日前所結結今朝所解的。今朝所解解。九十日前所結的了知解結同源。縛脫無二。更須立在無解無結之處。然後不妨堪為能解能結之者。苟如

是。縱目所觀。信手所指。無非直指之道。所謂直心是道場。直說是妙法。直行是妙行。直證是妙果。開門便見山。開胸便見膽。是法住法位。世間相嘗住。何曾有個解結來。設若於中一毫委曲。不惟不成直指之道。則五十種陰魔各得其便。內則竟日作祟。外則引鬼入市。從死至生。從生至死。戕賊慧命無時休息。茲乃解制之晨。聊借眾聖之力。不妨打破門戶。趁出一隊閒神野鬼。直令於中空蕩蕩。靜悄悄寂而知虛而靈。一堂風冷淡。千古意分明。此山僧所舉係堂奧邊事。只如諸禪人。東去西去。途中受用一句。又作麼生道。侍者豎拳云。和尚識麼。師笑云。偶爾途中輕錯腳。杖頭浪卷白蘋風。下座。

結制上堂。師云：高懸鉢袋，囊藏萬象；森羅放下，藤條收拾。青山綠水，密移一步，遍界無蹤，掇轉雙睛。渾身是眼全彰，那畔風光返照；本來面目，主賓一致，物我相忘，正好彈格外之斷絃，韻高和寡，運到頭之霜月，晦而益明。玄中至玄，妙上最妙。苟若會得，直下便是，何用剋期取證？脫或未能再三撈攬，方有少分相應。山僧昔日開大爐鞴，煨凡煉聖，直欲個個得大機之用，成生擒活捉之功。以光從上來事，不料法久成弊，轉增遲鈍，茲者起期，不用如何若何，但要諸人退步密移，移到無可移處，輕輕一踏，便到祖翁穩密田地。不惟當人大事已畢，乃至從上門頭戶底了了分明，所謂不取其華，但食其實。且道如何是汝諸人實處？僧云：千古風流不讓人。師云：開單展鉢渾無事，觸著毫端吼似雷。下座。師誕上堂，師云：方纔因地是嬰兒，睫得眼來兩鬢絲，五十六春如一夢，幸然不昧未生時。且道娘未生時，還有氣質形名也無？還有壽夭窮通也無？還有榮枯得失也無？還有人我是非也無？還有玄妙解會也無？還有向上向下也無？還有生死去來也無？既一切都無，豈有壽量而可慶哉？汝等團團圍遶，如雲捧月，祝個甚麼？雖然如是，山僧且掇出面門露個巴鼻，不妨與人天共。慶鸞豎拂子云：會麼？釋迦老子生也，山河大地生也，琦上座生也，所謂心生種種法生。汝等見義不落人後，好花須插頭。前慶讚黃檗也得毀，罵黃檗也得，慶讚也得一分功德，毀罵也得，一分功德，慶讚也沒量罪過，毀罵也沒量罪過。且道如何得折中去？眾無語。師云：功德天、黑暗女、有智主人，二俱不受。是事且止，今日應時慶誕一句作麼生道？良久，云：環繞溪山千古翠，親承雨露萬年春。下座。冬至上堂。師云。這邊不許長立那畔。豈可久居放出陽春。一段頭頭法法咸舒。東湧西沒。無欠無餘。一任風吹日炙。何妨電掣雷驅。有時若隱若顯。知他是智是愚。有時或順或逆。縱橫奚束奚拘。有馬騎馬無馬騎驢。祇如驢馬俱無時。騎個甚麼。且喜閩南春信早梅花國裏樂無虞。下座。

臘八上堂。師云：星前瞥脫較些兒，忽睹明星悟已遲，老倒瞇[曠-黃+林]眼著屑，令人錯認兩莖眉。諸人還知麼？山僧今日向釋迦老子頂[寧*頁]上展演爪牙，於諸人眉睫間掀翻窠臼，諸人還覺悟也？無？如覺悟，自有一條活路可行，不妨無佛處稱尊無證處，取證無法處說法無住處著腳著著有出身之處，如未覺悟，山僧別開一路，與諸人共行。勿住聖兮勿住凡，急須轉向上頭關，於心無事，空行月，於事無心竟日閒，幾片殘雲穿破衲，一溪綠水鎖青山。者回掃盡枝頭雪，若個闍黎不解顏。山僧與麼舉揚，與睹明星相去多少？僧云：一彩兩賽。師云：衲僧自有超方眼，肯向如來行處行。上堂。師云。靈源浩渺瀾漫四海五湖。智鑑圓明。光吞人間天上。眾聖以之為恩宅。群生借此為福基。而我格外衲僧。收放自如剔起眉毛。一互晴空全體現。揭開腦蓋通身星斗。煥文章融山河為自己。亦得轉自己入山河。亦得發雷轟之令。亦得奮掣電之機。亦得苟能於電光影裏。搆得星兒。參學已畢。堪受人天奉供。可作將來眼目。陶凡陶聖不居其功。為匠為師。豈借他力。果有其人。黃檗千斤。擔子可托。如無山僧向三家村裏。因齋慶讚去也。茲乃瑟江翁居士奉母李氏慈命。特特入山齋僧供佛請轉法輪。可謂財法二施等無差別。福慧雙修自他普利。自他普利則不無。只如收因結果一句作麼生道。良久云。菩提子結三冬雪。優鉢花開臘月紅。踏遍天涯無覓處。豎拂云。元來只在此山中。下座。

元旦上堂。師云。金輪影動。遍界流輝。玉闕令行。大千草偃個個祥光。赫奕人人。瑞氣騰空。咸承鴻庇之恩。俱享泰來之福。惟有無位真人坐斷古今。不逐秋去春來。豈落新規舊套。有時紫羅帳裏翻身有時。芳草叢中著腳居塵勞不為塵勞污染處。空界不為空界牢籠。任緣放曠隨處逍遙。活潑潑自天然。何須十萬在腰纏。直至於今赤灑灑。借婆衫子拜婆年。高著眼掣風顛。新婦騎驢阿家牽。臨濟家聲盡逗漏。不知若個眼皮穿。新年頭已到。且道無位真人即今在甚麼處。舉拂子云。還見麼？托出兩輪新日月。擴充千古舊乾坤。下座。

入塔請上堂，師云：欲報重恩一句了然超百億未明，大本分身碎骨也難酬。還知大本麼？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沒陰陽地閒之遶，無影樹下共逍遙。雖然深固幽遠，無人能到，要且聞名不如見面。還知重恩麼？因地一聲全體現，圓明互赫廓週沙，酬恩報德承渠力，信手拈來錦上花。雖則遍體風光，通身流露，未免見面，不如聞名。茲者眾慈，百骸潰散，四大分張；無聲無臭，離見離聞。月落前溪，雲收天外，一段靈空，誰覆誰載？於此見得，薦慈已竟。脫或未能，山僧旁通去也。卓拄杖云：會麼？一棒打開無縫塔，群靈共證法王家。下座。

解制上堂。師云：拆散眉毛放去星分彌法界；打通鼻孔，收來共住一毫端。苟能翻轉毫端旨，去去來來不自謾。然則去無去處，去去實不去；來無來方，來來斷不來。不來相而來，踏遍天涯無足跡；不去相而去，縱橫海內絕行蹤。所謂盡大地是沙門一隻眼見見無差，盡大地是沙門一隻腳，行行不二，行既不二，始終不離於當念；見既無差，自他不隔於毫端。祖祖佛佛於毫端上轉大法輪現前海眾於毫端上，行住坐臥，一切含靈，於毫端上頭出頭沒，只為太近，不自覺知。倘能直下覷破毫端，家舍途中俱踢脫，腳頭腳底盡風光。如未山僧重新指點去也。拈拄杖云：個個杖頭挑日月，何須特地送風雷。下座。

追修請上堂，師云：追修植福無多訣，只貴當人正眼開，覷破死生無二路，存亡均益不須猜。若也於茲見得，可為萬世之津梁，堪作將來之妙果。所謂一念知歸，四恩總報，剎那得本，三有齊資。七寶池，八德水，日日清涼，百福相萬壽山年年疊翠，不退菩薩呼奴喚婢，展神通脫灑真人，運水搬柴顯妙用。惟有山翁沒伎倆，長年高臥檠山中，醒來赤腳翻泥水，踏斷東西百萬程。諸禪者，急惺惺，莫教錯路得人驚。一失人身千萬劫，改頭換面卻難尋。獨許至人登福地，去來步步證無生。茲乃信女何氏，精修妙供，普獻金僊，一念虔誠，萬靈共享。只如應時納祐一句作麼生道？僧云：一彩兩賽。師云：樓閣門開春爛熳，四山卓立舊家風。下座。

追薦慈嚴請上堂。師云。欲報劬勞。須究本源本源。盡處法法同根。吾人頓悟個中旨。是則名為真報恩。諸人還知同根意旨麼。無撈摸處正好撈摸。無著眼處不妨著眼。千聖萬賢到者裏。無可指目。惟許自知較一半。是以心空及第。頓超天上人間。性淨圓明。爍破銀山鐵壁。內障外障一切障。當下冰消。自冤他冤曩劫冤即時解脫。一空一切空。一淨一切淨。一圓一切圓。一明一切明。於淨空圓明之中。求其冤親得喪。生死去來了不可得。都盧是個大覺圓滿菩提之相。已往覺靈所證。證此現前。大眾所修修此。山僧與麼舉揚。存亡俱利則不無。只如隨緣赴感一句作麼生道。良久云。雲收碧落淨如洗。月印千江處處圓。下座。

一文程居士為薦。乃兄請上堂。居士問。一靈離形體。求法證無生。願和尚慈悲開示。證無生意旨。師云。腳下無私皆淨土。進云。如此則先靈承恩力薦也。師云。頂門誰不戴青天。乃云。死死生生幾萬遭。這回豈可更蹉跎。等閒掇轉本來面。頓悟無生一剎那。諸人還會麼。一心不生萬法無咎。一念無為。世界坦然。非聲非色。昭昭於群象之先。離見離聞。炯炯於諸塵之表。天地以之為根。萬物以之為母。聖賢以之為宗。生靈以之為祖。至於德山棒臨濟喝。雪峰毬玄沙虎。秘魔杈禾山鼓。趙州茶雲門餅。這一隊白拈

賊。竊得些子無生。到處為祥為瑞。為災為害。到這裏不消。琦上座咳嗽一聲。一齊收下。舉似訥夫覺靈之前。伏惟尚饗。未審訥夫還竊得些子也未。泥牛耕破三更月。木馬嘶回萬劫春。下座。

水陸普度請上堂，師云：器界根身，繇賢愚而得喪；人天鬼畜，隨福業以升沉。福不自福，感眾善而致福；業非他業，惹六塵以成業。殊不知業性本空，未了因須還夙債；福緣匪固，恣情享盡禍。臨身以至敗國，亡家喪身失命，皆繇慧眼未開，不能覷破生死根源，反被福業之所流轉。至於劫劫生生，互相殺害，如影隨形，無時捨離，誠可憫。所謂身為眾苦之本，不其然乎？故老子云：吾有大患，莫若有身。如其無身，何患之有？我佛看破此身，如幻如夢，如影如響，乃成佛身。故云：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群生前。祖師亦云：幻化空身即法身，法身覺了無一物，本源自性天真佛。苟明天真之佛，刀劈不開，火燒不著，水打不濕，風吹不動，豈福業得喪之能移哉？如其未明，藉此中元節，**屈**衲僧自恣之辰，啟建華嚴勝會，闡揚無上真宗，冤親普度，水陸齊資。八難三途，共證一真之法界；四生九有，同登不二之玄門，一超直入，永無退失。山僧與麼舉揚，還普度得冤親也未？良久，云：慇懃珍重無家子，得到無家正好歸。下座。

圓滿普度上堂。師云：一處圓，處處圓，頭頭法法盡歸根。眾生度盡天將曉，不覺金烏出海門。諸人還知麼？這段光明輝天鑑地，耀古騰今。人人具足個個圓明，祇為不覺自迷自惑如夢如幻，於夢幻之中，作種種業，受種種報，四生六道，輪迴不息。山僧茲者未免作夢中佛事，度脫未醒眾生而後**已**。故將東嶽作清淨佛土，以龍江為七寶蓮池，殘城瓦礫坦然一如，幽魂滯魄，咸登覺地。所謂一念不生，全體剖露；片言合道，萬機頓副。苟能於此信得及去，則佛祖命脈，人天眼目，衲僧巴鼻，生靈根源，一串穿過，盡淨無餘，不妨動著夢中癢處，忽然醒來呵呵大笑。且道笑個甚麼？眼開不作夢中事，大地覺靈盡往生。下座。

師誕上堂，師云：業識茫茫遍大千，阿誰肯究未生前？支離潦倒無思算，踢脫古今一大年。諸人還知麼？山僧今日一踏透頂透底耀後光前，若也會得，便知法性與虛空同體，法眼與日月並明，法身與五嶽齊秀，法脈與四海共流，與現前大眾共條合命，與草木叢林同氣連枝樓至如來不後，毘婆尸佛不前，老彭非壽，殤子非夭，千塗共轍，一道坦然。如是祝壽，壽不可量，如是植福，福無有涯。雖然，亦是因齋慶讚，落草之譚。只如眉毛插漢，鼻孔遼天；眼空四海，手握大千。且道者個漢子還受人祝讚也無？眾無語。師云：托出古錐到處賣，無人著價自羞慚。下座。

耆舊閒公壽誕請上堂，師云：耳順心通，事理無礙；一念未萌，頓超三界。直證本來無量壽團團圍遶觀自在。設若於此薦得，互赫千秋；其或未然，何妨海屋又添籌？若夫真正衲僧，以法為身，同乾坤而久固；智慧為命，等碧落以長存。寬平為福，若滄海之莫測；仁厚為壽，猶泰山之難比。淨潔為行，處濁世而不渾；素貧為樂，逢清時以自安；以法界量為量九有，莫非我有；以等慈心為心，四生盡是。吾生發之以風雷，滋之以雨露，炤之以日月，成之以霜雪，庶物各遂其生，物物自成其實。以此自壽，以此壽人，寧不高深博厚，悠久無疆者矣。此乃藉眾威德，同申慶讚。已竟只如茲者，九龍現瑞，萬福迎祥。覲體祝延一句作麼生道？雲收霧捲青山外，一個閒人天地間。下座。

師誕上堂，師云：兀坐山堂萬慮休，慶雲何事繞峰頭？莫非為獻華封祝，可是又添海屋籌。固有元辰非色見，本來壽量豈聲求？請看覲體無依者，一段孤明不計秋。諸人還知麼？以此自壽，以此壽人，事上也合，理上也合。一言契悟，萬古同春；半句投機，千祥畢集。湛若無礙之虛空，淨如圓明之寶月，無一物而不炤，無一法而不舍，雖有含炤之量，而不居含炤之功。如是壽言，言滿天下，天下重之如珠玉。如是言壽壽及後世後世，仰之如山斗草木，知榮生靈重本智慧德相，具足言壽，並傳無疆，非龜鶴椿松之可比，豈芥城劫石而能量哉？茲蒙諸禪德為山僧祝延，山僧特陞此座，為諸人舉揚，遞相扣擊，頗有鏗鏘，所謂知音彈與知音聽，不是知音莫與彈。知音且止。只如即今應時上壽一句作麼生道？僧云：天長地久。師云：再道看。僧云：地久天長。師云：未在自道去也。瘦骨長年撐宇宙，一枝聊放滿林春。下座。

結制上堂。西堂中柱問。銅頭鐵額滿山中。大鞴爐開匝地紅。煨得渾淪金彈子。一槌便就出良工。未審向上還有事麼。師云。腦後看。進云。只如超方異目的。又作麼生。師云。觸處圓陀陀。進云。恁麼則謝師去也。便禮拜。師云。無汝立腳處。堂便歸位。乃云。一句三玄。關寨彌天急著眼。一玄三要。重重綿密不通風。臨濟老漢九百餘年。坐籌帷幄之中。決勝千里之外。豈料今日不肖兒孫。就窩打劫捉敗老人。貶向無為國裏。現獲玄要。真賊撒在百草頭上。一任餒驢餒馬。且喜者一片地。空蕩蕩赤洒洒。正好結個無諍保社。大開不二之門。凡來聖來渾為一體。順行逆行了無二致。所謂理能伏豹。誠可動物。一火焚千差之物象。一水收萬疊之波瀾。一心含無量之妙義。一理貫百千之法門。種種法門種種妙義種種物象。豎拂子云。盡被這一毫頭收卻了也。汝等打草鞋行腳。走遍四天下。到這裏也須著箇精采。且道。這一毫頭從甚麼處得來。苟知來處。可謂瞎驢之種草。堪起黃檗之宗風。其或未然。不得草

草匆匆。直須二六時中。行住坐臥東卜西卜。忽然磕破額頭。山僧為汝證據。來處姑置。且道。即今者一毫。又向甚麼處安著。顧侍者云。且懸方丈裏。明日示他人。下座。

上堂。問。一椎打就即不問。火燄裏橫身事如何。師便打。進云。設使超佛越祖的來。又作麼生。師云。大家出隻手。進云。若然者。即十二峰巒齊點頭。師云。汝行荒草裏。我又入深村。僧歸位。師乃云。杲日光中。通身無隱。象月華影裏。遍界不曾藏。顯而不露。隱而彌彰。十智同真。珊瑚枝枝撐著月。一玄三要。重重流出。洞中春智眼圓明。者七穿八穴。偷心不死的覲面關山。所謂浮詞萬卷。不如至理。一言腐藥。千箱怎及。還丹一粒。還丹一粒。點鐵成金。至理一言。轉凡成聖。只如現前。人人具足。物物全彰。又作麼生轉。撇開凡聖虛名目。信手拈來不是塵。下座。

上堂。師云：舉國無閒者，有誰獨不忙？山房一夜夢，塵劫幾滄桑。鉢底乾坤大，杖頭日月長，豁開正法眼，物物已全彰。諸人會麼？物物既已全彰，則三途八難、九有四生，總在個裏。無一塵而不具足佛事，無一法而不圓滿正宗，得現前之三昧，成觸目之菩提，非小非大，能入小大，不被小大之所留礙。無相無名，可成名相，不為名相之所牢籠，毛吞無邊剎海，芥納萬億須彌，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只是當人自證境界，不假於他術現前。大眾還有自證者麼？良久，云：聲前一句圓音美，物外三山片月輝。下座。

戒子請上堂云。佛子受佛戒。即入諸佛位。新學行佛言。是名真菩薩。能行而不能言法門之體。能言而不能行法門之用。能行能言。法門大寶。不能行。不能言法門廢器。奚足道哉。然菩薩之心大包無外。細入非內。靈明洞徹。亙古亙今。圓通週匝無欠無餘。行遍天涯無足跡。方知步步普賢。智周法界各風光。始信頭頭文殊。推倒十方無邊表。都盧一座大毘盧諸大菩薩。只在毘盧面門上放光動地。三世諸佛歷代祖師。盡在八萬毛孔裏作大佛事。山僧昔年亦在毛端上得入濫廁其中。所謂家裏人方知家裏事。今日未免外揚家醜獲罪彌天。可有傍不甘的出來。為毘盧出氣。山僧只得退身千里。如無又向毘盧頂上倒屙去也。然則向上一著。敢保千聖證不到。諸大菩薩行不到。歷代祖師說不到。天下老和尚夢不到。且道阿那個行得到。良久云。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卓拄杖下座。

薦亡請上堂云：生如是，死如是，生死死生無諱。忌來無相去無相，來去去來沒兩樣。苟能直下了無疑，頓超人間與天上。諸人還會麼？溪山各異，雲月是同，陰陽雖隔，道契則通。所謂一處通處處通，塵塵剎剎盡歸宗。夾路桃花風雨後，馬蹄何處避殘紅？吾人

於此薦得，如雲從龍；其或未然，山僧向世諦中應赴門頭去也。然庵主生富貴之室，不為富貴之所牢籠，處女流之中，不被女流之所汨沒。而能廣作佛事，大開檀門，在潮僧俗，悉被其蔭，方外禪衲，倍增敬奉，為法忘名，舍利就義，罄其所有，盡供佛僧，可謂廣大解脫無礙之真心，正是菩提薩埵之正路。人天大乘之通衢，五十餘年行而愈篤。至於末後告寂，預備淨財，託請山僧舉揚個事，以助末後一著。且道如何是末後一著？喝一喝，云：黃檗山頭轟霹靂，潮陽海底忽生蓮。下座。

師到永慶寺念宗請上堂，問：法無定相，遇緣即宗。如何是奪人不奪境？師卓拄杖云：會麼？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何處不稱尊？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人亡馬喪家何在。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四山錦繡可人觀。進云：人境已蒙師指示。今日上堂一句作麼生道？師云：腦後掛金鏈。乃云：殘雲斂盡一天清。衲子紛紛活路行。喜有空王添老興，差風送我上坡亭。諸人會麼？茲有大心檀那擲千金以嚴福地。向上師僧，拈莖草而建梵宮。龍象交參。卻逢此際。人天皈敬。正值斯時。成始成終。自然如法。盡善盡美，必也可期。山僧偶到此間。忽聞向上人。不妨突出。向上巴鼻豁開頂[寧*頁]眼睛。東坡山頂。卷舒峻峭之機。怪石巖前。調弄險崖之句。圓通門啟。大放寶光。四面亭開。收羅萬象。清溪一帶。蘇公儼然。祇樹千章。長者如面。信手拈來。以酬檀德。從胸流出。蓋覆諸方。山僧聊敘如斯。未知諸人還見麼。良久云。雲水盡投永慶裏。宗風大振自斯晨。下座。

師到龍華寺主玉軫等請。上堂。問。雙塔凌空齊鷲嶺。一溪流水接曹源。如何是龍華境。師云。千山圍繞法王家。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獨立乾坤待箇人。進云。謝和尚答話。師云。在甚麼處去。僧喝。師打云：放汝不過。乃云。隋朝古剎普天之下無雙。僊邑寶幢。惟獨此間永久十年前已聞。不若今朝一見千里外瞻仰。怎如到者方知大哉不可思議妙矣。難盡舉揚。若也回機一念。自然法法全彰。茲者寺主殷勤啟請。感格十方衲子一時湊合龍華會裏。且道觀面提持一句作麼生道。一溪環遶龍蛇動。雙塔高懸佛祖燈。下座。

師到南林，寺主人一先無依等請。上堂，問：黃檗峰頭起雷，金剛頂上掣電傾湫倒岳即且置，頭角已成，請和尚炤顧。師云：看腳下！進云：願師只作東君主，莫被風吹別調中。師云：半是思君半恨君。進云：大眾證明，學人禮謝去也。師云：放汝三十棒。乃云：山僧今日登高高之頂，突出遼天巴鼻，高談向上真宗，以接峻峭之機，而資奇特之者。三賢十聖，俱立下風，五眼六通，且居門外，惟許遼天峻峭，進前話會。有麼？有麼？如無，山僧按下，雲

頭普示去也。秋氣爽秋風清老倒匡，徒向上行行到水窮山，盡處頭頭，法法了然；明既了也，一切皆了，白牯狸奴無欠少。至此青天白日下，男兒若箇不分曉，既明也一切皆明，箇箇闍黎具眼睛。直上南林峰頂望，剛剛日午正三更如其未了，未明須返炤。急惺惺，法法盡從腳下生，頓悟本來無一物，鐵壁銀山盡坦平。所以道：高高處平之，有餘低低處觀之不足，高低勿論。祇如竿頭進步一句作麼生道？凌空駕險度天馬，返擲還他獅子兒。下座。

師到高田院，主人玉玄若石等請上堂。問出吉祥峰入僊谿境。出入即不問。如何是獅子遊行句。師打云。好事不如無。進云。恁麼則牙爪纔開山岳動。千妖百怪改容顏。師云。自知較一半。乃云。一花現瑞老金僊。五葉芬芳遍大千。幾度秋風吹不墮。至今又現在高田。豎拂子云。諸人會麼。且道與釋迦老子拈的是同是別。若道是同。法無同相。若道是別。豈有兩般。若向箇裏舒一隻眼。伸一隻手。一并擒下。終身受用。永劫不忘。其或不然。未免枝上生枝蔓中引蔓去也。山僧自離黃檗。已到莆境。首入永慶之堂。鋪舒長春之錦。以壽無位真人。次入龍華會中。展演大機之用。以慰大乘作者。又登金剛之頂。賣弄嶮崖之句。以接峻峭之機。茲到高田院裏。平長敷演。以安本分衲僧。幸蒙主人。盡心誠意。感應道交。龍象濟濟。雲水依依。祥雲圍繞。獅子嘖呻。在此場中踢踏一番。庶見者聞者。俱得解脫之因。悟者入者咸證無為之果。所謂衲僧家孤迥迥處。也須著。到坦平平處。也須著到靜悄悄處。也須著到鬧哄哄處。也須著到。只如無佛國土沒神通羅漢。如何著到塵說剎說熾然說。虛空點首已多時。拈來一味尋常草。環繞山山盡展眉。下座。

師到報恩堂、僧澄遠、同孝廉、陳遂、捷等請。上堂。問：僊谿添秀氣，蜚嶺壯威光。和尚入報恩之室，登報恩之座。如何是報恩句？師云：徹骨徹髓。進云：向上還有事也無？師打云：是向上向下。進云：今日親見和尚了也。師又打云：未知向上事在。乃云：適意優游，已了十年。話柄閒眠頃刻頓忘五百春秋。倏爾翻身。大開夢眼，團團圍繞，盡是金僊。所謂道：山不在高，有僊則名。水不在深，有龍則靈。僧不在眾，惟道為尊。人不在多，以德為鄰。道德之所在，忘年事之匪過也。道德之所不在，捨身衛之何益乎。山僧雖然莽鹵，撞入僊鄉。惟處煙霞之頂。不為煙霞之所羅籠遨遊山水之中。不為山水之所留礙。步步踏實地。處處無蹤跡。荷蒙諸山禪侶，追隨參請。念有餘日，眷戀不捨。山僧所愧，德薄道微，無有一法與人。惟要諸人自徹。自悟而後已。如徹悟也。剎剎塵塵無非固有之神通；心心念念，盡是現前之妙用。如未徹悟，正值深秋，萬竅怒號，百物齊鳴。未免亂汝耳根。晝明夜暗，赤白青黃，

障汝眼睛。興忘得喪。生老病死，壞汝四大。業識茫茫，生住異滅，移汝心田，見聞覺知。既昧欲證圓通之境。詎可得乎？山僧到這裏挑剔，令汝證入。豎拂子云：還見麼？擊拂子云：還聞麼？既見又聞。如何不覺不知？祇此見聞非見聞，別無聲色可呈君。箇中若了元無事體，用何妨分？不分茲者，報恩檀信。請陞此座。不覺逗漏如此。未免識者所哂。祇如真實報恩酬德一句作麼生道？人人得本自還源，一法回機萬法全。圍繞山山齊點首，狸奴白牯盡知恩。下座。

師到天壺，巖主人一空，同徒良志等請上堂，問：黃檗峰頭峻，天壺八面青。棒喝家風即不問，格外逢人事若何？師云：好與三十棒。進云：謝師指示。師云：指示箇甚麼？進云：祥雲含瑞草，大地盡生光。師舉棒云：特地斬痴頑。乃云。一心空闊，人間天上難量。一念圓明，此界他方皎潔。證金剛之固體，放本有之常光。有時孤峰頂上橫眠。八風吹而不動。有時十字街頭打鞦韆。四相遷而不移。可聖可凡，無拘無束，能真能俗，自繇自在。得到與麼田地，便是吾家種草。其或未然。誠恐生滅念移，萬有之中，頭出頭沒。甚可怖畏。山僧前日妄動一念。到處逗漏。至今未得休歇。只得自狀其過，自揚其非。與眾兄弟遞相證明，互為警策。一念起歷遍名藍，登九鯉等閒一座果天然。覽盡溪山風物美。一念有百怪千妖俱出醜。老僧不采意無窮。鐵額銅頭盡點首。一念真觀面。無非清淨身。幾次拈來惟恰好。這回提起又重新。一念無天風，扶我上天壺。相逢盡是舊相識，鐵壁銀山不負吾。山僧到這裏十方坐斷眼空四海挑出壺中。日月掇轉格外乾坤。孤迥迥峭巍巍。天上人間更有誰。且道轉身一句作麼生道？一僧拂坐具。師云：掇轉杖藜歸去也。密移一步看飛龍。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六終

福州府福清縣黃檗山萬福禪寺語錄

元旦上堂。師云。乾坤再造佛祖重興。陶鎔德重雨露恩深。林泉倍慶。草木增榮。新日月循環世界三千舊家。風羅列峰巒。十二長舌溪聲演不傳之妙旨。淨身山色裏無位之真人。且喜道泰時清。常從面門出入。眉懸瑞彩觸處圓明。頂放祥光全彰。秀麗嚴凍解於寒潭。鱗龍踴躍春波裏輕。煙開於古路。凡聖交參。法苑中一團和氣。萬劫同春。恭祝聖人無量壽村歌社舞樂昇平。山僧聊祝如是。未審諸人同音讚頌。又且如何。良久云。但願皇風成一片。不知何處是封疆。下座。

元宵上堂。師云。剔起心燈炤徹世間無別法。揭開慧月頓明那畔本來人。幸值天回泰運。喜逢節屆良辰。燈月交輝。主賓同慶。共登萬福之堂。門門現瑞。彩重闡單傳之道。葉葉永流芳紫氣氤氳。坐臥長春國裏。祥光燦爛。優游不夜。天中千古燈王如來一會儼然未散。正當此際植福延壽。福無有涯。壽不可量。所謂一粒光明種。拈來種福田。靈根開般若。結果遍三千。山僧慶讚已竟。汝等各各嘴頭打濕。未審眉端還覺光彩也無。如覺自能輝天鑑地。其或未然。何妨再三挑剔。豎拂子云。還見麼。撥著當陽一線道。門頭戶底盡風光。下座。

解制上堂。問選佛場今朝揭曉人天眼大轉法輪。透網金鱗甚處作鉤。師云。動地驚天祇一毫。進云。忽然傾湫倒嶽時如何。師云。上鉤來也。進云。和尚門庭廣大。學人這裏。擎拳即是。合掌即是。師云。隨汝顛倒。僧拜云。向來罔費推移力。此際中流自在行。師云。腦後還須一槌。乃云。儘日騎牛不識牛。坐馳萬里覓無休。誰知牛在形山上。嘯月團雲不計秋。若也直下見得。馳求永息。省得許多途程。動轉施為。盡是自家田地。終不犯人苗稼。汝等自結制以來。行住坐臥。折旋俯仰。屙屎放尿。拈匙舉筋。何曾離得寸步。至于今日。拆散眉毛。打開布袋。畫斷牢關。劈破保社。東去西去。又何曾少得些子。腳下有據。自然十字縱橫。頂門眼開。必也七通八達。處處綠楊堪繫馬。家家有路透長安。無一草不含香潔。無一花不帶春容。無一水不招日月。無一山不堆白雲剝剝塵塵心心念念盡是家珍。為甚麼不肯承當。山僧今日大開一路。急須薦取。良久云。把手將他行不去。惟人自肯乃方親。下座。

師到南禪寺，請上堂，問：諸佛世尊為一大事因緣出現於世，三千七百祖師也為一大事因緣出現於世，和尚今日為甚出現於世？師豎拂子云：為闍黎不薦？進云：如何是大事因緣？師云：道過了也。進云：謝和尚答話。師云：謾到河頭誇綠水，雲收一帶好青山。進云：男兒自有冲天志，不向他人行處行。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乃云：茲者碧池定隱，二上人同正覺菴主請轉法輪，以曉未悟。若論轉法輪，上人二六時中動轉施為，不假他力，轉卻了也，多少親切，要山僧轉個甚麼？其次，上人時時發廣大心，行菩薩行，雲水來依禽魚有賴令此方人人俱成長者之高風，水鳥、雲林處處共演摩訶之妙旨，為汝諸人轉卻了也，更要山僧轉個甚麼？雖然如是，聊敘一偈，以遂來意，踏得未生一著先，何妨寄錫在南禪。霏霏法雨，春三月兩道眉毛濕半邊。諸人還知麼？且道那半邊為甚麼打不濕？為復是法雨不均？為復是眉毛有異？吾人於此個儻分明，便抓著山僧癢處，正好在此水月場中空花界內，拈兔角杖，敲出虛空骨髓，以龜毛拂點破佛祖心腸。有時對一說，倒一說，還我宗門有妙訣，有時獅子吼野干鳴，要汝諸人具眼睛。具眼衲僧不受瞞，尋常劍氣現眉間，無根亂統俱藏隱，突出單傳第一班。無根亂統且置，且道如何是單傳第一？班？卓拄杖云：會麼？千峰勢倒嶽邊止，萬派聲歸海上消。下座。

南禪寺請上堂問。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師云。無端突出。進云。瓦解春霜去。便禮拜。師打云。清淨本然。云何忽生大地。僧無語。問此心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在何處。師云。速退速退。僧云。如何是心。師打云。在內在外在中間。僧無語。師又打。僧禮拜云。應無所住。師云。未夢見在。乃云。心佛眾生三無差別。賢愚不肖。本無同異。無端不覺。瞥起一念生人。我見起貪嗔癡。繇貪嗔癡作種種業。流浪四生輪迴三界。從迷至迷無有休息。僅有碧池上座。體佛祖之教。興慈悲之心。以生靈之命為命。以禽魚之樂為樂。鳩諸善信放生為事。仍斂淨財卜築義塚。收諸骷髏藏於一處。庶無霜月暴露之事。亦無悲風淒雨之懷。春秋祭掃猶己之親。更請山僧說法度脫彼魂而後已。余聞髑髏前神光萬里微塵裏。法界三千佛佛祖祖坐微塵裏。轉大法輪度脫眾生。山僧今日在髑髏上演大般若。令四生九有脫諸塵累。頓超清淨之域。所謂一心不生萬法無咎。一念回機便同本得迷一念悟一念。反覆迷悟如掣電一聲因地震乾坤。幽顯靈聰俱已薦。此乃是山僧獨拔超薦之旨。且道見義而為一句作麼生道。良久云。長天雨散雲收後。明月何曾離碧池。下座。

師誕日結制上堂。西堂問。紅爐煉出擎天骨則不問。祖印還須過量人事若何。師云。殺活縱橫無罣礙。進云。恁麼則縱橫乾坤。炤用

臨時去也。師打云。是炤是用堂喝。師云。再喝看。堂云。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師云。賊過後張弓。乃云。天地為爐一火鑄成。生鐵漢須彌作壽。孤光返炤本來人。離言離說超群象。無慮無思絕點塵。不是渠儂賣靜潔。都緣默契自天真。諸人還會麼。山僧竟日敲空作響。要覓知音。指葉為金。惟憐赤子全副熱腸。懸素籥半開冷眼對晴陰。這回揭盡迷雲夢。獨露寒潭一片心。這裏有個受用處。有個敗闕處。若也簡點得出。慶讚有分。其或未然。山僧自己簡責。免使將來怪笑。然則生鐵漢子。最初不合打在紅爐中入首。惹得通身紅爛。又向寒潭裏出身。凍得七花八裂。雖然冷暖自知。怎奈寒溫之氣未除。要與須彌同壽。滄海共福。詎可得乎。福壽雖則有虧。道德必也未備。那堪受人慶讚。正好攔腮扯下。爛槌一頓。益見黃檗門下有個燥辣衲僧。搥與麼糝糊而去。大似冷水浸冬瓜。大家相濕[泳-永+盾]。有甚麼清頭慶讚且止。今日開期。為人一句作麼生道。維那云。黃檗連根苦。師云。烈燄光中開隻眼。舉頭誰是熱心人。下座。

諸居士為師祝壽請上堂。維那問：踏盡洞山無寸草。卻還黃檗種青松。還有為人分也無？師云。瑞草千年秀。進云。恁麼則功不浪施去也。師云。千差一掌擎。進云。知音說與知音聽。師云。又被風吹別。調中那轉身。師便打。問：學人單刀直進。又是雪上加霜。和尚拈椎豎拂。難免一番親切。作麼生是親切句。師云。一刀兩段。僧拂具云。看破了也。師云。太平本是將軍定僧歸位。師云。不許將軍見太平。乃云。眉毛插漢鼻遼空。佛祖都來立下風。獨踞巖頭忘歲月。不知身在白雲中。究竟本無壽者相。人天何處祝華封。諸人會麼。無所壽處而壽。是謂仁壽。空諸身時為身乃名法身仁壽。法身體之即神。八風吹而不動。四相豈可遷移。格外真風浩蕩。寰中靈氣藹然。不萌枝上聯芳秀。無影樹頭萬劫春。團團圍繞金僊子。共祝蓮花國裏人。諸人還信得及麼。如信得及。便是金剛種草。其或未然。山僧再垂方便為汝點出。豎拂子云。會麼。急薦取莫狐疑。這漢繇來不自欺。掇轉面門開兩眼。千山萬水繞須彌。下座。

上堂。師云：揀魔辨異，還他正眼，圓明打雨，敲風突出。天心朗耀，昭昭乎一念。未萌之先，晃晃焉全該群動之後，心眼通達，洞徹十虛，如印印空，如印印泥，如印印水，頭頭無差，印印不異。無差故，八萬塵勞盡是菩提之路；不異也，三千剎海無非解脫之場。舉一步，步步全彰行一言，言言見諦。所謂言而信不？若不言而信；令而行，不若不令而行。不令而行，推之以誠，不言而信，鎮之以靜，一心圓極，收放自如。放行則瓦礫生輝，把住則黃金失

色。且道如今放行即是？把住即是？維那云：切忌打兩敲風。師云：單提榔栗橫三界，打統乾坤共一家。下座。

上堂。師云。撐持世界。還須生鐵。身心建立。法幢全在。金剛眼目。眼目烜赫。圓明身心骨力俱備。舉一事事。事週隆應。一機機。活潑百煉。了無異色。千磨愈見。光輝卓立。塵勞之中。永為今古。標格縱橫。宇宙之內。長作人天模範。可隱可顯。能剛能柔。皆因眼目。圓明骨力俱備之驗。是以天無骨力。不能成其高。明地無骨力。不能終其博。厚山無骨力。將恐崩裂。海無骨力。將恐枯竭。人無骨力。難以自立。物無骨力。不成品器。乃至一草一木。一塵一剎。若無骨力維持。則當下消殞。盡淨無餘。而況撐持世界。建立法幢。無有骨力而能成立者乎。所謂貧莫貧于無見。識賤莫賤于無。骨力骨力既無日常。東倒西歪。隨業升沉。遠墮四生六道。近遭八難三途。必也無疑矣。我此會中。個個英靈。決不墜在此數。且道。如水無筋骨。能負萬斛舟。虛空無堅質。能含一切物。又作麼生消釋。山僧到這裏目瞪口呆。無言可說。無理可伸。未知眾等如何融會。維那云。橫身當宇宙。遍界沒遮欄。師云。有無夢幻俱拋卻。始信空生大覺中。下座。

立慧門首座秉拂上堂，師云：種春風，鋤明月，一鑿生涯烹綠水飽青松，半瓢活計處閒居而獨樂，臨廣眾以渾然，可藏可行，無固無必。法王座畔，曾翻掣電之機；獅子巖前，慣弄險崖之句。隨時豐儉，信手拈來，了曩劫之塵緣，圓一心之妙果。未出幽谷，已全捉象之威；既充法筵，須展遼天之志。禪林得其表帥，吾道借以增輝，為綱為領，井井有條，利己利人，言言合轍。可作人天眼目，堪提佛祖綱宗。如燈傳燈，燈燈不昧，似鏡對鏡，鏡鏡圓明，炤用臨時，展托胸中，日月主賓，際會卷舒，格外乾坤，龍象蹴踏，非驢所堪；苟稱其職，道不虛行。山僧聊啟如斯，未審眾慈轉請助揚。何如？諸人會麼？兩輪互炤經天地，一座巍然亙古今。下座。

保嗣請上堂，士問：生滅不斷，多生恐怖，向甚麼處安身？師豎拄杖云：會麼？士禮拜。師云：家山增秀氣，密室轉風光。乃云：善來佛子自皈依，深信靈苗長淨泥。萬福！堂前甘露洒，開花結子正當時諸人會麼？茲者曾居士請轉法輪，以固金剛種子用資般若靈苗。若論般若靈苗，金剛種子，人人本具，個個不無，反求諸己，靡所不備。所謂萬物皆備於我，惟我能生萬物，惟冀善人時時返炤，念念回光。忽若心花頓發，便與太虛同體，日月並明，能為萬象之主，不逐四時凋零而後潤之，雨露長以和風炤之，慧日覆以慈雲，庶物各得增長，人人福慧圓明，優鉢花開一片，菩提子結三千。苟能如是，耀後光前必也無疑。只如應時納祐一段話略，又作

麼生道？也大奇！也大奇！生來傲骨迴南枝，微風隱隱遞香信，百萬人天一貫之。惟有老僧無巴鼻，撐天拄地兩莖眉。下座。
臘八上堂。師云：棄卻王宮入雪山，僂丰道骨自幽閒。六年已了千生夢，忽悟明星出世間。諸人還會麼？看這老子富有四海，貴為人君，象馬七珍，國城妻子，靡所不備，忽覺無常，一旦棄如敝屣，直入雪山修行六載，功圓果滿，睹星悟道，便云：奇哉！奇哉！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皆因妄想執著，不能證得。嗣後說法四十九年，談經三百餘會，道滿天下，教流萬世。傳其道，奉其教，如麻似粟。至於普天之下，在在處處，若僧若俗，若男若女，若長若幼，咸知此日是這老子成道之日，奉之如大神，敬之如君父。設若當時受萬乘之尊榮，貪五欲之快樂，安有今日風光之事耶？所謂大人具大見，大智慕大事，成大志，滿大願，直欲個個成佛而後已。吾人既有智慧德相，與佛無二，喜怒哀樂，與佛無二，慈悲喜捨，與佛無二，菩提涅槃，與佛無二，行住坐臥，與佛無二，豈可不學而修之，力而行之？不至老子田地，是自暴自棄也。汝諸人試返炤看，當體清淨，當體圓明，當體具足，與這老子相去多少？不但我今獨達了恒沙諸佛，體皆同脫有憤氣。衲僧出來道：將謂黃檗多少奇特。今日與麼說話，大似座主奴相似，未免傍觀者哂。山僧亦不著忙，亦不氣急，徐徐向他道：此時清平世界不許攙行奪市。敢保這僧心平氣和，瓦解冰消。未知諸人意下如何？還會麼？一處平，處處平，無勞日午打三更。自從頓悟明星後，引得兒孫一路行。下座。

上堂。師云：那畔風光世莫聞，本無一物可呈君。喚回午夢數聲鳥，題破青山幾片雲。擬作心知還逗漏，若將境會更紛紜。兩途弗涉超情謂，地覆天翻永不渾。諸人若到這個地位，則生死去來，於中無動，興亡得喪，不干其懷。亙古虛圓，淨潔一腔，洞徹靈明，鐵圍不能匿其輝，穹蒼不能覆其體，萬象不能隱其真，塵勞不能易其性，圓陀陀，活潑潑，如珠在盤，不撥自轉，如鳥遊空，所向無礙。心境緣他不得，豈虛名幻相而能籠絡者哉？只如善人離榕城上，黃檗步步踏實地，處處沒蹤跡，全身與麼來，全身與麼去，又何曾罣礙？把手將他行不去，惟人自肯乃方親。且道茲者相見與龍泉相見相去幾何？良久，云：面面峰巒爭拱翠，滿頭白雪愈風光。下座。

薦慈請上堂，問：養育劬勞則不問，薦親一句作麼生道？師云：了無一物獻尊堂。進云：恁麼則與林道婆相見去也。師云：未是報恩者。僧禮拜，師便打。問：正睡之中，無夢無想，主在甚麼處？師舉拂云：不是闍黎不拈出。僧禮拜起。師云：八十翁翁入場屋，真誠不是小兒戲。乃云：茲者良炤禪人請山僧舉揚個事，以薦慈親林

氏。然林氏秉佛遺教，三十餘年，淨修梵行，又能成子出家慈風，布於閭閻。而子辭親學道，廿有餘載，戒潔圓明，一心無別。亦能喻母之道，奉母以法，庶母臨終吉祥而逝。孝行塞乎天地，不待薦拔，必也往生。更要山僧舉揚為薦，成得甚麼邊事？雖然如是，聊舉數言，以慰孝念之誠，伏惟諦聽！死盡偷心，徹見人生之大本；昭回正念，頓明孝道之深恩。欲酬至德，貴在還源，圖報劬勞，急須返炤。搆得源頭無異處，曩劫冤親一坦平。了知炤體自功圓，多生恩愛俱解脫。如是資身，草屋石床，常快樂如是薦親，天堂佛國恣優游。山僧舉揚已竟。且道還薦得林氏也未？良久，云：一片慈雲歸巖谷，滿林荊棘放蓮花。下座。

元旦上堂。師云：金輪影動，煥然宇宙重光；玉闕令行，倏爾山川並秀。鶯鳴谷口，大暢玄風；梅放南枝，聊舒素志。摸著衲僧巴鼻，一番提起一番新，揭開佛祖爪牙，幾度拈來幾度覺。三千剎海遶須彌，十二峰巒捧殿閣，潦潦倒倒，磊磊落落。匡徒共祝昇平，同證大圓滿覺。山僧與麼舉揚。還當得新年頭佛法也無？諸人會麼？偶爾杖頭開隻眼。始知傲骨占春先。下座。

解制上堂。師云。拆散眉毛十字。縱橫無罣礙。大開眼目三千剎海盡風光。單提榔栗活潑如龍緊捎草鞋威獰若虎。踏著最初行履處。一道坦平。返觀那畔。本來人渾身慶快。幸值元宵美景。喜逢賜福良辰。燈月交輝。柳花間錯。凡聖同遊不夜之衢。人天共樂長春之苑。極樂一會。儼然未散。而我格外衲僧。眉毛解散。保社打開。東去西去則不無切忌。青天下躲跟。不許暗地裏著腳。且道。離此二途畢竟向甚麼處去。一僧便出。師云。明暗兩途俱踢脫。橫挑日月遶須彌。下座。

結夏上堂。西堂虛白。問：烹金琢玉，作者鉗鎚，煨聖煉凡，尋常妙用。只如超宗越格漢子，作麼生相為？師云：一隻眼睛明似日。進云：恁麼則各出手眼去也。師云：半邊鼻孔吼如雷堂喝。師云：再喝看。進云：請和尚別道將來。師便喝。問：結卻袋口，收拾群牛，常住田地，教阿誰耕？師一棒，云：會麼？進云：恁麼則拽脫鼻頭拖泥帶水去也。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進云：今朝風月愈光新。師云：不知痛癢漢。進云：不勞更加鞭。師云：放過一著。乃云：黃檗大開選佛場，成群踢踏不尋常，觸翻鼻孔遶雲漢，惹得天花滿院香。諸人還覺也未？如覺，則言外知歸，句中有響，五蘊六根即時解脫，三身四智觀體圓明，自然啐啄同時，必也縱橫合轍。或發大機之用，鐵額魂消，或顯大用之機，狸奴膽喪，如天普蓋，似地普擎，浩浩蕩蕩，不可得而名言烈烈轟轟，豈能追其影跡？妙入斯門，成佛匪離於當念；若失其旨，修因尤滯於多途。途多踏草不死，念當直下成功，是以悟迷遲速，日劫相倍矣。茲者休

夏安居之晨，衲僧聚會之際，且道從何門而入，以進佛祖之堂？豎杖云：一條拄杖眾人扶，閣在虛空有若無，幾度滄桑渾不改，翻然卓立在吾廬。吾人于此見得，徹作得主，信手拈來，活潑如龍；有時撐天拄地，有時殺活縱橫；有時度馬度驢，有時一棒不作一棒用。山僧與麼舉揚，垂應機宜則不無。只如這一條拄杖，從甚麼處得來？維那云：放下好。西堂豎拳云：見麼？師云：沒來繇，沒來繇，自舉自揚自放收。威音那畔挑風月，直至于今賣不休。下座。端午上堂。云：今朝五月端陽個事如何舉揚？各各密移一步，便到佛祖家鄉。脫若於此薦得，可稱無事道人；其或未然，山僧露些爪牙，與諸人共知。豎拂子云：會麼？虛之以中，包羅萬有，不宰其功，致之以誠，博載群生，不矜其能，故道大於虛空，不與虛空而爭；道德廣於法界，不與法界而爭德。言遍于天下，不與天下而爭言；行週於四海，不與四海而爭行。是以善道者無方，善德者無形，善言者不華，善行者無跡，故能道德言行，廣大周遍於天下者，豈非至虛？誠善無爭之驗歟？茲者端陽節屆，四海五湖，徒爭勝負，業識茫茫，無有休息，欲其世界安樂無事，詎可得乎？且道即今以何法力挽回業識，坐享昇平？還會麼？炤見本來無一物，有何夢事可為爭？吾人各具如斯眼，世界身心盡坦平。下座。費和尚誕日，上堂，師云：檠岫千年翠，寒潭徹底清，舉頭天外看，大地坦然平。諸人會麼？山僧自入師室，一空如掃，雖然無物，可獻尊前信手，拈來不妨恰好。萬般施設摠虛花，惟有此心長可保。茲乃本師壽誕之晨，僅有惟永禪人修齋獻供，請轉法輪，可謂一槌兩當，倍增福田。若論沒面目，衲僧天龍恭敬，不以為喜。日嘗孤迥迥，峭巍巍，逍遙於廣漠之野，優游於萬仞之巔。嘲風弄月，展演神通；覆雨翻雲，全彰妙用。雖居人天界內，不為人天之所羅籠；示現凡聖場中，不為凡聖之所留礙。一段天真，孤明烜赫，千古萬古，永為標格。山僧今日借花獻佛，且道還當得祝壽章句也無？良久，云：推出峰巒聊作供，空王笑納萬斯年。下座。結制上堂。師云。高提慧燈破千年之暗室。重振爐鞴。顯百煉之純剛。得入三昧火裏。頓消業識茫茫。返炤便登覺岸。翻身即是家鄉。一點靈然透徹。百千世界風光。乾坤老我滿頭雪。天上人間沒處藏。若也於此見得。可與半面之交。其或未然。山僧再添柴炭。重新煅煉去也。具足聖人法。聖人不會。具足凡夫法。凡夫不知。凡夫若知即同聖人。聖人若會。即同凡夫。凡夫聖人。各各具足。喚作聖人也得。喚作凡夫也得。然則凡不自凡因聖以名。凡聖不自聖。對凡而說聖聖名凡號即是虛聲。殊相劣形無非幻色。幻色虛聲豈有定名。一摠平懷法法成辦。只如沒面目真人。三頭六臂漢子。一齊俱到。又作麼生煅。他向者裏道一句看。一僧云。一鎚百雜

碎。又僧云。團團原不費鉗鎚。師卓拄杖云。百怪千妖都一串。紅爐點雪大家看。下座。

師誕日允寧陳居士請上堂，師云：異氣騰空，必有其人。應世瑞光，映座果然。好友臨筵，洞壑倍增；勝麗林巒，愈見輝煌。碧落現彩霞之慶，綠陰呈翠錦之祥。萬福堂中，人天圍遶。如雲捧日，紫微峰畔。猿鳥獻花，若供金仙。三千年蟠桃，一會五九度，正果全彰，瘦骨稜稜。處處撐天拄地貧眸炯炯。時時耀古騰今。滄桑改變。覲體純真，宇宙渾淪。一心不昧。有時自讚，自揚自抬，三十三天之頂，不以為高。有時自貶，自駁自抑，一十八獄之中，不以為卑。磊磊落落，任彼呼馬呼牛；顛顛狂狂，知他是凡是聖。前劫波生而不生，後劫波滅而不滅。不滅不生，金石流而弗淪；不生不滅，刀兵動以無傷。大哉堅固！元辰廣博，悠久無疆。要且無人證據，不妨自己舉揚。山僧聊舉如是，未知諸人唱和，如何試道看。眾俱答已。師云：只得一半。山僧自圓去也。一念淨超億萬秋，何勞海屋又添籌。天翁贈我兩眉雪，惹得人間祝未休。下座。

冬至上堂。師云：天地無全功，誰是全功者？聖人無全能，誰是全能者？廣包天地人，惟有虛空也。空生大覺中，全能難描寫。循環眉睫間，消長腳跟下，一氣含萬靈，片心無可把。錯過百千生，不知身是假，忙忙無所歸，笑殺王大姐。問予事如何？白棒驀頭打，鮮血濺梵天。渾身赤洒洒，予愧莫可藏，混入大般若，喜逢一陽生。豎拂云：聊申些素雅，山僧應時應節了也。若也會得，便知陰消陽長去處，不妨東湧西沒，南升北降，生死去來，無可不可。其或未然，石筍再抽條碓，嘴又生花曲垂來宜去也。天能蓋而不能載，地能載而不能，蓋是天地無全功也。聖人能教人為善，不能使人而必善，是聖人無全能也。若夫改天命，奪神功，參化育，補元氣，惟全人者能之。如有其人，吾將師之以教，吾之全能也。吾將天下人師之以教天下人之全能也，如無不若自全其全，自能其能。豎拄杖云：豎窮三際。按拄杖云：橫遍十方，理無不周，事無不備，法無不圓，機無不被。所謂萬物皆備於我，惟我能生萬物，惟我能長，萬物惟我能壞，萬物惟我能滅，萬物生長壞滅皆備於我，豈全功全能不備於我耶？然則能無所能，法法頭頭無減增全無所全，塵塵剎剎自成完，我無所我放去收來盡恰好功無所功，本來無始亦無終，橫該豎抹，無往不全。山僧今日所舉，不惟與釋迦老子出氣一番，亦與東土聖賢出氣一番，亦與天地萬物森羅萬象出氣一番。是以全功無棄物，全能無棄人。舉頭天外看，孰是不全人？功能消長且置。且道佛祖向上一著陰陽未判已先之事作麼批判？良久，云：一榻橫眠三界外，翻身磕破太虛空。下座。

性溫請上堂，師云：人人本自天真佛，動轉施為覺未曾。當念圓明超法界，即心頓悟繼傳燈。花開香國分千葉，子結蓮臺上九層，一會儼然真極樂，當軒大座貴先登。諸人還見麼？西天東土搏作一塊，彌陀、釋迦都盧一座，諸上善人俱會一處。所謂天下無二道，古今沒兩人。無二道，天地同根矣，沒兩人，萬物一體矣。同根一體，清淨如洗，一體同根，惟吾獨尊，團團圍繞金僊子。若個師僧，解報恩茲者，披剃佛子，請陞此座，為作證明。夫出家者，是大丈夫之事，非將相之所能為。須秉金剛王寶劍，無明煩惱執著，妄想一斷，一切皆斷生死大事，直下須明一明，一切皆明，舉揚正法，用報佛恩，崇修大道，以酬師德。事上也周密，接下也溫和，臨事也決斷，見利也爭讓。慈悲喜捨，戒潔謙恭，揚人之美，成人之德，難行而行，難忍而忍，慎終如始，弗忘斯道，以成出家之志，則不辜今日之囑也。只如即今披剃，直下證明一句作麼生道？金刀一展塵勞盡，般若靈明亙古今。下座。

上堂。師云。這漢繇來不自欺。逢人卓朔兩莖眉。如今老大無思算。坐斷人間十二時。十二時既斷。今古一日矣。死生一致矣。事理一貫矣。物我一如矣。然則一非一上下四維無等匹。老胡殿上對梁王。口不開風。道不識後代兒孫不丈夫。承虛接響太浪籍。或狂或狷。或糲糊愈掃。愈多愈不息。既然不息。聊舉幾則因緣。以定今古。眼目馬簸箕一口。吸盡西江水滿腹魚。龍雖吞得西江。不能吐出西江。久則作怪無疑。跛足雲門北斗裏藏身客星犯帝座。欲隱彌露。大似靈龜曳尾。自取喪身之兆。王老師誑嚇兩堂斬卻貓兒痛快。不妨痛快。雖有殺人之刀。而無活人之劍。一切死人活不得。諗老戴個草鞋。略露鋒芒。只救得一半七百甲子老。趙州年古成精。使得十二時辰。混亂天經。誑惑人事。得罪于天。無所禱也。山僧今日將四個老古錐。據款批判曉諭。禪林尚有傍不甘的進前道。黃檗坐斷十二時辰。殊不知正是復太古之真風。補未生之元氣。其理也備。其利也溥。只宜密契不許卜度。而今總掛萬福堂前。一任諸方貶駁。若無勘驗龍蛇眼。難以承當佛祖機。下座。

上堂。師云：心聰即得三摩地，烏用山僧再舉揚。南日雲開沙界朗，普天恩大卻難量。量天須是沒量人，一毫頭上契天真。南辰北斗俱翻卻，始證本來淨法身。所謂淨法界身，本無出沒，大悲願力，示現受生。生即無生，滅即無滅，無滅無生，任運騰騰。無生無滅，去來皎潔，覲體現前，孤明歷歷。污染他不得，蓋覆他不得。移換他不得，收拾他不得。如驪珠獨耀于滄海，似桂輪孤朗于碧天。悟之者，可作人天眼目，堪傳佛祖真燈。如未山僧，重新挑剔，令汝各各法眼圓明。海國善人，有賓有主，有禮有樂，山林老衲，無事無為，無黨無偏，信手拈來，頭頭恰好，等閒放去。法法

全彰，會則山海渾然一體，不然，覲面又隔千江。然則山是山，海是海，處處風光溢目。主是主，賓是賓，人人卓立軒昂。萬福堂前，龍象濟濟；五雲峰畔，雲水茫茫。通身無影象，遍界不曾藏，即心即佛即物，萬古碧潭空界月。非心非佛非物，掃清天地一林霜。不是心，不是佛，不是物，喜得定南針子在，任他車轉亦何妨？還見定南針麼？豎一指云：勘破這些關捩子，一毫頭上定乾坤。下座。

上堂。師云：一葉親承肯，隨曲澗長，流水萬金，易卻難捨。孤山幾片雲雲伴，孤山添秀，氣水行曲，澗愈增狂。苟能入流忘所，所入既忘，動靜二相了然不生。見色明心，心境圓融，無住心光，豁然獨露。非獨露莫顯，不生之相非不生難明獨露之心。獨露之心，即是真心，不生之相無非實相。實相真心，亙古亙今，金石流而弗渝，劫火燒以長存。西來直指，惟指此心；東土相傳，惟傳此相。眾生迷此心故，輪迴不息；智者悟此心故，即時解脫。所謂只此心心心是佛，十方世界最靈物，於中徹悟盡無餘，妙用神通從此出。茲者孤山心光禪者請陞此座，不覺逗漏心法如此。若論祖佛頂[寧*頁]上一著子，千聖無啟口處，山僧亦不敢露個元字腳。何故？真金自有真金價，終不和沙賣與人。下座。

上堂。師云：大地悠悠古到今，人情道義兩浮沉。亂離顛沛渾如舊，不負當年儒佛心。諸人還知儒佛心麼？悟則事同一家，不悟則萬別千差。衲僧貴在眼正，君子妙于固窮，若非顛沛，焉知固窮之真實？苟不亂離，爭見正眼之圓明？一處圓明，處處圓明，無有不圓明之者，一處真切，處處真切，無有不真切之者，一人發真歸源，十方世界悉皆消殞，一日克己復禮，則天下莫不歸仁，豈非圓明真切之證驗歟？看這釋迦老子舍王宮，直入雪山六載，飢寒其心，何等真切？夜半睹星悟道，便云：奇哉！奇哉！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眼目，何等圓明不合？道個皆因妄想執著，不能證得，未得一切圓明，受駁奚辭？那更亂扯葛藤，四十九年，蔓延娑婆世界無人截斷，至于今日，無有休息。惜乎山僧不與同時，若與同時待者，老子道個奇哉！輕輕向他道：本是自家滯貨，何奇之有？敢保這老子心平氣和，穩坐山堂，鎮之以中，不言而信，不令而行，豈不綽綽然有餘裕哉？益見煅賢煉聖之功，超師越佛之作，成仁成德之美，無為無事之樂，不亦盡善盡美也歟？茲者吳居士特特入山請法，且道如何話會？雖是昔時舊面目，這回相見，愈相親愧，無一物堪為供，推出雲山待故人。下座。

戒子請上堂，師云：萬行莊嚴素法身，心心不昧本來人。自他普利功圓滿，直證毘盧一性真。諸人會麼？於此薦得，當下妙用，非同小小，如未山僧，再垂方便，擴充菩薩之心，令證菩提之果。菩薩

非菩薩，是名菩薩。故園搖落不堪聞，雪後枝頭春又發。凡夫非凡夫，是名凡夫。踏遍天涯無覓處，歸來依舊在吾廬。聖名凡號俱拈卻，天上人間不可模。所謂名不得，狀不得，不可得中這麼得。苟能密契個中旨，廣大神通焉可測？便能豎一毫，光遍十方，興一言，教流四海，舉一步，行遍塵沙；拈一物，全彰大地。心心圓明，念念圓明，頭頭圓明，法法圓明。如珠在盤，不撥自轉；水銀墮地，大小皆圓。其戒香也，普熏法界；其戒光也，明如日月。其戒相也，周匝娑婆；其戒德也，重如山岳。如是信解，如是奉持，如是護念，如是證悟，同入毘盧性海，共登般若玄門。茲者菩薩圓滿之期，各各知恩有地。且道報本酬恩一句作麼生？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下座。

上堂。師云。天寒人寒滴水滴凍。梅雪爭妍。花落風送穿過今時。眼睛逗漏。威音鼻孔玉葉中藏神渾身香潔。冰凌上走馬大地心寒一身潔一切身俱潔。一處寒一切處皆寒。遍界花開方寸裏。普天冰結玉毫頭。不是一番寒徹骨。怎得梅花撲鼻香。諸人會麼。山僧今日打個淨潔毬子。展些寒冰三昧。以酬龍華禪信。還有徹骨徹髓漢子。共相證明者麼。良久云。喜得冽風堅傲骨。不隨霜月落前溪。下座。

元旦上堂。師云：尊道重賢，坐致一人，無量壽興言布德立回萬派盡朝宗。兵氣化為和氣，冽風轉作東風，冰河凍解，大地咸春。人人享泰來之福，物物含生意之恩。妙哉乾元！功無浪施。不言而信，不令而行，不怒而威，不為而成，蕩蕩巍巍，名不可得，綿綿密密，體之即神。諸人還會麼？豁開戶牖乾坤廓，剔起眉稜一斬新。下座。

解制上堂。師云：解散眉毛，通身是眼，打翻鼻孔，大地咸春。人人歌太平之福，個個樂無為之天。舉足步步，如意抬眸；法法圓成，處處綠楊堪繫馬家家有路透長安橫挑日月。閒之遶，天上人間莫可藏。聊剔心燈懸巨刹，孤光一道炤扶桑。諸人還見麼？茲者，人天納慶之晨，釋子分燈之際，略敘數言，以壯行程，人情佛事，兩得周足。只如沒面目漢子，羅籠不肯住，呼喚不回頭，且道如何奉送？驀直去，自惺惺。回頭轉腦得人擒。塵尾風馳九萬里，棒頭迸出玉麒麟。下座。

立鳳山也。懶首座秉拂上堂，師云：碧落無瑕，嘗喜金輪出現；青林有色，果然丹鳳來儀。五彩文明，足徵足法；九苞德備，堪證堪憑。昔時妙契乎機先，今日奇逢於意外。師資道重，一回相見。一回親賓主氣和，一度閒談一度切。要明親切事，還他親切人。欲顯遼天機，須是遼天漢。料揀言言不異敲推句句無差。見與師齊，恰好平分半座；智超眾外，何妨出手全提？使普天之下，共八斯

門；令沙界之中，同登此室。地靈人傑，可起卷席之風；道泰時清，堪闡無多之旨。龍驤雲起，虎嘯風生。名位相稱，堪任其勞。一舉山山齊點首，千江萬派盡朝宗。下座。

結制。知浴良迪覺融，領普賢普恩設齋請上堂，師云：重開爐鞴振風規，烈焰亙天孰敢窺？縱有銅頭鐵額漢，也須腦後著鉗鎚。可有與麼人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愈煅愈見，光輝愈煉，愈加烜赫。使正法眼藏當下圓明，令涅槃妙心，即時淨潔。無妄想執著之病，無偏小所知之愚。圓陀陀，活潑潑。赤洒洒，峭巍巍。天上人間，更有誰與奪？縱橫無罣礙。卷舒炤用自臨時得到與麼田地參學事畢如未。山僧舉箇現成公案，以慰來機。昔日臨濟陞座，兩堂首座一齊下喝。僧問：兩堂下喝，還有賓主也無？濟云：賓主歷然。諸人還會麼？兩虎之下，獸難容蹄；兩刃之間，人難容足。苟能於此插得隻腳，可為瞎驢種草，堪接黃檗宗枝。其或未然，山僧自插自斷去也，者三箇老古錐，各各好與三十大棒，趁向他方世界之外，敢保此處？而今而後，海晏河清，無有蛟龍為殃為祟。然則黃檗今日陞座，兩堂首座俱不下喝，且道還有賓主也無？會麼？寂然不動，感而遂通。無賓主句輕拈出磕著心空及第歸。下座。

岱山學公為師慶誕請上堂。師云。人人俱有摩天志。誰肯活埋淺草中。觸著現成鐵枷栗。自然兩翼起清風。諸人還會麼。良馬見鞭影而行。鳳皇聞韶音而至。一念還源疊疊祖山。增秀色剎那返本溫溫丈室愈風光。得到者箇田地不染。一塵塵塵具足。豁開格外眼睛。圓明如鏡鏡鏡全彰。萬別千差難逃至鑑。千差萬別總歸一致。一亦無有脫體風流。三世諸佛列代祖師。盡向者裏出入。出於機入於機。出入分明不自欺。來無相去無相。來去去來無兩樣。吾人日用常如斯。世出世間為標榜。茲者岱山學公不遠千里而來。特申慶誕。可謂知源得本。恩歸有地。山僧所愧。無法為酬。只將現成絡索。推出以塞來命。且道。還恰當也無。眼底溪山千古翠。胸中流出四時春。下座。

師六旬誕日，鰲江諸居士請上堂云：滴水福滄海點塵，壽泰山豁開正法眼，萬古剎那間，於此薦得。今昔同時，我人一致，壽夭窮通，奚憂奚樂？榮枯得失，自在自繇。是以金石流而不渝，劫火燒以長存。不然，未免與世浮沉，隨時消長了也。花甲重週，十二峰巒。增拱翠元辰初度無邊剎，海競添籌。大座當軒，人天環繞，一靈境內，凡聖交參。祝延無位真人，須是大心長者羅漢掛紅霞，通身富貴，紫微現瑞彩，特地風光梅噴先春，承九淵之德澤，松濤晚景，起萬福之嘉聲。鶴永歲龜長年蟠桃，結果壽。三千山也，峻石也，堅潭澄竹，秀自天然。一念無生無量壽，圓明皎潔威音前。雖然未放揚州鶴，也勝腰纏十萬錢。山僧今日臉皮放下，確嘴開花，

自讚自祝，自不覺羞。未審諸人同聲相應，又且如何？首座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光處卻風光。師云：滿座文星臨影瘦，一林紫氣間龐眉。下座。

立木菴首座秉拂上堂。師云。火焰裏迸出些兒。烜赫千秋。見者眼瞎。聞者耳聾。觸著則喪身失命。非文非字。非佛非心。將空塞空。以毒攻毒。從胸中流出。不妨蓋天蓋地。可作人天眼目。堪起佛祖綱宗。所謂見與師齊。減師半德。智過于師方堪傳授。然則授無所受。受受無窮。傳無所傳傳傳不已。人人俱有出世之心。箇箇不無超師之智也。須毛羽豐爪牙備。頭角成風。雲至要行便行。要起便起。聊興一念過沙界。奚啻鵬搏九萬里。見與師齊。且置智超于師。一句作麼生道。老僧舌短不能說。問取堂中首座瑫。下座。元旦祝聖上堂。師云：山前瑞氣靄村村，想是人間春到門。玉闕令行週法界，金輪影現耀乾坤。坐靈得意承天澤，草木含輝仰聖恩，瘦骨雖埋深雪裏，也伸幾點壽皇尊。山僧祝聖已竟，且道新年頭佛法如何？年新月新日又新，拈來原不惹纖塵。山童亦解新新意，一炮如雷醒。夢人如醒也，聲色堆頭開。隻眼大千，何處不通津？其或未然，花紅柳綠鶯聲美，卻被風吹別調中。下座。

解制上堂。師云：一花開五葉，葉葉永流芳，點火傳千燈，燈燈常燦爛。眉毛解散，遍野禎祥；鼻孔通風，渾身慶快。八萬四千法門不離當念，無邊剎境妙用，只在毫端。於一毫端上翻身，百億毫端出現；於一念光中，打徹百億念中圓明。非自非他，隱顯莫測，即心即佛，與奪自繇。解結本自同源，聚散了無蹤跡。苟能於此把得住，放得開，作得主，撲得滅。山僧兩手分付，一任東去西去，敢保著有著；其或未然，不得動著腳跟紅線。如未斷鐵壁銀山在眼前，未徹且止。只如今日保社打開，超脫衲僧，如何奉送？杖頭杲日開禪徑，塵尾春風壯客程。下座。

唯欽禪人領眾居士設齋，請上堂，師云：一脈清談古到今，幾回煙鎖冷沉吟。于今掃卻淨如洗，獨露寒潭一片心。還知寒潭片心麼？靈明洞澈，萬古徽猷；真淨圓通，千秋互赫。祖佛證此，成菩提之妙果；菩薩修此，嚴萬行之正因。人天明此積十善之福基；凡愚昧此，作三途之苦本。今日幸逢沒面目，琦上座一棒串過，撩向九霄之外，直令現前空蕩蕩，赤洒洒、圓陀陀活潑潑，名不得，狀不得。吾人于此徹悟，掣得便行，堪立千峰之頂，呵佛罵祖也得，抑揚宗教也得，褒貶人天也得，持提生靈也得。為伊識得向上一著，殺活縱橫，與奪無礙，順行逆行，無可不可；其或不然，切不得動著，直須向自己腳跟下返照看是甚麼？忽若磕著山僧棒頭，不妨為汝證據，是事姑置。且道今朝齋主虔誠請法，觀體應酬一句作麼生道？杖頭點出金剛眼，引得人天一路行。下座。

隱元禪師語錄卷第七終

小參

小參。學道如鑽火，逢煙未可休，直待金星現，歸家始到頭。古人與麼道，鈍置殺人。黃檗門下貴在一火鑄成一槌便當。有麼？有麼？出來與汝證明。一僧拂袖而出。師云：又恁麼去也。乃云：大道祇在目前，要且目前難睹。卓拄杖云：磕著者個端倪，驀然[跳+兆]跳如虎。三界生靈，隻手提攜，十方剎海一口吞吐。徹骨貧，窮普天豪富。抖搜無有半分文，隨手使錢如糞土。等閑撥轉上頭關，發機直用千鈞弩。擲下拄杖云：會則慶快，平生不會，切忌鹵莽。一僧指拄杖。師云：逐塊不少。

因事小參國清才，子貴家富小兒驕，善惡無源，惟人自招。跛鱉藻文彰水面，寧龍戲浪潑天潮。一刀截斷千江口，萬派聲歸海上消。如何是萬派聲歸海上消道得，許汝東湧西湧。脫或未然不得動著。動著打折汝驢腰。有僧便喝，師拈棒，直打退，歸方丈。

小參。云。盡十方世界是個猛火。喚作火燒殺。汝們不喚作火冷殺汝們。汝們作麼生定奪？若定奪得去。金烹大冶雪點紅爐。三十年後不得辜負吾。定奪不得。別起眉毛著個精彩。九十日中間動轉。施為三世諸佛歷代祖師。在汝諸人腳跟下經過。莫怪空疏。驀豎拂子云。為甚麼又在山僧手裏。還會麼。赤體條條無蓋覆。拈來放去更繇誰。喝一喝便轉身。

小參。舉。臨濟云。一人論劫在途中不離家舍。一人離家舍。不在途中。那個合受人天供養。師云。今日狹路相逢。總被黃檗拄杖子吞卻了也。正當與麼時。山僧性命在汝諸人手裏。賴汝不知。汝等諸人性命在山僧手裏。拈拄杖打散。復召大眾。眾回首。師云。是甚麼便轉身。

小參。問：凡有言句，皆無實義，乞師指示。師豎拄杖，僧無語。師云：鈍漢！乃云：現成公案，突出難辨。會與不會，不隔條線。向上提持，轟雷掣電。擬涉思惟，刻舟求劍。顧左右便轉身。

除夜小參。北禪烹白牛分歲。手忙腳亂黃檗閣。拄杖過年藏頭露尾。久參。上士聞與麼道。掉臂而去。後學初機。未免躊躇。還有入此保社者。出來道道看。眾無語。復云。祖師西來。教外別傳。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曹溪云。說個直指早迂曲了也。且說個直指早已迂曲。何況語言文字機境解會者哉。仔細看來。到這裏總用不著。所以山僧單單拈一條榔栗。但有來者便與一錘。直

令七穿八穴。徹骨徹髓。抱恨終身。知恩有日。今夜看來。這一條棒不得動著。動著即禍生。

縣主凌公請小參，師舉：臨濟大師云：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有時一喝如踞地獅子，有時一喝如探竿影草，有時一喝不作一喝用，喝一喝，云：是金剛王寶劍，是踞地獅子，是探竿影草，是一喝不作一喝用。大眾！試判斷看。若判斷得，山僧拄杖子當堂分付，擬議尋思劍去久矣，那更形于問答，涉于語言，彼此置鈍，無有了期。所以山僧尋常向諸人眉睫上輪刀走馬。汝等諸人須向山僧腳跟下斬釘截鐵，兩不相傷，各無防礙，得到與麼田地，正好孤峰頂上罵月呵風，十字街頭拖泥帶水，或順或逆，或抑或揚，激發個事，接引後昆，堪報不報之恩，共助無為之化。且今日山僧與凌公覲面相呈，各出手眼一句作麼生道？玉融風雅千年紹，黃檗山輝一點奇。復喝云：漏逗不少。

下壩築成小，參此數時，有煩諸上人搬泥拽石，神通妙用，不同小小。這邊著實，那邊穩當，兼乃中孚，無有一毫滲漏，自然水到渠成。廣收森羅萬象，直截狂派橫流，不但灌溉生民，亦乃度驢度馬。今日功完果滿，大家一齊放下。末後一著賴有石，將軍無能窺縫罅。

師誕日小參云：生生死死死生生，六道循環夢未醒。今日根塵俱歷落，剛剛日午打三更。諸上座！若會得，日午打三更，意旨便知山僧本命元辰落處，亦知釋迦老子本命元辰落處，亦知古今天下老和尚本命元辰落處，亦知現前諸上座本命元辰落處，所謂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如是山僧慶讚，諸上座亦得。諸上座慶讚，山僧亦得，互為主賓，遞相舉揚，為天人之標榜，作將來之眼目，豈不盡善盡美者哉？且今互相慶讚一句作麼生道？金粟花開黃檗果，不馨香處也馨香。歸方丈。

師為徹志禪人小參云。徹志禪人，去歲參見，禮拜起山，僧攔胸把住云：道！道！志擬對山，僧便推出。下午呈偈，山僧接住，復伸手云：還有麼？志擬對，山僧直打出。次日復呈趙州，勘二庵主頌數次徵詰，至末後一頌，頗愜山僧意。復徵云：今頌得二庵主，又未明那一個？志豎拳山僧云：又在者裏著腳。志云：看破和尚了也。山僧云：看破個甚麼？志云：看破。和尚能殺能活？能縱能奪？山僧云：莫謗山僧好。便推出。今冬復來親覲。未幾，染病沉重，山僧亦病，未曾勘問。早間將終，請首座互公至單前請問，見他答話，有著落處。所以臨末稍頭有一毫受用，預知時至，果到午時坐化。若是業識茫茫者，到此時節，七手八腳，搥胸扼腕不徹，何暇及此？山僧不敢昧他見處，特特對眾舉揚。諸兄弟！且道徹志

禪人遷化後，畢竟向甚麼處去？木人對月明如鏡，鐵馬嘶風吼似雷。歸方丈。

除夜小參。問。臘月三十日到來。如何迴避。師云。祇得腳忙手亂。乃云。斫盡青山沒可把。飄飄脫灑明窗下。年窮歲盡不知春。笑殺東村王大姐。此四句中有一句子。坐斷乾坤。有一句子。賣弄風月。有一句子。今古條鐵有一句子。祖佛莫窺。若人一一明得。敢保萬福。堂前暗合孫吳。於此不明。未免葛藤窠裏之乎也者。諸禪德看看。逗到臘月三十夜來。山僧到這裏。祇德手忙腳亂。汝等諸人又且如何。僧云。爆竹聲聲除舊歲。明朝盡是太平春。師云。丹鳳撩空去。烏龜摸壁行。遂顧大眾云。再道看。眾擬對。師直打散歸室。

小參。僧問：如何是學人入頭處？師打一拂子。進云：如何是出頭處？師擲拂子。進云：恁麼則日應萬機，得自繇去也。師云：退身三步。進云：應用蒙師指，如何是向上一路？師云：合取兩片皮。乃云：十月十有五，把住戴角虎，雖不動毫端，通身遍界露。舉拂子云：會麼？此時若不究根源，莫待他生冤佛祖。

端午小參。此時此日正端陽。小院微風徹骨涼。惟有汨羅江上客。一番提起一悲傷。山僧今日無端將佛法世法盡情漏逗了也。動絃別曲。不妨千載知音。胡喝亂道。驢頭不對馬嘴。正如三家村裏臭老婆鬥廝罵相似。有甚麼交涉。是事且止。動絃別曲一句作麼生道。良久云。愁人莫向愁人說。說向愁人愁斷腸。

小參。僧問。未出方丈作麼生。師云。略較些子。進云。出後作麼生。師云。特地一場愁。僧擬議。師便打。乃云。心隨萬境轉。轉處實能幽。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齋堂前狗子太殺伶俐。聞板聲便覺頭痛。汝等諸人到這裏。為甚麼不肯承當。縱有承當。也是個擔板漢。作麼生道得完全去。顧視大眾云。若將耳聽終難會。眼裏聞聲方始親。

師誕日小參，僧問：今日誕生，如何施禮？師云：一點座中圓行者。問：如何是禪宗正脈？師云：壁立萬仞。進云：如何是淨土彌陀？師云：拖泥帶水。者擬議，師便打，乃豎拂云：四十八年前祇如是，四十八年後亦如是，正當四十八年亦如是。既都如是竟，生處不可得，竟死處不可得，竟不生不死處不可得，竟亦生，亦死處不可得。既都不可得，諸上座向何處慶誕？於此明得，天下老和尚無奈汝何。若也見處，糲糊關津，逗漏炤用，不分主賓，莫辨鋪文章為故事，以佛法當人情，正是閻老子面前喫鐵棒的張本山僧不得不說破。且今諸上座為山僧慶誕，山僧特特小參，酬謝是文章耶？故事耶？佛法耶？人情耶？良久，云：會麼？花中簇錦繡來妙錦上鋪花色更奇。

上梁小參云：托出脊梁橫法界，大開眼目耀乾坤。都盧一座空王殿，八萬四千解脫門。正當與麼時，撐持者撐持，蓋覆者蓋覆。且道阿那個作得其中主？良久，云：兒孫卓立如麻粟，沒量大人獨個尊。喝一喝，轉身晚參云：今宵八月十五，晚參，無勞打鼓，時節因緣到來，自然月圓當戶。正當與麼時，你也一分受用，我也一分受用，你也一分光彩，我也一分光彩，你也沒量罪過，我也沒量罪過。若也緇素分明，黃檗平分半座有麼？有麼？眾默然。師云：竹影掃階塵不動，月穿潭底水無痕。

師誕日小參。僧問。結制半個月。未審水牯牛作麼生。師打云。不得犯人苗稼。乃云。歸元性無二。方便有多門。性既無二，則山僧與諸上座無差。諸上座與山僧無別無差無別。渾然一體。同行同住。同坐同臥。同喫同屙。為甚麼問著十個有五雙。都云不會。蓋為諸上座未曾踏著本地風光。未曾悟得本命元辰。心境兩立。彼此間隔。無同異中熾然成異。所以愈看愈疏轉求轉遠。若能退步一踏。回光一炤。覓其同相了不可得。而況異耶。到這裏佛祖捕覷無門天人讚頌奚及。諸上座又向何處慶誕。西堂云。一人有慶。萬民樂業。師云。庭前生瑞草。好事不如無。便歸方丈。

春日小參。僧問。臘月年老。今朝青春。如何是春。師云。峰巒俱挺秀。進云。某甲騎春牛遊戲去也。師云。腳下又沾泥。乃云。春風來竹戶。春鳥語南枝。一段真消息。明明不我欺。此乃山僧分上事。汝等諸人分上又作麼生。若也薦得。日日風光。時時明媚。左之右之。無往不利。少涉遲疑。山河大地礙汝眼睛。雲騰霧起塞汝鼻孔。春來秋去移汝腳跟。生住異滅。壞汝心源。年久月深。不覺不知。頭白齒黃。三家村裏流俗阿師算將去。誠為可惜。且今竭力挽回一句作麼生道。就路還家春。正開得便宜處。且便宜歸方丈。師至曹山，偶言：此乃曹山禪席，山僧借路經過，豈可撒泥撒沙，埋沒此一片淨地耶？昨因覺予禪人接至國，懼其主，人有忽略之意，山僧遂行至中途，卻遇一隊沒面目漢，攔胸擒至曹山，阿裏亂搦一上。即今又作麼生？開交顧視大眾云：還有相救者麼？眾無語。復云：自跳去也，千重百匝渾閑事，一道昇平處處安便行。至檀度庵居士請小參，僧問：大徹底人因甚命根不斷？師云：青山依舊白雲中。進云：纔到檀度一枝，蠟燭滿臺紅。如何是滿臺紅意旨？師云：切莫眼花。進云：謝和尚指示。師打云：指示個什麼？僧喝，師打問：如何是撥塵見佛？師打云：見麼？進云：問和尚幾時成佛？師又打。進云：為甚麼不肯承當？師打云：怎怪得老僧？乃云：春風浩蕩，和氣藹然，世路崎嶇，茫茫弗覺。林下野人披襟獨得，獨得則不無。祇如過去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又作麼生？莫是得無所得而得麼？直饒與麼會，未免一句合

頭語，萬劫繫驢橛；若不與麼會，業識茫茫，無本可據。作麼生道得恰好去？良久，云：裸形國內誇服飾，想君太煞不知時。復云：閒亭二月草萋萋，夾路桃花浪馬蹄，磕著棒頭一著子，通身紅爛血淋漓。

師到報親寺請小參，云：偶入圭峰古道場，渾身落草細商量。相知不用物多品，一盞松花滿口香。諸禪人會麼？知此一味，百味具足，明此一物，萬物靈然。以此報親，親無不報，以此酬德，德無不酬。悟之者，歷劫受用不盡；迷之者多，生抵債無休。諸禪人！光陰易過，時不待人，何不趁此色身強健，打到徹頭徹尾，不被天下老和尚舌頭瞞去。如未？也須各各咬嚼，看是甚麼味？僧便喝。師云：未在，試道看。僧又喝。師云：三喝後如何？僧云：太多生。師云：三餐茶飯尋嘗事，不是飽參人不知。

師誕日小參云：薄福住村院，寒風疾如箭，四壁沒遮攔，雪珠撲滿面。凍得諸人徹骨徹髓，驅馳衲子，如雷如電個樣沒面目。長老正好拽下，爛搥一頓，以慶所願，那更備辦如許果物以為祝延，致令山僧展轉福薄。福既薄也，壽將安寄？汝等諸人未能脫卻尋嘗故套，又不能如吾所願，直須向自己本命元辰上究竟看。還有生相也無？還有死相也無？還有不生不死相也無？還有亦生亦死相也無？既覓四相，了不可得，有何壽相而可祝哉？大丈夫須具如是，眼目看破世間草屋，瓊樓奚優奚劣？糞衣珍服，何貴何賤？一種平懷，法法成現，壽夭窮通，不隔條線。祖師西來，傳此慧命，以壽後世，東土衲僧，承此源流，普利無窮。且道福嚴接個甚麼？堪受人天慶讚？良久，云：陡亂人間花甲子，都盧千古一長年。

冬至小參。云。群陰剝盡一陽來。一線光明任剪裁。惟有山翁多鹵莽。無陰陽地獨徘徊。大眾會麼。三世諸佛歷代祖師天下老和尚。盡在一線光明裏作大佛事。現前大眾一切生靈。亦在裏許安身立命。且道。山僧為甚麼不在裏許。不是與人難共住。大都緇素要分明。

除夕小參。云。閻老師殿上開個飯舖。直至臘月三十夜來。鬼也沒得上門到好消息。諸人還會麼。家有白澤之圖。必無如是妖怪。到者裏。靜悄悄。綿密密。空蕩蕩赤灑灑。也無人也無佛也無新。也無舊。也無得。也無失也無來。也無去。大悲千眼窺覷無門。三頭六臂撈摸不著。雖然如是。不得住久住久成勞。恐墮無為寂滅之海。急須轉向這邊應個時節始得。且道如何是這邊時節。一聲爆吼虛空裂。磕碎閻羅鼻半邊。

上元小參云：得休休處且休休。何事竟年向外求。各各迴光返照看。誰家堂上沒燈毬。諸人還會麼。時逢泰運。節屆元宵。燈月交輝。人天共慶。觸著毫端大事已竟。山僧今日向諸人固有之中。撥

出一道常光。不妨輝天鑑地。耀古騰今。於中一一世界。一一宮殿。一一眾生。各各六門。放大寶光射入此間。正如寶網交光重重無盡。驀地看來。也是眼中金屬。只如彼此光未發時。無佛無眾生。無見無聞。無覺無知。汝等諸人。將什麼與福嚴相見。一僧云。大家在者裏。師云。坐斷兩條明暗路。不風光處卻風光。便歸方丈。

師到延平象山庵，眾居士請小參云：劍水靜龍睡穩象山秀鳳來棲，阿誰卓立萬峰頂，遍體分明沒點泥。正當此際賓主，圓融我人一致，門內有君子，門外君子至，闡揚佛祖家風，逗漏衲僧巴鼻。且道如何是衲僧巴鼻？僧一喝便出。師云：目富千峰翠胸清，一帶流林日升。請對靈小參云：慎終追遠，已盡孝子之心；超生脫死，方休道人之念。念休則佛道彌隆，心盡則孝行圓滿。是以感格十方海眾，一時雲集，成就不可思議之事。苟非菩薩願力所致，孰能為之？蓋公生平喜怒，哀樂無動於中慈悲喜捨，博施於外，四鄰足法，萬姓沾恩，享壽八十有四，齋戒五十餘年。今值泰運之時，和氣藹然，正念而逝，必超清淨之域，奚用贅言為薦？然則羅漢有出陰之迷，菩薩有隔羅之惑，猶恐微瑕所玷，謹申一偈，聊助末後一段光明。伏惟諦聽！茫茫業識杳無涯，悟者渾成智慧花。炤破本來無一物，翻身便是法王家。敲靈几云：會麼？向這裏入。

訥夫程居士，為乃郎德哥作滿月請小參云：有智不揀，年高無智，徒勞百歲。你看釋迦老子纔出娘胎，便云：天上天下，惟吾獨尊。茲者德哥滿月父母同其皈依三寶，大明國裏能有幾人？殊不知智慧德相本來具足，慈悲喜捨，元自現成，一念返炤，與佛無二。所謂佛者，覺也，法者正也，僧者淨也。一體三寶，圓明如鏡。如是皈依，龍天欽敬。十方諸佛默然許可。現前大眾歡喜印證，聽吾摩頂受記，乃摩頂云：慧根少小，豈尋常得我安？名名自揚，不負山僧親囑付名，成為我作金湯。

臘月十五日小參。云。十五日已前。猛虎踞山邊。十五日已後。毒蛇橫谷口。正當十五日。八面那叉當陽立。汝若進前退後。未免喪身失命。若也不進不退。正是立地死漢。作麼生免得那叉手中棒。乃云。通身在裏許。通身不在裏許。便歸方丈。

孝子程一文請對，靈小參云：人生如夢幻，百歲若須臾，夢破幻無寄，圓明一太虛。曾氏！孺人還曾夢破一回也未？若也夢破，直下便是清淨解脫之場，了無生死迷悟之隔如未。山僧重說，伽陀為汝點破，令汝所向無不自繇自在。自性元無半點玼，隨緣染淨叵思惟，雲開雲合山長在，漚滅漚生海不移。點破業花成慧果，撥開夢眼露全機。善人頓悟個中意，金閣銀樓任所之。

除夕小參。云：去年此際帶累汝等冷冰冰地，滴水滴凍，今年逗到龍泉，瓦解冰消，一滴也無，不獨閻老師摸索不著，乃至三世諸佛窺覷無門，胸中了無滯物，正好過此殘年，你等終日作詩作偈，不乾不淨，擬還閻老師飯錢未夢見在，殊不知正是閻老師殿前喫棒的。張本一字入公門，九牛拖不出。知之一字，眾禍之門。知之一字，眾妙之門，直饒不知，不覺竟日。嘴盧都地，亦是眾禍之根，亦是眾妙之元。倘能剔脫兩重關捩，不妨搥鑼打鼓，過年不為分外。何故？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始信閩南天色暖，季來季去總風光。

常太禪人請小參，師云：三日不談，口生荊棘，三日不相見，莫作等閒看。今日山僧被上座逼個小參，如老鼠入牛角相似，直得鑽研不出，不如舉個古人因緣，與眾兄弟商略。臨濟大師云：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常從汝等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師云：家醜外揚，未免旁觀者哂。時有僧問：如何是無位真人？師云：逐塊不少。濟下禪床擒住云：道！道！師云：割雞焉用牛刀？僧擬議。師云：死貓頭有甚用處？濟托開云：無位真人是個甚麼乾屎橛！師云：自首者，原其罪，雖然蓋覆將來，要且遺臭萬年，致令無位真人至今無出頭分。山僧今日與伊出氣一番，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在汝諸人腳跟下壁立萬仞，已證據未證據，總放一邊，直饒臨濟德山當前，敢保目瞪口呆難難！難阿誰敢動？一毫端，易易易，舉足踏著自家底。且道不難不易又作麼生？且聽山僧頌出。二月江南春正肥，黃鶯樹上弄機系，行人歸去好歸去，莫待青山啼子規。歸方丈。

性派為乃師潔公請小參，師云：一心淨潔大地絕，纖塵一味尋常普。天無二道淨潔，乃成佛之正因，尋嘗係為人之本色，以至忘奇特泯好惡，一賢愚等物，我淨法界證真空，莫非尋嘗淨潔之功歟！所謂萬般施設不如嘗，又不驚人又久長。如常卻似秋風好，無意涼，人人自涼。吾人於此會得，洗清天地一林霜；其或未然，不妨石筍暗抽條然。我潔公耆舊，中年脫白，晚歲入禪，其為性也疏懶，其為德也不形，其為行也平正，其為言也不華，博覽內外典籍而不倦，閒評今古人物以無差，於我法中頗有見處。惜乎老矣！誠難取用，脫若再來，吾當遲汝。果到告寂之時，預乞山僧數言，以證平生之見聞故，聊陳梗概，與眾共知，此便是耆舊尋常受用處。只如不落尋嘗淨潔，又作麼生道？苟能獨步威音外，好向門前應馬牛。

耆舊默公六句請小參云。耳順心通得自繇。隨高就下混同流。等閒坐斷娘生日。巖桂紛紛傳九秋。諸人還知麼。巖桂既也長舌。山僧豈可容默。不妨露個巴鼻。與眾兄弟共相慶讚。豎拂子云。會麼。

百年三萬六千朝。反覆元來是者個。若也會得。慶讚週足。其或未然。且聽下文註腳。然我耆舊默公臘高德重。六十年來。喜怒不形。雖未行腳。撞頭磕額。無非不請之友。咳唾掉臂。盡是無緣之慈。雖未盡師友之道。抑亦不無師友之力也。操持戒行。圓明皎潔。真不愧為僧也。請轉三代法輪。以資二親冥福。是不忘其大本也。發洪誓願。廣度有情。是不捨法界眾生也。聞者遷善改過。動則風行草偃。是有補於皇道也。所謂出家是大丈夫事。非將相之所能為。耆舊與之不其然乎。山僧與麼舉揚。大似負布鼓而過雷門。汝等諸人。電光影裏。同音讚助。又且如何。良久云。五雲堆裏申三祝。突出壽山萬古春。

師到資福寺，良守禪人請小參，云：敲空作響，喚回業識茫茫，指葉為金，流露婆心片片識法，乃能尊法知恩，方解報恩。然則法無定相，作麼生識？恩無形跡，又如何知？苟能於此明得，堪起臨濟之綱宗，可接曹溪之正脈。如未直須離有無之心為心，心心不異，超斷常之見為見。見見無差無差故，高處高平，低處低平；不異也，大則大圓，小則小圓，事事無礙，法法全彰。大似月映澄江，非心應物物常現風清大野，無意涼人人自涼。有時在家舍，不離途中；有時在途中，不離家舍茲者，請陞此座。且道是家舍？是途中一座？巍然千古振門，開四面好青山。

僧惟實為薦，乃尊門頭良大請小參，乃云：門開八字，對南山竟日呆呆，望子還，及至子還君已往，始知恩愛不相關。恩愛既不相關，要山僧薦拔作麼？諸人會麼？父子上山，各自努力，行到水窮山盡處，敢保爹來也不識。雖然不識，謾他一點不得。何故？為伊竟日門頭戶底打掃的淨潔覷捕的分明。凡來聖來，請陞最上之級，賢到愚到，引入不二之門，廣納大方，迎送有禮開閉，以時洒掃合節，能事已畢，撒手歸去。所謂山門頭打掃淨潔，便知水窮處消息，水窮處分明，便知山門頭景。況天光下臨地德上載天地位否？地天乃泰，上下交輝，圓明無礙，良大良大果證得者個地位，則生死去來，自繇自在。其或未然，山僧再垂方便，以全其美，震聲喝一喝，云：會麼？白日青天霹靂聲，狸奴產下玉麒麟，一毛頭上翻身轉四海，恩波盡坦平便轉身。

冬至小參。僧問。日用中那個是我主人公。師打云。禮拜著。僧禮拜云。謝師荅話。師云。隨語生解漢。乃云。一氣氤氳萬靈景仰。句下無私。言中有響。小人道消。君子道長。報道陽春那畔來。風光已占梅梢上。正當與麼時。好與三十大棒。何故不合已隨群陰而去。又逐一陽而來。催得天下人頭白齒黃。眼睛落地。業識茫茫。無本可據。若是英氣衲僧。孤迥迥峭巍巍。不與萬法為侶。不共諸塵作對。陰陽未判之先。一坐坐斷。敢保碧眼黃頭無處摸索。德山

臨濟棒喝不入天下老和尚。展盡神通。用盡伎倆。只在門外之邊。乃至人天奉供無門。猿鳥獻花無路。綿綿密密不通風。正是五家所共宗。放開線道兒孫事。葉葉枝枝分淡濃。豎拂子云。諸人會麼。惟有這條真正脈。流傳萬古永無窮。師回獅巖。遼天居首座。慧門沛公同眾請小參。師云。無端卓錫傍僊家。惹得渾身是紫霞。就石尋源窮鳥道。滿巖繚繞散天花。禎祥既現。靈氣所鍾。石竹林間真棲美境。青松巖下別一洞天。雙溪水遶龍蛇動。萬點峰朝佛祖關。自得於中無限妙趣。頻來個裏。愈見風光。十五年前點鐵成金。重樓傑閣一時幻出。十五年後敲邪打正。驢兒馬子四面雲臻。逼得山僧口閣。壁上鼻孔遼天。眼空四海。舌覆大千。只得無言可對。無理可伸。如何得個轉身句子以赴來機。吾人於此道得一句相應。便是返擲獅子。其或未然。山僧按下雲頭。俯觀濁世去也。誰知赤心片片。活埋萬頃煙波。業識茫茫。生陷無邊苦海。且道。有何法力。出脫苦海破除煙波。以至清淨之域。而登解脫之場。喝一喝云。出也出也破也破也。還信得及麼。舌卷迅雷醒客夢杖挑杲日曉愚蒙道。是賓耶還作主。何妨下榻待諸公。

除夕小參。云：竟日說禪說道，作詩作偈，逞盡伎倆，展盡神通，逗到臘月三十日來一字，也用不著大事，為汝不得小事自己支當，各各迴光返照看，了無一物送殘年，山童放爆驚山鬼，彈破娘生鼻半邊，鼻頭既破，不成面門。雖然如是，不妨因事長智上，與三世諸佛同一鼻孔出氣，下與六道眾生共一鼻孔，通風年來，年去淨如洗動，著毫端礙碧空。

師到資福寺請小參云：良守禪侄，禁足未滿，千日聞予南遊，即開禁出山，迎接歸寺，略其小節而全大體，仍請山僧小參以慰大眾。余雖朽拙，豈可吝其法施而卻至誠耶？聊敘數言，伏惟淨眾各各諦聽。一鑿生涯，翻盡本來清淨地；半瓢活計，頻添無量福田家。耕雲鋤月，功不浪施，帶水拖泥，福歸有地。令方來龍象箇箇飽齣，使諸上善人俱來資福，所謂種田博飯。尋常事，不是飽參人，不知是事姑置，只如斬釘截鐵漢子，驅耕奪食，手段到來，如何施設？豎拂子云：會麼？覲面揚鞭千里震，鐵牛驚跳出欄圈。

葉善祐居士薦考請小參。師云。天上神仙府，人間宰相家路頭看得破，來去摠無差。苟無差也。便知因緣和合而生。生即無生。因緣離別而滅。滅即無滅。無生無滅，見本來是則名為觀自在。故能居富貴之中。不為富貴之所羅籠臨生死之際，不為生死之所障礙。塵塵剎剎展演三昧。在在處處遊戲神通。百花叢裏葉不沾身。千佛場中儼然一數。了卻世緣，還菩薩債。愛情盡處道心現，當念超登九品蓮。山僧與麼舉揚，還當得薦拔也未？紫薇頂上靈根草，不借春風花亦開。

隱元禪師語錄卷第八終

源流頌

第一世南嶽讓禪師，詣曹溪，參六祖，祖問：甚處來？師曰：嵩山來。祖曰：什麼物恁麼來？師無語。遂經八載，忽然有省，乃白祖曰：某甲有個會處。祖曰：作麼生會？師曰：說似一物即不中。祖曰：還假修證否？師曰：修證即不無，染污即不得。祖曰：祇此不染污是諸佛之所護念。汝既如是，吾亦如是。頌云：

打翻八載舊公案，掇出當人腦後腮。赤骨律，絕安排，耀古騰今正眼開。

第二世馬祖一禪師在衡嶽，常習坐禪，讓和尚知是法器來，問曰：坐禪圖作什麼？師曰：圖作佛。讓乃取一磚於菴前石上磨，師曰：磨作什麼？讓曰：磨作鏡。師曰：磨磚豈得成鏡？讓曰：磨磚既不成鏡，坐禪豈得作佛？師曰：如何即是？讓曰：如牛駕車，車若不行，打車即是？打牛即是？師無對。讓示偈曰：心地含諸種，遇澤悉皆萌。三昧華無相，何壞復何成？師蒙開悟，心意豁然。頌云：

病處下鉤痛處錐，車牛打動轉風規，轟轟踏殺人無數，得力還他腦後槌。

第三世百丈海禪師，參馬祖，侍行次，見一群野鴨飛過，祖曰：是什麼？師曰：野鴨子。祖曰：甚處去？師曰：飛過去也。祖遂扭師鼻，負痛失聲，祖曰：又道飛過去也？師於言下有省。次日，祖陞堂，眾纔集，師出卷卻席，祖便下座，師隨至方丈，祖曰：我適來未曾說話，汝為甚便卷卻席？師曰：昨日被和尚擗得鼻頭痛。祖曰：汝昨日向甚處留心？師曰：今日鼻頭又不痛也。祖曰：汝深明昨日事。頌云：

距爪鋒鋸不異常，面門一掣便超方，從茲日用家風振，哭笑拈提鼻孔昂。

第四世黃檗運禪師，參馬祖，值祖遷化。時百丈廬于塔傍，師乃請問：祖平日得力句，丈舉再參因緣言：老僧昔被馬大師一喝，直得三日耳聾。師聞舉，不覺吐舌。百丈曰：子已後莫承嗣馬祖去麼？師曰：不然。今日因師舉，得見馬祖大機之用，然且不識馬祖；若嗣馬祖，已後喪我兒孫。丈曰：如是！如是！見與師齊，減師半德；見過於師，方堪傳受。子甚有超師之見。一日，丈問：甚處來？師曰：大雄山下採菌子來。丈曰：還見大虫麼？師作虎聲，丈拈斧作

斫勢；師打丈一擱，丈吟吟而笑，遂歸。上堂曰：大雄山下有一大虫，汝等諸人也須好看，百丈老人今日親遭一口。頌云：

一喝耳聾脫體彰，舌頭拖出斷人腸，超師機用臨時活，勝敵威憚露爪長。

第五世臨濟玄禪師，在黃檗會中，時陸州為首座，勉令問黃檗：如何是佛法的的大意？檗便打。如是三問，三度被打，遂辭檗參大愚，愚問：甚處來？師曰：黃檗。愚曰：黃檗有何言句？師遂舉前話，復云：不知某甲有過無過。愚曰：黃檗恁麼老婆，為汝徹困，猶覓過在。師於言下大悟，云：元來黃檗佛法無多子。愚擗住曰：者尿床鬼子！適來道有過，無過如今又道：佛法無多子，汝見個什麼道理？速道！速道！師於愚肋下築三拳，愚拓開曰：汝師黃檗，非干我事。師回黃檗舉前話，檗曰：大愚老漢饒舌，待來痛與一頓。師曰：說甚待來，即今便打。隨後一掌。檗曰：者風顛漢來者裏捋虎鬚。師便喝。檗曰：侍者！引者風顛漢參堂去。頌云：

六十山藤敲不惺，一言撥動始知歸，還拳便掌風顛掣，坐斷乾坤獨震威。

第六世興化獎禪師。初為臨濟侍者。後在三聖會裏。嘗曰。我向南方行腳一遭。拄杖頭不曾撥著一個會佛法底人。聖聞得問曰。汝具個什麼眼。便恁麼道。師便喝。聖曰。須是汝始得。後又到大覺為院主。一日覺曰。聞汝道。向南方行腳一遭。拄杖頭不曾撥著一個會佛法底人。汝憑個什麼道理與麼道。師喝，覺便打，師又喝，覺又打。來日從法堂過，覺召：院主！我直下疑汝。昨日者兩喝。師復喝，覺又打，師再喝，覺又打。師曰：某甲於三聖師兄處學得個賓主句，總被師兄折倒了也。願與某甲個安樂法門。覺曰：者瞎漢！來者裏納敗闕。脫下衲衣痛與一頓。師於言下薦得臨濟先師於黃檗處喫痛棒底道理。開堂日拈香云：此炷香本為三聖師兄，三聖於我太孤本為大覺師兄大覺於我太賒。不如供養臨濟先師頌云：

主賓棒喝滑如流，折倒供招卻害羞，棒下頓明親的旨，一香拈出有來繇。

第七世南院顛禪師，上堂云：赤肉團上，壁立千仞。時有僧問：赤肉團上，壁立千仞，豈不是和尚道？師曰：是。僧便掀倒禪床。師曰：汝看這瞎驢亂作。僧擬議，師便打趁。頌云：

千仞壁立赤肉團，直透毘盧頂上關，掀倒禪床誇好手，雷轟擬議隔千山。

第八世風穴沼禪師，參南院，院問：南方一棒作麼商量？師曰：作奇特商量。師卻問：和尚此間一棒作麼商量？院拈拄杖曰：棒下無生忍，臨機不見師。師於言下大徹玄旨。李使君守郢州請師上堂云：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祇如不去不

住，印即是？不印即是？時盧陂長老出問：某甲有鐵牛之機，請師不搭印。師曰：慣釣鯨鯢澄巨浸，卻嗟蛙步[馬*展]泥沙。陂佇思，師喝曰：長老何不進語？陂擬議，師打一拂子曰：還記得話頭麼？試舉看。陂擬開口，師又打一拂子。牧主曰：信知佛法與王法一般。師曰：見何道理？牧主曰：當斷不斷，反招其亂。師便下座。頌云：

大徹無生棒下翻，師資道合赤團圓，單提一個鐵牛印，百怪千妖沒處鑽。

第九世首山念禪師，晚居風穴，會中穴，勉擔荷大法。師曰：願聞其要。穴遂上堂，舉世尊以青蓮目顧視大眾，乃曰：正當恁麼時，且道說個什麼？若道不說而說，又是埋沒先聖。且道說個什麼？師乃拂袖下去，穴擲拄杖歸方丈。侍僧問曰：念法華因甚不祇對和尚？穴曰：念法華會也。次日，與真園頭同上問訊穴曰：作麼生是世尊不說說？真曰：鵝鳩樹頭鳴。穴曰：汝作許多癡福作麼？何不體究言句？又問師，師曰：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穴謂真曰：何不看念法華下語？頌云：

撥動秋波擲釣鉤，不貪香餌自昂頭。闡揚古路動容旨，煙雨堆中豁兩眸。

第十世汾陽昭禪師，歷參知識七十一員。後到首山，問：百丈卷席，意旨如何？山曰：龍袖拂開全體現。師曰：師意如何？山曰：象王行處絕狐蹤。師於言下大悟，云：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有問曰：見何道理便爾自肯？師曰：正是我放身命處。師頌三玄三要曰：三玄三要事難分，得意忘言道易親。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日菊花新。頌云：

磨裙擦褲入無門，體露象王脫見聞，一句了然超百億，放身命處獨為尊。

第十一世石霜圓禪師謁汾陽經二年，未許入室，每見必詬罵。一日，訴曰：自至法席，不蒙指示。念歲月飄忽，已事未明，有失出家之利。語未卒，汾叱曰：是惡知識，敢裨販我！怒舉杖逐之，師擬伸球，汾掩其口，乃大悟，曰：是知臨濟道出嘗情。師後室中插劍一口，以草鞋一雙，水一盆置在劍邊，每見人入室，即曰：看看！有至劍邊擬議者，師曰：險！喪身失命了也。便喝出。頌云：

惡辣鉗鎚作者機，一番風雨一驚疑，平嘗有理無伸處，掩口冰消始得知。

第十二世楊岐會禪師，參慈明總院事，每咨參，明曰：庫司事繁，且去。他日又問明曰：監院異時，兒孫遍天下在，何用忙為？一日明出，師偵之，小徑搗住曰：者老漢今日須與我說，不說打汝去。明曰：知是般事便休。語未卒，師大悟。一日，明上堂，師問：幽

鳥語喃喃，辭雲入亂峰時如何？明曰：我行荒草裏，汝又入深村。師曰：官不容針，更借一問。明便喝。師曰：好喝。明又喝，師亦喝；明連喝兩喝，師禮拜。明曰：此事是個人，方能擔荷。師拂袖便行。頌云：

挺出孤標橫夾道，行人個個避荒草。忽然破綻起春風，狼籍枝頭何處掃？

第十三世白雲端禪師參揚，岐岐問：受業師為誰？師曰：茶陵郁和尚。岐曰：聞伊過橋遭顛有省，作偈甚奇，能記否？師誦偈，岐笑而趨起，師愕然，通夕不寐。黎明咨詢之，岐曰：汝見昨日打毆儼者麼？師曰：見。岐曰：汝一籌不及渠。師復駭曰：意旨如何？岐曰：渠愛人笑，汝怕人笑。師大悟。頌云：

殺活鋒鋌笑裏刀，愕然通夕豎寒毛。一籌提省娘生面，特地春風瞥我曹。

第十四世五祖演禪師參白雲，遂問南泉摩尼珠話，雲叱之，師領悟，獻投機偈曰：山前一片閒田地，叉手叮嚀問祖翁。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雲特印可，令掌磨事。未幾，雲語曰：有數禪客自廬山來，皆有悟入處，教伊說亦說得，有來繇舉因緣，問伊亦明得，教伊下語亦下得，祇是未在。師遂疑，私自計曰：既悟了明得，說得如何卻未在？參究累日，忽然省悟，從前寶惜一時放下，走見白雲，雲為手舞足蹈師後曰：吾因茲出得一身白汗，便明得下載清風。頌云：

半鉤明月人皆見，下載清風若個知。拋卻從前無價寶，通身慶快笑怡怡。

第十五世圓悟勤禪師為五祖侍者。一日，部使詣祖問道，祖曰：提刑少年曾讀小艷詩否？有兩句頗相近，頻呼小玉元無事，只要檀郎認得聲。部使應喏喏。祖曰：且仔細。師侍立次，問曰：提刑會否？師曰：他祇認得聲。師曰：祇要檀郎認得聲，他既認得聲，為甚卻不是？祖曰：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響？師忽有省，遽出見雞飛上欄干，鼓翅而鳴，乃曰：此豈不是聲？遂呈偈曰：金鴨香銷錦繡幃，笙歌叢裏醉扶歸。少年一段風流事，祇許佳人獨自知。祖遍謂山中耆宿曰：我侍者參得禪也。頌云：

金雞鼓唱玉欄干，蓋色騎聲正眼端，者段風流親看破，從今不被瞎驢瞞。

第十六世虎丘隆禪師，謁圓悟，悟問：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舉拳云：還見麼？師曰：見。悟曰：頭上安頭。師聞，脫然契證。悟叱曰：見個甚麼道理？師曰：竹密不妨流水過。悟肯之。有問曰：隆藏主柔易若此，何能為哉？悟曰：瞌睡虎耳。頌云：

脫然契證密施為，卓破乾坤不露錐。夜靜虛堂人睡穩，無勞明月再來窺。

第十七世應菴華禪師，見虎丘侍行半載，頓明大事。丘忌日，師拈香云：平生沒興撞著者，無意智老和尚，做盡伎倆，湊泊不得，從此卸卻干戈，隨分著衣喫飯。二十年來，坐曲条木，懸羊頭，賣狗肉，知他有甚憑據？雖然，一年一度燒香日，千古令人恨轉深。頌云：

無意智人不近情，卸扭脫枷天下平。嘗憶前村煙塢裏，年年此日亂啼鶯。

第十八世密菴傑禪師，參應菴，一日菴問：如何是正法眼？師遽荅曰：破沙盆。菴頷之。未幾，辭白省，覲菴以偈送曰：大徹投機句，當陽廓頂門。相從今四載，徵詰洞無痕。雖未付鉢袋，氣宇吞乾坤，卻把正法眼，喚作破沙盆。此行將省覲，切忌便躲跟。吾有末後句，待歸要汝遵。頌云：

七花八裂破沙盆，擲出當陽惟獨尊。力拔山兮將不去，分明千古累兒孫。

第十九世破菴先禪師，參密菴菴，住靈隱師分座，有道者請益曰：胡孫子捉不住，願垂開示。師曰：用捉作麼？如風吹水，自然成文。頌云：

胡孫[跳-兆+孛]跳尾連顛，放去頭頭契本然。倒腹為君註破了，現成公案莫鉤牽。

第二十世無準範禪師，初謁育王佛，炤炤問：何處人？師曰：劍州炤。曰：帶得劍來麼？師隨聲便喝。炤笑曰：者烏頭子也。亂作。後至靈隱破菴居第一座，同遊石筍庵。有道者請益胡孫子話，師於侍傍大悟。後開法一香，供破菴頌云：

竹竿打水魚頭痛，不犯鉤錐豈醜甕？擺尾搖頭破浪遊，翻身自有風雷送。

第二十一世雪巖欽禪師，在無準會下，每遇入室，舉主人公，便可[跳-兆+孛]跳，舉衲僧巴鼻，佛祖爪牙更無下口處，此病礙在胸中。十年後到浙東天育兩山，偶佛殿前行，忽然抬眸，見一株古柏，觸著向來所得境界，和底一時颺下，礙膺之物撲然而散。始見徑山老人立地處，正好三十拄杖頌云：

爪牙巴鼻礙胸中，十載區區煙雨籠，觸著參天柏樹子，豁然迸出一輪紅。

第二十二世高峰妙禪師謁雪巖，纔問訊，被打出後凡入門，巖便問：誰與汝拖？者死屍來，隨即打出。後因睹五祖真贊，忽然打破疑情。一日，巖問：日間浩浩時作得主麼？師曰：作得主。巖曰：睡夢中作得主麼？師曰：作得主。巖曰：正睡著時，無夢無想、無

見、無聞，主在什麼處？師無對，遂奮志入龍鬚。越五載，偶同宿友推枕墮地作聲，廓然大徹，自謂如在網羅中跳出，元來祇是舊時人，不改舊時行履處。自此安邦定國，天下太平，一念無為，十方坐斷。頌云：

無想主翁覓不得，翻來覆去被他惑，一聲枕子廓雙眸，跳出元來是者賊。

第二十三世中峰本禪師，因觀流泉有省，詣高峰求證，峰打趁出。既而民間訛，傳官選童男女，師問：忽有人來問：和尚討童男女時如何？峰曰：我但度竹篋子與他。師於言下洞然徹去。底源峰書真贊付，師曰：我相不思議，佛祖莫能視，獨許不肖兒，見得半邊鼻。頌云：

拈箇竹篋度與他，忽然彈破半邊牙，生成出格風流子，打統乾坤作一家。

第二十四世千巖長禪師，見中峰，峰問：日用如何？師曰：念佛。峰曰：佛今何在？師擬議，峰厲聲斥之。師求示法要，峰授以狗子無佛性話三年，因往望亭，聞雀聲有省，峰復斥之，師憤然。夜半，忽鼠翻食，貓器墮地有聲，忽然開悟，覺身躍起，數丈如蟬。蛻汗濁之中，浮游玄間，天地一時。清朗復往質峰，峰問：趙州何故云無？師曰：鼠食貓飯。峰曰：未也。師曰：飯器破矣。峰曰：破後如何？師曰：築碎方巖。峰乃微笑。頌云：

偷心死在器掀翻，突出虛空珠走盤，千聖當前迷出處，全無蹤跡與人看。

第二十五世萬峰蔚禪師謁千巖，巖便問：將什麼與老僧相見？師豎拳云：者裏與和尚相見。巖曰：死了燒了，向何處安身立命？師曰：漚生漚滅水，還在風息波。平月映潭巖。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個什麼？師以坐具打一圓相，叉手而立。一日，普請斫松，師拈圓石作獻珠狀曰：請師酬價。巖曰：不值半文錢。師曰：瞎。巖曰：我也瞎汝也瞎。師曰：瞎。瞎巖命師充第一座。一日，巖上堂，舉：無風荷葉，動必定有魚行。師震威一喝，拂袖便行。巖示偈曰：鬱鬱黃花滿日秋，白雲端坐碧峰頭。無賓主句輕拈出，一喝千江水逆流。頌云：

態作獻珠謀酬價，分文不值主賓周，等閒坐斷孤峰頂，一喝轟天海嶽收。

第二十六世寶藏持禪師，久依萬峰峰付師，偈曰：大愚肋下痛還拳，三要三玄絕正偏。臨濟窟中獅子子，燈燈續燄古今傳。頌云：

三玄三要旨，端的痛還拳，料揀無差異，燈燈終不昏。

第二十七世東明昂禪師，因睹松有省，見寶藏具陳悟，因藏斥之，遂親炙座下。一日，藏問：心不是佛，智不是道，汝云何會？師向

前問訊，叉手而立。藏呵曰：汝在此許多時，還作者個見解。師乃發憤。至第二日，驀然徹法源底，遂呈偈曰：一拳打破太虛空，百億須彌不露蹤。借問個中誰是主，扶桑湧出一輪紅。頌云：

驀然徹底始知安，海嶽晴空盡打翻。世界平沉無可據，孤光閃爍露倪端。

第二十八世海舟慈禪師，初於萬峰機下有省，遂廬于洞庭山。後一僧呵其見解，師即棄菴詣東。明一日，明問：曾見人否？師曰：見萬峰明曰：萬峰即今在什麼處？師罔然。明曰：恁麼則何曾見萬峰？師歸寮，三晝夜，寢食俱忘，偶香燈繩斷墮地，廓然大悟。詣關前呈悟繇，明曰：老闍黎！承嗣萬峰去。師曰：和尚為我打徹，豈得承嗣萬峰？明遂出關，陞座曰：瞿曇有意向誰傳？迦葉無端開笑顏。到此豈容七佛長？文殊面赤也茫然。今朝好笑東明事，千古令人費唾涎。幸得海公忘我我，濟宗一脈續綿綿。擲拄杖云：千觔擔子方全付，玄要如今拄杖談。以拂子擊三擊，下座。頌云：

痛領萬峰白棒痕，洞庭搖拽小乾坤。無端一陣業風起，浪拍孤舟過海門。

第二十九世寶峰瑄禪師，因海舟造塔院斧傷足有省，乃充火頭。一日，負柴舟見，曰：將荊棘去作甚麼？師曰：是柴舟。呵呵大笑，師罔然。舟曰：是柴將去？燒卻。師遂起疑曰：和尚畢竟是個什麼道理？故爾問我是夕刻意參究，不覺被火燎去，眉毛面如刀割。以鏡炤之，豁然大悟，作偈呈舟，舟便打。師奪拄杖曰：者條六尺竿，幾年不用今日，又要重拈舟大笑。師又呈偈曰：棒頭著處血痕斑，笑裏藏刀仔細看。不是英靈真漢子，死人喫棒舞喃喃。舟曰：即此偈語，可紹吾宗。頌云：

虎頭關上掛鉗鎚，莫道人驚鬼亦悲，更拽爐湯業鏡後，如何存得兩莖眉。

第三十世天奇瑞禪師，參寶峰，峰問：甚處來？師曰：北京。曰：別有去處麼？師曰：隨方瀟灑。曰：曾到四川否？師曰到，曰：四川境界與此間如何？師曰：江山雖異，風月一般。寶豎拳曰：還有這個麼？師曰：無。曰：因甚卻無？師曰：非我境界。曰：如何是汝境界？師曰：諸佛不能識，誰敢強安名？曰：汝豈不是著空？師曰：終不向鬼窟裏作活計。曰：西天九十六種外道，汝是第一。師拂袖便行。寶乃付偈曰：濟山棒喝如輕觸，殺活從茲手眼親。聖解凡情俱坐斷，曇花猶放一枝新。頌云：

打破著空窟，掀開六一儔，縱橫瀟灑去，脫體自昂頭。

第三十一世絕學聰禪師，依天奇奇，問：苦樂皆心，因何外取？師曰：祇為不了。曰：是非皆事，因何妄承？師曰：錯認定盤星。曰：迷悟皆人，因何不懂？師曰：早知燈是火，豈向四方求奇？乃

付偈曰：道者心同慈嫗心，爭教赤子困群陰。輔成架海金樑子，佛缺方知補浩任。師後居龍泉寺，有僧問：如何是本來面目？師曰：石香亭。僧云：便恁麼去時如何？師曰：喪卻了也。僧問：今朝孟夏八日，天下叢林皆慶如來降誕之辰，未審如來何處降生？師於几上畫個圓相頌云：

南海波斯鼻孔焦，眼空不被舌頭搖，渾身赤骨條條露，險徑相逢接斷橋。

第三十二世笑巖寶禪師，參絕學便問：十聖三賢已全聖智，如何道不明斯旨？學厲聲曰：十聖三賢爾已知，如何是斯旨速道！師下語不契。一日，洗菜次，偶一莖菜墮水逐水，圍轉捉不著，忽有省，遂攜籃歸學見，便問：是什麼？師曰：一籃菜。學曰：何不別道一句？師曰：請和尚別問來。後與學圍爐次，學曰：人人有個本來父母，子之父母今在何處？師曰：一火焚之。學曰：恁麼則子無父母耶？師曰：有，即有佛眼覷不見。學曰：子還見麼？師曰：某亦不見。學曰：為什麼不見？師曰：若見，則非真父母遂呈偈曰：本來真父母，歷劫不曾離。起坐承他力，寒溫亦共知。相逢不相見，相見不相識。為問今何在？分明舉似師。學深肯之。頌云：

中流勘破較些些，那更拈提舉似爺？覷面風光猶自可，到頭霜月落誰家？

第三十三世幻有傳禪師，聞燈花爆聲有省，直造北方，參笑巖求證。巖曰：汝將從前得力處一一說來。師具實荅語。中間巖驀趨出鞋曰：向者裏道一句看。遂把師話，端一齊打斷，師通夕不寐，明晨佇立簷下。巖見喚師，師回顧，巖翹一足，作修羅障日月勢，師當下脫然。一日，巖入堂曰：我者拄杖要與人有要底麼？首座曰：某甲要。巖曰：汝要作麼？座曰：要他鏟斷天下人舌根。巖以杖架肩曰：柳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師躍然下禪床曰：恁麼須分付某甲往前迎取。巖笑曰：汝當久久執持一番，始可打草去也。乃贈一笠曰：以此覆之，無露圭角。頌云：

中途按劍截機關，喚得回頭省舊顏，八字打開兩手付，一肩擔荷入千山。

第三十四世密雲悟禪師，因挑柴過一山灣，見一堆柴突露面前，忽有省，遂依幻有和尚，脫白請益，幻幻曰：汝若到者田地，便放身倒臥。嗣後惟加罵詈，師慚悶交感。一日，城歸，過桐棺山頂，忽覺情與無情煥然等現，正所謂大地平沉底境界。時幻遷北京，乃往覲，幻問：汝有新會處麼？師曰：一人有慶，萬民樂業。幻曰：汝又作麼生？師曰：某甲得得來，省覲和尚。幻曰：念子遠來，放汝三十棒。師抽身便出。一日，幻問：忽有人問，汝如何祇對？師驀豎拳。幻曰：老僧不曉，得者是什麼意思？師曰：莫道和尚不曉

得，三世諸佛也不曉得。又一日，幻舉拂問：諸方還有者個麼？師震威一喝。幻曰：好一喝。師連喝，兩喝歸位。幻囑師扶佛法，師呈偈曰：若據某甲扶佛法，任他○○○○○，都來總與三十棒，莫道分明為賞罰。頌云：

進步竿頭海嶽翻，有無情現一倪端。豎拳兩喝出堂去，凜凜霜風徹膽寒。

第三十五世費隱容禪師，初參壽昌博山及雲門，皆不能了手。有偈見志曰：吾年二十五，氣海吞佛祖。不過古人關，豈踏今時路。後聞密雲和尚過，越寓吼，山遂謁，便問：覲面相提事若何？雲以番菩提，珠便打。師曰：錯。雲又打，師便喝，雲祇管打，師祇管喝。至第七打頭顱幾裂，所有伎倆知見，一切冰釋，直下似塊鈍鐵。一日雲問：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汝作麼生會？師曰：水向石邊流出冷，風從花裏過來香。雲曰：離了此又作麼生？師曰：放和尚三十棒。雲曰：除卻棒又作麼生？師便喝。雲曰：喝後響？師曰：更要重說偈言。雲便休去。頌云：

大用大機狹路逢，頂門劈裂見全功，生平伎倆冰消盡，迸出一團遍界紅。

隱元禪師語錄卷第九終

頌古

世尊拈花

花中有刺，笑裏藏刀。機鋒相觸，鬼哭神號。莫謂人天皆罔措，流傳耳口轉腥臊。

世尊涅槃

出醜摸胸態，憐兒不覺生，臨行伸兩腳，踏卻斷嘗坑。

傅大士一日披衲，頂冠鞞履，朝見梁武帝，帝問：是僧耶？士以手指冠。帝云：是道耶？士以手指鞞履。帝云：是俗耶？士以手指衲衣。

道冠儒履佛袈裟，問的分明指不差，華屋三間留不住，拖泥帶水入皇家。

女子出定

三五成群，夜聚曉散，出入非嘗，陷人塗炭。水天一色兮玉笛橫吹，煙迷兩岸兮長吁短嘆。

懶融百鳥不銜花

一片花飛減卻春，馨香浪籍更愁人。東君去也枝頭靜，蛺蝶遊蜂何處尋？

馬祖不安，院主問：和尚近日尊位如何？祖曰：日面佛、月面佛。

日面佛爍破臉皮渾是骨；月面佛，一箭清光射入屋。此時花柳正芬芳，不遇攀郎生受屈。

清源因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廬陵米作麼價？

有貨不愁人無錢生驚怕。作麼價？作麼價？人人鼻孔下頭大。

首山拈竹篋示眾曰：汝諸人若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汝諸人且道喚作甚麼？速道！速道！

竹篋未舉已相通，觸背兩頭太朦朧，分付石人休打草，鐵蛇不在此山中。

天台蓮花峰菴主，示寂日，拈拄杖示眾曰：古人到這裏，為甚麼不肯住？眾無對。師乃曰：為他途路不得力。復曰：畢竟如何？以杖橫肩曰：榔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言畢而逝。

拈來擔去太分明，餓眼如何見得清？風捲殘雲山色瘦，蓮花頂上有人行。

婆子燒菴

正當與麼露，堂堂不是吾人，孰敢當二十年前家醜事，一時焚卻播諸方。

子湖看狗

子湖惡狗鎮當門，佛祖都來一口吞，拚得一條窮性命，不妨報答畜生恩。

夾山參船子

一帶清江泛小舟，漁郎拋釣未曾休，一橈點破金鱗眼，湧出洪波四海流。

趙州因尼問：如何是密密意？師以手掐之。尼曰：和尚猶有這個在。

密密意如何說？隨手輕輕便掐著，不意尼師情未瞥，擬將窗下又敲月。

趙州與文遠論義曰：鬥劣不鬥勝，勝者輸果子。遠曰：請和尚立義。師曰：我是一頭驢。遠曰：我是驢胃。師曰：我是驢糞。遠曰：我是糞中蟲。師曰：你在彼中作麼？遠曰：我在彼中過夏。師曰：把將果子來。

潦倒教兒退步強，蹇驢糞裏卸刀鎗，雖然得勝歸來日，千古腥臊不可嘗。

趙州因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曰：老僧在青州作一領布衫重七觔。

法法從來不自忙，家人無故喊郎當，知音可意歸何處，細雨窗前淚兩行。

趙州到一菴主處，問：有麼？有麼？主豎起拳頭。師曰：水淺不是泊船處。便行。又到一菴主處問：有麼？有麼？主亦豎起拳頭。師曰：能縱能奪，能殺能活。便作禮。

一葉輕舟兩岸流，放來收去自悠悠，蟠龍不愛雙門餌，任汝滄浪下月鉤。

趙州因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師曰：無。

出門遇莽鹵斷絕去來路欲舉，足怕韓盧咄。枝頭弄千嬌，一任春風舞。

俱胝豎指

俱胝得一指頭禪，下拄地兮上拄天。莽鹵衲僧無忌諱，撐撐拄拄到驢年。

德山托鉢

托出托入，時人罔措。密啟分明，同坑一土。會也未會無孔鎚，等閑打殺人無數。

洞山初秋

送君疋馬出皇都，踏遍荒郊，寸草無欲。過大同關子外也須肘後有靈符。

香巖擊竹

恍惚依稀二十秋，舌頭浪湧迅如流。偶然擊碎南山竹，萬古絃歌一韻收。

南泉云：馬祖說即心即佛。王老師不恁麼說，不是心，不是佛，不是物。

不是心兮不是佛，明明披露黃金骨，一陣西風那畔來，幾多愁鳥啼幽谷。

南泉斬貓

持起明明無覆藏，謾他一隊啞郎當，不因新婦戴鞋子，誰識婆婆兩腳長？

三頓棒

佛法的的意如何？三、頓為他徹也麼？直至大愚輕洩後，惡風流布滿江河。

靈雲見桃花悟道，偈云：三十年來尋劍客，幾回落葉又抽枝。自從一見桃花後，直至而今更不疑。玄沙云：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

三十年前讀者也，而今方解道周之桃邊擲，瞎靈雲眼花下行人那得知？

佛果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云：東山水上行。天寧即不然，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

薰風纔動頂門開，白玉階前長綠苔，路上行人俱滑殺，弓弦走馬卻歸來。

薰風南來，寒毛卓豎，擬涉思惟，無本可據。

黃龍室中嘗問僧曰：人人盡有生緣，上座生緣在何處？正當問答。復伸手曰：我手何似佛手？僧擬答，卻復垂腳曰：我腳何似驢腳？三十餘年示此三問，學者莫有契其旨，叢林目之為黃龍三關。

我手何似佛手？這箇阿誰沒有翻轉本來面目，笑渠又不知醜。

我腳何似驢腳，何必人前伸縮？未過黃龍關子，不妨被他礙卻。

人人有個生緣，鐵壁銀山眼前拶出虛空骨髓，當下別有青天。

雪峰因三聖問：透網金鱗以何為食？師曰：待汝出網來，向汝道。聖曰：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師曰：老僧住持事繁。

峻層山勢來高古，隱隱溪聲流轉長，寄語金鱗休擺尾，誰家池內沒鴛鴦？

鹽官一日喚侍者曰：將犀牛扇子？夾者曰：破也。師曰：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者無對。

犀牛扇既破，頭角已全彰，不解牽將去，默地淚亡羊。

中邑獼猴

老狐出語忒輕欺，返被狺狺換卻眉。不是草堂春夢醒，那知窗外月高低？

魯祖尋常見僧來便面壁，南泉聞，曰：我尋嘗向師僧道：向佛未出世時會取，尚不得一個半個。他恁麼，驢年去。

狼忙面壁，展轉不堪，收得塞北未寧安南也是憐兒不覺醜，青天白日黑漫漫。

滄山見尼劉鐵磨來，師曰：老牯牛！汝來也。磨曰：來日臺山大會齋，和尚還去麼？師乃放身作臥勢，磨便出去。

馬肥筋骨壯，牛瘦肚皮寬，明日臺山會，追風一往還。

雲門因僧問：樹凋葉落時如何？師曰：體露金風。

體露金風大地秋，樹凋葉落滿山頭，雲門扶起中心樹，直至于今繫馬牛。

雲門因僧問：不起一念，還有過也無？師曰：須彌山。

一念不起須彌山，煙波塞斷去來難。若人再問韶陽旨，推倒須彌向汝談。

雲門示眾曰：古佛與露柱相交，是第幾機？僧無語。師曰：你問我，與你道。僧遂問，師曰：一條緇三十文。曰：如何是一條緇三十文？師曰：打與自代前語云：南山起雲，北山下雨。

相交露柱是何機？鐵馬簷前對汝嘶。可惜雲門空撒網，寒山那有鷓鴣啼？

本師舉趙州會中新到僧求指示，州云：喫粥了也未？僧云：喫粥了也。州云：洗鉢盂去。僧繇是悟入。後來古德拈云：往往多少人都作洗鉢盂會去。今日試問諸人：如何是不作洗鉢盂會底意旨？

老不知羞，鼓粥飯氣，粥罷洗盂，一時便利。咦！那堪雪上加霜，展轉有甚巴鼻？

高沙彌住菴，一日，雨中來看藥山，山曰：汝來也。師曰：

是。山曰：可煞濕。師曰：不打這鼓笛。雲巖曰：皮也無，打甚麼鼓？道吾曰：鼓也無，打甚麼皮？師曰：今日大好一場曲調。

一片舌頭高低普應不犯宮商拍拍。是令鴈塔楚天高雲收海嶽靜數聲欸乃離。長江斷送渾家窮性命來也煞濕帶水拖泥不打。鼓笛靴裏動指。無鼓無皮響鑿鑿。未審知音能幾幾。

玄沙因僧禮拜。師曰：因我得禮汝。

漁郎俊俏駕扁舟，放去滔天拍浪遊，月落江寒魚不餌，鉤頭一線冷啾啾。

臨濟將示寂，謂眾曰：吾滅後，不得滅卻吾正法眼藏。三聖出曰：爭敢滅卻和尚正法眼藏？師曰：已後有人問，汝向他道甚麼？聖便喝。師曰：誰知吾正法眼藏向瞎驢邊滅卻！

瞎驢占當道，白賊慣夜行，滅卻正法眼，日午打三更。

臨濟上堂，僧出，師便喝，僧亦喝；便禮拜，師便打；又僧來，師便舉起拂子，僧禮拜，師便打。又有僧來，師舉起拂子，僧不顧，師便打。又僧參，師舉起拂子，僧云：謝和尚指示。師亦打。

定亂一劍安邦一言十方坐斷六國并吞，而今四海狼煙息，若個男兒解報恩。

橫按莫邪，孤光凜烈。鐵額銅頭，兩段三節。倚草附木，皮下無血。冷地看來，徒勞心熱。

睦州示眾云：忽然忽然大覺。拈云：不然，不然。

忽然不然，拄地撐天寰中天，子貴塞外將軍嚴，四夷八表分王化，萬民共祝聖明天。

忽然忽然天回地轉。不然，不然，春霜尤嚴且喜，而今春色煖，江南江北鷓鴣天。

荊棘林中下腳易

水不濕水，火不燒火，觸著磕著，分明一夥。

池州甘贄行者，一日入南泉設齋，時黃檗為首座行者請施財，座曰：財法二施，等無差別。甘曰：恁麼道，爭消得某甲覷。便將出去，須臾復入曰：請施財。座曰：財法二施，等無差別。甘乃行覷。

通商坐賈當行家，聲價繇來定不差，豈比泛常走水客，紛紛擬議亂如麻。

興化因，僧問：四方八面來時如何？師云：打中間底。僧便禮拜。師云：昨日赴個村齋，中途遇一陣卒，風暴雨，卻向古廟裏躲得過。

傾湫倒嶽，勢難支吾。一聲霹靂，雨點全無。夜半漁舟穿浪去，堪嗟鈍鳥又棲蘆。

首山上堂云。第一句道得。石裏迸出。第二句道得。挨拶將來。第三句道得。自救不了歸堂。

一句分明言不當，二三流出太忙忙，聲前落落圓音美，口似懸河難舉揚。

昔有古德，一日不赴堂，侍者請赴堂，德曰：我今日庄上喫油餐飽。者曰：和尚不曾出入。德曰：汝去問庄主。者方出門，

忽見庄主歸謝和尚到庄喫油糝。
腳跟未動便超方，自喫油糝自舉揚。不是庄師親證據，幾乎人道錯商量。

趙州柏樹子

老倒龍鍾不害羞，卻將柏樹當宗猷。農家自有真金闕，肯聽人歌十二樓。

興化見同參

骨董久成精，逢人即變人，高堂懸白澤，無處可藏身。

趙州因僧問：如何是趙州？州？曰：東門、西門、南門、北門。

東西南北七通八達，誰識趙州途路滑？老年不惜兩莖眉，十字街頭活潑潑。

五祖演和尚曰：譬如水牯牛過窗櫺，頭角四蹄都過了，因甚尾巴過不得？

門裏出身繇來易。身裏出門真個難。打破大唐無覓處。浮生穿鑿沒相干。

潤州鶴林玄素禪師。有僧敲門，師云：誰？僧云：是僧。師云：莫道是僧，佛來也不著。僧云：為甚麼不著？師云：無棲泊處。

秦不管漢，不收斷頭，船子下楊州，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百丈再參馬祖，侍立次，祖視禪床角拂子，師曰：即此用？離此用？祖曰：汝向後開兩片皮，將何為人？師取拂子豎起。祖曰：即此用？離此用？師掛拂子於舊處，祖震聲一喝，師直得三日耳聾。

一聲塗毒聞皆喪，遍地骷髏無處藏。三寸舌伸安國劍，千秋凜凜白如霜。

瑞巖禪師問巖頭：如何是本嘗理？頭曰：動也。師曰：動時如何？頭曰：不是本嘗理。師良久。頭曰：肯即未脫根塵，不肯即永沉生死。師遂領悟。

借問本嘗理，瑞巖沉海底，踏著巖頭路，足下風雲起。

芭蕉禪師示眾云：汝有拄杖子，我與汝拄杖子；汝無拄杖子，我奪卻汝拄杖子。

天生俊俏，豈尋嘗手執芭蕉兩面颺水月簾前冰骨女不沾風氣也。清涼，

大徹底人本脫生死因甚命根不斷？

斷頭船子掣顛風，那肯沙灣泊短篷？拍浪隨波高萬丈，河清海晏定寰中。

佛祖公案祇是一個道理，因甚有明與不明？
現成公案莫鉤錐，好肉剗瘡豈可為？明得頭頭皆合轍，不明亦不費鉗鎚。

大修行人當遵佛行因，甚不守毘尼。
老來始覺藝方精，肯與諸人共路行，出入不知天早晚，腳跟在處獨圓明。

杲日當空，無所不炤，因甚被片雲遮卻？
一片浮雲點太清，瞎驢當道弄蹄行。雖然踢踏人無數，猶較農家半月程。

人人有個影子，寸步不離因甚踏不著？
儘日騎牛不識牛，捕風捉影幾時休？溪山踏遍歸家日，元是尋嘗這一頭。

盡大地是個火坑，得何三昧不被燒卻？
大地都盧是火坑，皮膚脫落焰騰騰，生靈器界俱焚盡，試問高峰出未曾。

經題[((瞭-口)-(日/小))-大+八]字。
莽鹵錯傳來，顛預添指註。炭籠作頭巾，明眼人笑汝。自從胡亂後，不聽奴郎使。

覷驢覷井
跋驢臨古井，應物話尖新，撥轉驢唇嘴，無端惱殺人。
甘贄一日入南泉設粥，仍請南泉念誦，泉乃白椎曰：請大眾為狸奴白牯念摩訶般若波羅蜜。甘拂袖便出。泉粥後，問典座：行者在甚麼處？座曰：當時便去也。泉便打破鍋子。
河頭賣水語喃喃，借債酬渠軟放憨，一滴汞銀流水走，千金狼籍更何堪？

應無所住而生其心
單鎗疋馬走風塵，柳色煙花敢近身，羌笛一聲獠膽喪，霜輪現處更愁人。

調達瞿曇因緣
一片骨肉，兩處分張，聲跡彌布，地獄天堂。占人田地，豈是好心？閨門已玷，無勞外揚。休擬議，謾商量，不聽樓頭啼鳥語，幾乎錯過這春光。

拈古

舉世尊一日陞座，大眾集定，文殊白椎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尊便下座。

拈云：世尊陞座，慚惶殺人。文殊白椎，不識好惡。更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好與三十拄杖。何故隨邪逐惡，令人倣效不已。

舉，世尊因乾闥婆王獻樂其時山河大地盡作琴聲，迦葉起舞。王問：迦葉豈不是阿羅漢，諸漏已盡，何更有餘習？佛曰：實無餘習，莫謗法也。王又撫琴三遍，迦葉亦三度作舞。王曰：迦葉作舞豈不是？佛曰：實不曾作舞。王曰：世尊何得妄語？佛曰：不妄語。汝撫琴山河大地木石盡作琴聲，豈不是？王曰：是。佛曰：迦葉亦復如是，所以實不曾作舞，王乃信受。

拈云：乾闥婆王奏樂，迦葉起舞，同坑無異土疑有餘。習以己方人，瞿曇打許多葛藤，王乃信受，鈍置不少。若是山僧待他問迦葉，豈不是阿羅漢？何更有餘習不用之乎也者，亦乃起舞。不惟以楔出楔，抑令乾闥婆展轉疑殺，必也知恩有日。

舉城東老姥與佛同生，而不欲見佛，每見佛來，即便回避。雖然如此，回顧東西，總皆是佛，遂以手掩面於十指掌中亦總是佛。

拈云：老姥不欲見佛，風平浪靜，而佛每來，乃至東西，總皆是佛。水漲船高，瞿曇節文且置，且道老姥風騷在甚麼處？若不同床睡，焉知被底穿？

舉：南院上堂云：赤肉團上，壁立千仞。僧問：赤肉團上，壁立千仞，豈不是和尚語？師曰：是。僧便掀倒禪床。師曰：這瞎驢亂作。僧擬議，師便打。

拈云：南院門庭孤峻，這僧步驟亦奇，後來不合龍頭蛇尾，被他點罰氣悶殺人。待他道：瞎驢亂作時，劈面便掌，管教壁立千仞，一時推倒，做個徹頭徹尾的衲僧，豈不俊哉！

舉：南嶽芭蕉谷泉禪師與慈明遇一毒龍湫，捉明衣同浴，明掣肘而去。師解衣跳入，霹靂隨至，腥風吹雨，明蹲草中，須臾晴霽，師引頸出波間曰：因。

拈云：谷泉井底蝦蟆年久月深，成精作怪，與毒龍何異？大小慈明掣肘而去。雖然不被他惑，未免在草中蹲不出頭。若是山僧待引頸時一棒打殺，免使腥風作浪魔魅人家男女。

舉丹霞慧林寺遇天大寒，取木佛燒火，向院主訶曰：何得燒我木佛？師以杖撥灰曰：吾燒取舍利。主曰：木佛何有舍利師曰：既無舍利，更取兩尊燒院主，自後眉鬚墮落。

拈云：丹霞迸出星火，非但帶累院主，直得遍大地人眉鬚墮落。何故？寒則普，天寒熱則普。天熱把火焰焰看，丹霞眉鬚還在否？莫謂天然無事好，也須護惜兩莖眉。

舉二僧論風動幡動，六祖云：非風動非幡動，仁者心動。

拈云：六祖恁麼道，也是靈龜負圖。

舉：往日有老宿一夏不為師僧說話，有僧自歎云：我祇恁麼空過一夏，不望和尚說佛法，得聞正因兩字也得。老宿聞云：闍黎莫[斯/言]速。若論正因，一字也無。恁麼道了。扣齒云：適來無端恁麼道。鄰壁有老宿聞云：好一釜羹。被兩夥鼠糞污卻。雪竇拈云：誰家鍋釜無一兩顆。

拈云：老宿急索其非，劍去久矣，必也有負來機。鄰房雖則言中有響，祇是隔壁帳。雪竇匡救前人固是好心，其奈臭不堪聞。且道作麼生得疏通去？乃高聲喚侍者云：快將鍬子來寄與雪竇和尚。

舉：寶公令人傳語思大和尚：何不下山教化眾生，目視雲漢作什麼？思大云：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何處更有眾生可度？

拈云：蚌鷓相持，俱落漁人之手。

舉：趙州問一婆子：甚麼處去？曰：偷趙州筍去。師曰：忽遇趙州又作麼生？婆便與一掌，師休去。

拈云：老婆鼠入強出，慣得其便。趙州老邁力弱，不能和賊捉敗，受屈奚辭？若是快連手段，待婆掌時，便云：賊賊！伊若定動，驀面掀倒，敢保偷心頓息，特地從良。

舉：馬祖示眾云：汝等諸人，各信自心是佛，此心即是佛心。達磨南天竺國來至中華，傳上乘一心之法，令汝等開悟。有僧問云：和尚為甚麼說即心即佛？祖曰：為止小兒啼。僧曰：啼止後如何？祖曰：非心非佛。僧曰：除此一種人來，如何指示？祖曰：向伊道不是物。曰：忽遇其中人來時如何？祖曰：且教伊體會大道。

拈云。即心即佛。頭上安頭。非心非佛。無繩自縛。不是心。不是佛。不是物。泥裏洗土塊。山僧恁麼道。意旨如何。良久云。土曠人稀。相逢者少。

舉：馬祖與百丈、西堂、南泉翫月次，祖曰：正與麼時如何？丈曰：正好修行。堂曰：正好供養。泉拂袖便行。祖曰：經入藏，禪歸海，惟有普願，獨超物外。

拈云：二三子嘲弄，風月自減聲價。良多馬老師亂筍印子塗，污良人不少。新黃檗有八十大棒，要打這四個漢子，聊與明月清風增些光彩，不致成群作隊，各說異端脫有漢子出來道：黃檗棒合誰喫也。許汝是個具眼。

舉：靈雲見桃花悟道，偈云：三十年來尋劍客，幾回落葉又抽枝。自從一見桃花後，直至而今更不疑。玄沙云：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

拈云：靈雲眼中添眼備，老眉上栽眉。仔細看來，成甚麼面孔？

行實

辛卯年十一月初四日。師六旬。初度首座慧門沛公木菴瑤公西堂虛白願公即非一公。都監寺常熙公耆舊默公暨職事同外護林文。若位中月樵諸居士等。請師說行實以曉大眾。師云。歷年已久一切俱忘。俟誕後稍靜說出。與眾共知。茲逢三十夜來。未免吐露醜陋一番。師俗諱曾曷。號子房。本縣靈得里東林林氏季子也。父在田母龔氏。六歲父客于湘未歸。自是家產日耗。難以攻讀。至九歲入學。十歲冬廢學矣。遂漸學耕樵為業。每靜夜與二三友坐臥松下。仰觀天河運轉星月流輝。誰繫誰主。纏度不忒。心甚駭焉。然此理非仙佛難明。纔有慕佛之念。意雖未決。志在塵表。無心于世。故三五年來。所作所為。頗多顛沛。年二十。母與長兄欲定聘。自思男兒在世。不知父之遊蹤。誠為不孝。奚亟於娶。遂告母兄志在面。父後娶母不奪其志。乃許可。越明年春。將聘金為路用直往豫章。抵南京面母舅泉字。勸諭回家云。汝東林人。焉知天之廣大。人如塵沙。則此都城無處尋覓。而況天下者乎。汝若不回。恐添母慮。孝亦安在。師不聽即別。至寧波舟山。見族叔叔亦勸回。又別至紹興各縣。經歷一載。囊已空矣。只隨香船。至南海朝觀音一到。見佛地莊嚴。人境殊勝。一時凡念冰釋。遂發心持齋投潮音。洞主出家。願為佛子。一心奉佛。以報四恩。領茶頭執事。日供萬眾無有難色。洞主喜甚。嘆云。此佛子真菩薩之使也。又明年。禮茶山祇園老僧為師。二月十九。航海歸閩。省母母面以為自天降下喜不自勝喻母奉齋皈佛。越明年母歸寂。請黃檗諸師禮懺。薦母會。鑑源師於印林寺。源知師。有出家南海之志。方便引示因緣。時節已至。即是道場。何必固執於南海耶。師云。恐檗山近俗有所嫌。疑源謂。人俗心不俗可矣。遂求源師到山落髮則無阻礙源諾。是年庚申二月十九雉染。有嘲者云。東林也有佛耶。師云。聞說佛性遍周法界。豈外東林耶。嘲者嘆妙。師即發願云。此處落髮。若不精修佛行。以壞法門生陷泥犁。故領化主執事本縣莆中募遍。是冬往海口塔寺聽經。辛酉春領簿往京募化。欲完此道場。至杭適京中有警緣。暫止往紹興顯聖寺。聽涅槃經。時聞本師費和尚之名。惜未曾會晤六月時仁師京回抵杭。有書招相見談及京中多事。其緣事已盡揭矣。乃問仁師。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如同魔說。如何消釋。仁云。三十年後向汝道。師即私忿意為欺人。太甚難道。這兩句經有甚麼難會。而待三十年耶。便不同彼回山遍處參尋。今日思之。仁師此句大得力矣。當時若依經解說一篇。則被摩捋回山。安有今日之事乎。所以靠將不如激將。飄然遍歷名剎。第有一德可稱者。亦依同住。王戎鸚窩頂聽法華。冬在夾石碧雲寺聽

楞嚴。見講席混濫。與慈然友論及經中實乃徑路。直示人要。行則到家矣。不行聽到驢年亦無益。正如說食終不能飽聞天台通玄。有一密雲和尚。係臨濟下尊宿。可往參謁。若相契依住。以了生死大事。不然。向山頂修行去。慈云。妙同往張王廟次上秦。駐山積善菴景西主人問。路中還曾見有好人麼。師云。試指箇不好的。出來看看。西默然。師云。不見道。仁見為之仁。又問。七處徵心。畢竟心在甚麼處。師云。請坐將茶來。西又默然。師云。下文還長付在。來日西留過夏。正談及參天台事。忽聞老和尚來應金粟。喜不自勝。私謂符我所願。買舟同到金粟。參見和尚。問學人。初入禪門。未知做工夫。求和尚開示和尚云。我這裏無有工夫可做。要行便行。要坐便坐。要臥便臥。師云。蚊子多臥不得時如何。和尚云一巴掌。師拜退，置疑不決。七晝夜經行坐臥無有間斷。至第七日下午。老和尚在康祖堂前過。師抬頭一見有省便拜云。某甲會得和尚掌中意。和尚云道看。師便喝。和尚云。再道看。師又喝。和尚云。三喝四喝後如何。師云。今歲鹽貴如米。和尚云。走開不得。礙人路頭。師禮拜退日常自作主宰。活潑潑地。亦不請問。亦無疑情。至丙寅冬五峰為西堂。師豎拳云。識得這箇。天下太平。識得這箇。天下爭競。如何決斷。峰云。這箇從甚麼處得來。師便喝。峰云。那裏學得來。師又喝，峰便打；師再喝，峰又打；師喝兩喝，峰又兩打。眾謂：老隱！今日敗闕。師云：非汝境界。繇是坐不得臥不得氣噴噴地平日而行。千人之中不見有一人不見有身行。至次早課誦維那，鳴磬一聲，忽覺身在此立課畢仍舊而行。眾謂老隱著藥了。直至第三日上午，忽窗外一陣風吹入，寒毛卓豎，通身白汗，大徹源底。便知三世諸佛、歷代祖師天下老和尚，情與無情盡在一毫頭，了了分明，無二無別。不可舉似於人。自證乃知。心中甚喜，逢人即笑。人謂老隱，被魔所著。師云：非汝所知，但記得。經云：若作聖證。即入群魔。遂無喜色。尋常如舊淑。知師知師所得，謂五峰云：此子徹也。乃呼進寮云：汝有悟處，試道看。師云：道即不難，只恐驚群動眾。峰云：但說何妨？師打觔斗而出。峰云：真獅子兒。善能哮吼。後即出堂領火頭。一日老和尚與眾論敬，鬼神而遠之。眾荅已，師亦在門外立，和尚云：汝進來說看。師進前豎火叉云：離不得這老賊，近不得這老賊。老和尚打云：汝作賊會那。師即拂叉出云：賊賊！丁卯夏淑知與眾兄弟云：今夏在此不得空過已。分事自家。了卻古人一切差別因緣。恐有錯訛。大家結箇頌古社三日一次一炷香為則期畢呈上老人看看。或取舍是非，了然明白亦不孤，同住一夏矣。眾曰：可一期頌三十則因緣呈上老和尚即點。二十七則時金粟。一眾嘆服。纔知有。隱元庚午春，黃檗本寺請老和尚至山，師同回寺。乃三月十八日。老和尚

云：汝乃本處人可領簿。南行募化。師即領命。至漳南，見東里王，居士云。請老和尚到山之意。七月間又到潮州艸菴月餘。師衣衫襤縷主人疑非黃檗緣事，不就占二偈為別。草鞋踏破已多年。半似風流半似顛。滿地黃金渾不顧。又拈白紙告青天。其二。試將冷眼向南看，世道紛紛化道難。三十年來無取舍。相逢盡是鐵心肝。即回至漳聞老和尚有答東里公書云。八月初一歸浙。師遂空手歸山，益見山中淒楚不堪言，乃云：檗山蒼翠疊層層，難掩孤貧一箇僧。堪笑化工又未瞥，春來秋去太忙生。辛未春，龔夔友夏象，晉同石居士請住獅子巖。癸酉冬山中請馬峰費和尚主席，命師為西堂。師辭不得，乃就職和尚上堂，師即問：打著昔時舊痛處，於今猶恨棒頭輕。請師末頭一頓。師打云。舊瘡癩上著艾。進云。恁麼則徹骨徹髓去也。師曰：如何是汝徹底意。進云。時清休唱太平歌。和尚曰：祇引得一半。師即禮謝。一日諸禪人頌百丈再參馬祖一喝三日耳聾。黃檗聞之，不覺吐舌因緣，師目之總未妥在。亦頌云：一聲塗毒聞皆喪。遍野觸髅沒處藏。三寸舌伸安國劍，千秋凜凜白如霜。呈上和尚。即圈出。帖在法堂示眾陞座云：吾有一枝拂子。是從上用不盡的顧。師云：汝作麼生奉持？師喝云。放下著。和尚云：再道看。師喝便出。到方丈和尚下座進方丈，師禮拜云：適纔觸忤和尚和尚。舉拂云。汝且將去行持。師接著便打一拂。和尚云。將為報恩那。師又打一拂便歸寮。甲戌，仲春辭和尚。回獅子巖隱靜一日泉竭慮無水難以居眾在菴前大石上，仰觀南畔巖壁之下，懸松翠茂，必有水焉。攀藤刪棘而上，果如其言。就壁覓泉砌路得石巖間。稍平處，堪以寓目。靜坐片時。謂龔居士曰：此處可結團。瓢士曰。和尚曰可。某為之不難。是秋重陽之日起。基冬畢，工移錫居之。丙子夏，本山耆舊同鰲江檀信奉侍御林公書請繼黃檗法席。師慮德薄，言微不宜應世力卻之。眾等虔請再四，似不能免，姑許焉。巖下有側石如舟遊客以不平為嘆。師云。時節若至。自然平矣。一夜在石中坐。持大悲咒三遍。默祝龍天。此去黃檗吾道。大行為山增色。此石可平為徵。默坐注香。歸室次早黎明徒良哉。報云。奇哉。石已自平。師云。不必說。吾祝已徵。乃名為自平石。說銘為記曰。匪石弗平。我心不誠。心既誠矣。其石自平。既平且誠。吾道大行。以此靈驗。刊石為銘。又一夕，夢一老人。長眉皓首荷甌負囊而入。師云。老老大大。負累若此。不亦勞乎。彼即放下。出書幅單條并所負之物。見贈而去。醒謂玄生侍者說者云。斯乃吉夢。必有見徵。月終果法通。專使送大衣源流兼書一封。以表法信。丁丑仲冬至山開堂拈香。以酬法乳。越明年開龍藏三閱春秋。以答賜藏之恩。庚辰正月八日建大殿。閱四載。山門寮舍頗備。甲申春往金粟省覲本師和尚。五月至天童掃老和尚塔。

孟冬應崇德福嚴寺請。乙酉春閩中通政還。初馬公請住長樂龍泉寺。丙戌春。玉融鄉紳并本山耆舊接回。黃檗迄今。又歷六載。虛度世間。六十春秋。冒廁空門三十法臘。主持黃檗一十五載。示眾語錄十六卷。又錄二冊雲濤集一冊。並行於世。然福薄逢斯亂境。祇將身心衛護祖席幸龍天佛祖之靈。法門如故。庶不辜檀信之請。聊答皇恩祖德之萬一云爾。偈曰。六十年來夢裏行。夢中說夢可憐生。不知若箇惺惺者。一笑千差盡坦平。

隱元禪師語錄卷第十終

入室

僧進，師云：正法眼藏瞎，驢邊滅卻。且道祖祖相傳傳個甚麼？僧豎拳。師云：還有者個在。僧喝，師打出。石解進，師云：石女解巴歌，是何曲調？僧云：和尚拄杖子。師云：我拄杖子干汝什麼事？僧豎拳。師云：不是知音，莫與彈僧。進師豎拳云：者個是主？是賓。僧喝。師云：那裏得者消息來。僧無語。師打出蘊良進。師云：蘊即不良，良即不蘊。離卻二途，道一句來。僧擬議，師便打云：漆桶不快！西印進師云：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不去不住，汝作麼生印？僧云：本來面目。師便打出。僧進，師伸左腳，僧就師腳一踢，師復伸右腳，僧云：兩重公案。師連打兩棒，趁出良鏡進師云：打破鏡來，與汝相見。僧擬議。師云：汝不會打破，我與汝打破。連棒打退良炤進。師云：無頭無尾，無背無面。汝作麼生炤？僧豎拳。師云：豎拳即不無，意旨如何？僧又豎拳，師便打。天木進，師卓拄杖云：者個木上座撐天拄地，如龍若虎，觸著喪身失命。不觸著也，喪身失命。如何躲避得過？僧云：搗破眼睛。師打云：躲避不過那。僧云：轉見不堪。師云：汝不堪，我不堪。僧云：一狀領過。師連棒打出僧進。師云：離鉤三寸道一句來。僧擬議。師云：死蝦蟆打出白生。居士進師云：父母未生，黑白未分。汝向甚麼處安身立命？士云：大地作蒲團。師打云：打破了也。汝又作麼生？僧進師喝云：是賓是主？僧擬議，師打僧喝。師云：汝再喝看。僧又喝。師復打云：落人圈續裏。僧出心盤進師云：日出心光，耀盤在什麼處？僧豎拳云：和盤托出。師云：恁麼則兩樣。僧一喝。師便打出。僧進，師云：臨濟入門便喝，德山入門便棒。是什麼意旨？僧拂坐具。師打云：未夢見在。僧喝。師云：喝後又作麼生？僧無語，師便打出。僧進師云：鑊湯爐炭汝作麼翻身？僧豎拳云：向者裏翻身。師云：者裏什麼所在？僧一喝。師便打。僧云：翻身去也。師云：喪身失命也不知。雪樵進師云：大地山河一片雪，汝向什麼處樵？僧喝。師云：好一喝。僧又喝，師連棒打出。觀明進師云：明暗不到處，汝作麼生觀？僧豎拳。師云：死了燒了又作麼生？豎僧無語。師打云：死也！死也。僧進。師云：那個拖死屍這裏來。僧云：無話說。師打云：拖出死漢去。僧進師搗住云：道道！僧喝，師推開，僧又喝。師云：汝再喝看。僧又喝。師打云：叫汝喝一千喝，汝也

喝一千喝。僧又喝。師又打云：布袋裏老鴉！慧文進師云：一字不著畫文從什麼處來？僧無語。師打云：元字腳也，不識侍者進。師云：終日侍奉山僧。且道山僧腳跟在什麼處？者豎拳。師云：錯認定盤星者一喝。師便打，者連喝兩喝。師云：我直下疑汝這兩喝。者云：和尚猶嫌少在。師打云：未是我侍者。僧進。師云：死了燒了，在什麼處安身立命？僧云：死了燒了，纔向和尚道。師打云：即今作麼生？僧禮拜。師云：試道看。僧擬進前，師直打出僧進，師云：我也不得用棒，汝也不得下喝。應時應節道一句來。僧云：與和尚三十棒。師云：過在什麼處？僧云：落處也不知。師打云：上來與汝道。僧云：好馬不食回頭草。師趁出云：不知時節，漢道炤進。師云：路逢道伴交肩過，一生參學事畢，汝作麼生？僧云：月在上方諸品靜。師云：月未上時如何？僧喝。師打云：不是我同倫。源生進。師云：曹溪一滴也無，源從什麼處生？僧云：眉毛在眼上。師打云：亂湧作麼了？悟進師云：悟則不無，爭奈落第二門頭。第一門頭道一句來。僧云：知本無生。師打云：落七落八了也。俊初居士進，師云：一喝分賓主，炤用一時行，汝試分看。士一喝。師打云：祇得一槩。士擬議，師連棒打出。

有僧告假。師云。告假作麼。僧云。聽經去。師云。不濟事。我前說。汝是門外漢座。主奴見解。果然果然。真正衲僧氣宇如王。不與萬法為侶。不與諸緣作對。純剛打就。生鐵鑄成。方堪入作向葛藤窩裏之邊。敢保驢年出頭來。昔周金剛挑一擔。青龍鈔到龍潭。門下一字也用不著。遂置法堂前。以火焚之云。窮諸玄辯。若一毫置于太虛。竭世機樞。似一滴投于巨壑。汝今又鑽葛藤。窩裏去。顛倒之甚。汝真要聽經。我亦會說幾句。經云。但有言說。都無實義。且道。如何是實義。僧禮拜云。請和尚說。師云。前是山門。後是法堂。東是官廳。西是廚房。會麼。僧禮拜。師云。且去我倦要睡少間。僧復進云。某甲不去了便問。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請和尚道。師云。歸堂去。僧便行。師云。但解恁麼去。不解恁麼來。

問答機緣

僧問：某甲十二時中，業識茫茫，無本可據，教學人如何作主？師豎拳云：會麼？僧云：不會。師便打。進云：打後如何？師又打云：速退！速退！僧擬議，師復打出。

僧問：某甲初進堂，不會作工夫，求和尚開示。師豎拳，僧罔措。師云：笨漢出去。次早呈頌云：赤精精光禿禿，擬將一物便成絡。

索師日訖，擲下云：者個不是絡索。僧禮拜。師云：還我光禿禿來。僧擬對，師便打趁。

僧求開示，師豎拳云：會麼？僧云：不會。師便掌，僧禮拜。師云：下坡不走，快便難逢。

僧問：九旬禁足，三月護生，如何是護生底意？師翹足，僧罔措，師便掌，僧禮拜，師即推倒。

僧問禾山：打鼓即不問？聲未絕？師云：合取兩片皮。進云：趙州茶盞意如何？師云：猶有許多絡索。僧擬議，師拈棒。進云：除卻棒喝，還有為人處也無？師云：速退！速退！進云：退在什麼處？師打云：話頭也不識。

師浴畢，圍頭獻湯竟，豎拳云：喚作拳則觸，不喚作拳則背。正當與麼時，如何摸索？師云：漱漱口了向汝道。僧禮拜，師便踏倒。師全侍者，無念非日坐次，念舉寶覺向夏倚判官，情與無情共一體話，師提起念珠云：者個是一體，不是一體。念云：和尚何不向未舉手時會取？師便掌念，禮拜歸位。復問：非日汝道是一體兩體？日云：和尚自道取。師亦打。日云：謾某甲不得。師云：一體兩體。日擬議，師便啐，良久，云：總道不得，山僧自道去也。便轉身。

庫頭問。諸佛未轉法輪。佛法那裏住持。師云。護惜庫中寶。僧頓足。師云：未在。進云。顯出天然。師云。還未在。如何是庫中寶。僧豎拳云。會麼。師云。我王庫內無如是刀。

師問僧：甚處來？僧云：鼓山來。師云：不見響。僧無語。師云：不是鼓山來。

僧問：如何是山中語？師云：野鳥傳古韻。進云：如何是山中人？師卓然而立。進云：恁麼則壁立千仞去也。師便打。

齋後，居士問：和尚山中濟饑民弟子，特來求食。師云：汝還不知飽那士禮謝。師打云：還要與汝一頓。

一僧求做草鞋，師云：盡大地是沙門一隻腳，汝作麼生做？僧無語，師便打。

惠安僧送布，師舉布云。這個那裏得來。僧云。惠安。師云。為甚麼在我手裏。僧罔措。師擲下云。要這個作甚麼？

僧參，師問：甚處來？云：漳州南山來。師云：南山有一條鰲鼻蛇，汝摸得著麼？僧無語。師云：汝不是南山來。

僧參，師問：那裏來。僧云：泉州來。師云。泉州近日公令已嚴，汝作麼生跳得出？僧云。一拳打出。師云：作麼生打？僧頓足，師便啐。

師問僧：甚處來？云：金粟來。師云：金粟快活，為甚麼不住？卻來黃檗討苦喫。云：特特來見和尚。師云：者裏有甚麼見處？僧無

語。少頃問：如何是學人本分事？師打云：是本分不是本分。僧擬議，師便轉身。

縣主凌公問：與萬法為侶，政自難，如何得不與萬法為侶？師震聲一喝，云：會麼？進云：未了。師云：還要第二杓惡水麼？公無語。少頃問云：畢竟如何是不與萬法為侶？師云：百花叢裏過，一葉不沾身。次夜茶次，問：昨日請教，大師自見慚愧。師云：慚愧者誰？進云：親到黃檗來。師云：明日向甚麼處去？公擬議。師云：來得去不得。進云：話頭明明，為甚鉤不起？師云：放下來。公應喏喏。又問：百丈野狐話，不落是？不昧是？師云：山僧不打者兩片皮。進云：不會。師云：江南江北問王老，一狐疑了一狐疑。進云：為甚麼又墮野狐身？師云：汝即今是什麼身？公無語。師云：山僧今夜亦墮異類中去也。便作虎聲，轉身歸方丈。

衡廷林居士同諸善友。參捧新紫菜云。此菜久藏在家。今奉和尚嘗新。師云。從那裏得來。士云。自己得來。師云。山僧亦不受。士云。不受時如何。師云。誰家屋裏無一兩莖。

僧問。如何是步步入深村。師云。通身無影象。進云。如何是行行歸草裏。師云。遍界不曾藏。復示頌云。通身無影象。遍界不曾藏。全提殺活句。今古利鋒鋌。

堯峰僧參問：弟子隨聞師父十五年祇念阿彌陀佛，實不知此事，乞師方便。師云：念佛者是誰？不念佛者亦是誰？速道！速道！僧擬議，師連棒打出；僧復進佇立，師云：山僧今日失利。便歸方丈掩卻門。

雲門僧同居士參見，師云：從雲門來的麼？僧云：是。師云：雷轟電掣一句作麼生道？僧無語。師搖拂子云：不是雲門來的。次日，居士禮謝云：弟子今日回雲門去。師云：雷轟電掣句道得也未？士云：不會。師云：不是雲門客，徒勞弄爪牙。

有護乚居士謝雨入山，見師云：嘗聞仙人會作詩仙書云：佛何用詩？師云：天上無空腹神仙，山僧今日與仙聯一首遊戲。異日載志，亦是勝事。仙云：請和尚先。師云：仙翁冒雨入山家。士囑仙云：和尚機速，請答仙停。乚罔措。師震聲一喝，云：擬議停機，白雲萬里。本是木作，成靈從何來？聖從何起？莫瞞山僧好。乃自聯云：仙翁冒雨入山家，何事當機縮爪牙？不獨渾身泥水濕，片心攪擾亂如麻。令侍者度與仙仙齋後和云：仙翁冒雨入山家，為喫趙州一碗茶。莫怪無言為擬議，春霖洗落滿山花。師云：好個春霖洗落滿，山花祇是遲了些。復次，韻云：浮囊擊碎了無家，竟日貪杯酒當茶。出賣風雲誇好手，爭如舌上吐蓮花？

僧冒雨參，師云：青天白日不來，拖泥帶水來作麼？僧禮拜云：領教。師云：是甚麼道理？僧無語。師喝云：腳跟未穩在。

僧送糕問：某甲生死不明，求師開示。師拋糕云：會麼？僧擬議，師便打。僧拾起糕。師云：逐塊不少。

僧問和尚道。生從這裏來。死從這裏去。未審死了燒了向甚麼處去。師云。死了燒了向汝道。進云。即今作麼生。師云。歸堂去。僧禮拜便行。師云。隨語生解漢。

師問僧。從那裏來。僧云。支提靜室中來。師豎拂云。靜室中還有這個也無。僧云無。師云。人人本具。為甚麼道無。僧云。特來這裏求。師云。從人求者。不是家珍。

僧問：某甲無始來習氣重求和尚除。師云：拈習氣來與汝除。僧佇立。師云：跂死禪。和便打。

師問僧：甚處來？僧云：天湖來。師云：天湖水滿也未？進云：未。師云：許多時滂沱為甚麼不滿？僧罔措。師打云：與汝一勺。

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師云：不得亂吠。

僧呈讚佛偈，師云：佛要汝讚作麼？僧無語。師云：美玉無瑕，雕文喪德。

僧問法華經云：惟此一事實，餘二則非真。如何是一？師豎拳云：是一是二？進云：一二蒙師指，向上還有事也無？師云：進前來，向汝道。僧擬議。師云：立地死漢。

僧參，師問白雲：橫谷口，遊人何處來？僧無語。師云：將謂是個鷓子，元來卻是斑鳩。

僧問：無星稱稱諸方師上鉤麼？師云：放下著。進云：上鉤來也。師連棒打出。

僧問：金不博金，意旨如何？師云：那個男兒不丈夫？僧禮拜云：謝師答話。師一踏。僧起云：兩重公案。師云：闍黎還有事在。東湖僧參，師云：東湖乾也未？僧云：湖乾。師云：湖乾龍在甚麼處？僧無語。師云：不會興雲布雨出去。

師問大眾云。打破虛空大地平沉。向何處安身立命。西堂云。和尚試道看。師云。莫扳擗。山僧好堂。打師一下云。這裏也不可放過。師亦打之。

二僧參師。一僧問云。頓入無為海。已登般若舟時如何。師云。截斷兩頭。進云。誰知遠煙浪。別有好商量。師云。浪裏浸殺。進云。不入洪波裏。爭見弄潮人。師拈如意便打僧喝。師云。再喝看。僧又喝。師云。叫汝喝一百喝。你也喝一百喝。僧云。一毫吞巨海。露出珊瑚枝。師云。拄杖子不在。笞帚柄自領三十。僧復喝。師云。熱碗鳴聲。遂顧傍僧云。你又作麼生。僧無語。師云。一得一失。僧問。一拳打破虛空時如何。師云。待汝打破來向你道。僧云。打破了也。師云。還我虛空碎來僧一啐。師云。未夢見

在。次日又問。大地全彰。是甚麼人受用。師云。自來還自去。進云。去後如何。師云。磕破全彰。

僧問。一念未生前。如何指示。師云。挑欄去。進云。此又是今時事。師云。你作今時會那？僧無語。師打云：這裏甚麼所在？許汝說古說今。僧罔措，師又打。

居士問：二六時中如何行持？師云：向外求者，不是家寶。士擬議，師云：動轉施為者誰不動轉施為者誰？士禮拜。師云：苟能看破兩重關，沙界橫行無不可。

僧參。師云。那裏來。僧云。曹山來。師云。貴處那裏。僧云。浙江舊歲同萬如和尚來。師云。為甚麼同來不同往。僧云。吳家留供養。師云。貪他一粒米。失卻半年糧。僧擬議。師云。萬如和尚即今在甚麼處。僧云龍池。師云。蹉過也不知。

三僧參，師云：甚處人？僧云：沙縣。師云：銀浦城，金沙縣，還將得金來麼？僧擬議，師便踏云：與汝一塊。僧云：呈了也，望和尚收。師云：這個當不得。僧禮退。次，日呈頌，師目竟云：者個看過汝兩位作麼生？僧云：某甲初進步，特來求和尚開示。師云：禮拜著。二僧便作禮。師云：隨人起倒，不為好漢。傍僧云：不隨起倒時如何？師云：不值半文錢。又問：黃檗有十二峰，是否？師云：老僧眼不花。進云：如何是紫微峰？師便掌，僧無語。師顧傍僧云：紫微峰推倒了也，羅漢峰立兩傍作麼？僧無語。傍僧云：如何是羅漢峰？師云：不露頂。僧云：看破老禿奴！師掌顧傍僧云：這一掌應當汝喫。僧無語。又云：求和尚示個端的。師云：待老僧端的了向汝道。

二僧參，師問。住何處。一僧云。彌陀巖。師云。彌陀不禮禮我何為。僧無語。旁僧向前禮問云。某甲初登黃檗山。未識黃檗面。請和尚正體相見。師云。未到黃檗山。好與三十棒。進云。恁麼則擒下了也。師云。未是作者。僧一喝。師云。那裏學得來。

僧問：生死不明，求和尚指示。師云：待我明來，向汝道。僧禮拜。師云：明了禮拜，不明禮拜。僧又禮拜。師云：明者是誰？不明者又是誰？僧無語。師云：且去，明了來。

僧問：如何是佛？師云：屎坑蟲子。僧云：如何是法？師云：莫亂沸。僧云。如何是僧？師便掌僧喝。師云：那裏得這消息來？僧無語，師便打。

師與甫宇洪居士談論次，士云：六雪和尚乃文字禪，打發人不得。某豎拳云：三千諸佛向某甲這裏乞命。彼無答向後云：汝膽向大。師云：汝的性命還在山僧手裏。士豎拳。師云：果然！果然。士禮謝。師云：汝只吞得三千諸佛，不能吐得三千諸佛。士復說偈求證。偈曰：空手把空拳，黑白分不分。丈夫具隻眼，東海一口吞。師

云：吞得吐不得。師復為著語：空手把空拳。師云：放下著黑白分不分。師云：一點從甚麼處得來？丈夫具隻眼。師云：切忌開眼作夢，東海一口吞。師云：炤顧舌頭好。

僧問：兩龍爭珠，誰是得者？師云：不得不得。僧禮拜便行。師云：得得。僧擬議，師云：且道得者是？不得者是？僧無語，師便打。

僧問：法筵之中，人人頭頂天個個腳踏地，是阿誰境界？師云：進前來。進云：獅子窟中無異獸，象王行處絕狐蹤。遂一喝。師云：野干鳴。進云：不改舊時行履處，故人千里也同風。師云：放汝三十棒。進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師云：不知痛癢漢。僧禮拜云：謝和尚答話。師云：莫謗山僧好。

問：昔日趙州逢人都叫喫茶去。某甲今日逢人都叫喫飯去。和尚還肯他麼？師打云。更添一杯。僧禮拜云。謝和尚答話。師云。相知不用多杯酒。一盞清茶也醉人。

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眼底無人一色新。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家無四壁不知貧。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踏翻世界無蹤跡。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出門俱是看花人。進云：今朝值遇揮斤手，游刃忘牛世所希。師云：未知人境在。

海壇林道婆問：求和尚開示，生死路頭。師豎拂云：生亦如是，死亦如是。生死去來，如是如是。婆禮謝，師復以偈示之：八十婆婆問路頭，真誠不是等閒流，點開一隻金剛眼，爍破東西百萬洲。

信女蘇氏受戒呈偈云。戒法深持意最長。鋪雲裁錦散天香。象王頂上全威振。獅子林中獨顯揚。茂盛五宗光宇宙。圓通一脈繼真常。脫流震旦輝日月。普利人天作道場。師云。此偈從甚麼處流出。答云。從心中流出。師云。心在甚麼處。答云。方寸裏。師便喝。答云。謝師棒喝。師云。莫作棒喝會。復呈偈云。自從門裏出身觀。那管前三與後三。今乞明師施棒喝。疑團擊碎出重關。師云。出得出不得。答云出得。師云。直饒出得。也好與三十棒。且道。過在甚麼處。女無語。

僧求開示，師豎拳云：喚作拳則觸，不喚作拳則背，汝畢竟喚作什麼？僧無語，師便掌。僧又云：求和尚個話頭。師又掌云：不許汝頭上安頭。

法語

專使送法衣至，師舉示眾云：大庾嶺頭提不起，為甚麼在山僧手裏。大眾會麼？祇這些兒，非長非短，無欠無餘。如天普蓋似地普擎。不從蔥嶺傳來，亦非無因突出。正當與麼時如何？

頂戴奉持，脫體承當。無向背通身紅，爛血淋淋。遂披。

為守勤龔居士薦嚴

余不會禪，亦不識字。豎拂子云：唯這一著，撐天拄地。且道這一著甚麼處得來？若知來處，當下直截生死根源，永證金剛固體，於固體上覓其生死去來了不可得，所謂生也，這個未曾生滅也，這個未曾滅。既無生滅，去來一道清淨，浩然大均祖佛所證證此菩薩所修修，此眾生所迷迷，此吾人所悟。悟此以此修福，何福不臻？以此懺罪，何罪不滅？且獨拔薦嚴一句作麼生道？復豎拂云：不須他處覓，祇此是蓮胎。

示三尼

三人同道，直截淆訛，到即不點，點即不到。徐行踏斷水流聲，大地山河渾是我。去來不挂一絲毫。也須黃檗門下親。勘過勘過底，意作麼生因師姑元是女人做。復云：來從舊路來。去從舊路去。步步絕行蹤，歷歷有本據。更擬問，如何秤鎚上著鋸。三千里外逢人但與麼舉。

清漳淨塵上人求薦乃師樵雲公

余初出家時，便聞公名，欲渴見而未能。一日，公過碧芝巖，道經黃檗，觀公德澤潤如春膏。誠不虛乎，昔所慕也。別後余行腳遍參經歷二十餘年。及庚午回閩，復面公於芝山精舍。然間有議。公未具佛祖爪牙，豈堪為人師範。殊不知有一行過人一德可嘉者。亦足為濁世之標準。近聞歸寂石室，令人嗟嘆不已，遂寄瓣香。以表昔年之好。其徒淨塵令台，則上人不遠五百里而來。乞求法語，為助薦愧。余學淺心粗。寧敢放言污瀆先輩面門耶？因見上人虔虔懇懇，似不得免。聊敘數言，以塞來命。夫薦師之道，不須別求別求，終不得力。直須向自己腳跟下一刀兩段，百了千當。不獨上人。師祖已薦。乃至盡恒沙際，一切師僧、父母、有情無情俱已薦矣。何故？悟則事同一家，不悟則萬別千差。上人果不外。余言異日得到與麼時，始信吾不汝欺也。

後堂默公入室禮拜，起號泣漣然，余曰：奚為也？公云：父母欲進葬，乞和尚法，語為薦拔。余曰：生事死葬，人子之道畢矣！何乃號泣若是？然我教貴乎心喪，略其哭泣，欲泯愛惡，而直趨清淨之域，以此顯親報德，不亦大且至乎？公曰：先母啟手足時，未及一

面，偶思至此，不覺而慟，伏惟和尚慈悲體悉。余曰：誠哉！孝之不可掩也如此。遂援筆為助，形生大本重丘山，未報劬勞暗淚漣，忽悟萬靈共一體，雙親頓證剎那間。

西堂恒公求法語，為薦令先考季熙居士母林氏，余乃粗行沙門，尋嘗乾爆，爆地過日，曷有片言隻字塗污於人也，遂力辭而不能已。搜盡枯腸，仍無可說。偶記童蒙時，數句援引為助或當否，冀公裁之，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然公立身有年，中外頗聞，而父母寧不超拔，曷用余之贅言而後為薦耶？既拔又薦，大似賊過後張弓，縱有飛騎之捷，金牙之作，徒費其力，詎補於事乎？公益請不退，復占一偈：孜孜乞法薦宗親，當得閻浮半個人。擗破娘生雙鼻孔，大千沙界露全身。

良守禪人構精舍於資福舊址，接待方來二十餘年，其心不倦，誠不昧疇昔之本願也。余辛巳春南遊道經於此請余齋，仍索法語為徵。然路途中，豈可與人說佛法？但敘其平生為人之梗概，與夫往來者共識之。大言弗華，至樸無文，頭頭可據，事事有君。導人之善兮多生資福，固守良心兮永劫不渾。

顯密禪人求偈壽母七旬，余念其孝行可嘉，遂占數言為助乞法壽，其親其親等法相，法存親亦存，其壽莫能量。我法如春霖，資生物物長。大哉余道婆聞法預皈向，教子謁泉石泉石聲愈響，推兒禮壁山壁山清且亮，七寶滿虛空，不如法供養。子孝母更賢，無物堪比，況真個古來稀法門之榜樣。

維那學公父龍泉母嚴氏同余母龔氏，共葬於熨斗山臥雲菴之傍，其塔曰報恩。時皇明歲在辛巳庚申日也，復捐衣資計田粒，以為春秋掃塔之需，仍備香信，乞法音，用作追薦之功。余謂父母既得其所，人子之念已息。念既頓息，十方坐斷，恩波坦平我人一致，都盧是個清淨大解脫場于中，求其能薦所薦之者，了不可得，況筆舌文言而能情狀其萬一者乎？所謂忘機則佛道隆，分別則魔軍熾。願公一息永息，更不再息，一證永證，更不再證。苟能如是，不惟當人。父母已薦，至于無量劫來，尊尊親親，莫不俱已薦矣。偈曰：捧母金軀入翠微，紅爐煨過愈光輝。百千龍象咸瞻仰，星月依依常遶圍。

示公奎丘居士

修齋祈嗣，直接來源，乞法至誠，以壽後世，可為奕葉相承，源源無間者矣。然則嫡嗣弗從，他得真法，豈可外求？當求諸己，靡所不備。是以聖賢正脈，以法嗣法，法法奚窮？以心傳心，心心不昧。不昧故，光前耀後奚窮？故貫古通今。悟之者成賢成聖，迷之

者為凡為愚。吾人豈可捨此嫡嗣真法，而不求向外馳逐虛幻變滅之法，非端人正士之所願也。偈曰：善人重法嗣爺娘，一念反求處處彰。偶值九秋空外響，正傳岩桂一天香。

信童國錡乞壽乃尊甫宇洪居士七秩

兒孫縱橫天下，非吾所願也。玉帛塞滿虛空，非吾所寶也；福壽盈齊，海嶽非吾所祝也。然吾所願所祝及寶者，惟善與道而已。茲有萬安甫宇洪居士八歲，長素飯僧，五十餘年，行之益恭，其善可知。今值古稀之誕，奉道愈篤，長而且久，寧不超于天下虛空海嶽者歟？吾人豈可咸默於巖谷，不述人之善與道耶？偈曰：瑤池臘月正開蓮，奕葉芬芳遍大千，一榻風光殊勝處，滿堂圍繞盡金仙。

示九龍寺良箴諸禪人

世間一切事物，無一真實，惟有當人腳跟下一著子，明如杲日，闊若虛空，不屬成壞，了無真假，不增不減，無去無來明之者，喚作本源佛性，炤世明珠，暗之者，返為業識茫茫，未免物欲所累，從生至死，從死至生，無繇得脫，誠可憫也。有志衲僧，正好在此茫茫之中，著得隻眼，且看忙者是誰，略有少閒，又看閒者是誰無分？晝夜匪閒閒忙，轉追轉究，忽於不知不覺處迸出星兒，不妨輝天鑑地，則腳跟下大事已竟，非惟但能轉物，即同如來，亦乃事事法法，轉歸自己矣。而後忙時也得，閒時也得，不忙不閒也得，亦忙亦閒也得呵佛罵祖也得，喚佛祖來洗腳也得。為伊踏著佛祖上頭關捩，千聖萬賢盡在下風，所謂終日忙忙，那事無妨，豈昧我耶？否則日久月深，便打在流俗阿師隊中去，吾末如之何也已矣。

示陳道人

念不淨不往，極樂心不染不來娑婆，娑婆極樂只在當人心念淨染之間矣。是以其心淨故，法界清淨水鳥雲林共演摩訶之音。其心染故，世間混濁，彼此山高，舉措無非生死之路。愚人不醒，從迷至迷，萬劫千生，無繇脫離。智者返炤，一切世間五欲猶如夢幻，念念圓明，即時解脫，於圓明解脫之中，求其染淨之相，了不可得，豈有娑婆極樂彼此往來之隔乎？所謂不見一法即如來，是則名為觀自在。苟能覷破盡無餘日，用應緣胡罣礙，以此資無漏之福田。事事如意，以此淨金剛之固體，生生不壞，以此為般若之種智，念念圓明，以此證菩提之妙果，時時現前。法王大寶，不期自至，極樂

一會，當念儼然，所求皆遂，無願不從，豈惟轉女成男而已哉？勉之，勉之！

信士儒萃儒[茫-亡+(姬-女)]薦拔乃尊公進丘居士

日常圓覺大伽藍，動靜於中莫放憨，忽悟惺惺寂寂者，人間天上總司南。吾人於此信得及，一念圓明，互赫千古，於中覓一點罪性如芥子許了不可得，亦覓福性如芥子許了不可得，所謂清淨圓滿，中不容他。雖然如是，謾他一點不得，誠為寶鏡當臺，物來斯鑑。吾佛證此，名為圓覺、正覺、大覺菩薩為等覺。二乘人為覺者，凡夫不覺，便為塵勞所汨，百千萬劫不得自繇，誠可憫也。善人苟奉余言，念念覺炤，覲體圓明，便與諸佛菩薩有何異乎？以此薦宗，親即超蓮界，以此福子孫必也綿綿。書不云乎，反求多福，豈外斯語？偈曰：山色陰晴日正長，蓮池花敷卻芬芳。等閒殿角微風起，一段馨名播四方。

答高峰垂語

大徹底人本脫生死，因甚命根不斷？

答：青山依舊白雲中。

佛祖公案祇是一個道理，因甚有明與不明？

答：分身兩處看。

大修行人當遵佛行，因甚不守毘尼？

答：惟吾獨尊。

杲日當空，無所不炤，因甚被片雲遮卻？

答：拈得鼻孔，失卻眼睛。

人人有個影子，寸步不離，因甚踏不著？

答：騎牛覓牛。

盡大地是個火坑，得何三昧不被燒卻？

答：高峰出來也未。

隱元禪師語錄卷第十一終

啟

請本師和尚啟

伏以獅王弗吼，祖佛困於稿灰；野干亂鳴，生靈陷乎鬼窟。客路猶然悲愴，婆心寧不怔營？恭聞和尚法戰諸方，翻卻千年骨董，機投密室，贏得一味平嘗，**豨**毳破袈娑搭著，通身是眼現成鐵，榔栗拈來，活潑如龍。何妨帶水拖泥，隨處撐天拄地。某等翹勤永日，佇想終朝，所冀神足雲騰，即擁娘生處所。慈容滿月，嘗放本地風光，爍破迷途，咸成正覺。玉融城畔，奇峰怪石也生輝；黃檗山中，翠竹名花增錦繡。一會儼然，不勝慶幸之至。

請鳳巢互信法弟啟

建立師宗，貴乎莫逆心腹。掀翻祖道，妙在徹骨。弟兄爪牙，早已完全；肝膽繇來，共赤家裏。人敘家裏，事個中信。向個中傳，恭惟法弟。德涵海岳，道契塵寰。一脈長懸，隱隱清彈。霜夜月，雙巒並秀，重重流露洞中春。忝法愛以來迎，仰仁慈而許可。因緣出現，正值斯時。賓主圓融，莫非此際。僧眾瞻風已久，士紳渴化良多。更冀速展鳳巢，得意眉端。增瑞彩即登獅座，儼然錦上再添花。某等停候白椎，親聆哮吼。慶快平生之願，滿足曠劫之心。庶浪子知歸，山靈幸甚。謹啟。

復儀部閔公請啟(諱及申)

伏以接聖賢之命脈，滴滴歸源；剖佛祖之心肝，刀刀見血。懿德汪洋乎震旦，美名浩蕩于娑婆。恭惟臺下天湖毓秀，霽水鍾靈。舌卷千江，活捉鱗龍于掌上；眉堆五嶽，生擒虎兇于盤中。殺活兼行，恩威並濟，放去大千，共用收來。毛孔獨藏，調玉燭以壯皇圖；黎民重慶，扇金湯而嚴福地。瓦礫增輝，召有佳言。搭我半鉤晴夜月，酬無妙句。涼人一味，好秋風謹復。

復侍御曹公請啟(諱谷)

伏以水秀人文，展托胸中之日月調高韻雅卷，舒格外之乾坤。慣用鱗龍爪牙驀鉤獅象巴鼻。恭惟台臺德被林泉，聲揚海宇，踞維摩之丈室，恢長者之高風。十笏居中，廣容寶座，一莖草上，常現瓊樓。與夫金粟如來，同門出入，並敷向上之真宗；黃面老漢，把手共行互唱，非嘗之妙旨。某所愧樗才，詎堪應世？既承鼎召，曷敢固辭？喜逢瑞氣映寒巖，通身慶快，惹得天花擁毳，衲覲體風光。謹復。

復崇德縣邑侯解公請啟(諱學問)

伏以主賓互唱，成萬古之規繩；儒佛並擔，作千秋之榜樣。杲日長懸乎丈室，文星正炤于禪房。恭惟臺下現大人相應宰官身德澤，寰中草木昆虫，皆有賴恩臨格外，林巒獅象悉無虞。某愧乏拔世之才，慚虧對機之用。謹承教召，敢不欣從？藉劍氣以演揚，仗龍光而揮霍。試擲半瓢嚴福地，可留一帶鎮山門謹復。

復銓部錢公請啟(諱元愨)

伏以德被禪門，同祖山而永秀；名標僧籍，共法海以長流。峻哉弗可，思惟渾矣！奚容湊泊？恭惟臺下明朝柱石，聖世金湯齊平，家國匪輕，荷負佛儒尤重。湖天一色兮滿眼文章，上下圓融兮通身錦繡。用微軀為法器，醜態難看，以長舌作溪聲，佳音可聽。驀直鉤來鈍置，何如放去逍遙老念方休千針衲破臥芳草，狂心未歇，半醒眸開望紫雲。

復方伯顧公請啟(諱玄鏡)

伏以沒量大人，能提沒量之綱紀；高明英哲，爰契高明之腹。心不昧靈山付囑，永護少室單傳。恭惟臺下日富三車，胸羅四庫。宗風當崇尚之日，豈無鐵漢維持法；運正興隆之時，賴有弘才克輔。吐珠璣以慰玄徒，指黃葉而憐赤子。幽谷繇斯普耀，禪林藉此增輝。某竊念德微，曷歸四海之龍象；重辱台命，敢冒十方之聖賢所貴。覲面提攜，迅雷不及掩耳；當機顯發，掣電那堪佇思？亂草場中強作主，迎恩渡口待何人。謹復。

復通政馬公請啟(諱思理)

伏以至道忘詮，妙在主賓，唱和大形靡相，不妨凡聖交參。卷席之風尚存，築拳之教可振。法隨緣起，道在人扶。恭惟台臺閣下，聖朝砥柱，佛刹金湯。為世津梁，普濟生民之厲揭；搏空麟鳳，遍興寰宇之禎祥。爰及眾緣，下垂鼎命。某生平拙訥，寧無愧乎羊膺；法任弘恢，奚可懸于蚊頸？機鋒遲鈍，渾埋萬卉，頭邊舌相原長籟響，一聲天外，接佳章而氣爽，覽玄誨以神清；叨承寵召之榮，曷不繭蹤而應？伏望台星正炤，同明百丈之虛堂；德譽遠揚，共布龍泉之紀範。敬裁寸答，仰謝不宣。

與互信法弟啟

半邊鼻孔，何妨到處昂藏？兩道眉毛，妙在逢人卓朔。其去也，路途坦平；其住也，牢關穩密。內無可守，外無可覓，靡倚靡靠，活潑自繇。惟個中人，知個中事，若向外之遠，曷能窺其恍惚哉？茲 和尚退席，法道寥寥。眾議請弟掩關丈室，俾祖道疊疊，增輝法音，泠泠盈耳。所謂金聲玉振，無異此也。惟冀鼻孔下垂，來學可規，庶幽巖不令寡聞，曷勝慶幸之至！

復長崎諸居士啟

伏以欽尚三寶大心長者之能，頓超一門，明眼維摩，可入下榻而延素士虛堂以待貧僧。從古已然，於今為烈。恭惟大檀樾列，位老居士，德盛扶桑，名聞震旦。崇賢亦收管蒯，訪道不遠艫舳。禱法雨一天之中，志存甦困；招玄風萬里而外利，用啟蒙媿。某葛拙無能，不堪生光寶刹。陶陰有限，只可守訥。寒巖忽領，霞箋滋深。霧汗十二峰公案未了，勉自栖遲；三千則葛藤還多，藉誰砍斷？無論溪邊虎嘯，恐虛勝友之車；且聽潭裏龍吟，亦戀老人之鉢。弘道誠莫分彼此，審勢自不無後先。況值紛紛灰劫之時，正須汲汲撐持之日。天緣非偶，仰眺鴻飛，地會有期，俯慚玖報。伏祈老居士，深砥自求之福，曲宥方命之愆。蓋至德之交，纏繞不在形合無言之教，高深可以意通。悟乎此則黃檗山頭，有情共瞻；日月青波，海上何地不聽風雷棒喝，聲遙山川。氣達將見，德及黎民。自此始矣，保我子孫，豈有既哉？臨楮飲冰，竊希鑒亮謹復。

書問

與檗山諸禪德

智者重法以忘情，愚人溺愛而叛道，此賢愚不肖之別，法門隆替之驗也。今兄等情關既破，愛根已拔，一眾清淨，無二無別。弟應兄呼，道聚法樂，教外之風規可振，黃檗之龜鑑猶存。余復何言？前所議者留一二行童，差使亦未為善，必盡去之，乃可此行。如八十翁翁入場屋，真誠不是小兒戲，不然，則無益於事矣。

復海澄文長曾居士(諱紹燈)

玄珠禪人齋居士手教并信物領謝領謝。山野雖未面晤，已知居士從正信中來，乃能立志期悟，直至古人田地，不敢一念退屈。比按牛頭喫草者，實雲泥懸隔矣。又求直截，開示山野，祇得口掛壁上。然居士未開口前，合喫三十棒。山野與麼道，早已鈍置不少，那更委曲開示，展轉牽絆，曷有了期？且道未開口前，過在甚麼處？合喫三十棒？所冀著實體究，無間閒忙。忽于不知不覺處磕著山僧棒頭，敢保生死心，七花八裂，本來面目，獨露堂堂。至于迎賓待客，呼奴喚婢，法法頭頭，塵塵剝剝，無非本地風光，更于何物而可蒙昧者哉？得到與麼時節速來通消息。

又

此濁世中，若無一二霜丰道骨卓立其間，則不成化道矣。今居士獨踞漳南。直須向未屙已前壁立萬仞。猶較些子。那更撒屎撒尿。炙地薰天。有甚交涉。且如居士即今未晤。山僧如是篤信，如是親涉。且道。是何景象？是何面目。向個裏見得徹。覷得破。則山僧早已在居士腳跟下七花八裂。又何曾當面蹉過耶。大凡個事參須實參。悟須實悟。苟或依稀恍惚。未免鄉關萬里來。教云。生死二字頗似勘明。祇恐不是玉。是玉也太奇。然生死二字果若勘破。則干戈永息，天下太平。正是歸家穩坐時節到與麼田地，覓身心世界了不可得，而況毀譽利害及眾生酣夢者乎。經云。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悉皆消殞。良有以也。而云生死勘明。且戰且守。恐錯會耳。何故？且戰且守。乃功勳未忘。天下未寧。正是路途邊事。未是到家時節。而云。生死勘明。豈不錯會者歟。惟冀居士再加參詳。毋忘初志。忽若因地一聲桶底脫去。非但七百里如面亙古亙今。山僧與居士未嘗斯須間隔也。如何如何。

又

去秋山中一晤，雖未勘明個事目擊而道存焉。然試期在邇，恐亂文思，故放行一路矣。春間又承來論，謂：世人六塵繫絆，無有休息，不能離幻，即覺為歎者，誠知門下婆心太熱耳。蓋盡大地是個解脫門，把手拽不入，誰為能絆？誰為所絆？若見六塵繫絆於人，則自己腳跟早已絆倒，曷能塵中作主，剖露全體耶？不見道：六塵

不惡，還同正覺。又不見佛之一字，吾不喜聞。試問門下此二轉語，如何理會得恰好去？倘著得一句相應，黃檗不妨為汝證據。如仍守舊窩，誠恐依他作解，障自悟門矣。

復鼓思王居士

所尊者道，所重者法，法道之所在，捨身衛之非過也。法道之所不在，忘名事之奚益焉？然？今正值禪林秋晚之時，破法沙門謬解宗徒靡所不至，若非正眼決之，恐被邪師所惑，衛之事之，有何補于法道乎？是以我宗貴在眼，正眼若果正日嘗行操，則無顛蹶之患，入佛堂奧，必也可期矣。故僧問古德：如何是正法眼？德云：破沙盆。且道是甚麼意旨？所冀居士弗舍晝夜孜孜參究，畢竟是甚麼道理？脫若因地一聲，便知山野棒頭落處。而頂王之珠甚深微妙之法，不待問人，了了自明之矣。囑囑！

又

祖師西來，直指現成公案，本無一法繫縛于人，寧有隻字片言可削哉？蓋披剃乃大丈夫之事，非將相之所能為，豈是省應接而後已。然此法門正要，當人自省，自鞭自悟，不妨門下道著。苟能自省，自悟自鞭，直下便與祖師不別，而其塵緣不期了脫而自了脫，求其聖名，了不可得，而況凡胎俗骨耶？門下果能一刀兩段，則黃檗早已八字打開，一任四面而入也。蒙賜信物，領謝不盡，更冀秋試，便道一晤為幸。

與鏡汭凌居士(任東甌司理)

山堂夜話月初涼，何處飄來一院香？莫是東甌塵外客，催人落草暗商量。咦！一念妄動百計，無何造道緇素，豈不慎歟？蓋為居士昔日一問不帶枝葉，屢屢觸人鼻孔，不覺漏逗如此。然山僧當時答處直截根源，未審居士留心否？徹證否？如徹證也，便能掀翻窠臼，摸將虎鬚，則不被天下野狐津沫所瞞也。不妨二六時中，心心獨尊，念念獨尊，頭頭獨尊，法法獨尊，塵塵獨尊，剎剎獨尊，更有何物可為伴侶者哉？然後獨踞公堂，應機接物，大用現前，不存軌則，一語一默，一錘一撈，決千古之猶豫，斷未了之公案，敲枷打鎖，起死回生，為黎民福，成差別智，正是沒量大人境界，非凡小可知也。果到與麼田地不虛，黃檗山中一面矣。捨此別作生涯，棄本逐末，則直指之道莫辯耳。何故？吾宗貴在單刀直入，切忌多途，雜毒途多踏草，不死毒雜，必也難療，惟冀高明，裁決為快。

答齊甫楊居士

昨因寺僧啟請，乃一時黃葉止啼之譚，曷有實法繫綴於人乎？不意三家村裏有人窺破。抑不能擒下法座爛槌一頓。共報不報之恩。反加唱和。重埋圭峰寺裏一段風光也。所賜偈語不無順暢。祇恐不是玉是玉也太奇。然無味之味，塞卻人口；無香之香，擱破人鼻。苟無罣礙思量，要進便進。何必探頭縮腳呵呵。

答天目龔居士

承諭謂口訥舌鈍，無能證明，不知過在甚麼處？云云者，夫學道不怕口訥舌鈍，祇恐生死心不切，卻被事境限雜，不能歸一耳。苟欲明此一段生死大事，不須速求請益，說破為快，然說底是山野境界，與居士全沒交涉，惟冀仍向無說無聞，是一是二處起疑，不妨好個消息。何故？古云大疑大悟，小疑小悟，不疑不悟，但與麼疑去，不分南北，不辨東西，不計歲月，不問閒忙，忽然不覺不知，打破疑團。大事已畢，突出三頭六臂，堪笑黃面瞿曇四十九年無端說夢，三千七百祖師亂扯葛藤，不獨一義二義明破，乃至百千無量妙義，熱碗鳴聲矣。便知終日口喃喃，未曾說一字，竟年口訥訥，剎說熾然，說果到此時，不剖心疑，自己決矣不施痛，棒夢已破矣，何如？

復密因上人

來教謂山埜未出世，蚤獲親面者，祇恐妄通消息耳。且道山埜未出世時，眉毛長多少，口門闊若干，所冀一一答來。若如法，不惟摸著山埜，面門亦且早已喫棒了也。曷言不到如未？切不可亂撒許多不乾不淨，塗污山埜面門，敢保喫棒，無有了日在。其偈頌一一按過，於中不無所見。第欠師家淘汰，未免語脈不清之患，徒費苦心，祇益自勞矣。所謂黃河水，自源頭濁，良有以也。固知上人有衝浪之志，拋出直鉤相為，若不認其非，掉頭不顧，一任漂墮羅剎國中，面赤面紅，頭出頭沒，則無奈其何矣。

又

此偈頌其中得失相半，不能一一點破細味之大，似瞎老婆咬蝨子相似，著與不著，湊造化耳。大凡要入這個門戶，直須將平日惡知惡覺腐爛臭葛藤盡，拋在東洋海底，然後赤身挨入荊棘林中，打鞦一番，直至通身紅爛，七花八裂，無一絲頭牽掛，豁然突出頭來，纔

有立腳處，纔有說話分，不然盡被亂統，漢子算將去。縱有千言萬語，曷補於道乎？囑囑！

又

既云山堊未出世，一體相面，則出世後必不一體相面。若與麼卜度，反成兩截，曷能會萬物為一體之旨耶？然學道貴在真參實悟，切忌依他作解，恐臘月三十日到來，總用不著。苟悟的人，自有一條活路可行，決不在出世未出世時，躲跟一體不一體處著腳矣。

復惺一莊居士

日來札前後錯亂相違，不勝枚舉。故知居士在草裏打鞦過日，無怪其亂統也。然山堊承當，個事出沒施為自有時節，當然非門外人之可測度。若作佛法，世諦較量，則自墮塵網，曷有出頭之分？又云：稍休棒頭，勿加痛棒。乾淨化人以體佛氏之大慈益見，可笑！不惟不知佛氏之大慈，抑且未曾夢見棒頭事在。古云：喚作棒，入地獄如箭射；不喚作棒人，地獄如箭射。且道喚作甚麼？如道得相應，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曷言稍休如未，切不可輕擬棒頭，自招謗法之咎。山堊縱有拄杖，亦不打這無血氣的漢子，何故恐染拄杖耳。蓋頌古一事，乃古人大徹之後，別出手眼之邊，說禪以啟未悟，非是承虛接響，取竊相似語言，擬欲瞞人，祇自瞞矣。若夫祝壽章句名公文人為之，非山堊事也。何云小子要求老母壽章，伏為秉筆代題，知禮乎不知，禮也。呵呵。

復丁官徐居士

前蒙光顧，煥然餘輝，未已復承信物，何異錦上添花，不唯山堊致謝弗盡，抑亦令人讚誦無窮也。來教謂真佛出世，放光苦海，尤懷賞而不置者，然放光一事，不可獨推在山堊分上。祇如居士二六時中動轉施為，折旋俯仰，是個甚麼？若能回光一炤，則與真佛放光動地有何差別？與天下老和尚又何曾隔一絲毫？未審居士信得及否？如信得及，不妨塵中作主，濟物資生，莫非廣大之佛事，庶不虛閻浮界上走一遭也。

復鹽官子穀蔡居士

遠承過舉，詎不從命？然琦勉荷老人重擔，更以殿事所累渾身，毛羽脫落，惟餘一付赤骨而已。苟若搏風遠揚，則中途未免，不無天

闕之患，故再四躊躕，未即前也。俟舊羽稍復，不妨一鼓直造大方，作個弗請之友，以滿洪護之弘願，未可知也。謹復。

復不凋池居士(字直夫)

來教謂末劫眾生無明濃厚，即入此門，盡是識神搬弄，求其絕後，再甦千無一二。誠如所論，婆心雖切，而義未妥。何故？一切眾生無明濃厚障蔽，心目難入，此門盡被識神搬弄，無時休息，故古德呵為門外漢也。苟入此門，如賊入空屋，失卻偷心，所謂了了見無一物，亦無人，亦無佛，大千沙界海中漚，一切聖賢如電拂，此便是入門樣子也。又云：今歲不上公車，非是辭榮高，尚實觀世味，如嚼蠟據山野，見處觀世，味如嚼蠟，正好上公，車登大任，儒佛並治，家國晏然，不惟人主坐致太平，抑亦靈山付囑猶在矣。更承妙象嘉刻，併選禪髓，見惠何以克當？然山野住持，事繁未暇，覽閱第目髓之一字，似未妙也。蓋髓字係初，祖將示寂，門人侍側，祖曰：時將至矣，汝等盍各言其所得。諸子各呈所得，祖一一印訖，唯慧可大師即禮三拜，依位而立。祖曰：汝得吾髓，今門下不錄機語，以古人方便義路為禪髓，而謂普被三根者，實未能全被也。土根聞之，未免掉臂而去，終不咬人言句。中根自有生涯，亦不隨語生解，下根聞之，若存若忘，不無葛藤所絆。如是則何普被之有哉？殊不知宗門下貴在覲面提持，抽釘拔楔，解粘去縛，直令個個獨露本來面目而後已，曷有實法繫綴於人乎？故我臨濟老人三度問佛法的的大意，而黃檗三施痛棒，至大愚處點破，乃云元來佛法無多子，此便是瞥悟禪髓之樣子，不獨此老如是，乃至有祖以來，莫不繇此為至要，餘者盡是皮毛，何足尚哉？偶因門下一片熱腸，不覺嚙咀如此，諒直夫必受直言，故不敢紆曲，以污直腸。彼此尚直，則直指之道可通。不然，總被識神搬弄，至於驢年，無有休歇矣。謹復。

與羅山法弟

法道之盛，莫若斯時，法道之亂，莫若斯時。然盛故亂，亂故削弱，理之必然，時之必至矣。兄所恨力微不能立，救此弊為愧。惟冀吾弟早豎法幢，人天皈正，不被此輩之所扇惑，以報先佛莫大之弘恩。生靈幸甚！餘不盡述。

復刑部沈公請(諱戩毅)

來教謂久企法履，未獲面覲，深用歉然，豈世外之人想望而不之見也？貧道云：臺下誠欲企見世外之人，直須返觀，能企者是誰，所企者何物？忽若覷破未萌之先，一著則世內世外，了無二致。不惟洞徹貧道面門，至于乃佛乃祖，若聖若賢，本來面目，盡被勘破，又何歉之有哉？蓋福嚴古剎，一帶荒涼，而基跡恢廓，非大檀越長者，孰能為之？偶承台召，荆綦瓦礫，忽然增輝，方來雲衲，莫不慶快，何獨語水福嚴之幸，誠天下禪林之大幸也。某所愧德微，曷勝其任第？鼎命莫違，未免出醜一場，諒大方海涵，必不以我為誚也。然道人家風動若行，雲靜如止水，隨緣去住，斷無固必之念；更冀春容洒落之時，語水冷然之際；覲面相逢，契闊于形名之外；開胸見膽，徬徨乎無有之鄉。永脫世縻，頓超物表，益見逸格之談，歷歷可據，豈世間濃淡空華，而能蒙昧者哉？肅此奉復，炤亮不宣。

復天水禪師

接來教，盛讚不佞，何以克當然不佞生平愚鹵，一無所能，第以退讓為主，而人皆以古風鑑賞遞相傳嚮濫充時聽耳。自揣其微，非真讓也，非好古也。誠無用之人，不得不如是也。蓋此法亂之秋，愧無摧邪扶正之作，而正法眼藏，不幾乎隱滅矣。幸足下有當仁不讓之鋒，直指正統之論，為後學規繩，人天皈正，則祖佛中興，莫非斯際。然則統上綱宗，則可自統其末，則未可也。逆耳之言，冀高明酌之何如？

復起南張居士

偶接來教，乃知為法之誠，一誦棒喝，便發慈憫之心，大似見鞭影而行，較其深錐痛拶而不回頭者，何啻日劫相倍矣。蓋棒喝是亂世之英雄，法門之猛將，所謂有時一棒掀天揭地，有時一棒斬釘截鐵，有時一棒賞罰分明，有時一棒如蒿枝拂相似。若能一一辨明，了無差忒，便知山野棒頭落處，則不被假雞聲韻所惑，真為世出世間大丈夫也如未，切不可糶糊影響，喚鐘作甕，疑誤將來，奚益於法門乎？崑此，奉復。

答心盤禪人

來書謂親近山野彌切，甚羨甚羨！第恐言彌切，而心誠未彌切也。苟真彌切，一念萬年，終無改易。見知識如見生冤家相似，即要與

他倒斷一番而後已，豈肯放過？或此或彼，忽是忽非，自無一定之見，略有少分相應，未免雜毒入心，理障日固，似難救療，不自覺知。又謂瞿曇成道之日，即山野週行之日；瞿曇開眼之日，即山野因地之日。雖然融古今一賢愚，則不無正眼炤之塗污瞿曇，扯累山野，不為不少矣。蓋衲僧家所秉金剛王寶劍，一切凡聖當前，裂為千段，豈可扯如許絡索以糊他人耶？縱有睹星之見，正是金屑入眼，那堪為貴？倘如是信得及者，以見衲僧爪牙，超宗異日，互赫千古，詎狐群種族而能近傍者矣？

復莆田陳孝廉得先書(諱遂捷)

香潭一晤，迄今風雅尚存，忽接佳音道範儼然重煥。蓋斯濁劫，乃有其人提持個事，則從上來源不至寂寥矣。靈山付囑，猶在毘耶不二之門，必也可振矣。若論當人向上一著未面山野已前，一坐坐斷，百了千當，覓其一物了不可得，而賊賊取舍偷心，無地可寄，所謂佛之一字，吾不喜聞，況外影響之事乎？來諭捧讀山野語錄，喜獲大寶，嘆未曾有，奈偷心易起，賊媒難除云云。恐未獲真，大寶如得，則取之不盡，用而無窮，何得何失？更欲求山野法力追賊乎？若有賊賊可追，累及東鄰，西舍無疑，而主人翁必不安穩。又云：但未知穩坐家中，若個可以起手到異日又如何撒手？恐未曾穩坐家中。苟真穩坐，家中萬事已畢，縱有百千萬億神通三昧，皆是門外，夢幻影響，何足道哉？如求起手撒手，正是路途邊事，未是穩坐家中時節。欲山野一示方法，只得覓起手處不可得，覓撒手處不可得，不可得處遮麼得，唯證乃知焉可測？更若如何若何，好與三十大棒，另日知山野棒頭落處，再來通個消息。

復長崎禪人書

蒙召，本當從命，奈山僧老矣，弗獲遠應，是所歉也。但最尊者道，至貴惟王，非王無以重其道，非道無以祝其王。故靈山佛法付囑國王大臣，良有以也。彼此各土語言禮節，佛法人情，恐不貫通，而見責于方外，則進退兩難矣。昔達磨初祖觀震旦，有大乘根器航海而來，作不請之友，遊梁涉魏，機緣不契，面壁九載，使非斷臂一接。今寧有佛法烜赫中國繩繩不斷乎？然其中亦有毀之、譽之忌之，妒之者可見行道難于學道，而護法不易請法也。倘因緣出現于此，則龍天相焉。王臣重焉，有召則應開化一方，即未敢望達磨之來震旦，要非圖聲名利養而已也。夫懸一祖燈于扶桑，朗耀百千萬劫，福國庇民，無窮無盡，誠非細事，他日載之。史曰：某朝

請某和尚開禪宗之始，可謂君聖臣賢，並傳萬古，則庶幾不負靈山付囑矣。上人其亦商確之乎？老僧全錄，又錄雲濤集意者，其亦已上進乎？所惠盛儀等物悉拜登謝謝。

復本仁呂居士

前蒙見召福嚴一期回山，迄今十閱春秋，無日不懷念也。想因緣出處，隨之以時，天亦不能定其去住，況人能固，必乎別後株守寒巖，世界攘攘，難以忍言，想眾生業重所致，縱有法力，無如奈何，第存佛心以俟之良矣。回山乃知三錄已竣福嚴，末後一段光輝，非居士孰能為之？昔人半偈撐持千古禪刹，余愧遠矣。以空言罪責於余，余亦奚辭。遠惠香供謝謝弗盡，偈曰：十年夢幻幾凋零，唯子頻招見道情。想到迎恩渡口處，從教語水愈冷冷。

復觀周徐孝廉

接來教併佳刻，見惠何以克當？夫贈人以言，較百朋之錫，奚啻霄壤矣。老居士從三代法社中出立言理，致自然圓淨活潑，無可擬議。且經徑山老人點定金粟，批評山野，豈能贊一詞哉？摠之金湯之所當為，何可擬議？但今時法道凌夷，眾生盡在大夢之中，竟日搖撼不醒，聞醒世錄將出，慶快不已，望亟梓流通，以開群矇，即成大覺世界。否則大地生靈，曷有醒日？而山僧說夢亦無已時。偈曰：十年倏忽鬢垂絲，嶺外雲堆古道迷。懶更抬眸分好醜，碧潭千載冷雙眉。

復子穀蔡老居士

山野愧添法門，濫廁宗黨，未免蹇驢趁隊之誚，累及外護，不為不少。蓋全錄一時示眾：應緣影響耳，非千古定式也。良矣！禪人好事，刊行於外，揚家之醜，大似鴉臭，當風觸著，寧無掩鼻？所幸老居士大出，手眼奪回，李公帽仍戴張公頭上，見者無不絕倒。雖然如是，祇護得黃檗半邊面門那半邊，莫道居士摸不著，普天下人到黃檗，敢保無處措手偈曰：祖道匡扶仗作家，洞明法眼驗龍蛇。羨君不負靈山囑，枯木巖前盡放花。

隱元禪師語錄卷第十二終

詩偈

金粟解制

禪關透脫絕纖塵，剔起眉毛一斬新，瓦屋冰消長夜夢，梅花凍解小園春。人情恰好難分離，道眼初開別假真。喝散白雲千萬里，縱橫何處不相親？

訪青雲巖關主不遇

踏破青雲路幾層，出頭始見嶺南能。途中迷悟千般客，物外逍遙一個僧。叩罷禪關空寂寂，沖開鳥道任騰騰。卻來巖下問童子，白牯峰頭飽未曾。

宿潮州草菴

巍巍梵剎迥西郊，四面風清震我潮，野老日嘗波挈挈，貧兒到處赤條條。溪山有意流今古，雲月無私伴寂寥。聞道嶺南光景好，不辭千里路迢迢。

寄中台林檀越

君在天邊看落霞，誰憐清冷野僧家？彤雲密布千秋月，白雪飄零幾點花。龍藏久封無法說，山田典盡沒生涯。有人借問西來意，獨飲趙州一夜茶。

回山有感

密雲散處各歸津，獨露尋嘗本色人。鑑水一條拖白練，青巒十二迴天真。細嘗黃檗連根苦，冷看梅花徹骨貧。無奈東君輕漏洩，紛紛踏碎故園春。

次林秀才韻

白雲隱隱出山阿，點綴峰巒接氣豪，幽谷風清探客少，墨池水濺化龍多。文成五彩騰黃閣，悟徹三空洞碧波。自是歸家生意別，莫嫌破衲異紅羅。

狂風

堪笑空王性太羸，門庭吹倒喚誰扶？數聲怒號漫天黑，一片光明特地無。掃盡人家舊骨董，掀翻面壁細工夫。偶然觸著毫端處，始信真風不負吾。

輓印初禪友(歸寂金陵)

透脫關關膽氣粗，翩翩一葦渡江湖，舒開碧眼千峰秀，撥盡清波徹底無。撒手晏然同我國，翻身獨露帝王都。偶聞塞北悲風起，若個枝頭不夜呼。

輓龍吟卓居士

嘗憶清光映竹扉，那知擲杖化龍飛？沒絃琴下知音少，有眼棒頭痛者稀。煙浪青山愁夜月，花含玉露泣朝暉。如君撒手安閒去，誰肯拖雲伴翠微？

復社友

微微月色窺窗寒，漸入虛堂炤膽肝，格外知音能有幾，個中消息若為彈？橫眠一榻清風起，壁立千尋玉露團，杖策不妨崖險處，孤標挺出再來看。

和潔道人韻

碧落雲穿月徑斜，分明逗漏野僧家。忘機頂上歸巢鳴，宴坐巖前散落花。美玉無勞塗彩飾，真金終不混泥沙。自從所盡青山後，長臥孤峰懶結跏。

其二

單提柳栗祖風高，動地驚天祇一毫。赤骨條條橫海宇，丹心片片奉塵勞。嶺南春暖嚴新令，塞北秋清擁舊袍。撥轉上頭關捩子，通身手眼也難逃。

巖中偶成

芒鞋踏破腳尖新，獨占人間第一貧，有法求時非得力，無錐卓處卻相親。懸崖石怪空流翠，峭壁松幽不惹塵。堪嘆茫茫煙浪裏，活埋多少丈夫真。

贈恒、默二兄進關

一聲哮吼震千山，兩個泥牛鬥入關，跛鱉盲龜傍努目，人天龍象正開顏。不萌枝上聯芳秀，無影堂中竟日閒。氣息盡時消息盡，不堪攀處卻堪攀。

次士禮林居士

卓立千峰別洞天，剪雲綴衲度殘年，猿，修野供丹崖上鳥獻名花古樹前。玉女攢眉賣俊俏，石徒點首弄機權。悠悠行到山窮處，一念回光萬法全。

佛誕日贈居士林恬生

突出蓮胎亙古今，曇花門外雨沉沉，洗清曩劫娘生垢，獨露渾身紫磨金。炤世眼睛奔電掣，撩天鼻孔吼雷音，堪憐稚子隨高下，潦倒傍觀忍不禁。

執中林居士求偈薦室

大道本無男女相，歸根豈有去來身？紅爐菡萏因該果，鐵樹菩提果具因。半偈未宣超法界，一言聊舉等冤親。了知這個真消息，便是蓮花國裏人。

似月樵林居士

大道洪荒莫可量，如何一葦漾江傍？山雲搖曳招僧隱，天籟怒號罵客狂。三塔魂銷愁砥柱，雙池水涸待金湯。知君不負青山約，把手共行人帝鄉。

輓曇域耆舊

我拖泥水汝歸真，錯落曇花滿眼塵，萬壑號呼皆失色，諸天垂淚更愁人。玉融緇素捧金骨，黃檗溪山淨法身，踏盡寒煙芳草路，腳跟打濕自相親。

輓中台林緣首

娑婆業識正茫茫，若個如君衛法王，德掛空門聲愈重，名垂濁世骨還香。卻堪洗耳南軒踞，何事翻身北斗藏？不見台星臨澗石，青山墜淚暗淒涼。

化齋糧

瞎驢成隊氣昂藏，踢踏雲深古道場，草料打翻唇嘴燥，芒繩拽脫鼻頭涼。素懷擊節待明月，赤膽挑燈叩大方。磕著遼天沒量漢，驀然踴躍自傾倉。

月樵林居士求薦母

化母垂機事事章，世緣酬盡各分張，莫愁堂北菱花冷，且喜庭前桂子香。恩愛斷時情始遍，根塵落處體全彰。淨持半偈助哀已，一道靈明徹上方。

除夜示眾

老來懶得向人前，獨對齋頭一線天，不宰白牛分晚歲，聊吟拙偈慰高賢。山童放炮驚山鬼，祖裔舒光耀祖先。半榻煙霞隨分足，了無塵夢隔殘年。

丙戌年回山作

一別寒巖閱兩春，五湖佳景眼中塵。佛恩奚啻丘山重，世事渾無半點真。雪鬢難忘親敕賜，青山豈味舊時人？故園松竹依然在，待得余歸翠又新。

遊龍峰示碧居禪人

道人居處碧崔嵬，環遶山山錦繡堆，巖畔有誰懸日月？樹頭無舌卷風雷。閒尋白鹿洞天隱，笑指梅花萬戶開，不獨杖藜具隻眼，

昔賢曾向此中來。

暮春禱雨

春殘花柳悴村村，杲日魂銷暗淚痕。八萬塵勞渾世界，滿空烈燄逼乾坤。生靈注想風雷令，草木仰沾雨露恩。老矣無聊默啟告，可回天意即傾盆。

答江居士

百年寓世若鷗浮，逐隊隨群一夢遊，須悟樂邦超覺岸，勿沉苦海浪虛舟。山晴吞吐半輪月，劍怒縱橫萬國秋。福業茫茫彌宇宙，幾人拔萃出峰頭。

輓守心禪人

人生福業浪悠悠，肯放身心古岸頭，憶子不還頻下淚，思君久假愈添愁。徒勞黃檗聯燈炤，孤負澄潭片月勾，聞道而今自點首，歸來正值九天秋。

寄懷禪友

一入滄溟起碧波，衝開巨浪震山河。半空霹靂搏雲去，萬里扶遙帶雨過。想有金鉤難作釣，愧無玉網可為羅。這回不戀蒼龍窟，冷落長江一曲歌。

贈別蒼霞法弟省觀 本師

助揚師道始稱賢，愧我無能敢近前。一杖薰風推法駕，半瓢英氣壓華筵。初心喜得同時用，不意當仁獨占先。老倒活埋青嶂裏，爭如挑月炤吳天。

陳無菴居士入山求薦母孝節莊孺人偈

舉念入山叩法王，慈容夢喜獨全彰。密移英氣歸名剎，靜起貞風到上方。雪裏孤標偏帶月，峰頭峻峭愈增光。佛心孝節原同本，千古圓明不可忘。

修造四眾塔

磧山一片閒田地，四眾同皈正覺場。究竟已生根本大，喻親以道孝源長。細觀個裏真為貴，拶入其中骨也香，無縫稜稜千古震，人天圍繞豈尋常？

示青山道人

不假修持清淨身者回拈起愈天真來來去去無差路，死死生生沒兩人。白刃豈能挨鐵骨？青山終不惹紅塵，等閒跌坐離情調，突出杖頭萬劫春。

薦葉子暄居士(值入山禮千佛懺)

知君行履絕纖塵，遊戲凡間念六春。千葉花開千佛現，一靈機發一天真。浮漚影裏寧為貴？夢幻場中奚足珍？撒手晏然歸去也，瓊樓仙子共相親。

壽乾菴陳居士六十

共入蟠桃會上遊，瑤池仙子正添籌，梅爭雪月迎初度，松引煙霞慶大週。耳順圓通諸色相，心融萬古一春秋。道人不昧同根旨，舌卷長江祝未休。

贈允寧陳居士放生會

堪憐飛躍不惺惺，業累到來許暫停，迷受刀砧還口腹，悟沖頭角起江城。家從善積門風舊，國以仁昭世道平，放得一條生活路，娑婆後代廣人行。

樹下宿

寄跡濃陰裏蕭然若故居輕煙，籠古樸淡月炤寒軀。知恥愧無得安，身樂有餘忙忙塵世內幾個臥林墟。

元旦

元旦風光霽，凝眸景物新，咸資和氣力，共樂本天真。雲散千林曉，花飛一片春，忙忙王化裏，盡是個中人。

掃祝髮師塔

滄桑易變，更人命，豈長保愧我歸何遲？嗟師去太早晚山愁，白雲朝露泣芳草不睹師音容，聊將空塔掃。

詠筍

曝烈無明地，尖新刺殺人，生來無蓋覆，出處不沾塵。氣宇沖霄漢，丰姿壓四鄰，徘徊明月下，愈看愈精神。

巖中自敘

山瘦骨稜層，跏趺一老僧，眉堆三尺雪，身護萬年藤。風月謾留戀，陰晴豈愛憎？胸流毫髮鑑，遠泝自南能。

關團瓢小徑

赤手破天荒，別開一徑長，步高行磊落，心放語顛狂。石瘦蒼苔滑，巖虛異草香，隔林啼鳥處，句句斷人腸。

化千舫銅鐘

黃檗鑄洪鐘，虛懸釋梵宮，千鈞樂信施，萬古醒迷蒙。器大奚愁晚？韻高誰與同？娑婆真教體，盡在此聲中。

位中林居士求薦母

吁嗟元化母，胡乃離群機，堪作生靈主，不為物所移。來時無朕兆，去亦若奚之？一段真風在，令人大可思。

化齋糧

頑徒三五百，乾爆一條腸，開口吞餘國，虛心斂大方。問禪都不會，噉飽過時光，可有同風者，吹來到福唐。

又

磔山老瞎駒，多產跛群驢，鼻孔遼雲漢，尾巴橫四衢，平田嫩萎草，雜踏盡無餘。試問諸賢者：如何活得渠？

溫陵弘靜秦居士乞偈壽親

洛陽靜佛子，乞偈壽尊親，足下三枝秀，眉端兩道春，大功清宇宙，至道樂天真，忘卻重勳事，是名自在人。

仲春訪羅山互信法弟

為覓同風事，更高亦可親。抬眸千嶂翠，移步兩眉春。偶拾自家寶，忽逢格外人。德豐淡且美，道樸素而真。最喜山多骨，兼懷水有鱗。剎那探實際，萬古作通津。

別羅山法弟

偶欲辭巖谷山山起，白雲繞圍情太密鬣鬣意何熅？攜手忘歸，思諭懷動遠聞，閣浮雖一氣，知我莫非君。

懷羅山法弟

弟兄千里外，注想目悠悠，法愛如山重，道情若水週。夢中頻作夢，愁上更添愁，南北互相憶，恐驚盡白頭。

示爾退林居士

巖前何處客？攜杖扣禪關，出沒煙波裏，行藏宇宙間。二毛光映雪，一座儼如山。借問西來意，春溪水正潺。

丙戌孟冬苦雨有感

十月苦霖雨，行人盡帶愁，埜花淚失色，胡馬正風流。何日開雲漢？幾時現斗牛？號天回正令，血氣自知羞。

示滋石禪人

心移滋石轉念別隔雲泥蛙鼓催鉞鉢薰風起杖藜。使禪奚所往之子？若為栖就路還家，句泠冷水一谿。

題遼天居

為訪舊交石，頻來覺路玄，半瓢懸峭壁，一榻寄遼天。脫洒風煙外，逍遙帝象先，不知誰夢醒，得到此山巔。

過石門寺

石門無鎖鑰，早晚倩雲封。客到迷幽徑，僧歸覺梵鐘。長歌消白日，一嘯點青峰。可有知音者，共談格外宗。

寓西石巖

人幽山氣淑，樹密鳥多吟。瘦骨撐天地，貧眸徹古今。機投雲水合，道契聖賢臨。苟不扣西石，焉知有此音？

人日喜晴應君迪林居士齋

人日天開霽，攜筇扣大方。和風生意氣，杲日發心光。道重文章，國名揚。詩禮鄉片雲臨谷，外傳茗正流芳。

詠瓶梅

素懷依丈室，冷艷逼窗綃。忽吐先春信，又逢片月招。烈風堅傲骨，英氣迴孤標。留得寒芳在，冰壺豈寂寥。

示五雲侍者

五雲明示者，為法不辭艱。早晚承言重，順違對色難。攜瓶之浙水，扶杖轉閩關。末後無私句，迢迢自去還。

海口鎮作水陸普度

眾生惑業重，劍戟惟相侵。四大既分散，三途各自沉。諦觀迷子苦，普度本來心。仁者苟相與，共成功德林。

又

余見三災苦，輒興悲愍心。攪河為酥酪，變地作黃金。普濟飢虛者，共登解脫林。一彈三昧曲，若個不知音。

輓栖霞耆舊

一片雲歸去，山愁露骨風，愧無神妙力，可挽舊時翁。月落潭心冷，燈收世眼矇，茫茫海不渡，忍坐白蓮中。

寄妙法化主

大哉真妙法，一念萬斯年，已就黃金相，須成功德田。靈苗元有種，般若豈無緣？果滿歸來日，檠山又儼然。

玄樞玉樞宋居士乞偈壽親

不讀萬卷書，焉知言不朽？壽親乞伽陀，言壽同悠久。兼體大悲心，生靈俱點首，善哉長者風，今古亦希有。

詠橋梅

傲骨耐霜久，靈根托石間，半舒含夜月，微笑點空山。冷淡誰為侶？孤貞孰與班？恩蒙橋畔水，日夜詠潺潺。

中秋夜詠

閒雲乍斂盡，滿目一輪秋。有塵代天語，無帷遮面羞。寒心懸碧漢，素影落清幽。乘得圓機轉，風光處處周。

壁蘭

一片淨如練，何緣間淡濃？幽花開夢筆，秀葉發英鋒。不借乾坤力，肯沾脂粉容。黃由親手眼，未必繼其宗。

回獅巖遼天居

獨坐遼天上，風雲足下屯，胸開萬岫供，目斂百花村。有譜篆巖穴，無書縣國門，棒頭直指處，若個不知恩。

題上田院西閣

偶上西來，閣盤桓頃，刻間相看一片月，談笑四時山，心靜塵無寄，眼空色自還遨遊仙境內，惟有此禪關。

示越宗禪人

直指西來意，分明無別宗，鳥語添長舌，花飛減瘦容。逍遙幻化裏，脫灑隙光中。觸著毫端旨，縱橫路路通。

次李居士韻

密啟西來意，拈花惟笑迎。廣彈格外事，共證法無生。水到看龍躍，林成聽鳳鳴。坡公儼然在，一帶抱幽情。

示徽州學菴程居士

學菴程居士乞偈壯道祉愧無元字，腳胡敢污君紙？再四卻未能，愈求而不已。打開娘生肚，拈出鳥可指。願君自揣摩，反求道在邇。君雖未出家，亦不在家裏。遍探老古錐，有甚毛骨髓？小心嘗翼翼，大道直如矢。今欲歸去來，去來奚所止？竹杖起秋風，芒鞋生兩耳。踏斷水流聲，我卻不如你。

示長樂念佛優婆夷

主持教外宗，對機如掣電，向來懶說心，豈可開方便？為你不當機，偶然通一線。佛成自己佛，念亦非他念。步步同佛行，情迷而弗見。返炤覺花開，花開自佛現。六門放毫光，光交空王殿。七寶樹成行，黃金地一片。極樂古如來，當人直下薦。我演妙伽陀，如金剛寶劍，永護修道人，千秋無改變。

示尊九、陳居士

善哉淨信士！結屋勝精藍，一榻空諸有，森羅海印含。水雲喜借宿，車馬樂停驂，座對龍峰秀，路通湖嶺南，狂心歇自肯，大道悟來探。隱几惟尊九，連枝當添三，訂余燈市景，赴汝歲華曇。不二門開也。文殊默笑談。

示蠹餘禪人

既蠢而有餘，誰解求吾書？解求不謂蠢，名實兩奚居？吾書離色相，兼復一賢愚，觸處皆全彰，不觸自如如。湛然猶止水，含物若空虛，動則風雷吼，獨立撐其廬。問著驀頭棒，惡覺淨消除。豁開正法眼，倒騎跛瞎驢。毫端現塵刹，雜踏天馬駒。假名終無益，真蠢豈負余？

示道原菴主

念佛者是誰？不念亦是誰，細看有無念，明明兩不虧。愚人不肯信，所作與心違，甘墮愛欲網，雖活亦奚為？一旦眼光落，未免閻羅槌，智者猛提此，如劍常自揮。返炤無一物，無物正堪歸，蓮花香馥馥，金殿等巍巍。是名真佛子，處處放光輝。

示良範禪人

學道無他術，貴乎志定一，一定萬慮空，所履皆真實。閒忙動靜間，個事何曾失？智者不狐疑，通人無固必。轉究轉幽深，愈追愈綿密，驀地豁然開，如燈破暗室。了了自分明，豈肯向外質？生死等空花，參尋事已畢。

示鷺門林居士

鷺門林居士，遠乞余開示，余演三昧門，難塞君兩耳。君雖一片誠，莫若求諸己。返追求的人，念念從何起。起處不可得，求亦奚所止？霜花入鬢邊，煦日和心裏。冷暖只自知，問人決可爾。爾心忽悄然，我法亦如是，心法俱圓融，無別亦無二。踏遍恒河沙，不離自家底。以此而奉持，乃吾真妙旨。

良智禪人乞偈薦親，師乃其宗支似難，卻筆因敘數言。

智者動孝思，乞言薦父母，愧無筆舌長，敢弄班門斧。願君自返求，念念無雲阻，豁然智眼開，東軒日正午。徹見本來人，俱超諸佛祖，何況己爺娘，而不得其所？三千界一如，舉足皆淨土。水鳥演摩訶，雲林談空苦。我說智伽陀，淨光互萬古。

無上侍者乞偈壽母

大哉造化母，養育利群機。雨露及其節，風雷發以時，成功而不宰，澤物頗相宜。出萃超諸象，乾坤不爾欺。洪恩無答處，乞法壽頤期。一喜七旬德，一懼兩鬢絲。割愛學佛道，胡為動所思。榮生滋大本，嚴閣慎初基。徹悟根本者，是名無上兒。

輓夔友龔居士

人生夢幻中，百歲若長夕，一念失回光，茫茫奚所適？大哉古聖師，垂語醒迷客。吾道一貫之，千古為標格。余雖無所聞，別傳有妙策。援入不二門，同處遼天宅。一榻空諸有，六窗俱吐白。心靜月孤圓，眼青宇宙碧。知命喜幽居，節身善養齋。共樂幾春秋，頗稱為莫逆。無端起業風，世緣廝逼迫。君返玉融城，余歸古黃檗。形影兩相弔，其心胡間隔。大隱混市廛，小隱憩泉石，而汝忽歸真，令人長哽噎。不幸生不辰，獨立有何益？願君亟再來，勿忘獅巖跡。

示燦宇吳居士

燦宇吳居士，乞偈潤心田，本來無一字，胡為有長篇？但願心光燦，法法已周圓。心光燦一身，一身體胖然。心光燦一家，一家福綿綿。心光燦一國，一國悉皆賢。心光燦宇宙，宇宙盡堯天。名實苟相稱，龐公可並肩。

壽能監寺六句

茫茫宇宙間，誰識形山寶？能者志於斯，身心淨盡掃。纔登耳順年，積行等蓬島，日耀白玲瓏，雲籠翠愈好。香風長紫芝，甘露潤靈草。舉世好新奇，獨余贊古道。胸中無俗物，滿眼是嘉藻。莊嚴素法身，惟茲可長保。

遊光巖寺

一片芬芳地，群峰密護遮，元為長者榻，返作法王家。況復有耆宿，眉堆白雪花，素飲菩提水，頻斟趙老茶。助道林間鳥，活機草裏蛇，客問西來意，巖光映彩霞。

示憐初柯居士

此世俱成幻，返觀念念香，有身皆有苦，無受即無殃。兒女花前影，夫妻暗內傷。本來非老少，究竟誰興亡？識得個中旨，真兒遍十方。

佛師萬象先乞偈薦母

生佛出象，先生佛入象先何必外求，薦外求弗值錢，恒沙諸佛母，分明在汝邊。一念回光炤，俱登九品蓮。會得同根旨，子母正團圓。

訥夫程居士請題父行略

濁世尚虛名，誰能踐實道？虛名一旦灰，寧免閻羅考？實踐常湛然，千秋明杲杲，不惟燭四鄰，誠乃護身寶。我讀程氏傳，虛名淨盡掃。動輒合古今，愈讀聲愈好。事佛無間然，訓子有嘉藻。懿行布閭閻，德風彌海島。大哉程氏心，胡不預聞早。虛空有盡時，此心長可保。

宿盤谷

招隱尋山水，論交近石松，石松堅且秀，山水淡而濃。況復有幽谷，不鑿自玲瓏，靜坐一剎那，千古動微風。灰頭巖穴士，若個繼其蹤。得意在拳石，何必問高峰。

示性溫庵主

天真自性佛，不假其雕琢。法法已完成，頭頭俱卓朔。行藏宇宙間，圓明無拘束。如珠之在盤，如玉之在璞。能現一切物，如何塵所縛？貴在密提撕，妙乎嘗自覺。溫溫如是珍，靈彩映山岳。

寂仁禪人求偈壽乃師常清六句

天得一清，地得一厚，物得一全，人得一壽，乞偈祝師，永垂不朽。孝格于天，誰不點首？惟清自潔，惟嘗自守，孤朗碧空，仁繼其後。德壘萬石，光超三有。耳順心通，廣博悠久，忍俊不禁，聊擊其缶。

古鏡禪人乞偈壽乃師未雕五句

古鏡重光，圓炤無餘，未雕之德，本自如如。乞吾字腳，以壽其師，至璞匪玷，詎可剖諸？半百風光既已去，不來共上白牛車。

贈大悲院主復初

大悲千手眼，願力護僧伽，拈草建弘剎，聚金成佛爺。水雲樂借宿，龍象喜交加，竹瘦尚高節，松陰多歲華。德馨仙子國，道契野人家。日用隨豐儉，時間自結跏。功圓行滿處，佛果位還他。偶值秋光好，山山現彩霞。六旬幸得遇，一別又天涯。雖然千里外，嘗憶此杯茶。君豈無懸想，相扶上寶車。

挽林文若居士

一室無何有，胸開只見山，怕聞名利鬧，喜共水雲閒。法護十餘載，德馨滿世間，逢斯溷亂劫，不忍在塵寰。撒手長歸去，萬夫莫可扳。頓超寂滅樂，嶽面改愁顏。想到舊遊處，淒淒空自還。羨公多桂裔，何必淚潸潸？

壽海山常熙耆舊七旬

惟仁以為壽，其壽焉可考？惟道以為心，其心明杲杲。惟德以為言，其言遍海島。今有古稀人，全備斯三寶。炯炯炤人間，人問誠罕討。惟我聊知君，所以傾懷抱。行也若閒雲，去來無不可。住也尚孤峰，點塵飛不到。坐也若盤松，蒼蒼永長保。臥也如石牛，不犯東西草。以此壽德人，頓超於彭老。反覆搜枯腸，難盡描其好。喜有溪長舌，贖音更嘉藻。吾願常如斯，虛空首點早。

詩偈

金粟辭老和尚歸閩

水底有天藏世界，潭中無物映山河。金鱗破浪翻身去，敢借風雷意若何？

客堂自警

幾度經霜鬢已斑，千金難鑄，舊時顏。于今放下娘生面，八極風來總不攀。

和儕字韻

柳栗橫擔是我儕，逢人活捉一坑埋，中途刺破娘生腳，脫卻陳年破草鞋。

寄某禪師

麥池水漲亂啼蛙，半掩柴門憶作家，纔得同風一口信，吹來千里問毘耶。

南行募化

試將冷眼向南看，世道紛紛化道難。三十年來無取舍，相逢盡是鐵心肝。
草鞋踏破已多年，半似風流半似顛，滿地黃金渾不顧，又拈白紙告青天。

贈芝山樵雲公

白雲縹緲水潺潺，樵古風高得自閒。借問老來端的意，又提玉斧斫芝山。

宿南坑

養純白牯恣南坑，不犯東西草一莖。蹄角分明今已露，春疇水漲任縱橫。

秋懷

眉毛挂劍起秋風，葉落人間處處同，惟有客情多冷淡，幾番動足白雲中。

其二

山堂風冷夕陽斜，翻憶當年幾作家，金粟峰頭拋錦繡，于今不挂一莖紗。

回山見法席寂寞有感

法堂寂寞草萋萋，凍鳥悲風徹夜啼，潦倒兒孫不得力，橫挑拄杖入峰西。

其二

槩山蒼翠疊層層，難掩孤貧一個僧，堪笑化工又未瞥，春來秋去太忙生。

壽圓初耆舊

杖藜撥動春風起，紅白花飛千萬里，返炤初心一點圓，人間天上壽無比。

住獅子庵

結個茅菴石竹西，天棒月走雲霓。猶憐路半未歸客，拂拂春風浪馬蹄。

贈天童禪師化木

散木橫斜滿路頭，久無匠作不勝愁，經今喜得班門斧，堪起天童百尺樓。

其二

千水千山得得來，化門權設為誰開？福城也有奇男子，若個堪雕作棟材。

偶成

坐斷孤峰點滴無，金針綿密費工夫。放開一線春風起，個個山頭啼鷓鴣。

又

孤峰頂上吟風月，十字街頭帶水泥，兩處都來三十棒，大家休得討便宜。

巖中除夕示徒

黃檗今宵烹白牛，分皮分骨鬧啾啾。古錐閣壁成何用？撲滅燈花打睡休。

其二

層巖疊雪浪梅花，冷落門風佛祖家，年去年來渾不管，條條徹骨作生涯。

其三

寒巖除夕冷颼颼，莫謂爺貧累汝愁，得意梅花三五點，清香瘦骨傲王侯。

巖梅

清幽異種迴諸方，為護重巖屢傲霜，不獨點塵飛不到，卻能險處露鋒芒。

溪梅

稜稜瘦骨薄煙籠，儘日溪頭賣曉風，偏向雪中開隻眼，冷看荊棘鬥英雄。

藏閣梅

素枝突出映青山，一望僧郎咫尺間，偶吐清香吞殿閣，嬌羞猶恐動龍顏。

次鴛湖師韻

寒光出匣普天知，爍破峰前句險巖，不入紅爐親煨過，那能斷得眾生疑？

其二

無聊竟日把鬚捫兀兀如癡踞小軒，抓著當年舊痛處，分明千古一條痕。

偶成

霜風撲面冷啾啾，凍殺闍黎卻自繇。枯骨風生彌法界，普天冰結一毫頭。

示徒

瘦骨傍巖老愈剛，寒毛卓豎徹諸方，是吾種草知豐儉，杓柄無勞較短長。

寄諸禪德

棒頭未點迅風馳，正法流通在此時。寄語諸方賢衲者，腳跟速薦莫教遲。

其二

一道靈符破兩關，丹心片片不相瞞，大家翻轉來時面，荊棘林中輓一團。

重陽同諸禪人登寶峰

九日逶迤鳥道玄，提攜諸子上峰巔，凝眸一覽乾坤廓，足下千山劇可憐。

送子春兄出家

沙場百戰不知休，輸與空山枕石頭。直指金鞭歸去也，碧池水湛一輪秋。

其二

破塵出俗自逍遙，格外生涯祇半瓢。莫謂秋清聲太切，枯枝再放又同條。

輓叔派初

十年試劍忽歸津，故國風光半是塵。不聽樓頭啼鳥語，東林又減一枝春。

遊無患溪

花正開兮鳥又啼，興來攜杖探清溪。紫雲洞口多仙子，卻笑山翁帶水泥。
黃檗十二峰

寶峰

無價奇珍疊滿山，流輝，千古濟人間，試拈曰棒當頭指，大地貧兒盡解顏。

屏嶂

屏巒羅列展家風，面面花開間白紅，卻有水雲多意氣，每來點綴翠微中。

紫薇

一支秀接紫薇宮，遍體文章積翠絨，尊貴繇來堪作主，千山朝拱碧雲籠。

獅子

殘雲斂盡露全身，氣宇昂昂孰敢親？獨踞威風千里外，未曾哮吼也驚人。

香爐

卓立渾成一柄長，千年冷燄豈尋嘗？無端落在渠儂手，撥著些兒遍界香。

佛座

天為寶蓋地為蓮，一座巍巍永不遷，日耀玲瓏金相好，靈山黃老尚依然。

羅漢

煙收嶽面貌嶮嶮，兀兀如癡百不能。木落秋清貧徹骨，陡然富貴彩雲凝。

鉢盂

碧岫雲囊半掩濃，儼然寶鉢托虛空，一聲霹靂轟天地，鉢底掀翻幾臥龍。

天柱

奇哉一脈露機先，刺破渾淪獨峭然，不為群巒爭秀氣，生成骨格要撐天。

五雲

那邊欲露真消息，個裏分明要舉揚。倏忽峰頭懸五彩，林巒澗壑盡生光。

報雨

傾湫倒嶽事尋嘗，何獨峰愁如夢鄉，一滴未曾沾大地，片雲拖出舌頭長。

吉祥

氤氳瑞氣結浮圖，一道祥光削處孤，特地山川俱顯煥，看來好事不如無。

羅山十四景

掛月峰

誰磨誰拭誰安排？突出雲囊絕點埃。莫謂老僧無面目，故將明鏡掛高臺。

象王嶠

巍巍大象踴羅山，願力弘深莫可攀。回顧落花紅片片，天垂瓔珞彩雲漫。

觀母林

自來大本得根深，奕葉扶疏太有陰，立地欲招天下母，等閒共入聖賢林。

梯雲橋

凌空駕險度天馬，劣崩煙鋪接狻猊，雪鬢老僧臨此際，儼然古佛上雲梯。

大螺池

螺因池育卒能成池，為得螺，卻有聲，聊借一吹山海震，大千何處不聞名？

雞籠山

羅籠今古無休歇，蓋覆生靈意倍親，禽鳥不來山寂寂，未知終日罩何人。

獅子峰

鐵額銅頭性質剛，繇來氣岸自昂藏，爪牙布露群狐絕，獨踞羅峰衛法王。

嬾雲阿

嬾雲竟日臥巖阿，未醒，滄桑變幾何？我欲問君借半榻，不知有意肯頭陀。

觀流亭

漠漠空亭煙雨迷，沒絃聲咽冷淒淒，源頭徹見無餘物，千古流名水一谿。

靈應潭

大開一口吞星月，倏爾風雲吐滿山。自那郡賢扣擊後，竟年德澤布人間。

五峰塔

浮圖菱角太多生，暴客頻過礙眼睛，一腳踢翻千萬里，唯餘片地坦然平。

龍泉井

曹溪一脈隱龍泉，今古探人不計宣，搆著源頭涓滴水，為霖為雨遍山川。

白雲洞

閒尋洞裏真消息，萬古長年沒曉昏，怪殺白雲迷谷口，幾多仙子入無門？

鳳巢林

羅岫峰高誰與齊？參天古木接雲霓。氤氳紫氣貫巢頂，不是鳳凰不敢栖。

清明寓羅山

嶺南春暖鷓鴣天，潦倒匡，徒謁祖先。時節到來休錯過，故隨王老掛金錢。

開元雙桂堂

雙桂堂前映晚霞，春風吸盡露香葩，些些氣味難藏掩，飄入溫陵百萬家。

答楊齊甫居士

大地都盧是戲場，神頭鬼面暗商量，腳跟線斷多浪籍，屈指幾人識臭香？

一念回光正覺場，阿誰於此審思量？根塵迴脫無多子，信手拈來滿院香。

示李道人超真

面皮，翻轉便超真切，莫頻頻舉似人，歷劫珍藏無價寶，等閒提掇露全身。

邑侯請禱雨以偈答之

抱病寒巖待晚年，賢侯何事驀勾牽？頭陀非是人間物，移向人間不值錢。

化齋僧田

五百頭陀不會禪，饑來喫飯倦來眠，偶開兩片無他事，祇要諸人種福田。

營金粟大和尚壽塔

含冤未雪久成胎，活捉空王特地理，不是渠儂誇好手，都緣幫惡劈頭來。

示弘靜秦居士

本無一法與人參何事？區區強指南空手而來空手去。前三三，又後三三。

壽中台林檀越七秩

生成俠骨截稜稜，七十年來履漢冰。今日華堂歌醉罷，又揮劍氣逼寒僧。

九、牧堂前戲彩班，祇林間氣現，鼇山黃金布地，無何有留得聲名滿世間？

因事似縣主凌公

颯颯江風徹夜呼，捫心靡愧是良圖。寒潭皎月空撈攏，到底分明一物無。
祖庭秋晚命懸絲，千載黃河清片時，摸著瞿曇真面目，急須護惜莫遲疑。
猖狂燥辣掣風顛，陡散空花落滿天水月光中撈得住，稱來可值半文錢。
護藏僧徒困役迷，龍樓蕭索野狐啼，檀那若負瞿曇囑，何處青山不可棲？

又似外護諸居士

一江風冷一林霜，猿鶴移家深處藏。雪鬢老僧無定力，每依危閣喊郎當。
萬里迢迢降玉音，每開黃卷細沉吟。吾儕曳曳隨情轉，千古何人簡帝心？
元明唐宋幾千秋，若個名賢不紀遊。玉管飛珠奔洞壑，淋漓感慨濺龍湫。
江風四起震龍樓，煙鎖青山一帶愁，幸遇諸公各出手，皇恩祖德一時酬。

暨中天師祖塔院

功成喜得念初堅，骨露孤峰獨峭然，忤逆兒孫親蓋覆，一輪杲日正中天。

示化米禪人

獅子峰頭脫體彰，口開天半吞諸方。個中更有奇特處，負米登山為舉揚。

為顯鏡寺懷雲禪人薦母

山堂寂寂為何為？白澤高懸孰敢窺？雪鬢老婆臨顯鏡，也須護惜兩莖眉。
一句當天百萬門，門門各顯大圓鏡。上人個裏悟端倪，不出山阿度母竟。

潛子龔居士求薦室

折散同林各自飛，虛玄大道不虧危，昨宵凍解枝頭淚，忽忽薰風向後隨。

示化茶禪人

禪餘睡起眼眯麻，笑倒叢林老作家，仔細思量無別法，醒人祇是一杯茶。

為茂昇禪人化圍頭

脫體堂堂露本真，一番蕩滌一番新，直饒個個眉毛濕，滿目相看徹骨人。

示募田禪人

輸田供給幾憨僧，一飽橫眠百不能，夢拽鼻端勾鎖脫，滿巖[跳-兆+孛]跳任騰騰。

送無念侍者住獅子巖

禪關無鎖亂雲堆，子去當門隻手推，面面銀山兼鐵壁，急須撞破出頭來。

訪雪菴勤舊

雪屋龐眉格外流，牽雲就榻思休休。而今不作三春夢，笑看諸峰亂點頭。
我愛深居探上流，深居憐我不歸休。偶來小憩南軒下，隱隱峰巒競出頭。

未一石居士求薦子

子歸就父父無知，正是功圓果滿時，識得無知知去處，大千沙界是吾兒。

送無念之楚

護念祖庭幾幾秋，豁開眼目楚雲流。杖藜未舉已先到，麟角鳳毛一并收。

踏斷洞庭煙水瀾，皇風一轉便歸期，若耽萬頃瀟湘樂，恐那青山啼子規。

示眾

大事未明謾打鬪，立身不正腳跟虛，無嘗腦後頻催請，試問何人替得渠？

薦應陸石居士

昧已偷生生猶死，朝聞夕死死還生。踏翻生死兩條路，劍樹刀山一坦平。

示蓮胎張居士

蓮胎佛子沒時宜，逼得山僧口似碑。無字可揮心惡發，驀頭一擲血淋漓。

示解天禪人

丈夫個個是男兒，唯子無能且牧卑，聊得一莖生草喫，溪南溪北得便宜。

次二水張先生

既曰勞生於此世，丈夫豈可自偷安？滄江水濁魚龍溷，獨坐石磯把釣竿。

示香公鄭太澍

儘日拈香是阿誰？一爐香罷更思追。半邊鼻孔如穿破，直下分明沒欠虧。

翻藏經

四十九年打葛藤，看來真個可憐生，今朝出手同翻卻，始信共途不共行。

閱天童判語

挑燈細，閱天童，判忤逆聞，雷不膽寒。潦倒為憐三尺子，竟年筆舌未曾乾。

燈夜

燈華燈市人人賞，春水春山若個憐，沒興老僧歸洞壑，匡徒挑剔己心田。

示非日侍者

看破福城光侍者，追予蹤跡十餘秋，今朝始信無尋處，大似蚊蟲錐鐵牛。

子穀蔡居士請住金粟，師為殿事所繫不能應請。有僧勸駕，諸方仰慕，姑應一期，聊慰眾念。師不踐其言，遂占二偈答之。

一滴腥臊落五湖，鱗龍蝦蟹競懼呼，莫教搗破巨鰲鼻，吸盡滄溟徹底無。
成群踢踏滿娑婆，驀鼻將來意氣多，貴耳聞風千里外，撩鉤搭索奈他何。

化羅漢

十八高人竟日閒，神通遊戲百千般，攔腮把住黃金縷，結果收因方寸間。

戒點燈

家裏無油莫點燈，偷光真個可憐生，山翁自有安貧策，教子徐徐摸壁行。

為友石居士普度

纔萌一念鬼神知，何況心心普度時，圓得夢中真佛事，見聞誰不發菩提？

即事有懷

黃檗繇來徹骨貧，了無一法累諸人，任從亂統如麻粟，更不重添眼裏塵。

次無價趙居士醉歸吟

黃檗棒頭云：底事，曹山酒價若為沽？苟明佛法無多子，捉敗渡江五葉蘆。
孤峰坐斷遶玄徒，澗底潛流徹夜呼，掃卻堂前淨地月，謾將卮酒案頭鋪。

般若臺

般若離言豈可名？無勞斤斧坦然平。偶來臺上欲宣說，恐動諸山不敢聲。

別西山耆舊

來時微雨布人間，去後威風壯老顏，凍骨路途多浪籍，暗催枝信到西山。

示良然禪人

塵勞迴脫了無家，信步縱橫渾不差，踏斷中途得力句，一溪流水詠梅花。

祈雨

我司法道汝司龍，澤物資生心緒同，春盡物枯民欲死，如何高臥水晶宮？

示迴提禪人

迴提鼻孔自遼天，何必孜孜拾我涎。會得獅兒返擲句，攔腮把住一粗拳。

為薦九昌乃母林氏

本來一著迷千古，幻寄百年夢五更，特地翻身歸去也，回看塵世可憐生。

因事似外護乾庵陳公

占盡青山用盡機，青山斷送幾男兒。一言鼎重垂千古，十二峰頭又展眉。
九重紫氣降煙霞，豈料荆榛兩岸遮？破衲欲隨雲水去，皇恩一點寄誰家？
十二峰巒拱帝命，百千龍象祝君恩，可憐漉漉村江口，竟日興波撼海門。
凡間物理亂如麻，濁世幾能驗正邪？大抵人情難恰好，消歸自己較些些。

示僧智印

可憐老大不知羞，出語糲糊僭上流。病人膏肓無藥治，茫茫空走萬山頭。

示良矣禪人省母

春風卷衲撼閩天，憶母恩深孰共憐？喜有杖藜知此意，相扶歸去不加鞭。

贈鴈湖葉居士任廉州太守(諱益蓀)

玉融金馬躍南天，庾嶺春回大地妍，滿目風光花爛熳，可吹一片到巖前。

贈總戎徐居士(諱永泰)

萬品名花向日新，馬蹄在處起香塵，請君試把吹毛炤，出將入禪有幾人？

除夕示眾

逗到年窮一物無，大家相對嘴盧都，山前山後如雷吼，動地驚天不負吾。

示牧牛禪者

都盧嘴鼻一頭牛，自喫，自眠自放收。月白風清水草足，不辜塵世好春秋。

示清流爾兼禪人

半幅家山憶未休，那堪辭我上清流？若能踏斷來時路，萬壑煙霞一步收。

示妙乘陳道人

大事未明毛骨寒，那堪終日黑漫漫。苟能覷破形山寶，動轉施為珠走盤。

贈萬石山常清禪人

萬石稜層疊半空，不須穿鑿自玲瓏，幾多雲水閒之遶，錯過山前一梵宮。

贈貴吾鄭居士

一葉微茫泛海天，乘風拍浪接初禪，羨君心地嘗平穩，放去收來獨悄然。

眠牛山

骨格天然也太奇，誰人敢觸石牛機？橫身一臥三千劫，地覆天翻總不知。

偶還故里

無端特地要還鄉，不怕人言自主張，舊路弗行荒草塞，本源嘗探水流長。

志宏林居士乞壽乃尊五旬

半百已前是爾爺，更餘半百還僧家，世出世間全俱美，又添尊佛在恒沙。

復史仙四絕

一機未動是何旨，竟日茫茫勿等閒，個裏不分泥水路，謾傳消息到人間。

凡夫識浪大如山，誰諳機先一道閒？百尺瓊樓猶不住，肯將墨跡玷人間。

坐斷乾坤第一機，威音那畔孰高低？香飄花落蝶飛去，試問木人知不知。

通身手眼露全機任是神仙也皺眉口未開時三十棒，百千里外絕狐疑。

說法臺

百尺瓊臺湧翠微，孤光閃爍古今希，莫非為說三生夢，卓立千山聽指揮。

貴品峰

避名全節隱峰巔。自古珍書稱上賢百尺巖頭君獨步生成品，格也天然。

寓如是菴

如是人來如是菴，不知庵裏若為參。寥寥四壁淨如洗，獨對松梅共笑談。

過連江淨雲菴

探盡江山獨曉分，江山盡處許誰聞？懸崖嶮句謾提掇，一鑿孤風起淨雲。

祈雨

心苗枯槁叩靈山，感應道交豈等閒？構著龍泉一滴水，傾湫倒嶽剎那間。

示恒春王醫士

瞿曇曾為大醫王，一藏五千惡毒方，末後單傳雖妙決，當人無病不須嘗。

示亨吾張居士

回天消息寄南枝，徹骨風騷若個知，觸破娘生雙鼻孔，大亨吾道在臨時。

示良範禪人省親

以道慰親親自知，心花初放在蓮池，愛情盡處道情現，滿眼毫光斷不疑。

示心谷林居士

大隱塵中驗作家，盤桓雲水是生涯，道心一點空如谷，萬類懽呼應不差。

隱元禪師語錄卷第十四

隱元禪師語錄卷第十五

詩偈

福巖寺化齋糧

破寺寥寥一物無，驢兒踢踏屎腸枯，驀頭磕著知音者，出手相將盡力扶。

殘臘賦白雲歸

偶離寒巖一歲餘，閒房盡付白雲居。寄言珍重銜花鳥，莫動床頭古篆書。

其二

白雲候我不歸山，朝暮窗前影復還。我慰白雲今且去，明年春半接衰顏。

其三

我是巖中一老僧，入廛疏曠卻難能，閒雲扶我同歸去，古路雖高亦可登。

其四

柳栗橫擔歸去來，冷雲深處好生理，聊擎一鉢千山供，舌卷蓮花頂上開。

聞山中有事似外護諸居士

一杖橫挑在處閒，如何獨戀舊青山？不愁雲水無依怙，恐那煙波沒聖顏。

舟中偶成

獨泛輕舟接上流，機峰相觸滿灘頭。一溪碧映春三月，浸殺虛空得自繇。

掃塔哭天童老和尚

摸著瘡痕恨祖翁，恨教徹骨動悲風，這場冤屈向誰說？淚洒青山片片紅。

過小白嶺遇兇逆有感

掃塔旋歸小嶺巔，群兇猖獗撼青天，渾身割截無遺恨，太白雲侵最可憐。

雞冠花

出萃簪纓，報早秋，雄雄卓立，戰風頭一團英氣天然別泣露虫疑顫未休。

中秋寓西林禪院

銀河皎潔映秋深，玉露香飄寄此心，不昧當年行腳處，霜輪又轉向西林。

示賣油僧(冒稱得法)

裨販天童稱上流，面皮厚也不知羞，福城如許英靈漢，肯聽油僧賣嘴頭。

時僧誇文章為勝義故示之

可憐一等雕虫僧模，寫虛空夢，未曾流俗，不明正法，眼之乎也者，當宗乘。

折江梅

瘦影橫江春事奇，鱗龍如許戀香枝，陌頭盡是仙陀客，折得孤標寄向誰？

掃瑞天祖塔

稽首瑞天燦祖塋，兒孫踢踏滿榕城。今朝不尚重拈舉，杲日昭回萬古明。

壽道山印天耆舊

讚道山兮罵道山，舌頭無骨自忙閒，眉毛剔起三千劫，惟見道山不改顏。

覺予禪人乞偈重興顯鏡寺

素聞聖跡在湄洲，老倒頭陀欲避休。顯鏡重光含萬象，善人有願共來修。

示達禪人

本色衲僧鐵脊梁，巍然一座獨全彰，三千剎海毫端現，遍界氤氳優鉢香。

示南山禪德

幾回打草自忙閒，惹得霜花入鬢斑。踏遍乾坤無覓處，誰知鰲鼻在南山？

化香燈田

慧燈炤徹塵沙界，福報莊嚴億萬生，寄語閻浮諸善信，可來佛地種光明。

修普同塔

翠竹林間無縫塔，百千舍利現其中，大悲同體雖非別，殊勝莊嚴在爾躬。

募香燈田

山前一片閒田地，幾欲思歸舊主人。聊借玉毫光出現，滿堂佛日又重新。

示以乾楊居士回潮

杖頭殺活剪春風，兩岸花驚半斂紅。莫遣落英隨水去，恐教浪濺動蛇龍。

又

腳跟在處是家鄉，何事區區獨自忙？空手而來空手去，幸無半點污君腸。

隔牆梅

渾身鐵骨迴牢關，如許偷心空自還，霜露恩深難盡味，聊伸幾點播塵寰。

示超塵善人

日用騰騰沒點塵，不須穿鑿也天真。現成活計如相委，便是蓮花國裏人。

示王性德優婆夷

世事漚華奚足憑？百年如夢總非真，祖師門下無多語，祇要回光炤本人。

龍江修水陸普度夜懷五首

誰迷方寸混天經，百萬華居一斬平，故國英賢何處去，唯餘孤月炤空城。

其二

曉得眼來春復秋，海門浪吼更添愁。兩城人物今何在？一片悲風起鬪艘。

其三

眾生未徹本來源，業識茫茫永夜昏，一自惡風輕捲後，撞頭磕額出無門。

其四

劈面一刀酬債畢，皮囊脫落寄誰家？愧無道力資君福，聊借金風剪業花。

其五

頭陀磊落出煙霞，各展神通豈有涯？不涉人間幻夢事，單提佛子盡歸家。

為雪臺曾居士薦母

赤體條條歸去來，了無一物惹塵埃，到頭真個婆心切，又放光明
炤雪臺。

中天祖開光偶占

憶想恩深向上關，抬眸忽見紫雲還，千秋隱隱青峰裏，一點光明
炤世間。

禪人送黃菊戲占三絕

卻子多年影亦灰，何緣今日有花開？金文浪籍閒房裏，擬是陶公
遠寄來。

其二

幽骨偏為霜月期，淡情初放使君知，不圖紅粉沾名譽，祇恐人間
錯此時。

其三

肅肅天威妒艷芳，群英落節暗淒涼，羨君隱隱東籬下，聊寫清幽
對法王。

戊子中元夜夢遊龍潭，有道者進謁，謂和尚能詩，此潭獨
無，何也？余頷之，乃占一絕授之而去。醒來囑侍者錄以紀夢
遊之勝。

峭壁何勞動素琴，空巖無耳孰知音？不來以踐蒼龍信，恐負寒潭
一片心。

復位中居士

素飲談言可解紛亂離師友那堪聞？空巖喜得無餘物，一塵清風洗
白雲。

次十龍鄭居士韻

采隱深山日上遲，夢雲何事困男兒？含羞不忍看塵世，引壁偷光
炤兩眉。

募萬安福善堂中天始祖香燈

水有源兮山有宗，溯源返本見全功。人人卓立中天下，誰不挑燈
炤祖翁？

示汀洲妙融禪人

闍黎好個沒來繇，要我閒言遮面羞，自有春風生足下，飄然一葦
上汀洲。

送無得首座住萬安

雲孕澄潭幾曉昏，養成頭角始驚群。掀翻白浪三千尺，噴出驪珠
炤海門。

送良冶西堂住旗山

忽然一擊破三關，信步崢嶸氣象閒，掣得勝旗峰頂豎，龍蛇影裏
走千山。

送也懶西堂住高峰

自入林中孰共班？完全毛羽拍空還，一飛直上高峰頂，五彩文明
炤世間。

示連江縣維祥張居士

三月連江春正肥，半舒柳眼笑黃鸝，喚回如許未歸客，腳底風光
映四維。

示聯壁丘居士

善人卻有大因緣，自種靈苗般若田，喜得高峰甘露洒，開花結子
正當年。

寄示良者禪人化糧

西江吸盡沒生涯，口閣虛空待晚霞，豈料山山竟日雨，眉毛打濕
眼添花。

其二

單提一鉢過千家，平等心求豈有涯？莫謂爹貧累子苦，通身淨潔混泥沙。

其三

遍尋無物塞饑瘡，個個盧都對法王，可有神通來獻供，免教破篋束枯腸。

示碓房行者

腳跟有據休勞讓，碓嘴生花勿計功。一踏須教直到底，不孤墜石祖家風。

示化園頭僧

生佛原無半點塵，祇因不覺惹通身，這回滌盡無明垢，又見本來清淨人。

示化禪帳僧

及第心空卻悄然，那知蚊子外錐針，生成徹骨無遮護，任爾全功布幔天。

次無價趙居士遊石門韻

愛客長年不掩關，石床寂寞待雲還，寒心一片澄潭月，徹底分明炤萬山。

其二

潦倒年來懶戲毬，無言竟日思休休。相知一滴曹溪水，買茗無錢罵趙州。

其三

荷佛擔儒宇宙中，半舒肝膽對晴空，密移寸步驚山鬼，撼醒雲頭一鑿翁。

示良守禪人禁步

放下身心萬事休，不移寸步遍皇洲。人情佛法從教爛，剩得虛空印鐵牛。

募漆大殿柱

渾身是膽，要撐天皮外揩磨，任大賢一旦豁然，光宇內分明不愧法王前。

示古木禪人

古木巖前一兀禪，謾將聖箭攪三玄。恐教錯入名言裏，笑破虛空口半邊。

示化紙禪人

玄沙慣用三張紙，黃檗頻添億萬言，法眼分明遍大地，請君收拾在雲牋。

示行童性派

老倒無，聊自放憨雷轟電掣當司南山童會得機前句，緊捎芒鞋上竹庵。

別士荃林居士

雲懶寒巖送客遲，怪聞萬籟占先機。慙慙細嚼峰頭月，早向鰲江候紫微。

送玄生西堂

竟日敲推一字，無者回相見。又盧都雖然個事離情，謂翻轉舌來解罵吾。

山居閒詠

幾莖白髮玷青山，一念回機萬境閒。坐久那知天地老，行雲流水不相關。

示雪立禪人

檨岫雲堆古到今。迷蒙影裏自沉吟，遲留天界半輪月，水炤寒潭一片心。

格外風光世莫論，五雲深處獨稱尊，杖頭卓出遼天水，洗盡青山萬點痕。

寄懷姚居士

閒坐巖房彈古今，局開南戶冀知音，青山突兀應流水，流水還曾炤此心。
滿目風光總是塵，幾能個裏返留神？源頭一點明如鏡，何事茫茫混海濱？

道中吟

狂吟數里野人家，杖撥秋風入路賒，四句伽陀誦未已，行行不覺到龍華。

仰天巖

萬石林中獅子子，仰天長嘯一聲孤，眼空不辨龍蛇影，那管人間有與無？

龍華寺

古剎巍巍迴碧空，竟年搖曳白雲中，不知若個風顛漢，能續前朝蓋代功。

又

莫謂僧閒到處遊，杖藜興發滿林秋。娑婆原是祖田地，直撞橫眠得自繇。

文榕

歷盡風霜不改顏，千秋蒼翠蔭人間。雖然老大非材用，曾占鰲頭第一班。

南林寺

信宿南林誰與齊？林成果有鳳來棲，道人亦愛秋山好，到處風光一杖藜。

登金剛頂

金剛頂上結跏時，瘦骨稜稜徹四維，定久不知誰是我，憑風吹動兩莖眉。

贈若石禪人住山

住山一鑿舊生涯，荷月鋤雲帶晚霞，翻去覆來能恰好，何妨撒手在懸崖。

遊九鯉湖二首

澗灩湖光映碧天，千山撼影動珠聯。閒移竹杖深機語，逗漏雷轟句占先。

又

遊罷名潭夢醒時，言歸猶恨翼飛遲，無勞喜雨紛紛送，恐濕老僧兩道眉。

贈天壺巖朗玄山主

磨歷風霜幾劫春，一番徹骨一番新，偶來挑出壺中月，惟炤巖頭舊主人。

留題南山

鳳宿蒼梧氣象閒，金仙現處別人間，到來始見家風舊，獨占閩南第一山。

贈獅岩慧門首座

僧風紊亂祖庭衰，何事藏牙萬石堆？趁出峰頭獅子子，遼天哮吼一聲雷。

贈斂石木菴首座

渾淪祖道不勝哀，推出撐天拄地來。雲斂也知山有骨，石頭迸裂頂門開。

贈後堂心盤公

白雲影裏路崔嵬，步步風高獨往回。接得檠山拄杖子，險崖敲出句如雷。

贈廣超堂主

祖師心印，人人具也。要經天緯地才撐拄石門須鐵漢，虛空撲碎眼弘開。

示太鏡禪人

念念圓明淨似鏡，了無一物滯真性，上人返炤於其中，直下超凡而入聖。

嘆鳳山也懶首座

悶來窗底嘆離騷，眾角何殊鳳一毛？不忍唾餘混細壑，通身手眼出洪濤。

示龍峰巖正可禪人

求法闍黎沒曉分，誰知孟浪不成文？莫教惹著無明發，打破龍峰幾甕雲。

贈明祥褚居士

劬勞恩大最難酬，一股剗來孝道週。不獨慈風彌宇宙，縱教千古振徽猷。

小溪十詠

老來偶得天休兀兀，百無所求，此去石門不遠，笑看一帶狂流。適意直下便休，豈更區區外求？倘來黃金百鎰，爭如一枕溪流？怖頭狂走無休，狂歇夫復奚求？巖靜鳥啼花落天空，雲散水流。不是世間濁漢，亦非格外名流。寓目好山好水，任他呼馬呼牛。數寶終非己，益，算沙徒自勞求。偶憩小溪一夢，頓忘五百春秋。

濃淡扶疏蓋頂潺湲，濯足清流無垢淨光，發現併吞萬億神州。
選石溪邊坐臥招雲嶺上，優游物外一團景，況誠難訴與高流。
蠅利無勞，競取蝸名。奚足貪求，巢父聞聲？洗耳淵明，一賦歸休。

幽鳥喚予出洞，懶雲移我歸休。一念機忘物化，聲光萬古同流。
曩是東林俗子，今為黃檗比丘，名相既無定準，不如盡付東流。

燈夜

處處空懸，明月家家。門掛燈毬，暗地千思，百想豁然，一見便休。

化鐘樓

尋個格外，知音共振，禪林禮樂，忽然嘉聲，遠揚妙在，高掛一著。

示良矣禪人求刻語錄

正眼瞎驢滅卻，旁觀何處尋蹤？自覺夢中說夢，任君褒貶流通。

示尼日照

苟能直下心灰，坐斷生死去來冷地一聲爆響，千門萬戶齊開。

山房十詠

木落山容冷淡江清瘦影橫斜，幾葉漁舟到岸一天，明月蘆花。
浮世百年一夢，皮囊脫寄，誰家喚醒茫茫業識進前，且喫杯茶。
剎那放下，無事久煉，身心罔然，捉月狂猿，澗底吞霞，狡兔雲邊。

老來百事無知兀坐竟年似癡山鬼，尋嘗作怪抬遊南北東西。
年深霜露果熟，春到柳花自妍，白牯眼睛脫落，狸奴鼻孔撩天。
買山羞澀，無錢退步。高於進前，錯腳踏翻，泥水團圓，蓋覆青天。
渾淪白石，含玉輕薄，紅英逐流，年少妖嬌，賣俏老來，無處藏羞。

一葦東西，南北半瓢，四海五湖，踏破乾坤，幾片歸來，仍舊廬都。

慧命等于碧落，法身充滿閻浮，聊借須彌一榻，豁開日月雙眸。
威音王佛非先樓至如來，不後一槌擊殺三千，免使將來漏逗。

龍峰六詠似裏劉諸居士

修逕妙于進步，植松久已成陰，山谷陡然富貴，日來滿地篩金。
三寶巖前晏坐千峰，列供其前，有求未免，業累無事，即是神仙。

既知伯業如夢，胡不深山活埋？巖靜閒雲借榻窗開明月自來。
佛祖聖賢骨格，繇來不與人同。六載埋頭雪嶺，九秋冷坐龍峰。
迷即尋枝摘葉，悟來直截根元。睡起清茶一盞，何須問酒花村？
足下煙波萬頃，峰頭杲日麗天，何必清流洗耳，是非不到巖前。

小溪又詠

僧居山水之中，不知山水之樂，與流俗何異乎？嘗憶戊子夏，與座元學公避暑於寺之西澗，其澄清可以鑑鬚眉，而陰翳可以涼肺腑，選石十餘枚，坐臥其間，傳茗留題，概世之樂，莫若此日。予雖不敏，已占十絕，以紀人境嘉會之勝，聊答溪聲長舌之韻也。是夏同諸禪客，復遊斯處。然此時高岸深谷，無不變換，幸此山川，仍然如故，莫非神物呵護，不沒嘉會之勝。予實忍俊不禁，仍占十詠，與夫靈籟泉音，並傳於世。盡知予之肝膽，無一刻忘斯山水也歟！是為序。

一枕倦雲，幾片夢回。鳥噪山堂，攜杖尋流。洗耳溪陰，肝膽俱涼。

水淨眉鬚可鑑，心空身世皆忘。坐臥一溪環繞，不知幾變滄桑。
偶爾尋幽，適意追參，雲水茫茫，猿鳥也知。樂趣銜花，各獻溪傍。

處靜，爭如養德避名，不若韜光盡道，溪山可隱，誰知天下無藏？

去年此際游詠，今日重新舉揚山色人情，仍舊自然吹水成章。
搆著源頭一滴，始知正脈流長。黃檗尋嘗苦口，舌翻，四海汪洋。

量大自然，納垢德全，必也包荒雲倦，愛予癖懶天號豈責吟狂？
送客一溪流水接人，幾片閒雲去住，無拘無束，何妨分而不分？

苟不親師，擇友焉知？目擊道存，一種平懷，無寄炎涼，何處躲跟？

洞口呵雲作跡，峰頭捧月成痕，不若橫眠一榻，任他地黑天昏。

贈允超陳居士

清話可消，舊業涼茶，聊解炎情，一塵風流，五馬半勾，月轉雙旌。

普惠寺

明月到窗，可愛疏鐘；入耳堪聽，貪看龍華。普惠西方，夢亦難成。

香潭八詠

偶借維摩片榻，始知一味潭香。翠竹迎風起舞，野花冷笑僧狂。小閣風高，格外蓮池。水淺魚藏，覲面祖山。點首源流，一帶溪光。

秋色留人爽快，秋風吹我還鄉。野老家居何處？杖藜太殺倉忙？一杖撐持法界，半瓢聊掛書房僊邑，好山好水，收拾一袋囊藏。秋月秋花，可愛秋風。秋水成章，仙訣還丹。九轉佛書，一卷清涼。

留別愧無妙句，贈題想有佳章人情、佛法周備，杯茶遍界生香。一葦曾隨水轉，老僧也逐雲忙，喜看潭香仙苑，儼然佛國金湯。夢與仙人，有約澄潭，正好流觴，神契臨時。可踐道交，千古難忘。

題龜山四首

若了無了可了，神龜再現禎祥，自有遼天漢子，直來一擔承當。昨日天壺，寄錫今朝，杯渡龜洋，靈氣宛然，猶在四山，包裹神藏。

翠屏羅列，千古綠樹，雲過幾行，突出空中。樓閣奇觀，永劫難忘。

非佛非僊，非道如癡，如夢如狂，到處一條，白棒翻人，百副心腸。

金粟偶成

密雲埋古寺疏，雨灑孤松刺破紗，窗眼南來一線風。

訪鄰虛禪友

赤手叩鄰虛依稀月有餘歸來翻，舊案浪籍滿床書。

示非日侍者

一點光非日，區區瞥未曾。剎那不返炤，辜負碧巖僧。

重興大殿

跨海非嘗木，撐天必大材，東君如有意，吹入我門來。

示福泉我登柯居士

來時無一物，去時空索索，築著老僧拳，有無俱是錯。

化豆

黑豆未生芽，珍藏長者家，若然拈得出，彈破老僧牙。

秋夜

葉落山容淡，天空劍氣浮，闐然無所謂移月上高樓。

遊龍鳳寺

滿園多柱石，盡是宋賢豪，苟不探龍窟，焉知有鳳毛？

遊鳳凰寺

昔日已來儀，今鳴天下知。祖山如有色，看取鳳凰兒。

開放生池

開池為月宮，兼復放魚龍，異日生頭角，方成長者功。

化階級

為憐亂走漢，權化作階梯，接著上頭路，大家離水泥。

登師巖

短髮歸來白，青山間一塵誰知巖下客，元是昔時人。

詠梅

素性天然潔，臨霜志愈貞，破顏微冷笑，十里淨無塵。

警醉客

丈夫時獨醒，豈肯昧天真？不飲江村酒，焉知醉夢人？
其二

骨瘦披殘月，心狂服素真，玉融如許闊，若個是全人。
其三

斫盡千山竹，難描性地真，試問江心月，還曾炤本人。
其四

談空身世渺弄假卻成真怪殺趙州老杯茶，能醉人。
其五

道幻元非幻，云真豈是真？寒山一片月，處處解愁人。
其六

迷即頭頭錯悟來法法真無端烹，大冶擬鑄一狂人。

化齋糧

識法能尊法，知賢必養賢，飯個無心者，是名真福田。

遊福廬示彬廷薛居士

怪石逢奇手，靈山待至人，不因勤拂拭，那得此天真？

示燦我施居士

一室虛生白，六門盡放光，勿迷此片地，在處法中王。

示省言禪人

正法奚容語，無求即省言，城山一片月，印破未生前。

示允武翁居士

稜層幾片石，卓立瑟江邊，水擊如雷吼，龍魚不敢前。

示靜宇林居士

念念非他念，心心不昧渠，豁然天地靜，獨露一區區。

示與頭建宸周居士

嶼頭清信士，為法到巖隈，愧我無言說，推雲放月來。

示十夫陳居士

聖賢真命脈，佛祖鐵心肝，覷破非他物，任君到處彈。

示隆聰陳居士

聽法法塵礙，返聞聞，性聰惺惺，無一物受，用在其中。

示玉樞宋居士

茶林山上月，惟炤宋時人，得到三秋後，風光分外新。

示性剛楊道人

父母未生時，本非男女相，但能如是持，與佛無兩樣。

遊海山三十六湖

富貴千山石，文章十里湖，移筇扣水國，震動老龍都。

馬峰院

直入馬峰院，為尋天馬駒，六門俱撞破，處處得逢渠。

江郎石

奇哉三片石，亙古撐天地，一喝白雲開，巍然壯客志。

題畫鵲

獨立花枝上為誰口放開懸崖幽竹影疑，是故人來。

詠茶

醒迷須雀舌，試茗貴龍泉。個個開心眼，趙州話始圓。

示未徹禪者

口蘊寒巖石，眉堆秀閣塵，其如未徹漢，疑殺幾多人。
其二

虛空何太窄？芥子若為寬，者段陽春曲，請君試一彈。
其三

不聞空外響，那有此天真？錯入桃源裏，如何更問津？

詠雞冠花

英氣擎雲漢，戎威震綠蘿，聞風俱偃草，何必動干戈。

示連江諸居士

老大口生澀問：禪一字無薰風來，殿角吹得屎腸枯。
其二

借問連江裏，蓮花開也無，時時甘露洒，勿令葉焦枯。
其三

榴花檻外紅，盡是眼中血，蕩子不歸家，愁腸向誰說？
其四

五月過連江香風來幾行花嬌蓮子現得意在滄浪。
其五

老景無何用，轉經眼倍花，鄰房多意氣，日日贈杯茶。
其六

君是誰家子，來探百丈禪，當機覲面疾，何用更加鞭？

次無價趙居士韻

一枕無為床，屈伸常自在，無端鼾似雷，毒龍翻皮袋。
其二

有德反無德，知非卻不非，寒巖貧徹骨，雲贈半肩衣。
其三

四大非我身，三界非吾處，拾得一文錢，憨憨入酒肆。

示幼峰何居士

出醜千般石，藏身十里松，老來忘管帶，處處落行蹤。

參禪偈五首

參禪無時節，以悟期為徹，生死百千翻，一刀便見血。參禪超生死，驀直當陽去，勘破本來人，渾身生鐵鑄。參禪不得力，病在死偏執，癩馬繫枯椿，驢年得草喫。參禪貴直截，切忌邪師惑，一字入胸中，千生救不得。參禪有莽鹵，卻似紙糊虎，踞坐得人驚，一吹骨便露。

示自敏禪人之大灣

子去大灣裏，莫言我會禪，銅頭與鐵額，若個不天然。

移榻鐘樓次韻

推窗招伴，月移榻就吟松咳唾寒潭震龍翻動曉鐘。
其二

半句落天峰，文章百里松，偷閒輸世界，贏得一聲鐘。
其三

高坐對雄峰，狂吟萬壑松，不平多少事，融在此聲鐘。

募鋪路

世路崎嶇久，行人愁念長，一心平大道，千古為津梁。

觀音堂

掛錫痕猶在重來舊處。尋卻酬大士願不負十年心。

李園

李園相借問，十里是龍華，苟不暫留息，焉知道者家？

題孤山

偶到孤山上，淨無半點塵，檀心一片月，炤徹本來人。

化穀

能捨黃金粟，廣齋無量僧，蓮臺百寶座，福大者先登。

普惠寺

小園堪寓目，千里冀知音。杖撥秋風裏，幾人醒此心。

行住坐臥

山中行，步步截稜稜，踏著來時路，高低一坦平。
山中住，歷歷有可據，一念萬斯年腳跟生鐵鑄。
山中坐，突出眼眶大，天上及人間，原來祇這個。
山中臥，數片閒雲裏，因地雷轟天，千生大夢破。

拄杖子

無孔無竅，卓立孤標。登山涉水，處處逍遙。擗破瞎驢雙鼻孔，撐天拄地赤條條。

應黃檗請臨行示徒

本色住山，莫務外求。把柄在手，殺活自繇。片地不生閒草木，再三翻覆始知休。

本色住山，個個無學。渾渾沌沌，磊磊落落。智愚不肖本天真，
切忌方來亂穿鑿。

本色住山，壁立雲間，上無可仰，下無可攀。自肯懸崖撒手去，
頭頭湧出自家顏。

本色住山，元無雕琢，運水搬柴，隨緣飲啄。撞倒銀山鐵壁時，
半邊鋤子纔堪托。

慈聖菴尼傳貞乞偈為乃師覺源入塔(其師省中請佛回菴，合什
三拜，即歸寂。)

自覺本源無一物，頭頭流露天真佛，進前三拜便翻身，滿院清風
香款款。咄，如何慈聖不撐持？無縫塔中閒突屹？

憶獅巖

喝溪山棒雲月，峭峻峰頭得自悅。而今輓入稠林中，啞喫黃連向
誰說。

野干鳴，獅子吼，驚起須彌丁倒走，思量舊處實難忘，夜夜面南
看北斗。

詠梅

品格非凡類，素懷多意氣，凝寒鍊子貞，凍骨傲君志，吐露雪霜
中，藏身煙雨裏。(請續後語)

送止止禪人參方

行非行，止非止，截斷中途無所倚。丈夫意氣自軒昂，豈肯淹人
龕甕裏。

行便行，止便止，江南江北春風起，打破乾坤沒處尋，抬頭撞著
自家底。

他人行汝須止，衲僧隻眼疾如矢，眉間劍氣鑠鋒鋌，喝散白雲千
萬里。

香爐

圓陀陀兮萬古常寂，氣昂昂兮虛空逼塞。吞五嶽之名香，踏三教
之遺跡，動著一線，穿過驢鼻。

為寂朗禪人募戒衣

君子慎獨，沙門淨戒，一念受持，終身頂戴，入聖賢林，超生死海，成人之美，功德莫大。

示行祉行祥二道人

父母未生已前，非男非女等相勿舍，晝夜閒忙細看是甚模樣，忽然因地一聲，頓超人間天上。

示通證優婆夷

念佛者眾，識佛者鮮。苟能識佛，念念佛現，回光便見古彌陀，口吐蓮花千萬片，善女人薦不薦，西方併此土，不隔一條線。

化鹽

馬老師三十年浪籍不少，新黃檗波挈挈一味，無有若也淹殺，衝浪金鱗，敢借大家出手。

示覺隱禪人

行住坐臥，誰隱誰覺？隱耶覺耶？無適無莫。驀面霜風，寒毛卓朔。抬頭撞著自家底，始信六塵元不惡。

化齋

舊長老仍歸來，空張嘴又打開，江山吸盡無餘物，夢想人天競獻齋。

示化茶僧

禪和子口吧吧！夢寐裏要喫茶。驀頭撞著趙州老。把住當胸不放他不放。他且置，畢竟要個甚麼？

示化豆僧

顆顆如意，粒粒圓成，和盤托出，慶快生平。潦倒衲僧，自來莽鹵，要些黑豆，換人眼睛。

示化齋僧

渴飲五湖，饑吞群象。偶到龍泉口閣壁上，試問具眼檀那以何物供得者個和尚。

示化薯僧

舌卷西江水，筆耕無漏田，聊供諸釋子，一飽不知天。吾願常如此，人心不似前，感斯荒亂歲，筆舌復何言？蒼天蒼天，豈困余禪？鎮州大蘿蔔，可以接納玄侶；我邑紫玉薯，不可以奉獻金仙。

示白田鄭居士

父生母養，天覆地載，人道居中，孝節惟大，順逆無違，知恩有在，返炤片心酬二親，回機一念超三界。善人步步行吾言世出世間無窒礙。

示鑑先禪人

鑑得未生一念真，了無生死相追尋，自來佛祖原同調，個個心空投芥針。若覓老僧元字腳，恐教黑白業來侵。鑑禪者自沉吟，杖底風光好酌斟。

示心悟禪人

心悟烏用求，欲求心未悟。看破悟迷人，元來無兩個。直饒鐵脊梁，也須棒點過。自家腳底有新鮮，切忌販賣人滯貨。

示野麟上人

從人求者，不是家寶，胸中流出無價之珍。花開未盡春先老，若個堂前惜寸陰。

朗生禪人乞偈重修寒山室

佛祖導善，龍天相吉，果孰檀門？花開夢筆。拂拂薰風那畔來？
一齊吹入寒山室。

隱元禪師語錄卷第十六

讚

開山正幹禪師

含曹溪毒，入黃檗林，渾身是苦，遺累至今。煙幕幕雨，沉沉千古，何人解此心？

希運禪師

脫白斯地緣生福，唐機投百丈，舌露鋒芒，在在標名。黃檗也是，熟處難忘。杜撰接人六十棒，流傳惡辣遍諸方。

懶安禪師

識得牛兒，驀筍歸欄。不犯苗稼，真個懶安。突出閩城二十載，占人田地太無端。

鴻休禪師

不爽，宿債端坐青松頭。臨白刃，如斬春風。咦！七粒瑩然揮不破，至今洞壑猶玲瓏。

月輪禪師

踏破草鞋，不識和尚。師子嘖呻，猿猴伎倆。撈攏再三歸去來，月輪不在秋江上。

大休禪師

興隆家國，妙在休心。雲龍際會，輓芥投針。莖草不拈兮建剎已竟，一葉未落兮滿地黃金。

中天師祖

把茆廢址，屢受訶煎。六十有五，匍匐帝前。請經鎮剎，行業湛然。龍樓顯煥，卓立中天，全彰祖道，耀後光先。

天童密師翁

岸眉卓朔，雪鬢鬢鬆，單提榔栗，如虎若龍。截斷諸方，要道掀翻。黃檗家風，殃及兒孫。不了遍尋，到處無蹤。近日有人報道公然，坐在天童。

本師費和尚

舌起浪堆，眉挂鉗鎚，結佛祖讎，為生靈災。觸著喪身失命，擬之怒吼如雷。當年錯禮三拜，至今懊悔未灰。

接引彌陀(清亮禪人請)

接引眾生，護惜家寶，利己利人，無可不可。九有四生，如風偃草，一聲逗漏遍大千，更立個中要甚麼？

題迎薰薛居士小像

雲鶴戾天，鹿鳴其側，杲杲紅輪，蒼蒼古柏。卓立個中，了然自得。片石函經表素心，堪為濁世之標格。

題母龔氏真

立身行道，顯君親得力回機一念真，打破大千還故國是名出格報恩人。

自贊(潛子龔居士請)

踞坐獅子，眇視雲漢，百獸潛藏，是非冰泮。靡佛靡仙，奚毀奚贊？寒巖鑿破鼻撩天，迸出腥臊沒涯岸。

自贊(茶頭妙彰禪人請)

這漢生平性，好嗜茶，描彼供養，勾賊破家，漫燒柏子熏渠鼻，急剪松蘿煮瀑花，細看面目無相似，惟有趙州頗類他。

題無所耆舊

道無所道，學無所學。生死去來，孤雲野鶴。了無話柄落人間，一段清風動萬壑。

題鑑源落髮師真

堂堂佛國，幾落江村。餐風眠雪，乞候重綸。紫氣騰騰兮全彰至德，赤心片片兮徹見師恩。爛翻玉軸酬難盡，一滴曹溪洗淚痕。

達磨祖師(宗月禪人請)

者老古錐坐此奚為？魏梁不識胡漢，難窺末後無端云直指幾多，錯認兩莖眉。噫！流傳亂統如麻葦，屈辱先宗過在誰？

觀音(立像)

救世婆心切，居塵不染塵，返觀常自在，獨立待何人？

普賢

願大如山，行深如海，獨跨象王，自繇自在。分身剎塵，還菩薩債。藤條半節豎乾坤，一卷真經誰頂戴？

童子拜觀音

不是心，不是佛，巖頭獨坐是何物？小兒一見便傾身，老子胡為而不屈？咄！有智不在年高，無知安能作佛？

宮繡達磨

九年面壁，太殺無端，宮壺草野，莫不心寒。針頭挑出西來意，一任諸人冷眼看。

蓮池大師

西方美人，東土教主能淨能染。堪彼堪此，片念提持。九有一心，含裏十虛。誠苦海之津梁。乃濁世之明珠。且道是誰雲棲大師。

天童老和尚

半領袈裟蓋覆六座巨剎一條柳栗，殺活天上人間。眉卓朔舌潺湲，大明國裏若為班。三千龍象常圍繞，今古聞風俱破顏。

柴立法弟(怕一禪人請)

這漢磊磊苴苴，慣隨義虎，出入九年，把住牢關，一旦錯吞棘栗乘時，直上金峰撞倒老人丈室几案壓倒當行伎倆，從茲頓息飄然，柳栗橫擔，便向西蒼卓立。雖則與余同門分明，兩不相識，撒手打碎虛空，至今無人辨的要辨的，惟許宗支窺半鼻。咄！

月光禪德

俊哉阿師！惜乎不遇，棒頭未點，撒手歸去。彼此不識，奚毀奚譽？毀也譽也，虛空添註。月映錢塘。三十二秋。影落西湖，光歸何處？試問嫡骨兒孫，急須著一轉語。

景西禪友

這個阿師口苦心甜，韜光斂跡，有德無年，同余參禮，金粟撞破鼻孔半邊入塵，垂手落人之後，脫體翻身，占人之先。咦！忘卻十五春秋，一見面目儼然。

自讚

獨跨獅兒，坐斷兩岸，非自非他，奚毀奚贊？被人描著，不為好漢。咄！杖頭一段，風光點著，通身燦爛。

題鏡源師叔(請藏賜紫)

皎如日明，如鏡承天。恩奉帝命，輝煌千古。禪林百萬人天皈敬。愧余筆舌讚奚及，喜有清溪日夜詠。

普賢

這箇老漢，口苦心甜，獨跨大象，雜踏三千。行行不二，法法功圓。菩提樹下，福蔭人天。返觀日用事無別，剎剎塵塵見普賢。

達磨

迢迢幾萬里，不識對梁王，孤負西來意，折蘆暗渡江。若非逗漏安心法，爭得於今五葉香？

釋迦

彩霞影現，碧落成痕，脫空指。注重疊雲屯讚，奚加美毀亦無門。真空妙相眼中屑，祇把杖藜一併吞。

琪園唐居士乞題乃尊存憶居士行樂

蒼松之下，雲抱幽石。晏坐於中，悠然自適。瑞氣凌霄，芝蘭盈膝。斷無他伎，誰堪倫匹？玉軸未分兮三才鼎立，素絃弗彈兮風清八極。虛空有盡，仁壽奚敵？太湖三萬六千頃，浩浩狂瀾讚莫及。

題起龍游居士像(五雲侍者請)

這個書翁獨倚青松五十餘載，鈍置儒宗冷地抓著癢處，迥然不與人同，且喜腳跟雲五彩，臨行一拂起清風。

題覺一耆舊像

尋常覺得一，萬事俱已畢，獨踞小柴床，誰堪與倫匹？云是保福主人，驀被見室，謂非保福主人錯過面覩，若個於茲了然端的。咄！耳順心通祇自知，虛空註破又何必？

乙酉年菊月十有八日，龍峰碧居禪人乞偈壽乃師悟菴禪德，然余粗行沙門，不足大方之鑒，但莫逆於心相，忘於言外可也。偈曰。

貌蒼蒼，德洋洋，福兮壽兮莫可量。萬行莊嚴清淨身，人間天上盡欽仰。從心近耳順餘風，行草偃動吾廬塵。塵剎剎呈三昧，共演伽陀祝悟師。我亦分身在其中，一言千古定綱宗。揭露光嚴真實相，直與恒沙體俱同。

題龍峰三賢祠卷後(碧居禪人請)

巖巖師座，赫赫靈聰，半簾明月，一拂清風。回四海之狂瀾，斂千山之秀容。三寶內秘，寧居厥德；二賢外翼，不宰其功。應物如響，導民以中。溫溫郁郁，隱隱隆隆。打翻固必兮門門不二，坐斷涯岸兮法法圓通。誰是其人？劉氏朱翁。

密聲禪人求題乃師一兩像

者個阿師。有些倔僵，誰為師承？拈條拄杖，想在金粟。天童學得這個模樣，請余為讚，愈添不像。且喜預留末後句，茫茫一兩秋江上。

題士深翁居士行樂

仁智繇來樂水山，水山久矣待君閒，紅顏白髮人無數，誰肯清彈片石間？

自贊(玄生西堂請)

心明眼正，行端言格，為天下師，作萬世則隱隱隆隆，喧喧赫赫。值彼玄生，減其半德。順行逆行，人天莫測。毀耶贊耶？其儀不忒。圓明一座無私，千古儼然黃檗。

自贊(虛白西堂請)

這個僵漢有何伎倆？人來問著，一頓拄杖，令人負屈，無伸自彰，惡名莫量，描彼展掛，愈添醜狀，異日超宗漢子肯事者個模樣。咦！聊許虛心脫白者，舒卷人間與天上。

題龍華寺心月耆宿像贊

人間天上，如一夢宅，豁開夢眼，不被夢惑。弗出門庭，物豈能賊？推開戶牖，風清月白。了無一法累兒孫，祇守龍華待彌勒。

無依禪人求贊二、親圖

父天母地，生物不測，恩大難酬。懇予贊德，能返本源，孝道乃克，存耶亡耶？超證俱得。有子如斯，人天可則。金剛頂上足安身，萬壑千巖皆仰側。

題貞烈吳氏贊

苟生渾濁世，百歲亦如何，天鑄玉貞骨，千秋詎可磨？凡緣酬已畢，想必在天曹。一段冰魂歸去也，惟留正氣遍娑婆。

題潔公耆舊像

大德弗形，真行匪節，土面灰頭，六十三秋。撒手臨行，一段清潔。囊藏滿腹，珍珠至今。無人甄別要甄別，惟許親兒自打徹。

題碧居禪人乃堂小影

母在不遠遊，遊必有其方；婆有力量，子能扶法中王。法行孝亦至，雖遠亦何妨？大地一念中，而況在扶桑。孝名馳四海，婆道已全彰，誠為真佛母，不負僧中郎。

碧居禪人求贊母

坤德唯厚，載物無疆，節行益堅。履冰如常，獨占乾坤。正氣密藏，金玉餘光。七十年來，中孚至善。百千劫外，嘉音愈揚。可為生佛之母，堪作天女之王。大哉楊氏！濁世津梁。

自贊(首座慧門請)

者個老漢妄想達旦，奪饑食，驅耕牛，徒誇好手棒青天撈明月，虛粧好僕，誑談般若十五春秋，惹得百萬人天毀讚。狹路逢著，返擲獅兒，敢保此身無處藏攏。

又(首座木菴請)

者個老人看破幻化空身，拈條榔栗，直指本有天真。會萬物為自己，分自己為剎塵。臨事有主，知幾如神。是吾種草能珍重，一度抬眸一度新。

又(西堂即非請)

者個老朽本分不守，自像自讚，自不知醜，究竟胸中，一無所有，空餘兩莖，眉毛被人描著，不妨好手，一任展在萬仞峰頭，

日炙風吹，天長地久。

又(維那無依請)

這個阿師素好閒居，無端乘一獅子，被人擬作文殊。六十年來，無拘無束，百千劫外，自在自如。酷愛黃檗，果然熟處難忘；密契白雲，夢亦同其卷舒。把住獅兒漫哮吼，恐教驚裂老太虛。

又(後堂心盤請)

這個老賊不分皂白，入門一頓，拄杖佛來開口不得。若非前代德山，便是後身，黃檗會得，棒頭永劫而弗忘，可為千古法門之標格。

又(堂主廣超請)

滿日春風，一肚古庚，喝馬驅牛，少喜多爭。普天之下，那有這個村僧？虛堂展掛，真可憐生。唯有頂門一點妙處，信手摸著毫端，堪繼佛祖之真燈。咄！

又

這個尊叔，好松梅竹，一旦林成，有鳳來宿。靜悄悄兮亦不成，氣昂昂兮，威而不屈。六十年來，半似風顛。剎那變幻，難以名目。滿臉鋒芒逼殺人，忽起雲濤震山谷。

又(書記繼之請)

者個老子有何可據？呵風捧月，遊戲神通，喝馬驅牛，以為佛事。滿頭白雪，愈見風光。一點潭心，龍蛇會聚。塵尾橫拈更奚為？兀然坐斷主中主。

記

中天祖福善堂香燈碑記

蓋聞混沌既判，清濁肇分，三才鼎立，萬類森然。稟其清者，不昧乎源，復證圓明之性，則成賢成聖、成祖、成佛，直造未判之先，稟其濁者，溺情忘返，汨其本具之心，則為凡為愚，為貪為不肖，遂至于靡所不為。於戲！法育難酬，詎可忘本甘沉於萬有之中不自覺悟哉？余每懷先人苦心，不能繼述其事，而成厥志。近有萬安甫宇洪居士特造丈室，請為福善堂，立香燈碑記。余念祖之有功山門，而利及後世者溥，雖不能言，又烏得無二也？祖諱正圓，號中天，惠安陳氏子。幼失恃怙，稍長業於船生。嘉靖壬寅歲卒。萬曆庚戌夏，世壽六十有九，法臘七七之冬。性忠良，喜利物，重法輕，身見義，勇為素奉三官。一日，泛萬安海中，忽覺其業已非，乃有出世之志。先夜合城善信，咸夢海中浮物，恍如人狀。次早同到海隅，果符其夢。祖時正棄舟，投波中，捧經跏趺水上，善信駭

然。操舟得之，以為真人示現，迎回構堂以居，名曰福善。越數載，往省禮大庵為祝髮。師受庵，付囑，采隱黃檗廢址，已而山民侵凌祖塋忍力禦之。歷年既久，勢難抵支，因思名山祖庭，非龍藏莫克鎮，於是叩闕請經，年已耳順，星霜八載，歷苦萬狀，未遂其志，示疾而逝。師鑑源師叔鏡源繼之六載，命乃下差內監王公齋到山，相國葉文忠公為檀越主，藏閣法堂，煥然一新十有五載，侵凌潛蹤，山門肅靜，雖得洪護之力，抑亦吾祖冥勳之所致也。迨二師歸寂相國，登遐外，侮復熾，遂請天童密雲和尚主之，本師費和尚繼焉。余復接席，草創略，備甲申春，萬安善信接至福，善謁祖出身之處，仍請陞座，舉揚始末，與眾共知。祀祖位于堂右，為滿一城福善之弘願，誠人人知源報本之道也。余默有香燈之舉，而洪居士亦有續燄之萌，不謀而合。戊子季冬造，余乞偈為徵，即說偈曰：水有源兮山有宗，溯源返本見全功。人人卓立中天下，誰不挑燈炤祖翁？一時各捐貲財，同諸善信樂成其事。己丑冬復建中天堂于東首，以表吾祖始震之位，尊祖德也。所斂勝緣，置園十一畝于高墓等處，更餘五十五金。存黃檗買田，每歲給穀一千斤，永為香燈之需，儼然杲日獨耀，聯輝續燄，烜赫無窮矣。是為記。

報恩塔記

余母龔氏原，葬於家山祖園之中，偶有堪輿，謂此墳右肩犯文曲之病，恐不利二房長枝越。明年果如其言，始信風水之驗，而卜地葬親，詎可忽也？繇是懷愧不已，莫之能解。一日，諸耆舊入室，謂佛母地既不吉，宜乎遷葬奚慮其弗克然某等各有慈嚴，未歸於土，萬望和尚許可共附其傍，則歿存兩安，是某等之大幸也。余曰：善哉！遂斂衣資三十餘金，以充常住，乃同葬於熨斗山松庵之左，其塔曰報恩。時歲在辛巳季夏庚申日也，復置田七畝，在莫厝洋，以為遞年。春秋祭掃之需，聊申追薦報本之道外附一墳，係比丘尼海瀨優婆夷、隆菽等，捐金壘，成預圖百年藏真之計，以表諸上善人俱會一處。所謂天地同根，萬物一體，豈昧斯舉耶？偈曰：形生大本重丘山，未報劬勞暗淚漣。忽悟萬靈共一體，雙親頓證剎那間。

雜著

山志引

勢拔穹窿，屹然永固，形盤大地，覲體全真。是以奇巖幽谷，雲水居焉；廣穴巨川，龍象宅焉。乃至達觀上士，每於山色溪聲脫落見

聞，與林巒澗壑渾為一體，名實並稱，千古而不磨也。故集是編略，示壁山勝概，庶後之君子策杖尋源，履踐前轍，而不迷蹊徑者，則山靈默有所望矣。

寺引

毘耶丈室，一榻風光，舍衛講堂，四面通達。至于我土琳宮紺殿，表表可望者，皆因人而致之。匪徒構其虛席，間雖隆替，不一中興，每自有待焉。是以帝德旌崇，民心歸仰，寶殿龍樓，一時顯煥；祖庭僧舍，八字打開，慕道緇素，莫不繇斯門而入也。

僧引

傳云：人能弘道，非道弘人。誠哉是言也！凡主持家國，決擇草野，惟人為貴，而況擔荷佛祖，丕振宗風之人乎？茲山劈自正榦，炳於希運，聲徹九重，道揚四海，山以人重，人以山靈，互相並傳，而不磨其餘。弄泥團漢，磊磊苴苴，磊磊落落，總被老僧筆尖頭上，放大光明，爍破面門了也。

法引

一法若有，毘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若也救毘盧而不墮，全普賢以無失。可謂善說法者矣。然則別脫有無關捩掀開凡聖名言塵說，剎說熾然說。何待西天東土諸老古錐。拈槌豎拂。指東話西。搖唇鼓舌說青道黃。為祥為瑞。為殃為害。以為法式者哉。這裏還著得毘盧麼。請下個註腳。

齋單引

夢回眠底拈來，物我芻豢。翻轉舌頭爛嚼，虛空粉碎。究竟施無所，施施弗均歟？推窮受無能，受受莫大焉。物我同盤兮萬金易費，施受角立兮滴水難消。

又

突出超方眼，何妨百鳥銜花，放下鐵臉皮，一任天人奉供。所以人人鼻孔昂藏，個個嘴頭打濕，直至飽齣齣去，不辜檀信之恩，脫若肚皮脹穿飯錢一時酬畢。

又

滅卻正法眼，截斷老婆禪，元無一粒米，寧蓄半文錢。誰施誰受？孰貪孰慳？寬著肚皮，噉飽橫眠。若不與麼，蒼天！蒼天！

伽藍殿燈油引

本山伽藍，護殿之側，願力弘深，神功叵測。以此光明，少他不得，每月計油，三觔為則。破暗之道，貴乎明德。續燄聯燈，冥動日剋。

為龍鳳寺募緣引

長至前二日，獅巖夏居士請余遊龍鳳，遍覽勝概，多是宋室名賢之墨蹟，則前朝法道隆盛，寺宇壯麗，抑可知矣。今乃寥寥無聞，莫非吾徒，不能張其道以光祖庭，而破屋敗椽搖，拽雲中怪雨，淒風悲鳴，天外又何疑焉？茲有良智禪人，志圖恢復，乞余數言為徵，倘有鳳舞龍翔，一肩荷負，梵剎煥然，勝于前朝，亦未可知也。偈曰：宋室人何在？美名流至今。招提淹草莽，風雨尚悲吟。智者欲恢復，檀那即布金。因緣會遇時，千古一同心。

為資福寺募齋僧田引

資福去黃檗念餘里禪學道流，莫不於斯暫息瓢囊，而後直上檗山，則無望崖退席之懼矣。大似化城，權攝疲眾，抑令人人俱登於寶所也。茲有良守禪人，結茅多載感化，善信一時樂成精舍。蓋雲衲去來，紛紛者愈眾，而其家風靡靡，愈儉難炊，無米飯以給方來，願募無漏田，永供禪德，特造余室，乞偈取信。余雖不能言，又安得而無言也？偈曰：不是渠農愛嗇慳，本無一物待高賢。吾人若要途中飽，信手揮來資福田。

為岱山募齋僧田引

黃檗與岱山相去六百餘里，溪山雖隔，而道契猶面也。雲衲屢屢稱岱山主人，無諸城府，不立門戶，賢愚一致，賓主兩忘，廣納四來，大包荒穢，誠為人天之福田，堪作雲水之歸處。一日，持疏乞余說偈，警諸同志，共成勝事，以為永久齋僧無漏之良田。余思吾閩大心僧伽舍禪人者誰歟？乃歡喜踊躍，而為說偈：獨羨岱山好養賢，囊空豈肯讓人先？滿懷托出渾無物，撮土為金成福田。

戊子季夏望日，師與客會于拱橋，忽然天際流輝，五彩文明，謂客曰：此慶雲也。斯日嘉會，示現瑞氣之兆，另日必有禎祥之應。遂歌而志之，歌曰。

陰陽調和兮瑞物生，師資契會兮學業成。中外一如兮禪林振主，賓唱和兮大道行。慶雲爛熳兮，瑞氣之所鍾。佛日長懸兮吾皇之德明。

能得監院乞規文以警僧眾

教外別傳，肇自迦葉，禪門規制，始於百丈。故我土自唐及宋，以至于明，凡有禪林者，莫不遵而行之。然行之至者，禮義存名位，正法道尊，付囑弗妄，而禪林振矣。行之未至，規繩不備，師資混濫，不肖者操其權，賢者退其位，私念一萌，公事盡廢，以致中外不睦，禪林繇此而削弱也。苟忽而弗行，則無恥之徒，分房列戶，靡所不為。縱有百千共聚，如惡叉聚，成外道法，奚益於祖庭乎？蓋黃檗係列祖之席，先人不惜身命，叩闕請藏，為重此席，故感得天童金粟二老人闡揚大法，醒覺群迷，重光祖道，余愧不肖，住持八載，同諸衲子，恢復鼎建艱辛萬狀不知有身，不知有名，屢受無根之謗，亦為此法席故也。若夫正見衲僧，須擇正言行正事，不為邪魅所惑，則祖法存焉。祖法存，禪林興，祖法亡，禪林廢，所謂寧可無人，不可無法也。茲者？

聖制在邇本山耆舊同諸執事等，須擇吉日起期定執事以存聖制，一一依規而行。倘有違者，耆舊與執事公議擯罰，庶不愧同住一會，亦不辜先人創制之本懷也。乙酉年十月十一日，寓龍泉丈室書之。

臣農即事篇後序

余讀臣農即事篇，乃知百草頭邊泣露吟風，淋漓感慨，撼動天地，鬼神擊起，赤膽忠心，至於林巒草野，莫不咸皆號呼長太息者矣。於戲！有國有家，有禪林者，苟無這段骨氣者，付肝腸而能成立其事，又烏可得乎？然則臣農老翁並荷儒佛有年，今已邈于桑梓，每與村農野牧撫掌高歌，拍拍是令，而其語言磊落，逸性顛狂，有時喝馬驅牛，有時棒風呵月。言人之所未言，行人之所未行，知他凡耶？聖耶？儒耶？佛耶？耕耶釣耶？試問高明緇素，著一轉語。

重刻禪林寶訓序

此書盛行於江北，大著於吳中，而閩粵師僧十有八九，莫之見聞。欲其禪林之振，法道之隆，詎可得乎？予昔行腳金粟，時日之如獲，至寶懷之有年，雖不能力行，抑亦不敢須臾忽也。然是集始自明教老人終於懶菴大師於中三百篇，皆從諸老真心中流出，而其語言光明正大，直截簡切真，為萬世師法。然其會甚易而行之，誠難也貴乎！剪花取實，急救像季之流弊；摧邪扶正，恢復上古之真宗。澆漓之風既息，渾樸之道已全，而口耳傳流之弊，悖逆無根之說，曷繇而興？余每欲刊行與眾共之，所愧囊空，弗克其事。今玄生禪人，鳩諸同志，剞劂流通，大有補於閩粵，倘遇血氣衲僧，磕著一言半句將來蓋天蓋地，奚愁乎？禪林之不振，法道之不隆，非惟子之願已足，亦不辜從上諸老口門放大寶光，照耀天下禪林之本懷也。

癸巳仲秋弟子性宗募刻黃檗全錄一十七卷
板藏嘉興楞嚴經房流通

隱元禪師語錄卷第十六終

[CBETA 贊助資訊](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5 0 4 6 8 2 8 5

戶名：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請特別註明，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CBETA 引用其服務，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由於付款幣別為美元，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